

저자 조정준

국역 이정현

해제 이정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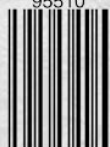
국역 及  
幼  
方  
上

비매품/무료

95510



9 788959 703951



ISBN 978-89-5970-395-1 (EPUB2)

978-89-5970-407-1 (MOBI)

978-89-5970-404-0 (PDF)

ISBN 978-89-5970-394-4 (세트)



한국한의학연구원

---

# Table of Contents

## 원문·국역

서문 及幼方序	1.1
자서(自序) 及幼方自序	1.2
범례 及幼方凡例	1.3
약명고 及幼方藥名考	1.4
급유방 권1 及幼方卷之一	1.5
동방육기론 東方六氣論	1.5.1
소아론 小兒論	1.5.2
해독법 解毒法	1.5.3
연생제일방 延生第一方	1.5.4
세욕법 洗浴法	1.5.5
젖을 먹이는 방법 乳哺法	1.5.6
보호법 保護法	1.5.7
자식을 키우는 10가지 법칙 養子十法	1.5.8
조호가 調護歌	1.5.9
상아수요가 相兒壽夭歌	1.5.10
관형찰색 觀形察色	1.5.11
소리를 알아듣는 방법 聽聲音法	1.5.12
액맥 額脈	1.5.13

---

호구삼관맥 虎口三關脈	1.5.14
소아맥법 小兒脈法	1.5.15
오장주병 五臟主病	1.5.16
오행의 자모 보사법 子母補瀉法	1.5.17
오장의 상승(相乘) 관계 五臟相乘	1.5.18
소아의 병기(病機) 小兒病機	1.5.19
급유방 권2 及幼方卷之二	1.6
갓난아이의 여러 가지 증상 初生雜症	1.6.1
찰구 撮口	1.6.2
금구 噤口	1.6.3
제풍 臍風	1.6.4
태경간풍 胎驚癇風	1.6.5
태경·야제 胎驚夜啼	1.6.6
급유방 권3 及幼方卷之三	1.7
변(變)과 증(蒸) 變蒸	1.7.1
단독 丹毒	1.7.2
태창 胎瘡	1.7.3
농이 膿耳	1.7.4
두과설 痘科說	1.7.5
급유방 권4 及幼方卷之四	1.8
경풍 諸驚	1.8.1
급경풍 急驚	1.8.2
만경풍 慢驚	1.8.3

만비풍 慢脾風	1.8.4
간질 癇疾	1.8.5
강치·유치 剛柔痊	1.8.6
천조풍 天弔	1.8.7
객오 客忤	1.8.8
내조 內釣	1.8.9
구흉 龜胸	1.8.10
구배 龜背	1.8.11
해로 解顱	1.8.12
오연·오경 五軟五硬	1.8.13
학슬풍 鶴膝	1.8.14
급유방 권5 及幼方卷之五	1.9
마진 麻疹	1.9.1
반진 및 은진 癍疹	1.9.2
급유방 권6 及幼方卷之六	1.10
제열 諸熱	1.10.1
안질 眼疾	1.10.2
제혈 諸血	1.10.3
구설창 口舌瘡	1.10.4
번조불매 煩躁不寐	1.10.5
번갈음수 煩渴飲水	1.10.6
체이 滯頤	1.10.7

---

# 해제·출판

해제	2.1
일러두기	2.2
출판사항	2.3

## 及幼方序 서문

昔者, 范希文自願爲良醫, 盖其心急於仁民愛物, 欲爲術以濟之, 故其言如此也. 然希文卒爲宰相而不爲醫, 其意豈不曰功澤之及人, 醫不如宰相也耶. 然希文當慶曆治平之時, 致位大臣, 而其功業之可言者, 不過杭州之賑、邠延之治數事而已, 未有良法美政, 可以濟生民於水火之中, 而爲惠於天下後世者. 然則其功澤之及人者, 視古所謂俞扁諸人, 反若有遜焉. 嗟乎, 希文不審於擇術而然耶, 抑希文在朝動爲危言所中, 不能盡爲其志之所欲爲者耶. 是未可知也.

예전에 범희문(范希文)은 좋은 의원이 되고자 했다고 하는데, 사람들을 아끼는 마음이 언제나 우선이며 의술로 그들을 구제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말했을 것이다. 그러나 범희문은 결국 재상이 되고 의원은 되지 않았으니 어찌 그의 생각이 '사람들에게 은택이 미치는 것은 의원이 재상보다 못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더라도 범희문은 경력연간(1041-1048)부터 치평연간(1064-1067)에 대신의 지위에 올랐으나 그의 공적 중 말할 만한 것은 불과 항주(杭州)의 진휼(賑恤)과 빈주(邠州)와 연주(延州)를 잘 다스렸다는 몇 가지 일 뿐, 훌륭한 법이나 좋은 정치로 백성을 도탄에서 건져 후대에 은택을 남긴 것은 없다. 그러므로 은택이 사람들에게 미친 것은 옛날의 유부와 편작 같은 이들에게도 도리어 미치지 못할 따름이다. 아, 범희문이 의술을 택하는 데 신중하지 못하여 그렇게 된 것인가? 아니면 범희문이 조정에 있으면서 사사건건 꼬투리를 잡혀 그가 하고자 하는 정책을 이루지 못하여 그런 것인가? 그것은 알 수 없다.

趙君廷俊老醫也, 其術精於治小兒病, 往往有神效, 所全活甚衆. 既老歎曰, 吾死孰能傳吾術者, 遂哀集古方, 附以平生所經驗者, 名之曰及幼方, 其詳在自序及凡例中, 傳之後世, 其活幼濟人之功, 庸可量哉. 傳曰, 仁人之利博哉, 趙君其仁人者乎. 趙君寒賤人也, 平生位不過郵丞, 行年八十, 窮不能自食, 而其所以濟人於必死, 延澤於

無窮者如此, 余爲千乘相, 行乎國政, 非不專且久也, 未有匹夫匹婦被其澤者, 其有愧於趙君者多矣. 然則後之君子急於仁民愛物如范希文, 而又能審於擇術也, 則必有不爲余而爲趙君者矣.

조정준군은 나이 많은 의원으로 그의 의술은 소아를 고치는 데 정통하여 자주 신기한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온전히 낫고 살게 된 경우가 아주 많다. 그가 나이 들었을 때 탄식하며 "내가 죽으면 누가 내 의술을 전할 것인가."라고 말하더니 드디어 옛 의서를 모으고 평생의 경험을 붙여 '급유방'이라고 이름 하였으니 자세한 경위는 자서(自序)와 범례에 나와 있다. 후세에 전한다면 소아를 살리고 사람들을 구제하는 공을 어찌 헤아릴 수 있겠는가. 《좌전左傳》에 "어진 사람의 말은 그 이로움이 크지 않은가."라고 했는데 조군이 바로 그 어진 사람이 아니겠는가. 조군은 가난한 집안으로 평생토록 벼슬은 우승(郵丞)<sup>1</sup>에 지나지 않아 팔십 평생 가난하여 넉넉히 먹고 살지 못하였으나 그가 죽을 사람을 구제하고 수많은 사람에게 은택을 준 것이 이와 같다. 나는 천승지국(千乘之國)의 재상으로 국정에 관여하여 오로지 정치만 오래도록 하였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택을 미치지 못하였으니 조군에게 많이 부끄럽다. 그러니 훗날의 군자는 범희문처럼 사람들 아끼는 마음을 우선시하면서 동시에 신중하게 의술을 택한다면 분명 나처럼 되지 않고 조군처럼 되는 이가 있을 것이다.

庚午季春, 歸鹿山人豐城趙顯命序.

경오년(1750) 3월, 귀록산인 풍성<sup>2</sup> 조현명(趙顯命) 쓰다.

<sup>1</sup>. 우승(郵丞) : 역승(驛丞)의 별칭으로 종9품이다. 승정원일기의 기록으로는 종6품 부사과였으므로 낮은 직책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

<sup>2</sup>. 풍성 : 풍양의 이명이다. ↪





## 及幼方自序 자서(自序)

粵自神農始有醫藥, 而黃帝氏繼之, 作素問以明天地人陰陽五行之理, 爲萬歲醫家之宗. 自是名醫代出, 各有著述, 未易悉舉, 而以最著者言之, 秦越人之八十一難經、張長沙之金匱玉函經、孫眞人之千金方, 皆能發揮素問玄微之旨, 而至於幼科之難, 未之詳言. 暨夫宋之錢乙述小兒眞訣百篇, 發前賢之未發, 補醫家之未備, 世稱活幼筌蹄、全嬰軌範. 惜乎, 年代既遠, 眞篇散亡, 傳後者惟閻孝忠收集一卷.

아, 신농씨로부터 비로소 의약이 있었으니 황제씨가 계승하고 《소문素問》을 지어 천지인(天地人)·음양오행(陰陽五行)의 이치를 밝힘으로써 만세토록 의학의 종조가 되었다. 이 때부터 명의들이 번갈아 나와 각각 저술을 남겼는데, 이를 모두 거론하기는 어렵지만 가장 뛰어난 저술을 말한다면 진월인의 《팔십일난경八十一難經》·장중경의 《금궤옥함경金匱玉函經》·손사막의 《천금방千金方》이다. 이들은 모두 《소문》의 현묘한 뜻을 드러내었으나 소아 치료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상세히 말하지 않았다. 송나라 전율이 《소아진결小兒眞訣》 100편을 지어 이전 성현들이 말하지 않은 것을 드러내고 의가들의 미비한 점을 보충했으므로 세상에서는 '아이를 살리는 도구이며 갓난아이를 보전하는 규범'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세월이 오래되어 원본이 흩어져버리고 후대에 전해진 것은 단지 엄효충(閻孝忠)이 수집한 한 권 뿐이다.

余於錢氏遺業, 苦心鑽研, 殆過五十餘載, 性本庸魯, 其於玄妙旨訣, 非敢自謂有得, 而但窺前賢授受之源流, 參古今稟賦之異同, 審症施藥間多有效. 年今望八, 桑榆景迫, 精力衰耗, 隨得隨失, 遂輯取古方, 略附<sup>1</sup>贅說, 彙爲一書, 名之曰及幼方, 以爲參考備忘之資, 而後之君子倘或有取焉, 則其於活幼濟衆之道, 或不無小補云爾.

내가 전씨의 유업<sup>2</sup>을 고민하며 연구한지 거의 50년이 지났다. 천성이 우둔하여 스스로 그 깊은 뜻을 얻었다고 감히 말할 수는 없지만, 예전의 현인들이 주고받은 의학의 이치를 엿보고 고금과 체질의 차이를 감안한 끝에 증상을 살피

고 약을 쓰면서 많은 효과를 보았다. 내 나이가 올해 80을 바라보아 석양이 나무에 걸려있고 기력이 쇠약하여 알다가도 잊어버리기 때문에 드디어 옛 방서를 모으고 나의 소견을 약간 붙여 하나의 책으로 만들었다. 그 이름을 《급유방》이라고 지어 참고할 자료로 삼았으니 훗날의 뛰어난 의원이 이 책에서 얻는 것이 있다면 아이를 살리고 중생을 구제하는 일에 혹여나 작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는 못할 것이다.

歲崇禎紀元後再己巳仲春上澣, 橫城趙廷俊序.

기사년(1749) 2월 상순, 횡성 조정준(趙廷俊) 쓰다.

---

1. 附 : 付 ※규장각본 ↩

2. 전씨의 유업 : 전씨는 《소아약증직결》을 지은 전을이며, 전씨의 유업이란 소아 치료를 가리킨다. ↩

## 及幼方凡例 범례

一. 此書以入門及錢氏諸方爲主, 而間有未備者, 則謹以愚見補之, 至於平生所經驗者, 亦并著於各門之下.

- 이 책은 《의학입문》과 전을(錢乙)의 저서를 위주로 하고 간혹 미비한 부분은 조심스레 나의 견해로 보충하였다. 평생 겪은 치료 경험도 각 문의 끝에 함께 적어놓았다.

一. 小兒科保護爲本, 藥治次之, 故以小<sup>1</sup>兒論, 及保護法、調護歌等諸訣, 載於篇首.

- 소아과는 잘 보호하는 것이 기본이며 약으로 고치는 것은 그 다음이다. 그러므로 <소아론小兒論>과 <보호법保護法>, <조호가調護歌> 등의 비결을 책머리에 실어놓았다.

一. 小兒之病, 難問症難察脈, 惟以觀形<sup>2</sup>察聲音爲主, 故以形色聲音二訣, 次之其下, 始繼以脈訣, 及雜病諸方.

- 소아의 병은 증상을 묻거나 맥을 짚기 어렵기 때문에 오직 형색과 음성을 위주로 살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형색과 음성의 2가지 비결을 그 다음으로 놓고, 비로소 맥결(脈訣)과 잡병제방(雜病諸方)을 이어 서술하였다.

一. 小兒服藥, 材料分數, 不合太多, 務要從輕. 若一二歲兒, 則其材料不過數三種, 其分數摠不過二三錢爲準<sup>3</sup>, 而三四歲以上, 推此漸加. 凡藥俱宜, 量兒大小, 加減用之, 不可只按古方一例, 用之於大小兒也.

- 소아가 약을 먹기에는 약재의 분량과 종류가 너무 많으면 적합하지 않으니 가볍게 쓰도록 힘써야 한다. 1-2살 아이는 약재의 수가 3가지를 넘지 않도록 하면서 분량은 총 2-3돈이 넘지 않는 것을 기준으로 하며, 3-4살 이상의 아이는 이 기준을 미루어 점점 늘린다. 약이 모두 적합하려면 아이의

몸집에 따라 가감해야 하며, 아이가 크건 작건 고방의 기준을 그대로 사용하면 안된다.

一. 各門證治中, 用某湯某散, 而其下懸註云方見某門, 以爲推尋之地, 至於本門所在藥方, 既在其門, 故不爲懸註, 依此考見.

- 각 문(門)의 치료법에 어떤 처방을 쓰라고 되어 있고 그 아래 주석으로 '처방은 ○○문(門)에 나온다'고 되어 있으면 그쪽에서 찾아보라는 의미이다. 같은 문에 있는 처방은 이미 그 문에 있기 때문에 주석을 달지 않았으니 이를 염두하고 찾아보아야 한다.

一. 痘疹爲小兒之毒疾, 而既有入門正傳等全書, 極詳其<sup>4</sup>備, 故茲不復述.

- 두창은 소아의 병 중에 위독한 것이지만 이미 《의학입문》이나 《의학정전》 등의 책에 아주 상세히 나와 있으므로 여기서는 중복하여 적지 않는다.

一. 藥料中訛謬失真者, 謹悉辨正,<sup>5</sup> 用附於篇末, 使觀者有考焉.

- 약재 중에서 잘못 알려져 진실을 알 수 없는 것은 삼가 맞는 말을 가려내고 책 뒷부분에 붙여 독자가 살펴볼 수 있게 하였다.

一. 各藥炒灸煨炮製法, 俱載本草, 可考施用, 故茲不及一一懸註.

- 각 약재를 볶고 굽는 등의 포제법은 모두 《본초》에 실려 있으니 참고하여 사용하면 된다. 그러므로 하나하나 설명하지 않았다.

一. 此方中峻攻通利之劑, 雖依錢氏之法選錄, 然必有明的之見, 而萬無一失然<sup>6</sup>可以施用, 切不可輕易試之也.

- 이 책 중에 약기운이 세거나 통리(通利)시키는 처방은 비록 전율의 처방을 골라 실었지만 반드시 명확한 견해가 있어 만에 하나라도 실수하지 않겠다는 확신이 든 후에 약을 써야한다. 절대로 경솔하게 써보지 말아야 한다.

---

1. 小 : 少 ※한독본 ←

2. 察色 : 色察 ※한독본 ←

3. 準 : 准 ※규장각본 ←

4. 其 : 且 ※규장각본 ←

5. 글자없음 : 而 ※규장각본 ←

6. 글자없음 : \*後 ※한독본, 규장각본 ←

## 及幼方藥名考 약명고

### 初生雜症 초생잡증

釀乳方 白殭散 長生丸 浴體法 地黃湯 地黃飲子 犀角散 鬱金散

양유방 백강산 장생환 욕체법 지황탕 지황음자 서각산 울금산

### 撮口噤口 찰구, 금구

蝎梢散 宣風散 辰砂金蝎散 控痰散 蜈蚣散 吹鼻散

갈초산 선평산 진사금갈산 공담산 오공산 취비산

### 臍風 제풍

金烏散 通心飲 五通膏 柏墨散 黃金散

금오산 통심음 오통고 백묵산 황금산

### 胎驚癇風 태경간풍

辰砂膏 太乙散 獨活湯 六神膏 猪乳膏 鎮驚散 黃連飲 燈心散 甘豆湯 歸香散

진사고 태을산 독활탕 육신고 저유고 진경산 황련음 등심산 감두탕 귀향산

### 變蒸 변·증

平和飲子 和氣散 柴胡飲 當歸湯 紫陽黑散 參杏膏

평화음자 화기산 시호음 당귀탕 시양흑산 삼행고

### 丹毒 단독

消毒飲 犀角消毒飲 葛根消毒飲 芩連消毒飲 防風升麻湯 葛根白朮散 拔毒散 冰黃散 泥金膏

소독음 서각소독음 갈근소독음 금련소독음 방풍승마탕 갈근백출산 발독산 빙  
황산 이금고

### 胎瘡 태창

大連翹飲 生料四物湯 牛黃解毒丹 九味解毒散 紫草膏 立效散 加味黃臘膏

대연교음 생료사물탕 우황해독단 구미해독산 자초고 입효산 가미황랍고

### 膿耳 농이

紅綿散

홍면산

### 急驚 급경풍

開關散 嚔驚散 敗毒散 大青膏 驅風膏 涼驚丸 瀉青丸 利驚丸 防風湯 宣風散 疏風散 犀角湯 導赤散 加味導赤散 靈神膏 半夏丸 截風丸 保幼化風丹 抱龍丸 牛黃抱龍丸 辰砂化痰丸 南極壽星湯 防風溫痰湯 溫痰湯 不驚丹 錢氏安神丸 龍腦安神丸 金箔鎮心丸 寧心膏 茯苓湯 大驚元 小驚元 靈砂丸 寬熱飲 金星丸 牛旁子湯 鎮心丸 溫驚丸 定志丸 天麻散

개관산 체경산 패독산 대청고 구풍고 양경환 사청환 이경환 방풍탕 선평산 소  
풍산 서각탕 도적산 가미도적산 영신고 반하환 절풍환 보유화풍단 포롱환 우  
황포롱환 진사화담환 남극수성탕 방풍온담탕 온담탕 불경단 전씨안신환 용뇌  
안신환 금박진심환 영심고 복령탕 대경원 소경원 영사환 관열음 금성환 우방  
자탕 진심환 온경환 정지환 천마산

### 慢驚 만경풍

白朮散 黃芪益黃散 黃芪湯 觀音散 全蝎觀音散 補脾湯 參朮半夏湯 銀白散 紫金錠  
子 防風元 醒脾散 大溫驚丸 天麻防風元 蟬蝎散 太乙保生丹 釣藤散 溫白丸 轉驚丸  
南星飲 至聖保命丹 千金散 星香散 三味天漿子散<sup>1</sup> 備急丸 靈脂丸 安神散 奪命丸  
加味朮附湯 烏蝎散 釀乳方 前朴散 六柱散 固真湯 金液丹 硫附丸 雙金丸 青州白元  
子

백출산 황기익황산 황기탕 관음산 전갈관음산 보비탕 삼출반하탕 은백산 자  
금정자 방풍원 성비산 대온경환 천마방풍원 선갈산 태을보생단 조등산 온백  
환 전경환 남성음 지성보명단 천금산 성향산 삼미천장자산 비급환 영지환 안  
신산 탈명환 가미출부탕 오가란 양유방 전박산 육주산 고진탕 금액단 유부환  
쌍금환 청주백원자

### 慢脾風 만비풍

生附四君子湯 蝎附湯 補脾益真湯 黑附湯 白殭蠶丸

생부사군자탕 갈부탕 보비익진탕 흑부탕 백강잠환

### 癇疾 간질



鎮心丸 散風丹 妙聖丹 天聖丸 腎痼湯 五色丸 追風祛痰丸 朱砂安神丸 定魄丸 三癰  
丹 沈香天麻湯 紫霜丸 清心滾痰丸 牛黃瀉心湯 竹<sup>2</sup>瀝丸 猪心丸 清神湯 養心湯 紫  
河車丸 代赭石散 神應丹 蜜陀僧散 荊礬丸

진심환 산풍단 묘성단 천성환 신간탕 오색환 추풍거담환 주사안신환 정백환  
삼간단 침향천마탕 자상환 청심곤담환 우황사심탕 죽력환 저심환 청신탕 양  
심탕 자하거환 대자석산 신응단 밀탁승산 형반환

### 剛柔痊 강치, 유치

麻黃葛根湯 小續命湯 烏藥順氣散

마황갈근탕 소속명탕 오약순기산

### 天弔 천조풍

釣藤散 九龍控涎散 釣藤飲子

조등산 구룡공연산 조등음자

### 客忤 객오

雄麝散

웅사산

### 內釣 내조

釣藤膏 五味木香散 古芍歸湯 魏朮散 乳香丸 木香丸 沈乳感應丸

조등고 오미목향산 고궁귀탕 위출산 유향환 목향환 침유감응환

龜胸 구흉

百合丹

백합단

龜背 구배

松藥丹

송약단

解顱 해로

三莘散 六味地黃丸 腎氣丸 八味丸 當歸地黃丸 人蔘地黃丸 八物湯 十全大補湯

삼신산 육미지황환 신기환 팔미환 당귀지황환 인삼지황환 팔물탕 십전대보탕

五軟五瘥 오연 및 오치

羊角散 涼肝丸 健骨散 生筋散 貼項方 薏苡丸 羊角丸 海銅散 虎骨丸 五加皮散 調元散 鹿茸四斤丸 菖蒲丸 鷄頭丸 肉蓯蓉丸

양각산 양간환 건골산 생근산 첩향방 의이환 양각환 해동산 호골환 오가피산

조원산 녹용사근환 창포환 계두환 육종용환

鶴膝 학슬풍

大防風湯 獨活湯

대방풍탕 독활탕

## 麻疹 마진

加味升麻湯 蘇葛湯 麻黃湯 二仙湯 桂皮解毒湯 升麻解毒湯 牛黃膏 白虎解毒湯 十  
仙散 柴胡枳殼湯 黃芩湯 加味地骨皮散 加味瀉白散 門冬清肺湯 千金麥門冬湯 養  
血化癍湯 茅根湯 清金飲 加味黃芩湯 太乙神明丹

가미승마탕 소갈탕 마황탕 이선탕 계피해독탕 승마해독탕 우황고 백호해독탕  
십선산 시호지각탕 황금탕 가미지골피산 가미사백산 문동청폐탕 천금맥문동  
탕 양혈화반탕 모근탕 청금음 가미황금탕 태을신명단

## 癍疹, 附癍疹 반진 및 은진

消癍青黛飲 玄蔘升麻湯 化癍湯 犀角消毒飲 調中湯 升麻鱉甲湯

소반청대음 현삼승마탕 화반탕 서각소독음 조중탕 승마별갑탕

## 諸熱 제열

柴胡清肝湯 柴胡飲子 清肝湯 十味導赤散 瀉心湯 醒心散 瀉黃散 瀉白散 滋腎丸 地  
黃煎 連翹湯 梔子仁湯 三解牛黃散 大黃朴硝湯 五和湯 三黃丸 人蔘清肌散 二調散  
加減逍遙散 逍遙散 當歸補血湯 小兒清心丸 地骨皮散 天乙丸 甘露飲 梨漿飲 藜朮  
散 當歸散 百解散 團魚散 生犀散 柴胡地骨皮散 造化膏 柴胡鱉甲飲 甘露液

시호청간탕 시호음자 청간탕 십미도적산 사심탕 성심산 사황산 사백산 자신  
환 지황전 연교탕 치자인탕 삼해우황산 대황박초탕 오화탕 삼황환 인삼청기  
산 이조산 가감소요산 소요산 당귀보혈탕 소아청심환 지골피산 천을환 감로  
음 이장음 진교산 당귀산 백해산 단어산 생서산 시호지골피산 조화고 시호별  
갑음 감로액

## 眼疾 안질

九仙散 散熱飲子 柴胡湯 三解散 石決明散 清涼散 加味消毒飲 四物龍膽湯 菊花散 撥雲散 明目飲 草龍膽散 當歸湯 決明退翳散 蟬花散 二退散 羚羊散 涼血祛風湯 車前子湯 明目地黃丸 加味地黃丸 補腎丸 補肝散 益本滋腎丸 羊肝元 正傳羊肝丸 白微元 瀉肝元 涼血地黃湯 爐甘石湯 牛黃丸 蒺藜湯 穀精草丸 五退散 地黃粥 地黃膏 五黃膏 春雪膏 龍腦膏 還睛紫金丹 豬膽膏 楓膏 湯泡散 五行湯

구선산 산열음자 시호탕 삼해산 석결명산 청량산 가미소독음 사물용담탕 국화산 발운산 명목음 초롱담산 당귀탕 결명퇴예산 선화산 이퇴산 영양산 양혈거풍탕 차전자탕 명목지황환 가미지황환 보신환 보간산 익본자신환 양간원 정전양간환 백미원 사간원 양혈지황탕 노감석탕 우황환 질려탕 곡정초환 오퇴산 지황죽 지황고 오황고 춘설고 응뇌고 환정자금단 저담고 풍고 탕포산 오행탕

## 諸血 제혈

四物湯 補榮湯 犀角地黃湯 麻黃升麻湯 黃芩丸 柏葉飲 麥門冬飲子 龍膽丸 膠黃散 茯苓補心湯 蓮心散 清心地黃飲 立效散 姜蜜湯 清心蓮子飲 祿袍散

사물탕 보영탕 서각지황탕 마황승마탕 황금환 백엽음 맥문동음자 용담환 교황산 복령보심탕 연심산 청심지황음 입효산 강밀탕 청심연자음 녹포산

## 舌瘡 설창

保命散 朱礬散 牛黃散 龍石散

보명산 주반산 우황산 용석산

煩燥不寐 번조불매

酸棗仁湯 升麻鱉甲湯

산조인탕 승마별갑탕

煩燥飲水 번조음수

清胃散 麥門冬飲子 蘆根飲 加味白朮散 人蔘石膏湯 加味玉露散

청위산 맥문동음자 노근음 가미백출산 인삼석고탕 가미옥로산

滯頤 체이

木香半夏丸

목향반하환

疳疾 감질

茯神丸 胡黃連丸 五福化毒丹 辰砂丸 寒水石丸 鱉甲散 茯神湯 風疳丸 生熟地黃湯  
煮肝丸 蘆薈丸 龍膽飲子 小胡連丸 桑皮消腫丸 清肺湯 化蠶丸 龍骨散 二金散 尿白  
散 至聖丸 木香丸 如聖丸 香薷丸 香砂丸 使君子丸 胡黃連丸 連膽丸 生津止渴湯  
褐丸子 龍膽丸 蘆薈丸 月膽丸 猪膽黃連丸 肥兒丸 入門肥兒丸 局方肥兒丸 黃連肥  
兒丸 六味肥兒丸 祕方肥兒丸 疳積餅 五疳消食丸 五疳保童丸 十味蘆薈丸 十全丹  
布袋丸 消疳丸 快活丸 九味柴胡湯 爛疳丸 清胃養脾湯 黃金餅

복신환 호황련환 오복화독단 진사환 한수석환 별갑산 복신탕 풍감환 생숙지  
황탕 자간환 노회환 응담음자 소호련환 상피소종환 청폐탕 화닉환 용골산 이  
금산 요백산 지성환 목향환 여성환 향구환 향사환 사군자환 호황련환 연담환  
생진지갈탕 갈환자 응담환 노회환<sup>3</sup> 월담환 저담황련환 비아환 입문비아환 국

방비아환 황련비아환 육미비아환 비방비아환 감적병 오감소식환 오감보동환  
십미노회환 십전단 포대환 소감환 쾌활환 구미시호탕 내감환 청위양비탕 황  
금병

## 魑病 기병

### 龍膽湯

용담탕

## 諸積 제적

消積丸 大安丸 消乳食丸 消食散 木香丸 平胃散 厚朴湯 調胃湯 黃白散 香砂平胃散  
內消散 消滯散 枳朮丸 枳朮湯 橘皮枳朮丸 半夏枳朮丸 麴蘖枳朮丸 木香枳朮丸 太  
和散 萬安膏 香砂養胃湯 補脾散 消食餅 行氣丸

소적환 대안환 소유식환 소식산 목향환 평위산 후박탕 조위탕 황백산 향사평  
위산 내소산 소체산 지출환 지출탕 굴피지출환 반하지출환 면얼지출환 목향  
지출환 태화산 만안고 향사양위탕 보비산 소식병 행기환

## 癖積 벽적

取癖丸 進食丸 淨腑湯 七星丸 三稜散 六味三稜丸 白餅子 厚腸丸 化痞丸 抑肝扶脾  
散 柴胡鱉甲飲 鱉甲散 貼痞膏

취벽환 진식환 정부탕 칠성환 삼릉산 육미삼릉환 백병자 후장환 화비환 억간  
부비산 시호별갑음 별갑산 첩비고

## 腹痛 복통

茯苓丸 當歸散 寬中湯 桔梗枳<sup>4</sup>湯 七氣湯 小建中湯 黃芪健中湯 當歸健中湯 加減健中湯 芍藥甘草湯

복령환 당귀산 관중탕 길경지각탕 칠기탕 소견증탕 황기견중탕 당귀견중탕  
가감견중탕 작약감초탕

### 盤腸痛 반장통

豆砂散 乳香散

두사산 유향산

### 霍亂 곽란

木莢散 木苽湯 回生散 加味薑附湯 椒豆散 薑鹽湯

목유산 목과탕 회생산 가미강부탕 초두산 강염탕

### 蛔蟲痛 회충통

理中安蚘湯 烏梅丸 追蟲散 椒梅湯 下蟲散 靈礬散 練陳湯 妙應丸 三聖丸 苦練丸  
連麝丸 大蘆薈丸 金蟾丸 夜明砂丹 安蟲丸 朱砂丸

이중안회탕 오매환 추충산 초매탕 하충산 영반산 연진탕 묘응환 삼성환 고려  
환 연사환 대노회환 금섬환 야명사단 안충환 주사환

### 嘔吐, 附泄瀉 구토 및 설사

木瓜丸 朱砂丸 朱沈煎 和中散 枳連丸 定中湯 定吐飲 定吐紫金核 生姜半夏湯 姜橘  
湯 半粟散 升茹湯

목과환 주사환 주침전 화중산 지련환 정중탕 정토음 정토자금핵 생강반하탕  
강굴탕 반속산 승여탕

## 吐瀉 토사

益黃散 四君子湯 六君子湯 柴胡六君子湯 異功散 理中湯 理中丸 枳實理中丸 四順  
理中湯 四順理中丸 附子理中湯 治中湯 加味溫六丸 勻胃散 玉露飲 古連柏丸 五苓  
散 柴苓湯 胃苓湯 四苓散 春澤湯 雄黃膏 吐龍膏 蒼朮防風湯 防風芍藥湯 大半夏湯  
香橘餅 消乳食丹 燒鍼丸 瀉濕湯 萬病五苓散 三白散 燥濕湯 升陽除濕湯 羌活散 麴  
朮元 升陽益胃湯 補中益氣湯 益胃升陽湯 胃風湯 木香散 實腸散 沒石子丸 固陽丸  
朝眞丹 參令連朮散 參令白朮散 助胃膏 和胃丸 養元散 啓脾散 三和散 守胃散 調氣  
散 二神丸 三神丸 四神丸 六神湯 五味子散

익황산 사군자탕 육군자탕 시호육군자탕 이공산 이중탕 이중환 지실이중환  
사순이중탕 사순이중환 부자이중탕 치중탕 가미온륙환 균위산 옥로음 고연백  
환 오령산 시령탕 위령탕 사령산 춘택탕 웅환고 토롱고 창출방풍탕 방풍작약  
탕 대반하탕 향굴병 소유식단 소침환 사습탕 만병오령산 삼백산 조습탕 승양  
제습탕 강활산 국출원 승양익위탕 보중익기탕 익위승양탕 위풍탕 목향산 실  
장산 목석자환 고양환 조진단 삼령연출산 삼령백출산 조위고 화위환 양원산  
계비산 삼화산 수위산 조기산 이신환 삼신환 사신환 육신탕 오미자산

## 痢疾 이질

黃芩芍藥湯 導滯湯 黃連阿膠湯 寧胃散 清熱化滯湯 解毒金化散 地榆散 烏梅丸 小  
駐車元 香連丸 加味木香丸 立效散 感應元 蘇感元 水浸丹 生熟飲子 眞人養臟湯 水  
煮木香膏 溫六丸 清六丸 倉廩散 參連湯 石連散 關嚙湯 實腸散 三根飲 姜茶湯



황금작약탕 도체탕 황련아교탕 영위산 청열화체탕 해독금화산 지유산 오매환  
소주거원 향련환 가미목향환 입효산 감응원 소감원 수침단 생숙음자 진인양  
장탕 수자목향고 온륙환 청륙환 창름산 삼련탕 석련산 관금탕 실장산 삼근음  
강다탕

### 腹脹 복창

場氣丸 四聖丸 分氣紫蘇飲 大異香散 芩連枳梗湯 消脹散 場氣散 楊氏場氣丸 消脹  
丸

탐기환 사성환 분기자소음 대이향산 금련지경탕 소창산 탐기산 양씨탐기환  
소창환

### 浮腫 부종

補中治濕湯 澤瀉散 導滯通繼湯 牽牛散 越脾湯 五皮散 赤小豆湯 退腫散 清消散 大  
效神功湯 四苓五皮散 瀧川丸

보중치습탕 택사산 도체통계탕 건우산 월비탕 오피산 적소두탕 퇴종산 청소  
산 대효신공탕 사령오피산 준천환

### 黃疸 황달

退黃散 一清散 茵陳五苓散 茵陳平胃散 黃金丸 瘴疸丸

퇴황산 일청산 인진오령산 인진평위산 황금환 장달환

### 瘧疾 학질

桂枝石膏湯 桂枝黃芩湯 柴胡知母湯 龍虎湯 柴平湯 草果平胃散 清脾飲 小清脾飲  
加減清脾湯 平陳湯 散邪湯 正氣湯 柴胡加桂湯 桂枝羌活湯 麻黃羌活湯 草果飲 雙  
解飲子 露姜飲 露姜養胃湯 柴陳湯 四獸飲 三解湯 麻黃黃芩湯 柴胡四物湯 消癖元  
鱉甲飲子 雄朱丹

계지석고탕 계지황금탕 시호지모탕 옹호탕 시평탕 초과평위산 청비음 소청비  
음 가감청비탕 평진탕 산사탕 정기탕 시호가계탕 계지강활탕 마황강활탕 초  
과음 쌍해음자 노강음 노강양위탕 시진탕 사수음 삼해탕 마황황금탕 시호사  
물탕 소벽원 벽갑음자 옹주단

## 外感 외감

麻黃湯 陶氏麻黃湯 桂枝湯 陶氏桂枝湯 九味羌活湯 人參敗毒散 荊防敗毒散 麻黃  
桂枝湯 葛根解<sup>5</sup>湯 升麻葛根湯 白虎湯 人參白虎湯 蒼朮白虎湯 竹茹石膏湯 猪苓  
湯 小柴胡湯 姜棗湯 茵陳蒿湯 姜附湯 眞武湯 當歸四逆湯 麻黃杏仁飲 香蘇散 芎芷  
香蘇散 十神湯 香葛湯 葱白散 參蘇飲 惺惺散 加味惺惺散 脫甲散 紅綿散 加減紅綿  
散 人參羌活散 羌活膏 冲和散 小青龍湯 消風百解散 神朮散 雙解散 五積散 辛黃三  
白散 人參養胃湯 藿香正氣散 不換金正氣散 大黃丸 小承氣湯 大承氣湯 調胃承氣  
湯 大柴胡湯 三一承氣湯 六一承氣湯 陶氏黃龍湯 三黃石膏湯 陽毒升麻湯 陽毒梔  
子湯 三黃巨勝湯 活龍散 破棺散 黃連解毒湯 大陷胸湯 小陷胸湯 三物白湯 半夏瀉  
心湯 桔梗只殼湯 正陽散 四逆湯 甘草湯 復陽湯 回陽救急湯 芍藥甘草湯 甘草乾姜  
湯 桂枝甘草湯 茯苓桂甘湯 陶氏升陽散火湯 知母麻黃湯 參胡芍藥湯 鱉甲散 麥門  
冬湯 梔豉枳實湯 梔豉只黃湯 七味葱白散 益氣養神湯 瀉心導赤散 酸棗仁湯 烏梅  
湯 辰砂五苓散 陶氏補中益氣湯 十味和解散 加減益氣湯

마황탕 도씨마황탕 계지탕 도씨계지탕 구미강활탕 인삼패독산 형방패독산 마  
황계지탕 갈근해기탕 승마갈근탕 백호탕 인삼백호탕 창출백호탕 죽여석고탕  
저령탕 소시호탕 강조탕 인진호탕 강부탕 진무탕 당귀사역탕 마황행인음 향  
소산 궁지향소산 십신탕 향갈탕 총백산 삼소음 성성산 가미성성산 탈갑산 홍

면산 가감홍면산 인삼강활산 강활고 충화산 소청룡탕 소풍백해산 신출산 쌍  
해산 오적산 신향삼백산 인삼양위탕 곽향정기산 불환금정기산 대항환 소승기  
탕 대승기탕 조위승기탕 대시호탕 삼일승기탕 육일승기탕 도씨황룡탕 삼황석  
고탕 양독승마탕 양독치자탕 삼황거승탕 활룡산 파관산 황련해독탕 대함홍탕  
소함홍탕 삼물백탕 반하사심탕 길경지각탕 정양산 사역탕 감초탕 복양탕 회  
양구급탕 작약감초탕 감초건강탕 계지감초탕 복령계감탕 도씨승양산화탕 지  
모마황탕 삼호작약탕 별갑산 맥문동탕 치시지실탕 치시지황탕 칠미충백산 익  
기양신탕 사심도적산 산조인탕 오매탕 진사오령산 도씨보중익기탕 십미화해  
산 가감익기탕

## 暑症 서증

二香散 六和湯 黃連香薷散 <sup>玉</sup><sup>6</sup>露散 益元散 辰砂六一散 酒蒸黃連丸 消暑元 桂苓  
甘露飲 清暑益氣湯 黃芪湯 三白香薷飲 十味香薷飲 清肺生脈飲 濯熱散 生脈散 香  
薷散 消暑十全飲 解暑三白散 縮脾飲 桂苓元 參歸益元湯

이향산 육화탕 황련향유산 옥로산 익원산 진사육일산 주증황련환 소서원 계  
령감로음 청서익기탕 황기탕 삼백향유음 십미향유음 청폐생맥음 탁열산 생맥  
산 향유산 소서십전음 해서삼백산 축비음 계령원 삼귀익원탕

## 咳嗽 해수

神朮散 金沸草散 三拗湯 五拗湯 加減三拗湯 華蓋散 紫蘇飲子 解表散 和解散 杏子  
湯 杏蘇湯 溫肺湯 飴姜湯 柴胡石膏湯 洗肝散 人參瀉肺湯 貝母散 參朮調中湯 清金  
降火湯 清肺湯 小黃湯 葶牛丸 四汁膏 二母寧嗽湯 溫脾湯 二陳湯 阿膠散 三子養親  
湯 人參飲子 一服散 參花散 清金飲 貝母丸 團參飲 蜜梨噙

신출산 금비초산 삼요탕 오요탕 가감삼요탕 화개산 자소음자 해표산 화해산  
행자탕 행소탕 온폐탕 이강탕 시호석고탕 세간산 인삼사폐탕 패모산 삼출조  
중탕 청금강화탕 청폐탕 소황탕 정우환 사즙고 이모영수탕 온비탕 이진탕 아  
교산 삼자양친탕 인삼음자 일복산 삼화산 청금음 패모환 단삼음 밀리금

## 喘 천

紫蘇子湯 解表二陳湯 千緡湯 千緡導痰湯 麥門冬湯 麻黃石膏湯 坎離湯 枳實湯 定  
喘飲 如神散

자소자탕 해표이진탕 천민탕 천민도담탕 맥문동탕 마황석고탕 감리탕 지실탕  
정천음 여신산

## 馬脾風 마비풍

馬脾風散

마비풍산

## 大便不通 대변불통

四順清涼飲 生地黃湯 桔梗湯 通繼湯 當歸潤燥湯 潤腸湯

사순청량음 생지황탕 길경탕 통계탕 당귀윤조탕 윤장탕

## 小便不通 소변불통

木通散 淸肺散 八正散 梔子湯 捻頭湯 神通散

목통산 청폐산 팔정산 치자탕 염두탕 신통산

### 大小便不通 대소변불통

郁李仁丸 神功丸 芍藥散 噤臍法

옥리인환 신공환 작약산 엄제법

### 疝症 산증

歸牛散 神保丸 川練丸 金鈴散 蟠蔥散 古姜桂湯 四神丸 香橘散 烏桂湯 勻氣散 白芍藥湯 木香飲 蝎茴散

귀우산 신보환 천련환 금령산 반총산 고강계탕 사신환 향굴산 오계탕 균기산  
백작약탕 목향음 갈회산

### 陰腫 음종

桃仁丸 三白散 龍膽瀉肝湯

도인환 삼백산 용담사간탕

### 諸淋 제림

五淋散 增味導赤散 黃芩湯 紫草湯 蒲黃散 滑石散 石魚散 木香湯 香兒散 海金砂散 檳榔散 石葦散 瀉腎湯

오림산 증미도적산 황금탕 자초탕 포황산 활석산 석어산 목향탕 향아산 해금  
사산 빈랑산 석위산 사신탕

### 尿白濁 요백탁

厚朴湯 赤茯苓散 三稜散 香砂丸

후박탕 적복령산 삼릉산 향사환

## 遺尿 유뇨

鷄腸散 鷄臍脰散 大兔絲子丸 破古紙散 桂肝丸 益智仁丸

계장산 계비지산 대토사자환 파고지산 계간환 익지인환

## 汗 한

止汗散 團參湯 香瓜丸 黃芪湯 白朮湯 撲汗方 當歸六黃湯 虎杖根散 桑葉散

지한산 단삼탕 향과환 황기탕 백출탕 박한방 당귀육황탕 호장근산 상엽산

## 咽喉痛 인후통

甘桔湯 必用方 甘吉湯 涼膈散 加減涼膈散 加減消毒飲 吹喉散 玉鑰匙 孫兆吹喉方  
牛黃涼膈元

감길탕 필용방감길탕 양격산 가감양격산 가감소독음 취후산 옥약시 손조취후  
방 우황양격원

## 諸瘡 제창

神異膏 換肌消毒飲 苦瓠散 胡粉散

신이고 환기소독음 고과산 호분산

## 雜病經驗 잡병경험

加味溫膽湯 壯元丸 定志丸

가미온담탕 장원환 정지환

本草發明 본초발명

食治發明 식치발명

---

1. 散 : 飮 ※규장각본 [↩](#)

2. 竹 : 升 ※규장각본 [↩](#)

3. 노회환 : 앞에 노회환이 있다. [↩](#)

4. 角 : 壳 ※규장각본 [↩](#)

5. 肌 : 肥 ※규장각본 [↩](#)

6. 玉 : 五 ※규장각본 [↩](#)

## 及幼方卷之一 금유방 권1

橫城 趙廷俊重卿 集

횡성 조정준(趙廷俊, 字 重卿) 편저



## 東方六氣論 동방육기론

夫天地之間, 陰陽五行之氣, 無乎不在, 無乎不具, 而若其四時之專氣, 則隨其地方而有異焉, 故周官土會之法, 山林之民, 毛而方; 川澤之民, 黑而津; 丘陵之民, 團<sup>1</sup>而長; 墳衍之民, 皙而瘠; 原隰之民, 豐肉而肥<sup>2</sup>. 夫山林豈無黑津之人, 川澤亦豈無毛方之民, 然其風氣之大綱, 則自有類聚群分之不可掩者, 故人之稟賦, 及受病之源, 亦各隨其風氣而異焉, 治病之法, 必須知其各方之專氣然後, 參兩會通, 可收萬全之功. 故東垣北方之醫而主於寒, 丹溪南方之醫而主於濕, 蓋皆見此道而然也. 我國僻在一隅, 其風氣固與中國不同, 使東垣丹溪諸人, 生於我東, 則必有所主之經、所專之氣, 著有成書, 以爲用藥之準的, 今顧無此, 而俗醫凡技, 欲以治中土之疾之法, 雜施於東國一隅之疾, 是何異於適越而北轅哉.

무릇 천지만물에는 음양(陰陽)·오행(五行)의 기운이 존재하지 않는 곳은 없으며 그 기운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것도 없다. 사계절 각각의 기운은 지역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러므로 토질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주나라 법<sup>3</sup>에 '산림(山林)의 사람은 털이 많고 각졌으며, 천택(川澤)의 사람은 검고 윤이 흐르고, 구릉(丘陵)의 사람은 오밀조밀하고 길쭉하며, 분연(墳衍)<sup>4</sup>의 사람은 바짝 말랐고, 원습(原隰)<sup>5</sup>의 사람은 통통하며 키가 작다.'고 되어 있다. 산림에 어찌 검고 윤이 흐르는 사람이 없겠으며, 천택에 어찌 털 많고 각진 사람이 없겠는가. 그러나 풍토와 기후의 큰 줄기에 있어서는 구분되고 무리 짓는 것을 막을 수 없다. 그러므로 사람의 기질과 병에 걸리는 원인은 각각 풍토와 기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뿐이다. 병을 치료하는 방법은 반드시 지역의 특성을 안 후에 기질과 병인 두 가지를 참고하여 이해해야만 만전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러므로 이동원이 북쪽 지역 의원이라서 한병을 치료한 점과 주단계가 남쪽 지역 의원이라서 습병을 치료한 점은 모두 이러한 이치가 드러나 그렇게 된 것이다. 우리 조선은 궁벽진 한쪽에 위치하여 풍토와 기후가 중국과 정말로 다르다. 만약에 이동원이나 주단계 같은 이들이 우리 동방에서 태어났다면 반드시 우리

풍토와 기후에 따라 책을 저술하였을테고, 그것으로 용약의 기준으로 삼았을 것이다. 지금 생각해보니 이러한 책이 없어서 평범한 의술을 가진 동네 의원들이 중국의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우리 동방의 질병을 치료하려고 하고 있다. 이 어찌 남쪽 월땅으로 가려면서 북쪽으로 수레를 돌리는 것과 다르겠는가.

然我東文獻雖曰不足, 且以古人之所已言者推之, 則岐伯之言曰, 東方之氣, 在天爲風; 在地爲木; 在臟爲肝; 在體爲筋; 在志爲怒; 在色爲蒼; 在音爲角; 在味爲酸, 此論東土所專之氣也. 又曰, 東方之域, 濱海傍水, 其民食魚而嗜鹹, 魚者熱中, 鹽者勝水, 故其民皆黑色<sup>6</sup>理, 其病癰瘍, 其治宜砭石, 故砭自東方來, 此論東土所崇之疾也. 蓋嘗因是<sup>7</sup>而推之, 我東日月先昇, 地界鮮<sup>8</sup>明, 故人之稟質聰明才藝者多, 春氣發生於東, 萬物滋榮, 故人之稟性慈仁愛物者多. 然木多生風, 故善怒而好爭, 高聲而嗜酸, 此其風氣固與西南北諸方不同, 而且其地勢, 山多水滙, 非林藪則川澤, 非丘陵則原隰, 風寒暑濕燥火, 雖無所不有, 而惟其壤接海濱, 氣專在木, 故中風目疾, 頭痛眩暈, 氣逆上衝, 胸脅之痛, 心膈之痞, 筋攣痿痺, 疝瘕<sup>9</sup>動氣, 種種諸疾, 及婦人崩帶隱曲之疾, 小兒之驚風者, 十居八九, 此皆肝氣之所由致也. 故爲東方之醫者, 必先明其氣之所專、疾之所崇然後, 隨證而施藥物, 切脈而下砭磁, 則雖不中, 亦不遠矣.

우리 동방은 비록 문헌이 부족하지만 또한 옛사람의 말로 미루어 보자면, "동방의 기운은 하늘에서는 바람이 되며, 땅에서는 나무가 되며, 장부에서는 간장이 되며, 몸에서는 힘줄이 되며, 감정에서는 성냄이 되며, 색깔에서는 푸름이 되며, 소리에서는 각(角)이 되며, 맛에서는 신맛이 된다."는 기백의 말은 동쪽 지역 기운의 특성을 논한 것이다. 또한 "동방은 바다를 끼고 강물이 있어서 사람들이 물고기를 먹으며 짬맛을 좋아하는데, 물고기는 속을 뜨겁게 하고 소금은 혈을 왕성하게 하므로 사람들 모두 피부가 까맣고 거칠다. 그 사람들이 잘 생기는 병인 부스럼에는 찜질로 치료하는 편이 적당하기 때문에 찜질이 동방으로부터 전래된 것이다."는 말은 동쪽 지역의 질병을 논한 것이다. 전부터 이같은 말을 생각해 보니 우리 동방은 해와 달이 먼저 뜨고 지형이 선명하기 때문에 기질이 총명하고 재주 있는 사람이 많은 것이며, 봄기운이 동쪽에서 발생

하여 만물이 길러지기 때문에 성격이 자애롭고 만물을 아끼는 사람이 많은 것이다. 그러나 나무는 바람을 많이 만들기 때문에 쉽게 화내며 싸우기 좋아하고 크게 소리 지르며 신맛을 좋아한다. 이는 풍토와 기후가 서방·남방·북방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또한 산이 많고 물이 굽이도는 지형이라 산림이 아니면 천택(川澤)이거나 구렁이 아니면 원습(原隰)이다. 풍한(風寒)·서습(暑濕)·조화(燥火)의 육기는 비록 없는 곳이 없다고 하지만 우리 동방은 유독 바다와 접해있고 목(木)의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중풍, 눈병, 두통, 현훈(眩暈), 기억상충(氣逆上衝), 흉협통(胸脅痛), 심격비(心膈痞), 근련(筋攣), 위축(痿躄), 산증(疝症), 징가(癥瘕), 동기(動氣) 같은 질병과 붕루(崩漏), 대하(帶下), 은곡(隱曲) 같은 부인의 질병, 경풍(驚風) 같은 소아의 질병 등이 십중팔구니, 이는 모두 목(木)인 간기(肝氣) 때문에 생긴 결과이다. 그러므로 우리 동방의 의원이 라면 반드시 먼저 기후의 특성과 질병의 원인을 명확히 파악한 후에 증상에 따라 약을 쓰고 맥에 따라 침을 놓아야 한다. 그렇게 하면 병에 적중하지는 못하더라도 거기에서 멀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蓋木者土之賊邪, 肝木旺, 則必來侵于脾土, 故先補脾胃以實土氣, 則肝木雖有侵侮, 不受賊邪而爲病, 況胃者倉廩之官, 胃氣一虧, 不能運養臟腑, 則諸臟之病兼發, 榮衛錯亂, 虛實相仍, 賊邪之難醫者, 此也. 故肝氣實則以瀉心經, 肝氣虛則以補腎經, 蓋心乃肝之子, 腎乃肝之母, 虛則補其母, 實則瀉其子, 此瀉南補北之法. 然此特論其風氣之大綱<sup>10</sup>耳, 若又就我東分而言之, 則南方沿海而低濕, 北方山高而多寒, 南方之民, 癰疾浮脹, 咳嗽濕痰之疾, 居其半焉, 北方之人, 頭風耳聾, 胸腹臍脅, 沈寒痼冷之疾, 居其半焉, 固不可以治南方之法治北方, 治北方之法治南方, 此亦不可不知也. 後之君子, 倘或有取於聾瞽之說, 而推類以長之, 益闡前賢所未發, 則千慮一得, 庶不爲空言之歸爾.

목(木)은 토(土)의 적사(賊邪)가 되므로 간목(肝木)이 왕성하면 반드시 비토(脾土)를 침범하게 된다. 그러므로 먼저 비위를 보하여 토기(土氣)를 보충하면 목(木)이 침범하더라도 적사를 받아 병이 되지 않는 것이다. 게다가 위장은 창고 같은 기관인데 위기(胃氣)가 한번 무너지면 오장육부를 길러주지 못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모든 장부에 병이 동시에 발생하여 영기와 위기가 착란되고 허실이 서로 가증된다. 적사는 치료하기 어렵다고 한 의미가 바로 이것이다. 그러므로 간기(肝氣)가 실하면 심경(心經)을 사(瀉)하고, 간기가 허하면 신경(腎經)을 보(補)해야 하는데, 심장은 간장의 자식이며 신장은 간장의 어머니가 되기 때문에 허하면 어머니를 보하고, 실하면 그 자식을 사해야 한다. 이것이 《난경》에서 말한 남방의 화(火)를 사하고 북방의 수(水)를 보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풍토와 기후의 큰 줄거리만 논한 것이다. 우리 동방 안에서 구분해 말하자면 남쪽은 바다와 접해 낮고 습하며, 북쪽은 산이 높아서 한기가 많다. 그러므로 남쪽 사람들은 간질(癰疾), 부종(浮腫), 창만(脹滿), 해수(咳嗽), 습담(濕痰)이 절반을 차지하고, 북쪽 사람들은 두풍(頭風), 이롱(耳聾), 흉복통(胸腹痛), 제협통(臍脇痛), 한질(寒疾), 냉병(冷病)이 절반을 차지한다. 남쪽 사람들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북쪽 사람을 치료하거나, 북쪽 사람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남쪽 사람을 치료하지 말아야 하니 이 또한 반드시 알아야 하는 부분이다. 혹시나 후세에 어진 이가 우매한 나의 이론을 취하여 연구하고 확장함으로써 옛 현인이 말하지 못한 이치를 보태고 넓힌다면 천 번의 생각 중 한 번 맞는 우매한 나의 이론이라도 아마 공염불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1. 團 : \*專 ※《주례周禮·지관사도地官司徒》↩

2. 肥 : \*庾 ※《주례周禮·지관사도地官司徒》↩

3. 토질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주나라 법 : 《주례周禮·지관사도地官司徒》를 가리킨다. ↩

4. 분연(墳衍) : 물가의 낮고 평탄한 지역 ↩

5. 원습(原隰) : 넓고 낮으며 평탄한 습지 ↩

6. 小 : 疏 ※규장각본 ↩

7. 是：此 ※규장각본 [↩](#)

8. 鮮：解 ※규장각본 [↩](#)

9. 瘕：疸 ※규장각본 [↩](#)

10. 綱：剛 ※규장각본 [↩](#)

## 小兒論 소아론

古語曰, 寧醫十丈夫, 莫醫一婦人, 寧醫十婦人, 莫醫一小兒, 蓋小兒難問症難察脈, 而臟腑脆嫩, 血氣虛弱, 峻寒峻熱之劑, 俱不可輕用, 其醫治之難, 豈不比大科有加耶. 抑且各樣症候, 不可勝數, 而劇疾居多. 夫小兒之在襁褓也, 內無七情六慾之交戰, 外無大風大寒之相侵, 而其病之繁且劇若是, 何也. 概考其症, 太半是胎中熱毒, 而傷於乳食者次之, 若夫感傷風寒者, 特什一而已. 蓋嘗論之, 小兒之在胎也, 母饑亦饑, 母飽亦飽, 辛辣適口, 胎氣隨熱, 情慾動中, 胎息輒躁, 或多食煎燂, 或滋味辛酸, 或嗜慾無節, 或喜怒不常, 皆能令子受而爲病根, 爲母者, 胎前既不能謹節, 產後又不知調護, 唯務姑息, 不能防微杜漸, 或未滿百晷, 而遂與鹹酸之味, 或未周一歲, 而輒食肥甘之物, 百病由是而生焉. 古者, 婦人妊子, 不食邪味, 及生育之際, 禁節厚味, 至於調羹之節, 亦不輒許者, 蓋以此也. 夫欲養兒者, 自胎妊之時, 節情慾慎飲食, 母或犯於古人之禁戒, 至於生育之際, 又須調適飢飽, 寒<sup>1</sup>暖等節, 以盡保護之方, 則庶乎免於枉致札瘥之患矣.

옛말에 '차라리 남자 10명을 치료할지언정 부인 1명을 치료하기 어렵고, 차라리 부인 10명을 치료할지언정 소아 1명을 치료하기 어렵다.'는 말이 있다. 아마도 소아는 증상을 묻거나 맥을 짚기가 어렵고, 또한 오장육부가 연약하고 혈기가 허약하기 때문에 함부로 약성이 강한 처방을 쓸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소아 치료의 어려움은 과거 시험과 비교해도 더 어렵다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또한 각양각색의 증상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며 위급한 질병이 상당히 많다. 무릇 소아가 포대기에 싸여 있을 때 안으로는 감정이나 욕망의 충돌이 없고 밖으로는 크게 풍한(風寒)의 침범이 없는데도 이처럼 질병이 다양하면서 위급한 까닭은 무엇인가. 대체로 소아의 증상을 따져보면 절반 이상은 바로 태아 때의 열독 때문이고, 그 다음은 젖이나 음식에 상한 경우이다. 풍한에 상한 경우는 단지 열 중에 하나일 뿐이다. 전부터 논하건대,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어머니가 굶주리면 태아도 굶주리고 어머니가 배부르면 태아도 배부르

며, 매운 음식을 먹으면 태아도 따라 열이 나며, 정욕이 마음을 움직이면 태아의 숨도 갑자기 빨라진다. 혹은 부침개나 튀김이나 맵고 신 음식을 많이 먹거나, 혹은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거나, 혹은 희노애락이 평상시와 다른 것은 모두 태아가 영향을 받아 출산 후에 병의 뿌리가 된다. 그러므로 어머니가 임신 중에 행동을 삼가지 못하고 출산 후에도 아이 돌보는 방법을 알지 못한 채 당장의 편안함만을 추구한다면 병의 싹을 막을 수 없다. 어떤 이는 백일이 되기도 전에 결국 짜거나 신 음식을 주고, 어떤 이는 돌이 되기도 전에 달고 기름진 음식을 먹이는데 온갖 병이 이로 말미암아 생기게 된다. 옛날에는 부인이 아이를 가지면 이상한 음식을 먹지 않았고, 젖먹이를 기를 때에는 기름진 음식을 절제하였고, 보통 음식을 먹는 나이가 되도 함부로 먹이지 않았으니 아마 이러한 이유 때문일 것이다. 아이를 잘 기르고 싶으면 아이를 가질 때부터 정욕을 절제하고 음식을 삼가며 혹시라도 옛사람의 금기를 범하지 말아야 하며, 젖먹이 때에도 적절히 먹이고 추위와 더위도 조절하여 최대한 보호하면 아마 헛되지 병으로 죽는 근심은 면할 수 있을 것이다.

1. 暖 : 暄 ※규장각본 <

## 解毒法 해독법

小兒在胎中, 口有惡物, 纔生不出聲, 急以綿裹手脂, 蘸黃連甘草濃煎汁, 拭去口中惡物, 卽繃裹了, 更以蜜調朱砂一字〔卽二分半〕, 或牛黃小許, 竝抹兒口令嚥下, 則痘疹稀<sup>1</sup>, 胎瘡不生, 兒性聰明, 永無疾病. 且飼乳酌量與之, 勿令大飽, 恐成吐乳.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입 속에 이물질이 있으면 태어나자마자 울지 못한다. 급히 천으로 손가락을 싸고 황련·감초를 진하게 달인 즙에 적서 입 속의 이물질을 닦고 곧바로 포대기로 싼다. 그리고 꿀에 주사 1자(2.5푼. 우황을 약간 넣어도 좋다)를 타서 입에 바르고 삼키게 한다. 그러면 두창에 잘 걸리지 않으며 태창(胎瘡)도 생기지 않고 총명해지며 영영 병에 걸리지 않는다. 또한 젖을 먹일 때 분량을 가늠하여 주고 너무 배불리 먹이지 말아야 하니 젖을 토하게 되기 때문이다.

○淡豆豉濃煎汁三五匙灌口, 胎毒自下, 又能養脾氣, 消化乳食.

담두시(淡豆豉) 진하게 달인 즙 3-5술을 입에 흘려 넣어주면 태독(胎毒)이 저절로 빠진다. 또한 비기(脾氣)를 길러주고 젖이나 밥을 소화시켜 준다.

1. 小 : \*少 ※규장각본 ↗



## 延生第一方 연생제일방

小兒初生, 臍帶脫落, 取置新瓦上, 用炭火四圍, 燒存性, 若臍帶五分, 入水飛朱砂二分半, 爲末, 用生地黃、當歸濃煎汁, 調勻, 抹兒上齦間及乳頭上, 一日之內用盡, 次日大便遺下穢濁之物, 終身永無痘疹, 十分妙法.

아이가 태어났을 때 탯줄이 떨어지면 새 기와 위에 놓고 잿불로 사방을 둘러 약성이 남도록 태운다. 탯줄 5푼에 주사(수비한다) 2.5푼을 넣고 가루낸 후 생지황·당귀를 진하게 달인 물에 잘 섞는다. 아이의 입천장과 어머니의 젖꼭지에 발라주어 하루 동안 모두 먹이면 다음날 대변으로 더러운 것들이 빠지고 종신토록 영영 두진(痘疹)을 앓지 않게 되니 십분 효과가 좋은 방법이다.

## 洗浴法 세욕법

兒生三日洗浴, 用虎頭骨, 或桃柳桑槐等嫩枝煎湯, 化猪膽汁, 看冷熱洗之, 則兒少驚.

아이가 태어난 지 3일이 되면 목욕을 시킨다. 호두골(虎頭骨)을 넣고 혹은 복숭아나무, 버드나무, 뽕나무, 회화나무 등의 어린 가지도 물에 넣고 달여 저담즙(猪膽汁)을 타서 적당한 온도가 되기를 기다렸다가 아이를 씻기면 경기를 하지 않게 된다.

○尋常澡洗, 用益母草煎湯, 和<sup>1</sup>猪膽汁洗之, 不生胎瘡.

○평상시에 익모초 달인 물에 저담즙(猪膽汁)을 풀어 씻기면 태창(胎瘡)이 생기지 않는다.

○凡洗兒, 勿久, 亦勿坐湯中, 風冷外傷, 水濕內滲, 變成風搐.

○모든 경우에 아이를 씻길 때는 오래 씻겨서도 안되며 따뜻한 물에 앉힌 채 씻겨서도 안된다. 풍랭(風冷)이 겹에서 침범하고 수습(水濕)이 안으로 스며들어 풍으로 인한 축닉(搐搦)이 되기 때문이다.

<sup>1</sup>. 和 : 化 ※규장각본 ←

## 乳哺法 젖을 먹이는 방법

乳母不食大段鹹酸等物, 仍忌纔衝寒暑來, 便餵兒乳, 如此則, 必成乳癖或驚疳瀉痢之疾. 凡初乳先須捏去宿乳, 後與之.

젖을 먹이는 어머니는 너무 짜거나 신 음식은 먹지 않아야 한다. 또한 찬바람을 쐬거나 무더운 곳에 다녀온 직후에는 젖을 주지 않는다. 만약 젖을 주면 반드시 유벽(乳癖)·경감(驚疳)·설사·이질 같은 병이 생긴다. 젖을 먹이기 전마다 반드시 묵은 젖을 짜버린 후에 먹여야 한다.

○小兒啼未定, 乳母勿遽飼乳, 恐停滯胸膈而成嘔吐也.

○아이가 울음을 그치기 전에 갑자기 젖을 먹이지 말아야 한다. 젖이 흥격에 막혀서 구토하게 되기 때문이다.

○乳後不與食, 哺後不與乳, 乳食相併, 則難以克<sup>1</sup>化, 結於腹中, 仍成積成癖成疳.

○젖을 먹인 후에는 밥을 주지 않아야 하며, 밥을 준 후에는 젖을 먹이지 않아야 한다. 젖과 밥이 함께 있으면 소화되기 어려워 뱃속에 뭉치게 되고 결국에는 적취(積聚)나 감병(疳病)이 생기기 때문이다.

○小兒腸胃, 尚脆而窄, 堅硬難化之物, 煎燂發熱之味, 一切禁絕, 亦勿使過飽過饑<sup>2</sup>.

○아이는 위장이 아직 연약하고 좁으므로 단단하고 소화가 어려운 음식이나 지지고 튀기거나 뜨거운 음식은 일체 금해야 한다. 또한 너무 배부르거나 너무 배고프게 하지 말아야 한다.

○初生三日內, 粳米碎煎作汁如乳酪, 每以豆許哺之二七日, 開腸胃助穀神, 極妙.

○태어난 지 3일 안에 멥쌀가루 끓인 물을 졸인 우유처럼 걸쭉하게 만들어 매일 콩알만큼 14일 동안 먹이면 위장을 열어주며 곡기를 돕는다. 매우 신묘하다.

○五六箇月, 只與米飲白粥等柔軟淡味, 則可以養胃養陰.

○태어난 지 5-6개월 때에 미음과 흰죽 등 부드럽고 담백한 음식만 먹이면 위기(胃氣)를 기르고 자음(滋陰)하는 효과가 있다.

---

1. 克 : 剋 ※규장각본 [↩](#)

2. 饑 : 飢 ※규장각본 [↩](#)

## 保護法 보호법

兒生三五月, 宜繻縛令臥, 勿<sup>1</sup>堅頭抱出.

아이가 태어나서 3-5개월까지는 포대기로 싸서 눕혀 놓아야 하며 머리를 세운 채 안고 나가지 말아야 한다.

○凡嬰兒肌膚未實, 若厚衣過煖, 則傷皮膚損血脈, 腠理不閉, 風邪易入, 若天氣和暖, 抱出使見風日, 又置地上, 使着地氣, 則肥膚堅剛, 血氣充完, 可耐風寒, 不致疾病. 今人懷抱小兒, 不着地氣, 致令肌膚血脈軟弱虛薄, 少<sup>2</sup>過風寒, 輒生疾病, 譬如陰地之草木, 阻陽而脆軟<sup>3</sup>.

○갓난아이는 피부가 영글지 않았기 때문에 두꺼운 옷을 입혀 너무 따뜻하게 하면 피부와 혈액이 손상되고 주리가 닫히지 않아 풍사가 쉽게 침입하게 된다. 날씨가 따뜻하면 아이를 안고 나가 바람과 별을 씌어주고 땅에 내려놓아 땅의 기운과 접촉시켜 주면, 피부가 튼튼해지고 혈기가 가득 채워져서 풍한(風寒)을 견디고 병에 걸리지 않게 된다. 요즘 사람들은 아이를 안고만 키우는데, 아이가 땅의 기운과 접촉되지 못하기 때문에 피부와 혈액이 연약해지고 조금만 춥거나 바람이 분다 싶으면 금세 병에 걸린다. 마치 그늘에 사는 식물은 별을 받지 못해 연약한 것과 비슷하다.

○夜間不得令兒枕臂, 須作一二豆袋, 令兒枕, 兼左右附之, 可近乳母之側, 蓋覆衣衾, 須露兒頭面, 若一向仰臥, 恐成驚疾, 須時時回動之. 用七八十歲老人舊棍舊襖, 改作小兒衣衫, 真氣相滋, 令兒有壽, 富貴之家, 切不宜新製紵絲綾羅之類, 與小兒穿, 不惟生病, 抑且折福.

○밤에는 아이가 팔을 베지 않도록 해야 한다. 모름지기 콩주머니 1-2개를 만들어서 아이가 베게 하고 양 옆에도 받쳐주며 유모 곁에 가까이 재워야 한다. 대체로 옷이나 이불을 덮어줄 때에는 반드시 아이의 얼굴이 드러나야 하며, 한 방향으로만 누워 놓으면 경기를 할 수도 있으므로 때때로 돌려주어야 한다. 7-

80세 노인이 오래 입은 바지저고리로 아이의 옷을 지어주면 진기(眞氣)가 길러져서 장수하게 된다. 부귀한 집안이라도 절대 모시나 비단으로 새 옷을 지어 아이에게 입히지 않아야 하니, 병이 생길 뿐 아니라 복이 달아나기 때문이다.

○寧陽侯孫生九月，得驚悸，頻啼汗流，百方無效。錢氏命兒坐地上，使掬水爲戲，驚卽止。人問之，曰令兒豐衣重帷，不離懷抱，其熱鬱安得散乎。近水，則火邪散而臟平，故不藥自愈。

〔의안〕 ○영양현(寧陽縣) 수령의 손주가 태어난 지 9개월 때 경계(驚悸)를 앓아 자주 울고 땀이 줄줄 흘렀으나 온갖 처방에도 효과가 없었다. 전을(錢乙)이 아이를 땅에 앉히라고 한 후 손으로 물을 뜨며 놀게 하도록 시켰더니 경계가 곧 멎었다. 사람들이 이유를 물으니 "아이를 두터운 옷과 이불로 감싸고 품에서 놓지 않으니 울체된 열이 어떻게 흩어지겠습니까. 물을 가까이 하여 열기가 흩어지고 장부가 편안해졌으므로 약을 쓰지 않아도 저절로 낫은 것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

---

1. 豎 : \*豎 ※규장각본 ↩

2. 過 : \*遇 ※규장각본 ↩

3. 也 : ※규장각본 ↩

## 養子十法 자식을 키우는 10가지 법칙

一要背煖, 二要肚煖, 三要足煖, 四要頭涼, 五要心胸涼, 六要不見怪物, 七要脾胃常<sup>1</sup>要溫, 八啼未定勿<sup>2</sup>便<sup>2</sup>飲乳, 九勿服輕粉朱砂, 十少洗浴.

①등을 따뜻하게 해준다. ②배를 따뜻하게 해준다. ③발을 따뜻하게 해준다. ④머리를 시원하게 해준다. ⑤가슴을 시원하게 해준다. ⑥괴상한 물건을 보게 하지 말아야 한다. ⑦비위를 늘 따뜻하게 해준다. ⑧울음이 그치지 않았을 때는 바로 젖을 물리지 말아야 한다. ⑨경분과 주사를 먹이지 말아야 한다. ⑩목욕은 적게 시켜야 한다.

---

1. 常 : 尙 ※규장각본 <

2. 便 : \*使 ※규장각본 <

## 調護歌 조호가

養子須調護

看承莫縱馳

乳多終損胃

食壅卽傷脾

被厚非爲益

衣單正所宜

無風頻見日

寒暑順天時

아이는 모름지기 잘 돌보며 길러야 하니  
잘 지켜보아 함부로 돌아다니지 못하게 해야 하네  
젖을 많이 먹이면 끝내 위장이 상하며  
밥에 체하면 비장을 상하네  
두텁게 입힌다고 유익이 되지 않으며  
단출히 입히는 것이 딱 적당하네  
바람 없는 날 자주 벌을 씌여주고  
추위와 더위는 계절에 알맞게 해야 하네



## 相兒壽夭歌 상아수요가

身軟陽痿頭四破

臍小臍高肉不就

髮稀色脆短聲啼

遍體青筋俱不壽

尻<sup>1</sup>踵<sup>1</sup>臍骨若不成

能踞能行能立死

臍深色老性尊持

方是人家長命兒

몸이 말랑하며 고추가 늘어지고 머리뼈가 4개로 나뉘진 것과  
배꼽이 작거나 높은 것과 살이 붙지 않는 것과  
머리숱이 적고 낮빛에 생기가 없으며 울음이 짧은 것과  
온몸에 푸른 힘줄은 모두 장수하지 못할 상이네  
엉덩이가 붓고 어깨골이 다 자라지 않은 것과  
너무 일찍 앉거나 걸거나 일어서는 것은 죽을 상이네  
배꼽이 깊고 얼굴빛이 완숙하며 성질이 있으면  
바로 이런 아이가 오래 살 상이네

○小兒手足常搖, 目視數動者, 非佳兆, 敏悟過人, 亦非吉兆.

○아이가 손발을 늘 떨고 시선이 자주 흔들리는 것은 좋은 징조가 아니다. 총명함이 지나치는 것도 길조는 아니다.

1. 踵 : \*腫 ※《의학입문》↩



## 觀形察色 관형찰색

察兒氣色

先分部位

左頰青龍屬肝

右頰白虎屬肺

天庭〔額〕高而離<sup>1</sup>陽心火

地閣〔頤〕低而坎陰腎水

鼻在面中

脾應唇際〔凡五岳，赤者皆熱，淡白者皆虛，四季準<sup>2</sup>頭紅<sup>11</sup>者無恙.〕

紅氣見而熱痰壅盛

青色露而驚風怔忡

如煤之黑 爲痛中惡逆傳

似橘之黃 食傷脾虛吐痢<sup>3</sup>

白乃疳勞

紫爲熱熾

青遮口角難醫

黑掩太陽不治

年壽〔山根下〕赤光 多生膿血

山根〔兩眼間鼻根〕青黑 頻見灾危

朱雀貫於雙瞳 火入水鄉

青蛇繞於四白〔胃經<sup>4</sup>, 在目下一寸, 直目瞳子.〕肝乘肺部

瀉痢而帶陽〔兩頰紅色〕須防

咳嗽而拖藍可忌

疼痛方殷 面青而唇口撮

驚風欲發 面赤而目竄視

火光焰焰 外感風寒

金氣浮浮 中藏積滯

乍黃乍白 疳積連綿

又赤又青 風邪癰瘰

氣乏顙門成坑

血衰頭毛作穗

肝氣眼生眵淚

脾冷涎流滯頤〔濁涎爲熱, 清涎爲冷.〕

面目虛浮 定腹脹而上喘

眉毛嚙蹙 必腹痛而多啼

風氣二池〔風池眉上, 氣池目下.〕如黃土則爲不宜

左右兩頰 似青黛則爲客忤

風門(耳前) 黑主疔而青爲驚

方廣(眉毛上) 光滑吉而昏暗凶(額曰天庭, 天庭下曰中庭, 中庭下曰司空, 司空下曰印堂, 眉毛上曰方廣, 皆命門部位, 青黑爲驚風惡候, 亦忌損陷.)

手如數物兮 肝風將發

面若塗朱兮 心火似灸

坐臥愛暖<sup>5</sup> 風寒之入

伸縮就冷 煩熱之攻

肚<sup>6</sup>大脚小 脾欲困而成疳

目瞪口張 勢似危而必斃

噫 五體以頭爲尊

一面惟神可恃

況乎 聲有輕重之不同

啼有乾濕(無淚者痛, 有淚者驚.)之頓異

病之初作 必先呵欠

火之大發 忽然驚叫

藜藿不同於膏粱<sup>7</sup>

韋布自殊於綺絹

雖由外而識中

勿刻舟而求劍

아이의 기색을 살피려면  
먼저 부위를 구분해야 하네

왼쪽 뺨은 청룡(靑龍)이며 간장에 속하고  
오른쪽 뺨은 백호(白虎)이며 폐장에 속하네

천정(天庭, 이마)은 높으니 이괘(離卦)요 양(陽)이며 심화(心火)에 속하고  
지각(地閣, 턱)은 낮으니 감괘(坎卦)요 음(陰)이며 신수(腎水)에 속하네

코는 얼굴 가운데 있으며  
비장은 입술 부근에 대응되네 (얼굴의 오악(五岳)이 붉으면 모두 열증이며 핏  
기 없이 희면 모두 허증이다. 사시사철 준두(準頭, 코)가 붉은색이면 병이 없  
다.)

얼굴에 붉은 빛이 돌면 열담(熱痰)이 웅성(壅盛)한 것이며  
푸른 빛이 돌면 경풍(驚風)과 경계(驚悸)라네

검댕같이 까맣게 되면 통증、중악(中惡)、역전(逆傳)이며  
굴처럼 노랗게 되면 식상(食傷)、비허(脾虛)、토사(吐瀉)라네

흰 빛은 감로(疳勞)이며  
자색 빛은 열이 끓어오르는 것이리

푸른 빛이 입꼬리를 가리면 고치기 어려우며  
검은 빛이 태양혈(太陽穴, 관자놀이)을 가리면 치료하지 못하네

연수(年壽, 콧날)가 붉고 반짝거리면 대부분 피고름이 생기며  
산근(山根, 양 눈 사이인 코의 뿌리)이 검푸르면 자주 재앙을 당하리

주작(朱雀)이 양 눈동자를 지나가면 화(火)가 신수(腎水)를 침입한 것이며  
청사(靑蛇)가 사백(四白, 족양명위경의 경혈로 눈 아래 1촌에 위치하며 눈동  
자의 바로 아래이다)을 휘감으면 간목(肝木)이 폐금(肺金)을 올라탄 것이네

설사를 하더라도 대양(帶陽, 양 볼이 붉은 것)은 반드시 막아야 하며  
기침을 하더라도 낮빛이 남색을 띄는 것은 아주 조심해야 한다네

통증이 서서히 심해지면 낮빛이 퍼레지면서 입술을 악다물며  
경풍이 생기려 하면 낮빛이 붉어지면서 눈이 치뜨네

화광(火光)이 이글이글한 것은 겉으로 풍한(風寒)에 감촉된 것이며  
금기(金氣)가 모락모락하는 것은 속에서 적체된 것이네

누레졌다 하얘졌다 하는 것은 감적(痞積)이 끊이지 않는 것이며  
붉어졌다 파래졌다 하는 것은 풍사(風邪)로 계종(癰瘻)이 생긴 것이네

기가 모자라면 신문(顙門)에 구덩이가 생기며  
혈이 쇠하면 머리털이 이삭처럼 듬성듬성해지네

간에 기운이 울체되면 눈곱과 눈물이 생기고  
비장이 차가우면 침이 턱으로 흐르네(뿌연 침은 열증이며, 투명한 침은 냉증  
이다.)

얼굴과 눈이 힘없이 푸석하면 분명 배가 뽕뽕하고 가쁜 숨을 내쉬며  
눈썹을 찡긋거리면 반드시 배가 아프며 자주 울 것이네

풍지(風池, 눈썹 위)와 기지(氣池, 눈 아래)가 황토색이면 좋지 않고

좌우 양 뺨이 청대(靑黛) 색을 띠면 객오(客忤)일 것이네

풍문(風門, 귀 앞)이 검으면 산증(疝症)이고 푸르면 경풍(驚風)이며  
방광(方廣, 눈썹 위)이 반들반들하면 길하고 어둑어둑하면 흉하네 (이마는 천  
정(天庭)이며, 천정 아래는 중정(中庭)이며, 중정 아래는 사공(司空)이며, 사공  
아래는 인당(印堂)이며, 눈썹 위는 방광(方廣)이다. 모두 명문(命門)의 부위로  
푸른빛이나 검은빛을 띠면 경풍(驚風) 등 나쁜 조짐이 되며, 손상되거나 함몰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물건을 세는 듯한 손이여, 간풍(肝風)이 생길 것이며  
주사를 바른 듯한 얼굴이여, 심화(心火)가 타오를 것이리

앉거나 누워서 따뜻한 것만 좋아하면 풍한(風寒)이 침입한 것이며  
계속 움직이며 시원한 곳을 찾으면 번열이 공격한 것이네

배는 크고 다리가 작으면 비장이 피곤해져 감적(痞積)이 생길 것이며  
눈을 부릅뜨고 입을 크게 벌리면 병세가 위태로와 죽게 되리

아 다섯가지 신체 부위에서 머리가 귀하며  
온 얼굴에는 정신이 깃들어 있네

또한 목소리에는 경중의 차이가 있으며  
울음소리에는 습하고 마른 차이가 있네 (눈물이 없는 경우는 아픈 것이며, 눈  
물이 있는 경우는 놀란 것이다.)

병이 처음 생기면 반드시 먼저 씹씹대고 하품하며  
열이 심해지면 문득 놀라고 소리지르네



명아주잎과 콩잎 같이 거친 음식이 고량진미보다 낮고  
가죽 혁대와 베옷 같이 거친 옷이 비단보다 낮다네

비록 겉모습으로 몸 속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어리석게 각주구검(刻舟求劍) 하지는 말아야 하네

〔兩眼無睛光, 黑睛無轉運, 目睫無劍<sup>8</sup>芒, 如魚貓狀, 或兩眼閉而黑睛矇矓者, 死, 若外雖昏困而神藏於內不脫者, 生. ◦凡病初發時, 必先呵欠, 肝之所主也. 面赤者風熱, 青者驚風, 黃者脾熱, 多睡者內熱, 心神不安者氣熱, 聲壅者傷風.<sup>9</sup>〕

〔두 눈에 초점이 없거나, 눈동자가 움직이지 않거나, 속눈썹이 뾰족하지 않거나, 물고기와 고양이이의 눈과 비슷해지거나, 두 눈을 감고 눈동자가 흐린 경우는 죽는다. 겉모습은 비록 혼절해 보여도 정신이 눈동자에 담겨 있는 경우는 산다. ◦대체로 병이 처음 생겼을 때는 반드시 먼저 큰소리로 하품을 하는데 간장이 주관하는 것이다. 얼굴이 붉은색이면 풍열(風熱), 푸른색이면 경풍(驚風), 누런색이면 비열(脾熱)이며, 잠을 너무 많이 자는 경우는 내열(內熱), 정신이 불안한 경우는 기열(氣熱), 목소리가 막힌 듯하면 상풍(傷風)이다.<sup>10</sup>〕

1. 離 : 离 ※규장각본 ←

2. 準 : 鼻 ※규장각본 ←

11. 紅 : 赤黃 ※규장각본 ←

3. 痢 : 利 ※규장각본 ←

4. 穴 : 血 ※규장각본 ←

5. 暖 : 煖 ※규장각본 ←

6. 肚 : 脾 ※규장각본 ←

7. 梁 : \*梁 ※규장각본 ↩

8. 劒 : 鋒 ※규장각본 ↩

9. 凡病初發時, 必先呵欠, 肝之所主也. 面赤者風熱, 靑者驚風, 黃者脾熱, 多睡者內熱, 心神不安者氣熱, 聲壅者傷風. : 이 부분은 위에 있는 '病之初作 必先呵欠'에 대한 주석이다. ※《의학입문》 ↩

10. 대체로 병이 처음 생겼을 때는 반드시 먼저 큰소리로 하품을 하는데 간장이 주관하는 것이다. 얼굴이 붉은색이면 풍열(風熱), 푸른색이면 경풍(驚風), 누런색이면 비열(脾熱)이며, 잠을 너무 많이 자는 경우는 내열(內熱), 정신이 불안한 경우는 기열(氣熱), 목소리가 막힌 듯하면 상풍(傷風)이다. : 이 부분은 위에 있는 '病之初作 必先呵欠'에 대한 주석이다. ※《의학입문》 ↩

## 聽聲音法 소리를 알아듣는 방법

聲輕者氣也弱也, 重濁者痛也風也, 高喊者熱欲狂也, 聲急者神驚也, 聲塞者痰也, 聲戰者寒也, 聲<sup>1</sup>者氣不順也, 喘者氣促也, 噴嚏者傷風也, 驚哭聲沈不響者重也, 聲濁沈靜者疳積也, 直聲往來而無淚者痛也, 連聲不絕而多淚者驚也, 噉<sup>2</sup>煎聲煩躁<sup>3</sup>者難愈, 躁<sup>4</sup>促聲音者感寒. 睡中驚啼, 聲浮者易治, 聲沈不響者難痊, 如生來不大啼, 哭聲啾啾者, 夭.

울음소리가 가벼우면 기병(氣病)이거나 허약한 것이다. 무거우면서 탁하면 통증이 있거나 풍병(風病)이다. 고함을 지르면 열로 광증(狂症)이 되려는 것이며, 울음소리가 조급하면 정신이 놀란 것이다. 울음소리가 막힌 듯하면 담증(痰症)이며, 떨리면 한증(寒症)이다. 목이 멘 울음소리는 숨이 순조롭지 못한 것이며, 혈떡이면 숨이 가쁜 것이며, 재채기하면 상풍(傷風)이다. 놀라 울다가 목소리가 가라앉고 잘 나지 않으면 위중한 것이다. 울음소리가 탁하며 조용하게 가라앉으면 감적(疳積)이다. 소리로만 울었다 그쳤다 하며 눈물이 없으면 통증이 있는 것이다. 끊임없이 울며 눈물이 많으면 경풍(驚風)이다. 번조(煩燥)가 있는 듯 애타게 울면 낫기 어렵다. 조급하게 울면 감한(感寒)이다. 자다가 놀라 울 때 울음소리가 다급하면 쉽게 치료할 수 있고, 울음소리가 가라앉아 소리가 잘 나지 않으면 치료하기 어렵다. 만약 태어나자마자 크게 울지 않고 벌레처럼 작게 울면 요절한다.

1. 噎 : 噎 ※규장각본 <

2. 噉 : 噉 ※규장각본 <

3. 躁 : 躁 ※규장각본 <

4. 躁 : 躁 ※규장각본 <



## 額脈 액맥

小兒初生至半歲, 有病, 當於額前眉上髮際之下, 以名中食三指曲按之, 兒頭在左舉右手, 在右舉左手, 食指爲上, 中指爲中, 名指爲下. 若三指俱熱, 外感風寒, 俱冷, 吐瀉臟寒, 食指熱, 胸中滿悶, 無名指熱, 乳食不化, 食指中指熱, 上熱下冷, 名指中指熱, 挾驚之候.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반년이 될 때까지는 병이 있으면 눈썹과 발제 사이 이마에 나타난다. 검지·중지·약지 세 손가락을 구부려 짚는데 아이의 머리가 자신의 왼쪽에 있으면 오른손으로 짚고, 머리가 오른쪽에 있으면 왼손으로 짚는다. 검지는 발제 쪽, 중지는 중간, 약지는 눈썹 쪽을 짚는다. 세 손가락이 모두 뜨거우면 풍한(風寒)에 외감된 것이며, 모두 차가우면 토사로 장이 차가워진 것이며, 검지가 뜨거우면 가슴이 그득하고 답답한 것이며, 약지가 뜨거우면 젖이나 음식이 소화되지 못한 것이며, 검지와 중지가 뜨거우면 상체는 뜨겁고 하체는 차가운 것이며, 약지와 중지가 뜨거우면 경풍이 겹해진 징후이다.

## 虎口三關脈 호구삼관맥

小兒三歲以下, 有病, 須看男左女右手大指次指內側, 第一節名風關, 第二節名氣關, 第三節名命關. 辨其紋色, 若紫者屬熱, 紅者屬寒, 青者驚風, 白者疳病, 黑者中惡, 黃者脾困也. 若見於風關爲輕, 氣關爲重, 過於命關則難治.

세 살 전의 아이가 병이 있으면 검지의 안쪽 엄지 방향을 살펴야 한다(남아는 왼손, 여아는 오른손). 첫째 마디는 풍관(風關), 둘째 마디는 기관(氣關), 셋째 마디는 명관(命關)이다. 살결의 색깔을 살펴야 하는데 자줏빛이면 열증에 속하며, 붉으면 한증에 속하며, 푸른빛은 경풍(驚風)이며, 흰빛은 감병이며, 검은 빛은 중악(中惡)이며, 누런빛은 비장이 약해진 것이다. 이 색깔이 풍관에만 드러나면 가벼운 증상이며, 풍관과 기관에 드러나면 심각한 증상이며, 명관까지 드러나면 고치기 어렵다.

## 小兒脈法 소아맥법

男子五歲, 女人六歲, 以大指渾按三部脈, 以一息六七至爲常, 八九至熱, 十至熱極, 四五至寒, 三至脫, 十一十二至死.

남아는 5살, 여아는 6살이 되면 엄지손가락으로 삼부맥(三部脈)을 한번에 짚어 한 번 숨 쉴 때 맥이 6-7번 뛰는 것을 기준으로 삼는다. 8-9번 뛰면 열이 나는 것이며, 10번 뛰면 열이 심한 것이다. 4-5번 뛰면 한증이며, 3번 뛰면 탈진한 것이다. 11-12번 뛰면 죽게 된다.

○左手寸口曰人迎, 右手寸口曰氣口, 男先左, 女先右, 先陽後陰故也. 初生曰嬰兒, 三歲曰小兒, 七八歲曰鬲, 十四歲曰陂, 至十五歲, 依大科脈部位診視.(左寸曰人迎, 心與小腸, 關肝與膽, 尺腎與膀胱居焉. ○右寸曰氣口, 肺與大腸, 關脾與胃, 尺命門三焦居焉.)

○왼손의 촌구맥은 인영(人迎)이라 하며, 오른손의 촌구맥은 기구(氣口)라 한다. 남자아이는 왼손을, 여자아이는 오른손을 우선하는데 '선양후음(先陽後陰)'의 원리를 따르기 때문이다. 갓난아이는 영아(嬰兒), 3세는 소아, 7-8세는 촌(鬲), 14세는 초(陂)<sup>1</sup>라고 한다. 15세가 되면 성인처럼 맥을 짚고 부위를 따지며 형상을 살핀다. (왼손의 촌맥은 인영(人迎)이니 심장과 소장, 관맥은 간장과 쓸개에, 척맥은 신장과 방광에 해당한다. ○오른손의 촌맥은 기구(氣口)니 폐장과 대장에, 관맥은 비장과 위, 척맥은 명문과 삼초에 해당한다.)

脈亂(不治), 弦急(氣不和), 沈緩(傷食), 促急(虛驚), 浮(爲風), 沈細(爲冷), 洪緊(傷寒), 數(熱), 遲(寒).

맥이 불규칙하면 치료하지 못하며, 현급(弦急)하면 기가 조화롭지 않은 것이며, 침완(沈緩)하면 식상(食傷)이며, 촉급(促急)하면 허증(虛症)이나 경풍(驚風)이며, 부(浮)하면 풍증(風症)이며, 침세(沈細)하면 냉증(冷症)이며, 홍건(洪

緊)하면 상한(傷寒)이며, 삭(數)하면 열증(熱症)이며, 지(遲)하면 한증(寒症)이다.

人迎緊盛傷寒, 寸口浮數傷風, 沈伏積聚, 浮滑蛔蟲.

인영맥이 긴성(緊盛)하면 상한이다. 촌구맥이 부삭(浮數)하면 상풍이며, 침복(沈伏)하면 적취며, 부활(浮滑)하면 회충이다.

○童子脈, 前大後小爲順, 前小後大爲逆, 大小不<sup>2</sup>勻爲鬼祟.

○동자<sup>3</sup>의 맥이 처음에 대(大)하고 나중에 소(小)하면 순증(順症)이며, 반대의 경우는 역증(逆症)이며, 대와 소가 일정하지 않으면 귀신에 썩인 것이다.

○驚搐, 脈浮大身溫爲順, 沈細肢冷爲逆, 疳勞, 脈緊數臍實爲順, 沈細脈脾泄爲逆, 蟲痛, 脈緊滑身溫爲順, 浮大唇青爲逆, 餘<sup>4</sup>與同大科.

○경축(驚搐)일 때 맥이 부대(浮大)하고 몸통이 따뜻하면 순증이며, 맥이 침세(沈細)하고 사지가 차면 역증이다. 감로(疳勞)일 때 맥이 긴삭(緊數)하고 대변을 보지 않으면 순증이며, 맥이 침세(沈細)하고 설사하면 역증이다. 충통(蟲痛)일 때 맥이 긴활(緊滑)하고 몸통이 따뜻하면 순증이며, 맥이 부대(浮大)하고 입술이 푸른빛이면 역증이다. 나머지는 성인과 동일하다.

1. 14세는 초(齒) : 다른 문헌에서 9-10세를 초라고 한 것과 다르지만 원본 그대로 번역하였다. ←

2. 勻 : 均 ※규장각본 ←

3. 동자 : 《만병회춘》에는 10세를 동자(童子)라고 하였다. ←

4. 與 : 病順逆 ※규장각본 ←





## 五臟主病 오장주병

肝屬木, 色青主風, 實則目直大叫, 項急悶亂, 宜瀉青丸,〔方見驚風. 目睛青者, 必發驚搐.〕虛則咬牙呵欠, 宜腎氣丸.〔方見解顱. 〇咬牙甚則發驚搐.〕〇熱則兩眦俱緊, 不轉睛, 循衣領, 亂捻物, 甚則身強反張目直.〔瀉青丸〕風則目連筋.〔如風吹不定之狀.〕

간장은 오행에서 목(木)에 속하며 색으로는 청색이고, 풍증을 주관한다. 실하면 눈을 치켜뜨고 크게 소리 지르며 뒷목이 당기고 가슴이 답답하니 사청환을 써야 한다.〔처방은 경풍(驚風)에 나온다. 눈동자에 푸른빛이 돌면 반드시 경축(驚搐)이 생긴다.〕허하면 이를 갈고 씹씩대거나 하품을 하니 신기환을 써야 한다.〔처방은 해로(解顱)에 나온다. 〇이를 심하게 갈면 경축이 생긴다.〕간장에 열이 있으면 눈의 양 끝이 모두 뻗뻗해지고 눈동자를 돌리지 못하며, 옷이나 옷깃을 문지르고 물건을 계속 만지작거린다. 심하면 몸이 강직되어 뒤로 젖혀지며 눈을 치켜뜬다.〔사청환을 쓴다.〕풍증이 되면 눈을 계속 깜빡인다.〔마치 바람이 불어 가만히 있지 못하는 모습 같다.〕

心屬火, 色赤主驚, 實則啼哭發熱, 飲水而搐, 宜導赤散. 〇虛則困臥驚悸不安, 宜生犀散.〔方見諸熱.〕〇熱則上竄, 舌強欲言不能啼, 咬牙, 合面而臥, 宜導赤散.〔方見驚風. 〇舌者心苗, 心熱則舌強不能啼. 〇心氣熱, 則心赤<sup>1</sup>熱, 而有就冷之意, 故合面而臥.〕

심장은 오행에서 화(火)에 속하며 색으로는 적색이고, 경풍(驚風)을 주관한다. 실하면 울며 열이 나고 물을 마시면 경축이 생기니 도적산을 써야 한다. 〇허하면 피곤하여 누워만 있고 경계(驚悸)와 불안 증상을 보이니 생서산을 써야 한다.〔처방은 제열(諸熱)에 나온다.〕〇심장에 열이 있으면 눈을 치켜뜨고 혀가 뻗뻗해져 소리를 내려 해도 울지 못하며 이를 갈고 바닥에 찰싹 엎드려 눕는다. 도적산을 써야 한다.〔처방은 경풍(驚風)에 나온다. 〇혀는 심장의 싹이니

심장에 열이 있으면 혀가 뻗뻗해져 소리 내어 울지 못한다. ◦심기(心氣)에 열이 있으면 가슴에도 열이 나서 차가운 곳에 가려는 마음이 생긴다. 그러므로 바닥에 찰싹 엎드려 눕는 것이다.)

脾屬土, 色黃主困, 實則昏睡不露睛, 身熱煩渴, 嘔泄不眠, 瀉黃散.(方見諸熱.) 虛則吐腥瀉白, 多睡睛露, 四肢漸次生風, 白朮散、異功散、理中湯(三方見吐瀉)選用.

비장은 오행에서 토(土)에 속하며 색으로는 황색이고, 피곤함을 주관한다. 실하면 혼수상태에 빠져 눈동자가 보이지 않으며 몸이 뜨겁고 미친 듯이 목말라 하며 구토와 설사 및 불면증이 생기니 사황산을 써야 한다.(처방은 제열(諸熱)에 나온다.) 허하면 비린 것을 토하고 희멀건 설사를 하며 잠에 빠져있고 눈동자는 보이며 사지에 점점 풍증(風症)이 생긴다. 백출산, 이공산, 이중탕을 적절히 골라서 쓴다.(3개 처방은 토사(吐瀉)에 나온다.)

肺屬金, 色白主喘, 實則喘促悶亂, 渴欲飲水, 瀉白散(方見諸熱)潤之. 虛則哽氣長出, 少氣唇白, 先服益黃散(方見吐瀉), 後用阿膠散.(方見咳嗽) 熱則, 手搯眉目鼻孔, 甘吉湯.(方見咽喉)

폐장은 오행에서 금(金)에 속하며 색으로는 백색이고, 천식을 주관한다. 실하면 숨을 가쁘게 내쉬며 가슴이 답답해하고 목이 말라 물을 찾으니 사백산으로 적셔주어야 한다.(처방은 제열(諸熱)에 나온다.) 허하면 목이 막힌 듯이 숨을 길게 내쉬며 숨이 얹아지고 입술이 하얗게 질린다. 우선 익황산(처방은 토사(吐瀉)에 나온다.)을 먹이고, 그 다음에 아교산(처방은 해수(咳嗽)에 나온다.)을 쓴다. 폐장에 열이 있으면 손으로 눈을 비비거나 코를 파니 감길탕을 쓴다. (처방은 인후(咽喉)에 나온다.)

腎屬水, 色黑主虛, 兒虛恟, 由胎氣不盛, 神氣不足, 目多白睛畏明, 顙顙自開, 面色<sup>2</sup>皛白, 皆難養, 或夭.(腎無實, 則<sup>3</sup>痘瘡黑陷爲實.) 若恣色慾, 因病致虛者, 可補. 又腎氣不足, 則足熱如火, 不喜<sup>4</sup>覆, 下竄, 骨重墜下而縮身者, 多病不壽.

신장은 오행에서 수(水)에 속하며 색으로는 흑색이고, 허증을 주관한다. 소아가 이유 없이 겁에 질리는 경우는 태기(胎氣)가 왕성하지 못했거나 신기(神氣)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눈에 흰자위가 많이 드러나며 밝은 빛을 싫어하고 머리 뼈의 솟구멍이 저절로 벌어지며 낮빛이 창백해지는데 이와 같은 경우는 모두 아이를 잘 키우기 어려우며 간혹 요절하는 경우도 있다.〔신장은 실증이 없고, 두창으로 검게 꺼진 것만이 실증이다.〕 색욕을 탐닉하여 허증이 된 경우는 보해주어야 한다. 또한 신기(腎氣)가 부족하면 발이 불처럼 뜨거워 이불을 덮기 싫어하며 눈동자가 아래로 물리고 뼈가 무거워 사지를 늘어뜨리면서 몸을 웅크리는데 이런 경우는 병치레가 잦고 오래 살지 못한다.

1. 赤 : \*亦 ※규장각본 [↩](#)

2. 眇 : 黃 ※규장각본 [↩](#)

3. 則 : 惟 ※규장각본 [↩](#)

4. 글자없음 : 衣 ※규장각본 [↩](#)

## 子母補瀉法 오행의 자모 보사법

虛則補其母, 實則瀉其子. 肝者心之母, 假如肝木實, 當瀉心火, 使其子求食於母, 則其實可得而平矣, 肝者腎之子, 假如肝木虛, 當補腎水, 使其母來生於子, 則其虛可得而平矣. 餘臟倣此.

오장이 허하면 어머니가 되는 오장을 보해주고, 실하면 자식이 되는 오장을 사해주어야 한다. 간장은 심장의 어머니가 되기 때문에 만약 간목(肝木)이 실한 경우에는 마땅히 심화(心火)를 사해주어 자식이 어머니에게 밥을 달라고 하면 실증이 화평해질 것이다. 간장은 신장의 어머니가 되기 때문에 만약 간목이 허한 경우에는 마땅히 신수(腎水)를 보해주어 어머니가 와서 자식을 살리면 허증이 화평해질 것이다. 나머지 오장도 이와 같다.

## 五臟相乘 오장의 상승(相乘) 관계

凡五臟自病者爲正邪, 妻乘夫爲微邪, 母乘子爲虛邪, 子乘母爲實邪, 夫乘妻爲賊邪, 所謂乘者, 猶乘車之謂, 五臟相乘莫測, 如肝病必先治肺補腎然後, 審肝臟虛實而調之, 餘臟倣此.〔甲與己相合, 乙與庚相合, 丙與辛相合, 丁與壬相合, 戊與癸相合, 此相剋<sup>1</sup>相合, 和親而爲夫妻之義也. 假如肝經病見脾經症, 爲微邪, 見肺經症, 爲賊邪, 餘臟倣此.〕五臟病機, 不離五行生剋制化之理, 所以有臟腑虛實乘勝之病, 世俗不審此理, 往往率指爲外感內傷, 而用藥枉死, 此錢氏潔古之功大矣哉.

오장이 스스로 병이 된 것은 정사(正邪)라고 하고, 부인 장부의 병이 남편 장부에 올라탄 것은 미사(微邪)라고 하며, 어머니 장부의 병이 자식 장부에 올라탄 것은 허사(虛邪)라고 하고, 자식 장부의 병이 어머니 장부에 올라탄 것은 실사(實邪)라고 하며, 남편 장부의 병이 부인 장부에 올라탄 것은 적사(賊邪)라고 한다. '올라탄다'는 것은 수레에 오르는 것처럼 올라탄다는 것을 말한다. 오장이 서로 올라타는 것은 헤아리기 어렵다. 만약 간장이 병들면 반드시 먼저 폐장을 다스리고 신장을 보한 후에 간장의 허실을 살펴 조리해야 한다. 나머지 오장도 이와 같다.〔십간에서 갑(甲)은 기(己)와 상합되며, 을(乙)은 경(庚)과 상합되며, 병(丙)은 신(辛)과 상합되며, 정(丁)은 임(壬)과 상합되며, 무(戊)는 계(癸)와 상합된다. 이것이 상극과 상합이니 화친하면서 남편과 부인이 되는 의미이다. 예를 들어 간경(肝經)의 병이 비경(脾經)의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미사(微邪)를 받은 것이고, 폐경(肺經)의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적사(賊邪)를 준 것이다. 나머지 오장도 이와 같다.〕오장의 병기(病機)는 오행의 상생·상극하는 이치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장부의 허실이 나타나거나 억눌리거나 올라타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요즘 세상에는 이와 같은 이치를 살피지 않고 자주 경솔하게 외감이나 내상이라 말하며 약으로 억울하게 죽게 하고 있다. 이 부분에서는 전을(錢乙)과 장원소(張元素)의 공이 위대하다.

1. 剋 : 克 ※규장각본 ←

## 小兒病機 소아의 병기(病機)

凡小兒之病, 太半胎毒, 小半內傷乳食, 十分之一外感風寒, 大率屬脾與肝, 多因脾胃嬌嫩, 乳食傷精, 則生濕, 濕生痰, 痰生熱, 濕熱結滯而然. 且眞水未旺, 心火獨炎, 故肺金受制, 肝常有餘, 脾腎之不足也.

소아의 질병 중 절반 이상은 태독(胎毒)이며, 나머지는 젖이나 음식으로 내상을 입은 것이며, 십분의 일 정도는 풍한으로 외감된 것이다. 대개는 비장과 간장에 속한 병인데 대부분 비위가 연약한 상태에서 젖이나 음식에 정기를 상하게 되면 습이 생기고, 습은 담을 생기게 하고, 담은 열을 생기게 하여 결국 습과 열이 뭉치고 막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다. 또한 진수(眞水)가 아직 왕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심화(心火)가 유독 타오르면 폐금(肺金)이 억눌리기 때문에 간장의 기운은 항상 넘치고 비장과 신장의 기운은 부족하게 되는 것이다.



## 及幼方卷之二 급유방 권2

橫城 趙廷俊重卿 集

횡성 조정준(趙廷俊, 字 重卿) 편저

## 初生雜症 갓난아이의 여러 가지 증상

小兒初生眼閉不開者, 由產母多食熱毒之物, 致成斯疾, 治法當以熊膽少許泡水, 洗眼上, 日七次, 如不開, 用地黃湯・釀乳方.〔方見下.〕凡兒初生時, 卽洗眼包上澱汁, 若洗不淨, 則澱汁浸漬於眼中, 不開或赤爛, 至長不差, 黃連・陳皮・燈心・大棗各等分, 水煎, 洗眼, 日數三次.

갓난아이가 눈을 뜨지 못하는 경우는 산모가 뜨거운 음식을 많이 먹어 이 증상이 생긴 것이다. 치료하려면 응담을 약간 물에 담갔다가 그 물로 눈꺼풀을 하루에 7번 닦아준다. 만약 눈을 뜨지 못하면 지황탕・양유방을 쓴다(처방은 아래에 나온다). 아이가 갓 태어나면 즉시 눈꺼풀의 땀물을 닦아줘야 한다. 깨끗이 닦아주지 않으면 땀물이 눈 속으로 스며들어 눈을 뜨지 못하거나 빨갛게 짓무르게 된다. 자라서도 낫지 않으면 황련・진피・등심・대조 각각 같은 양을 물에 달여 하루 3번 눈을 씻어준다.

兒生下不能啼者, 必是難產或冒寒所致, 急以綿絮包抱懷中, 勿斷臍帶, 且將胞衣, 置爐火中燒之, 仍作大紙撚蘸油, 點火於臍帶上, 燎之, 令火氣入腹, 更以熱醋湯, 洗澆臍帶, 須臾氣回啼哭如常, 方可斷臍.

아이가 태어나서 울지 않는 경우는 분명 난산이었거나 한기를 씌어서 그런 것이다. 급히 아이를 따뜻한 천으로 싸서 가슴에 품고 땀줄은 자르지 않은 채 포의(胞衣)를 화롯불에 넣어 태운다. 또한 큰 종이를 꼬아 기름을 적신 것으로 땀줄을 그을려서 열기가 배로 들어가게 해준 후, 뜨거운 식초로 땀줄을 닦아준다. 조금 후에 숨이 돌아오고 아이가 정상처럼 울면 그때 땀줄을 잘라준다.

兒生下身熱面赤, 驚悸, 氣急呵欠, 眼閉赤腫, 小便赤澁, 大便不通者, 因孕母多食熱物, 以致胎熱, 宜辰砂膏〔方見胎驚.〕或地黃湯.〔方見下.〕

아이가 태어나서 몸이 뜨겁고 얼굴이 붉으며, 경기하고, 숨이 급하며 씹씹거리고 하품하며, 눈은 빨갭게 부은 채 뜨지 못하고, 오줌이 붉고 잘 누지 못하며, 똥도 나오지 않는 경우는 산모가 뜨거운 음식을 많이 먹어 태열(胎熱)로 되어 버린 것이다. 진사고(처방은 태경(胎驚)에 나온다)나 지황탕(처방은 아래에 나온다)을 써야 한다.

#### ◦釀乳方 ◦양유방

- 治胎熱面赤眼閉, 二便不通, 不乳多啼.
- 태열로 얼굴이 붉고 눈을 뜨지 못하며 대소변을 보지 못하고 젖을 빨지 못하며 계속 우는 것을 치료한다.
- 澤瀉 五錢, 生地黃 四錢, 豬苓、赤茯苓、天花粉、茵陳、甘草 各二錢.
- 택사 5돈, 생지황 4돈, 저령·적복령·천화분·인진·감초 각 2돈.
- 右剉, 水煎, 令乳母捏去宿乳<sup>1</sup>之, 良久乳兒. 凡釀乳方皆倣此.
- 이상을 썰어 물에 달인다. 유모에게 묶은 젖을 짜 버린 후 이 약을 복용하게 하고 얼마 후에 아이에게 젖을 물린다. 양유방(釀乳方)은 모두 이와 같이 유모를 통해 젖으로 만들어 먹인다.

生下面紅氣急, 眵淚呵欠, 二便不利, 或有血水, 甚則手足常搐, 眼常<sup>2</sup>斜視, 身常掣跳, 宜釀乳方, 或大連翹飲(方見胎瘡.)、地黃湯.(方見下.)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얼굴이 붉고 숨이 가쁘며 눈곱이 끼고 눈물을 흘리며 씹씹대거나 하품을 하고 대소변을 보지 못하다가 가끔씩 핏물을 싸며, 심한 경우에 손발이 계속 오그라들고 눈은 사시이며 몸통이 당기면서 떨리게 되면 양유방을 써야 한다. 혹은 대연교음(처방은 태창(胎瘡)에 나온다)·지황탕(처방은 아래에 나온다)을 쓴다.

初生小便不通者, 心氣積熱, 併於小腸, 急用生地龍數條, 入蜜少許研勻, 敷陰莖上, 內用蠶退紙燒存性, 入朱砂、腦、麝各少許, 爲末, 麥門冬燈心湯調服. ○乳汁四合, 葱白一寸四破, 煎三沸, 灌<sup>3</sup>服.

아이가 갓 태어나서 오줌을 누지 못하는 까닭은 심장에 쌓인 열기가 소장까지 번졌기 때문이다. 급히 살아있는 지렁이 몇 마리에 꿀을 조금 넣고 갈아서 고추 곁에 바르는 한편, 약성이 남도록 태운 잠퇴지에 주사·용뇌·사향을 조금씩 넣어 가루낸 후 맥문동·등심 달인 물에 타서 먹인다. ○젖 4홉과 총백 1촌(4개로 쪼갬다)을 3번 정도 끓여오르게 달여 입에 흘려 넣어준다.

兒生下身冷, 口氣亦冷, 腸鳴, 瀉痢<sup>4</sup>色<sup>4</sup>青黑, 盤腸內釣, 心腹絞痛, 不乳多啼者, 在腹中時, 母食冷物, 或外被風寒之致也.

아이가 갓 태어나서 몸이 차가우며 숨도 차갑고 배에서 꾸르륵 소리가 나며 검은 설사를 하고 반장(盤腸)과 내조(內釣)가 있으며 가슴을 쥐어짜면서 아파하고 젖을 물지 못한 채 계속 우는 이유는 뱃속에 있을 때 어머니가 차가운 음식을 먹거나 풍한에 외감되어 그런 것이다.

#### ○白殭散 ○백강산

- 治胎寒腹痛<sup>5</sup>, 瀉痢.
- 뱃속에서 한기를 받아서 생긴 복통·설사·이질을 치료한다.
- 白殭蠶(直者, 炒去觜)、木香、官桂、陳皮、檳榔、甘草(炙) 各五分.
- 백강잠(곧은 것. 볶은 후 주둥이 부분은 버린다)、목향、관계、진피、빈랑、감초(살짝 볶는다) 各 5푼.
- 右剉, 水煎, 量兒大小, 以綿蘸灌之. ○嘔, 加木瓜、丁香. 面青肢冷, 去檳榔, 加芎歸<sup>6</sup>.
- 이상을 썰어 물에 달인다. 아이의 몸집을 가늠하여 천에 찍어 입에 흘려 넣는다. ○구역질을 하면 목과、정향을 더한다. 얼굴에 푸른빛이 돌고 사지가 차가우면

빈랑을 빼고 천궁·당귀를 더한다.

胎恟面黃, 目多白睛, 喜哭, 肌肉薄, 身無血色, 大便色白, 生後不<sup>7</sup>生肌肉而瘦, 此母血父精皆不足之致, 宜長生丸<sup>8</sup>.

태겁(胎恟)으로 얼굴이 누렇게 되고 눈에 흰자위가 많이 보이며, 자주 울고 살이 마르며, 몸에 혈색이 없으며 허연 똥을 누고, 태어난 후에도 살이 오르지 않으며 바짝 마르는 까닭은 어머니의 혈(血)과 아버지의 정(精)이 모두 부족했기 때문이다. 장생환을 써야 한다.

#### ○長生丸 ○장생환

- 寬上實下, 補脾化痰止瀉.
- 상초를 편안히 하고 하초를 튼실하게 하며 비장을 보하고 담(痰)을 녹이며 설사를 멎게 한다.
- 檳榔、枳殼 各一兩, 木香 五錢, 砂仁(炒)、半夏、丁香、肉豆蔻(炒)<sup>9</sup>, 全蝎(炒), 各<sup>10</sup>廿枚.
- 빈랑·지각 각 1냥, 목향 5돈, 사인(볶는다)·반하·정향·육두구(볶는다) 각 3돈, 전갈(볶는다) 20개.
- 右爲末, 飯丸黍米大, 每五十丸乳汁下.
- 이상을 가루 내고 밥에 개어 서미대로 환을 빻은 후 50알씩<sup>11</sup> 젖으로 삼키게 한다.

兒生下肌膚血紅, 五心煩熱, 大便難, 目白睛粉紅, 此胎肥, 宜浴體法.

아이가 태어나서 살에 피가 비치며 오심번열이 있고 똥을 잘 누지 못하며 흰자위가 충혈된 것은 태비(胎肥)이니 욕체법을 써야 한다.

#### ○浴體法 ○욕체법

- 白礬、青黛、烏蛇肉 各一錢半, 天麻 五分, 蝎梢、朱砂 各二分半, 麝香 一字, 桃枝 一握.
- 백반、청대、오사육 각 1.5돈, 천마 5푼, 전갈、주사 각 2.5푼, 사향 2.5푼, 복숭아나무가지 1줌.
- 右水煎十沸, 溫熱浴之, 勿洗背, 胎瘦<sup>12</sup>亦宜.
- 이상을 물에 넣고 10번 정도 끓여오르게 달인 후 따뜻하거나 살짝 뜨겁게 씻긴다. 등은 씻기지 말아야 한다. 태수(胎瘦)에도 좋다.

兒生下遍身面目皆黃, 狀如金色, 身上壯熱, 大便不通, 小便如梔子汁, 不飲乳, 啼哭不止, 地黃湯、地黃飲子, 子母俱服. 兒百日內, 及半周歲, 不因病而身黃者胃熱, 瀉黃散(方見諸熱), 若自生後身黃者胎疸, 犀角散主之, 以黃柏煎湯洗之.

아이가 태어나서 온몸과 얼굴, 눈까지 모두 누렇게 되어 황금 같은 색깔이 되고 몸통이 아주 뜨거우며 똥을 누지 못하고 오줌은 치자즙처럼 섋노랗고 젖을 물지 못하며 울음을 그치지 않으면 지황탕이나 지황음자를 아이와 어머니 모두에게 먹인다. 백일 전, 혹은 반년이 되기 전의 아이가 특별한 병이 없는데 몸이 누렇게 되는 이유는 위장의 열 때문이니 사황산을 써야 한다.(처방은 제열(諸熱)에 나온다.) 태어나서부터 몸이 누렇게 된 경우는 태달(胎疸)이니 서각산으로 치료하면서 황백 달인 물로 씻겨주어야 한다.

#### ○地黃湯 ○지황탕

- 治兒在胎時, 受母濕熱, 生下衣被太溫, 身黃.
- 아이가 뱃속에서 어머니의 습열을 받은 상태에서 태어난 후에 너무 따뜻하게 입혀서 몸이 누렇게 된 경우를 치료한다.
- 生地黃、赤芍藥、天花粉、赤茯苓、川芎、當歸、猪苓、澤瀉、茵陳<sup>13</sup>、甘草 各等分.
- 생지황、적작약、천화분、적복령、천궁、당귀、저령、택사、인진、감초 각

각 같은 양.

- 右剉, 水煎, 乳母服, 少與兒灌服.
- 이상을 썰어 물에 넣고 달인 후 유모에게 먹이고, 아이 입에도 약간 흘려 넣어준다.

#### ◦地黃飲子 ◦지황음자

- 治生下身面目俱黃, 狀如金色, 面赤身熱, 眼閉不開, 大便不通, 小便如梔子汁, 滿身生瘡.
- 아이가 태어나서 몸 전체와 얼굴, 눈까지 모두 누렇게 황금빛이 되고 얼굴이 붉고 몸통이 뜨거우며 눈을 감은 채 뜨지 못하고 똥을 누지 못하며 오줌은 치자즙처럼 섯노랗고 온몸에 창(瘡)이 생긴 것을 치료한다.
- 生地黃、赤芍藥 各二錢, 羌活、當歸、甘草 各一錢.
- 생지황、적작약 각 2돈, 강활、당귀、감초 각 1돈.
- 右剉, 水煎, 令乳母服, 兼食兒.
- 이상을 썰어 물에 넣고 달인 후 유모에게 먹이고 아이에게도 먹인다.

#### ◦犀角散 ◦서각산

- 治小兒胎黃, 一身盡黃.
- 아이가 태황(胎黃)으로 온몸이 전부 누렇게 된 경우를 치료한다.
- 犀角(水磨調服)、茵陳、瓜蘤根、升麻、甘草、草龍膽、生地黃、寒水石(煨) 各等分.
- 서각(물에 갈아 타 먹인다)、인진、과루근、승마、감초、초롱담、생지황、한수석(불에 달군다) 각각 같은 양.
- 右麤末, 一二錢, 水煎, 蘸綿灌口服.

- 이상을 거칠게 가루 내어 1-2돈씩 물에 넣고 달인 후 천에 적서 입으로 흘려 넣어준다.

兒生下身如丹塗者, 名血<sup>14</sup>, 鬱金散服, 後用藍葉、浮萍、水苔之類, 研取汁, 調芒硝、土朱末, 塗赤處.

아이가 태어났을 때 몸이 마치 붉은 칠을 한 것 같은 경우는 혈달(血疸)이라고 부른다. 울금산을 먹인 후에 쪽잎、부평、수태(水苔) 같은 것을 갈아 즙을 내고 망초、토주(土朱, 대자석)가루를 섞어 붉은 부위에 발라준다.

#### ○鬱金散 ○울금산

- 治身如丹塗.
- 몸에 마치 붉은 칠을 한 것 같은 경우를 치료한다.
- 鬱金、桔梗、天花粉、葛根、甘草 各等分.
- 울금、길경、천화분、갈근、감초 각각 같은 양.
- 右細末, 每五分, 薄荷煎湯, 入蜜少許調, 灌或煎服.
- 이상을 잘게 가루 낸 후 5푼씩 박하 달인 물에 꿀을 조금 타서 입에 흘려 넣어준다. 혹은 달여서 먹인다.

生下遍身如魚泡如水晶, 碎則成水流滲者, 乃胎受寒濕也, 以蜜陀僧爲末糝之, 因服蘇合香元.

아이가 태어나서 온몸에 수포나 수정 같은 것이 나있고, 터뜨렸을 때 물처럼 흐르는 경우는 뱃속에서 한습(寒濕)을 받은 것이다. 밀타승을 가루 내어 뿌려준 후 소합향원을 먹인다.

生下遍身無皮, 俱是紅肉, 乃脾氣不足也, 用早米粉糝之, 候生皮乃止.

아이가 태어나서 온몸에 살갗이 없고 온통 붉은 살인 경우는 비기(脾氣)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올벼 가루를 뿌려주고 살갗이 돋으면 그만 한다.



初生穀道無孔者，乃肺熱閉於肛門，急用銀玉簪尖或針，看其的處，刺穿作孔，刺不可深，以蜜導法套住緊塞，或舊破紙作撚，蘸油套住，或蘇合元作錠，納入孔中，勿令再合，內服四順清涼飲〔方見大便〕。

갓난아이가 항문에 구멍이 없는 경우는 폐장의 열로 항문이 닫힌 것이니 급히 은비녀·옥비녀의 뾰족한 부분이나 바늘로 정확한 부위를 가늠한 후 찔러서 구멍을 내야 하는데 깊이 찌르지 않아야 한다. 밀도법(蜜導法)을 써서 막히지 않도록 유지하고, 혹은 오래 묵은 찢어진 종이를 꼬아 기름에 적신 후 꽃아놓거나, 소합향원을 뭉쳐 항문에 넣고 항문이 다시 닫히지 않도록 하면서 사순청량을 먹인다.〔처방은 대변에 나온다〕

初生卽死者，急看兒口中前齶齒齦，有小泡如石榴子，以鍼或瓜甲摘破出血，用帛拭淨，以蜜化朱砂塗之，或亂髮灰末糝之，若血入喉中，卽死。<sup>15</sup>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죽은 경우에는 급히 아이의 앞니 부분의 잇몸을 살펴봐야 한다. 석류씨만한 작은 수포가 있으면 침이나 손톱으로 터뜨려 피를 내고 천으로 깨끗이 닦은 후 꿀과 주사를 섞어 바르거나 난발회를 뿌려준다. 만약 터뜨렸을 때 나온 피가 목구멍으로 들어가면 곧바로 죽게 된다.

初生外腎縮入者，乃受寒也，取硫黃、吳茱萸各五錢，爲末，以大蒜汁調塗臍腹上，因以蛇床子燒烟，微薰之。

갓난아이의 불알이 쪼그라 들어간 것은 한기를 받았기 때문이다. 유황·오수유 각 5돈을 가루 내고 마늘의 즙과 섞어 배꼽과 배에 바른 후 사상자 태운 연기로 훈증해준다.

初生鼻塞不得吮乳者，風冷之氣，入於顙門所致，取諸猪牙<sup>16</sup>皂角、草烏各等分，爲末，葱汁調成膏，貼顙門上。○又方，南星爲末，薑汁調，付顙門。○葱白搗爛，微溫，貼付顙門上。○粳米、乾柿同煮取汁，少許蘸綿灌口，鼻塞卽開。

갓난아이의 코가 막혀 젖을 빨지 못하는 것은 풍랭(風冷)한 기운이 콧구멍으로 들어간 결과이다. 저아조각과 초오 각각 같은 양을 가루 내고 파즙에 섞어 고약처럼 만든 후 콧구멍에 붙여준다. ○다른 처방. 남성을 가루 내고 생강즙과 섞어 콧구멍에 붙여준다. ○짓찜은 총백을 살짝 따뜻하게 하여 콧구멍에 붙여준다. ○멤쌀과 꽃감 달인 즙을 조금씩 천에 적셔 입으로 흘려 넣어주면 막혔던 코가 금세 뚫린다.

初生大便不通, 腹脹, 氣欲絕者, 令婦人以溫水漱口, 吸啞兒前後心, 并臍下、手足<sup>17</sup>共七處, 吸啞三五次, 以紅赤爲度, 便即自通. ○蔥白削尖, 紵入肛門內, 或生桔梗去皮削尖, 塗油, 紵入一二寸許, 即通.

갓난아이가 똥을 누지 못하여 배가 똥똥하고 숨이 끊어지려는 경우에는 부인에게 따뜻한 물로 입을 행구게 한 후 아이의 가슴·등·배꼽 아래·손바닥·발바닥 총 7군데를 입으로 빨아들이게 한다. 3-5번 정도 빨강게 될 때까지 빨아들이면 똥이 곧 나오게 된다. ○총백을 뽀족하게 깎아 항문 속을 찌르거나, 혹은 껌질을 간 생도라지를 뽀족하게 깎아 기름을 바르고 1-2촌정도 찌르면 똥이 곧 나온다.

1. 眼 : \*服 ※규장각본 ←

2. 斜 : 邪 ※규장각본 ←

3. 口 : 水 ※규장각본 ←

4. 色 : ※규장각본 ←

5. 腹痛 : 腸鳴 ※규장각본 ←

6. 芎歸 : 川芎 ※규장각본 ←

7. 色, 大便色白, 生後不 : ※규장각본 ←

8. 宜長生丸 : ※규장각본 ↩

9. 글자없음 : \*各三錢 ※《의방유취·소아문6》 ↩

10. 各 : \* ※《의방유취·소아문6》 ↩

11. 50알씩 : 《의방유취·소아문6》에는 30-50알로 되어 있다. ↩

12. 글자없음 : 者 ※규장각본 ↩

13. 陳 : 陳 ※규장각본 ↩

14. 疸 : 膽 ※규장각본 ↩

15. 규장각본에는 아래 조문과 순서가 바뀌어 있다. ↩

16. 牙 : ※규장각본 ↩

17. 글자없음 : \*心 ※규장각본 ↩

## 撮口 찰구

撮口風者, 面目黃赤, 氣喘啼聲不出, 胎熱流毒心脾, 則舌強唇青, 撮口聚面, 飲乳有妨. 又有初生七日內患此者, 急看兒齒齦上, 有白點如粟米狀, 以針挑出血<sup>1</sup>, 卽開口便安. 參考口舌瘡馬牙條.

찰구풍(撮口風)은 아이가 얼굴과 눈이 황적색으로 되면서 숨을 헐떡이고 우는 소리를 내지 못하는 증상이다. 태열(胎熱)이 심장과 비장으로 흘러 들어가면 혀가 굳고 입술이 파래지며 입을 오므리고 이목구비가 모이므로 젖을 먹는 데 지장이 있다. 또한 태어난 지 7일 안에 이 병에 걸리기도 하는데, 급히 잇몸을 살펴보아 좁쌀같이 생긴 하얀 점이 있는 경우에 바늘로 터뜨려 피를 내면 금세 입이 풀리며 편안해진다. 뒤에 나오는 구설창(口舌瘡)의 마아(馬牙) 부분을 참고하라.

### ○蝎梢散 ○갈초산

- 治一切胎風臍風, 撮口噤口.
- 태풍(胎風)、제풍(臍風)、찰구(撮口)、금구(噤口) 등을 치료한다.
- 蝎梢 四十九枚(每箇用生薄荷葉捲定, 以線札之, 砂鍋內滾炒, 以薄荷乾酥爲度), 白殭蠶 四十九箇(薑汁炒乾)
- 갈초 49개(하나씩 생박하잎으로 싸서 실로 묶은 후 사기그릇에 넣고 뒤적이면서 박하잎의 진이 마를 때까지 볶는다), 백강잠 49개(생강즙에 축여 볶은 후 말린다).
- 右末, 入腦、麝各少許, 和勻, 以赤雄鷄肝二片煎水, 調下一字. 虛冷, 加川烏.
- 이상을 가루 내고 용뇌와 사향을 약간 넣어 잘 섞어준 후 적용계간(赤雄鷄肝) 2개를 달인 물에 1자씩 타서 먹인다. 허랭(虛冷)하면 천오를 추가한다.

1. 血 : ※규장각본 ↩

## 噤口 금구

噤口風者, 眼閉, 啼聲漸少, 舌上聚肉如粟米狀, 吮乳不得, 口吐白沫, 二便皆通, 由胎中受熱, 毒流心脾, 故形見於喉舌,<sup>1</sup>爲風邪所搏之致, 宜瀉黃散〔方見諸熱〕. ○小兒初生, 呼吸微高, 啼聲漸少, 飲乳似妨者, 必生噤撮之漸, 兼嘔, 服朱砂丸〔方見嘔吐〕.

금구풍(噤口風)은 아이가 눈을 뜨지 못하며 우는 소리가 점점 줄어들고 혀에 좁쌀 같은 살이 생겨 젖을 빨지 못하며 하얀 거품을 토하는 한편 대소변은 원활한 증상이다. 이 병은 배속에서 받은 열독이 심장과 비장으로 흘러 들어갔기 때문에 목구멍과 혀에 증상이 나타나고, 여기에 풍사(風邪)를 맞아서 그렇게 된 것이다. 사황산을 써야 한다.(처방은 제열(諸熱)에 나온다.) ○갓난아이가 숨이 약간 가쁘고 우는 소리가 점점 줄어들며 젖을 빨 때 마치 걸리는 듯한 경우 우는 분명 금구(噤口)나 찰구(撮口)가 생기는 중이며 구역질도 할 것이다. 주사환을 먹어야 한다.(처방은 구토(嘔吐)에 나온다.)

### ○宣風散 ○선풍산

- 治胎風噤口, 多啼不乳, 口吐白沫.
- 태풍(胎風)으로 금구(噤口)가 생겨 울기만 하면서 젖을 빨지 않으며 입에서 하얀 거품을 토하는 것을 치료한다.
- 全蝎 二十一箇(全者, 酒炒), 麝香 一字.
- 전갈 21개(전체가 온전한 것. 술에 축여 볶는다), 사향 1자.
- 右末, 每一字, 薄荷煎湯調, 灌服.
- 이상을 가루 내고 1자씩 박하 달인 물에 타서 입에 흘려 넣어준다.

○辰砂全蝎散 ○진사전갈산

- 治初生兒口噤.
- 갓난아이의 구금(口噤)을 치료한다.
- 辰砂 五分, 全蝎(頭尾全, 炒) 十枚, 朋砂、龍腦、麝香 各一字.
- 진사 5푼, 전갈(머리와 꼬리가 온전한 것. 볶는다) 10마리, 봉사·용뇌·사향 각 1자.
- 右細末, 乳母唾調, 塗舌裏及牙齒上, 或猪乳調, 灌口.
- 이상을 잘게 가루 내고 유모의 침에 타서 혀 안쪽과 이빨에 바른다. 혹은 돼지젖에 타서 입에 흘려 넣어준다.

○控痰散 ○공담산

- 治噤口撮口臍風, 三者一同, 皆因裡氣鬱<sup>2</sup>閉, 先用此吐痰.
- 금구(噤口)、찰구(撮口)、제풍(臍風)을 치료한다. 3가지 모두 속에서 기운이 막히기 때문에 생긴다. 먼저 이 약을 써서 담을 토하게 해야 한다.
- 辰砂 一錢, 蝎梢、銅青 各五分, 輕粉 一字, 麝香 少許.
- 진사 1돈, 갈초·동청 각 5푼, 경분 1자, 사향 조금.
- 右末, 每一字, 茶清調服, 或甘草煎湯服, 探吐, 卽以猪膽汁, 點口中, 次用人參養胃湯〔方見外感〕, 去蒼朮、半夏, 加木香、蘇子, 煎與乳母服, 再用辰砂膏〔方見胎驚〕、利驚丸, 與兒服.
- 이상을 가루 내고 1자씩 찻물에 타서 먹이거나 감초 달인 물에 타서 먹인 후 목구멍을 더듬어 토하게 한 후 저담즙을 입 속에 떨어뜨린다. 그 다음 인삼양위탕〔처방은 외감(外感)에 나온다.〕에서 창출·반하를 빼고 목향·소자를 더하여 달인 후 유모에게 먹인다. 그리고 진사고〔처방은 태경(胎驚)에 나온다〕나 이경환을 아이에게 먹인다.

○蜈蚣散 ○오공산

- 治初生口噤不開, 不收<sup>3</sup>.
- 갓난아이가 입을 악다물어 벌리지 못하고 젖을 먹지 못하는 증상을 치료한다.
- 金頭赤足蜈蚣 半條(去足炙令焦<sup>4</sup>), 麝香 少許.
- 오공(황금빛 머리와 빨간 발을 가진 오공의 발을 떼고 검게 볶는다) 0.5마리, 사향 조금.
- 右末, 猪乳和調, 灌口中.
- 이상을 가루 내고 돼지젖에 잘 타서 입에 흘려 넣어준다.

○吹鼻散 ○취비산

- 蜈蚣 一條, 蝎梢 四箇, 殭蠶 七箇, 瞿麥 五分.
- 오공 1마리, 갈초 4개, 강잠 7개, 구맥 5푼.
- 右末<sup>5</sup>, 每一字, 吹入鼻中, 噴嚏可治, 仍用薄荷湯調服. ○一方, 牛黃一錢, 竹瀝一合, 入薑汁少許, 調和, 灌兒口中. ○南星一錢, 龍腦少許, 研勻, 調薑汁, 以指蘸擦齦上, 卽開口. 雀糞十枚研, 塗乳頭上, 吮兒<sup>6</sup>.
- 이상을 가루 내고 1자씩 코에 붙어 넣었을 때 재채기를 하면 치료할 수 있는 상태이니 약 가루를 박하탕에 타서 먹인다. ○다른 처방. 우황 1돈과 죽력 1홉에 생강즙을 조금 넣고 잘 섞어 아이 입 속에 흘려 넣어준다. ○남성 1돈과 용뇌 조금을 잘 갈아서 생강즙에 탄 후 손가락으로 찍어 잇몸을 문지르면 즉시 입이 열린다. 참새똥 10개를 갈아 젖꼭지에 바르고 젖을 먹인다.

礪原君孫兒, 生纔三日, 撮口不乳, 以竹瀝調牛黃試之, 余曰: 馬牙之症, 不能吮乳, 與撮口無異, 此兒, 面無黦色, 啼聲如常, 必馬牙也. 開口視之, 齒齦上齧白點如粟者, 有五六箇, 以針<sup>7</sup>挑出, 白蜜塗之, 於是吮乳如常(馬牙俗齒龔).



〔의안〕 여원군(礪原君)의 손주가 태어난 지 겨우 3일인데 찰구(撮口)로 젖을 먹지 못하기에 죽력에 우황을 타서 시험해보았다. 나는 "마아(馬牙)는 젖을 빨지 못하니 찰구와 다르지 않다. 이 아이는 얼굴에 어두운 기색이 없고 울음소리도 평소와 같으므로 분명 마아이다."라고 하였다. 입을 벌리고 살펴보니 잇몸과 입천장에 좁쌀 같은 흰 점이 5-6개 있었다. 바늘로 터뜨려 피를 내고 꿀을 발라주었더니 그제야 평소처럼 젖을 빨았다.〔마아는 흔히 '치분(齒糞, 이똥)'이라고 부른다.〕

1. 글자없음 : \*或 ※규장각본 ↩
2. 閑 : 閉 ※규장각본 ↩
3. 不收 : \*不收乳 ※《의학입문》 ↩
4. 令焦 : 全炒 ※규장각본 ↩
5. 末 : ※규장각본 ↩
6. 兒 : \*乳 ※규장각본 ↩
7. 針 : 鍼 ※규장각본 ↩

## 臍風 제풍

臍風者, 因斷臍後, 被風冷所乘, 或尿濕<sup>1</sup>褌, 浸淫臍中, 濕熱流入心脾, 遂令腹脹臍腫, 日夜多啼不乳, 甚則發搐, 撮口噤口, 是爲內搐, 不治. 臍邊青黑, 瓜甲黑者, 俱死. ○兒生七日內, 青筋自臍傍發, 上至心下則不治, 常視其青筋初發處, 速灸<sup>2</sup>根頭三五壯, 青筋自消, 兒必活矣. ○落臍後, 卽煉臍三五壯, 不生諸病. ○落臍後, 獨頭蒜切片, 安臍中, 艾灸, 口中有艾氣, 卽止, 永無臍病腹疾.

제풍(臍風)은 탕줄을 자른 후에 풍랭(風冷)한 기운이 침입하거나 옷에 오줌이 젖어 배꼽으로 들어가서 습열(濕熱)이 심장과 비장으로 흘러들어 생기는데 배가 똥똥해지며 배꼽이 붓고 밤낮으로 울면서 젖을 빨지 못하게 된다. 심하면 축낙이 생기면서 찰구(撮口)와 금구(噤口) 증상을 보이는데 이는 내축(內搐)이 된 것으로 치료하지 못한다. 배꼽 주변이 검푸른 빛을 띠거나 손톱이 검게 되면 모두 죽게 된다. ○아이가 태어난 지 7일 안에 푸른색 핏줄이 배꼽 근처에 생겨서 위쪽으로 가슴까지 이르게 되면 치료하지 못한다. 평상시에 푸른색 핏줄이 처음 생긴 곳을 잘 봐두고 있다가 속히 끝부분에 3·5장 뜸을 뜨면 푸른색 핏줄이 저절로 없어지면서 아이가 살아날 것이다. ○탕줄이 떨어진 직후에 연제법(煉臍法)으로 3·5장 뜸뜨면 병에 걸리지 않는다. ○탕줄이 떨어지면 외톨마늘을 썰어 배꼽에 올려 쑥뜸을 뜨고 입에서 쑥 냄새가 나면 멈춘다. 이렇게 하면 영영 배꼽이나 배에 병이 생기지 않는다.

### ○金烏散 ○금오산

- 治臍風.
- 제풍(臍風)을 치료 한다.
- 蜈蚣(金頭赤足者) 半條(酒炙), 川烏尖 三箇, 麝香 少許.
- 오공(황금빛 머리에 빨간 발의 지네를 술에 축여 굽는다) 0.5마리, 천오(끝 부

분) 3개, 사향 조금.

- 右末, 每半字, 薄荷湯調, 灌服.
- 이상을 가루 내고 0.5자씩 박하탕에 타서 입에 흘려 넣어준다.

臍瘡臍腫二者, 洗浴拭臍不乾, 或尿濕臍中, 經久不乾, 仍成瘡腫而小便不利者, 宜服通心飲, 因貼五通膏.

제창(臍瘡)과 제종(臍腫) 2가지는 아이를 씻긴 후에 배꼽을 말리지 않거나 오줌이 배꼽에 스며든 후에 오래도록 마르지 않아 결국 창종(瘡腫)이 생기고 소변이 잘 나오지 않는 것이다. 통심음을 먹이고 그 후에 오통고를 붙여준다.

#### ○通心飲 ○통심음

- 治臍腫旋螺風, 赤腫而痛, 通小便, 清心火, 退潮熱.
- 제종(臍腫)이나 선라풍(旋螺風)으로 배꼽이 빨강게 붓고 아픈 것을 치료한다. 소변을 통하게 하며 심화(心火)를 없애고 조열을 내린다.
- 連翹、木通、瞿麥、梔子<sup>3</sup>(炒)、黃芩、甘草 各四分.
- 연교、목통、구맥、치자인(볶는다)、황금、감초 각 4푼.
- 右剉, 入燈心、麥門冬各小許, 煎服. ○春加防風、蟬退, 夏加茯苓、車前子, 秋加牛蒡<sup>4</sup>子、升麻, 冬加山梔、連翹.
- 이상을 썰고 등심과 맥문동을 조금씩 넣어 달여 먹인다. ○봄에는 방풍과 선퇴를 더하고, 여름에는 복령과 차전자를 더하고, 가을에는 우방자와 승마를 더하고, 겨울에는 산치인과 연교를 더한다.

#### ○五通膏 ○오통고

- 治臍風撮口.
- 제풍(臍風)이나 찰구(撮口)를 치료한다.

- 生地黃、生薑、蔥白、蘿菔子、田螺肉
- 생지황、생강、총백、나복자、전락육.
- <sup>5</sup> 共搗爛, 搭臍上四圍一指厚, 抱住, 下屁泄而愈.
- 이상을 모두 짓찧어 배꼽 주위에 한 손가락 두께로 붙이고 싸두면 방구 끼고 설사하며 낫는다.

#### ◦栝墨散 ◦백묵산

- 治臍風臍腫臍瘡, 多啼不乳.
- 제풍(臍風)、제종(臍腫)、제창(臍瘡)으로 계속 울면서 젖을 먹지 못하는 것을 치료한다.
- 黃栝(炒)、釜下墨、亂髮灰 各等分.
- 황백(볶는다)、부하묵、난발회 각각 같은 양.
- 右細末, 乾糝之, 或油調付之.
- 이상을 잘게 가루 내고 말린 가루를 뿌리거나 기름에 개어 발라준다.

#### ◦黃金散 ◦황금산

- 治臍瘡久不差, 變成驚癇.
- 제창(臍瘡)이 오랫동안 낫지 않아 경간(驚癇)으로 변한 것을 치료한다.
- 黃連(炒) 一錢, 胡粉、龍骨(煅) 各五分.
- 황련(볶는다) 1돈, 호분、용골(불에 달군다) 각 5푼.
- 右另研, 每少許, 付臍瘡.
- 이상을 따로 갈아두었다가 조금씩 배꼽에 발라준다.

臍瘡出血汁流, 久不合, 用枯礬, 或五倍子燒灰、百草霜、亂髮灰、烏賊魚骨、當歸頭等類, 極細末付之. 又黃牛糞燒灰, 亦付之. ○臍腫色赤<sup>6</sup>痛, 青蔥葉火上炙過, 以爪刮破<sup>7</sup>, 貼腫處, 卽消. 蔥白搗爛, 作餅付之, 亦可.

제창(臍瘡)으로 피가 나며 진물이 흘러 오랫동안 아물지 않으면 고반이나 오배자 태운 가루, 백초상, 난발회, 오적어골, 당귀두를 아주 잘게 가루 내어 발라준다. 또한 누렁소의 똥 태운 재를 발라주기도 한다. ○제종(臍腫)이 새빨갳게 되고 아프면 파의 푸른 잎을 불에 구워 손톱으로 긁어 벗겨낸 것을 배꼽에 붙이면 금세 사그라진다. 총백을 짓찧은 후에 뭍쳐서 붙여도 괜찮다.

預防法. 初生兒噤撮臍風, 最爲急疾, 宜時時開口, 用軟帛裹指, 蘸薄荷煎湯, 拭口中牙齦上, 或有筋兩條, 便用葦刀, 輕輕割斷, 以猪乳點口.

예방법. 갓난아이의 금구(噤口)、찰구(撮口)、제풍(臍風)은 가장 위급한 병이다. 가끔씩 아이 입을 벌리고 부드러운 천을 손가락에 싸서 박하 달인 물을 적신 후 입 속의 이빨과 잇몸을 문질러준다. 간혹 잇몸에 힘줄 같은 것이 2개 있으면 곧바로 갈대로 만든 칼로 살짝 살짝 끊어준 후에 돼지젖을 발라준다.

夫臍風噤撮三證, 兒在胎中時, 孕母犯戒所崇, 初生七日內, 見此症者, 眞臟所發, 百無一生, 而其中或不無客氣所發者, 以朱砂丸〔方見嘔吐〕、紫霜丸〔方見癰疾〕之類, 量宜下之, 往往有得生者, 不可束手待斃也.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어머니가 금기를 범하면 태어난 지 7일 안에 제풍(臍風)、금구(噤口)、찰구(撮口) 3가지 증상이 나타나고 진장맥이 뛰기 시작하는데 백 명 중 한명도 살지 못한다. 그러나 간혹 외감으로 병이 생기는 경우도 있으니 주사환(처방은 구토에 나온다)、자상환(처방은 간질에 나온다) 같은 약으로 증상에 맞게 하법을 쓰면 가끔 살아나는 경우도 있다. 손을 놓고 죽음만 기다리지 말아야 한다.

臍腫突者, 落臍後, 臍忽光浮如吹, 疔動有響<sup>8</sup>, 非斷臍不利而然者<sup>9</sup>, 熱在胸膛, 或繫臍不緊, 穢水浸入於內之致, 勿以藥付之, 恐反爲害, 勿治自愈.

배꼽이 붓고 튀어나온 경우는 탃줄이 떨어진 후에 배꼽이 문득 바람을 불어 넣은 것처럼 팽팽히 부풀고 잡아 흔들면 소리가 나는 것은 탃줄을 잘못 잘라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 열이 가슴에 있거나 혹은 탃줄을 꼭 묶지 않아 더러운 물이 속으로 침입하여 그런 것이다. 약을 바르지 않아야 하니 도리어 해가 되기 때문이다. 치료하지 않고 기다리면 저절로 낫는다.

1. 裯 : 裯 ※규장각본 ↩

2. 根頭 : \*筋頭 ※《의학입문》 ↩

3. 仁 : ※규장각본 ↩

4. 莠 : 旁 ※규장각본 ↩

5. 글자없음 : 右 ※규장각본 ↩

6. 焮 : 炊 ※규장각본 ↩

7. 以爪刮破 : 指甲刮薄 ※《의학입문》 ↩

8. 抃動有響 : \*捻動有響 ※《증치준승·유과》 ↩

9. 者 : 有 ※규장각본 ↩

## 胎驚癇風 태경간풍

胎驚癇風者, 乃孕婦嗜慾忿怒驚撲, 或外挾<sup>1</sup>風邪, 傷胎, 子乘母氣, 生下卽病, 嘔吐搐掣, 口眼喎斜, 驚啼聲短, 顙縮顙開, 或頰赤或面青, 噤口不開, 眼合潮涎, 筋骨拘攣, 身腰強直, 臍腹脹起, 與噤撮同證, 但胎風眼合, 與慢脾異, 不可用溫藥, 視其眉間氣色, 紅赤鮮碧<sup>2</sup>者生, 青黯黑者死, 治法, 解散風邪, 利驚化涎調氣, 辰砂膏最妙.

태경간풍(胎驚癇風)은 임신부가 욕심이나 분노를 품거나 놀라거나 맞거나 혹은 풍사에 외감되어 태를 상하게 되면 자식이 어머니 기운의 침입을 받아 태어나는 즉시 병이 되는 것이다. 구토·축닉·구안와사가 생기고, 놀라 울면서 울음소리가 짧게 끊기며, 뺨이 수축되면서 숫구멍이 열리고, 혹은 뺨이 붉어지거나 얼굴이 파래지고, 입을 악다물어 벌리지 못하거나, 눈을 뜨지 못하면서 침이 쏟아지거나, 근골과 몸통과 허리까지 강직되며, 배가 똥똥하게 올라오는 등 금구(噤口)나 찰구(撮口)와 같은 증상을 보이지만 태경간풍은 눈을 뜨지 못한다. 만비풍과는 다르니 따뜻한 성질의 약을 쓰지 않아야 한다. 미간의 기색을 살펴보았을 때 붉거나 새파란 경우는 살고, 검푸른 경우는 죽는다. 치료법으로는 풍사(風邪)를 흘리고 경기를 풀어주고 담연을 녹이며 기운을 조리시켜야 하니 진사고가 가장 신효하다.

### ○辰砂膏 ○진사고

- 治胎驚癇風, 噤口夜啼.
- 태경간풍(胎驚癇風)으로 생긴 금구(噤口)와 야제를 치료한다.
- 辰砂 三錢, 玄明粉 二錢, 鵬砂、馬牙硝 各一錢半, 全蝎、眞珠 各一錢, 麝香 一字,
- 진사 3돈, 현명분 2돈, 봉사·마아초 각 1.5돈, 전갈·진주 각 1돈, 사향 1자.
- 右細末, 和勻, 油紙封裹, 自然成膏, 每取一豆許, 薄荷湯調下, 或乳汁調, 塗乳

頭上, 吮之.

- 이상을 잘게 가루 내어 잘 섞은 후 기름종이로 싸놓으면 저절로 고약처럼 된다.  
콩 1알 정도씩 박하탕에 타 먹이거나 혹은 젖에 타서 젖꼭지에 바르고 빨아먹게 한다.

#### ○太乙散 ○태을산

- 治胎驚癇風.
- 태경간풍(胎驚癇風)을 치료한다.
- 天漿子、南星、白附子(炮)、天麻、防風、白茯苓 各二錢, 全蝎、朱砂 各一錢, 麝香 一字.
- 천장자、남성、백부자(습지에 써서 굽는다)、천마、방풍、백복령 각 2돈, 전갈、주사 각 1돈, 사향 1자.
- 右細末, 每取五分, 乳汁化下.
- 이상을 잘게 가루 내고 5푼씩 젖에 개어 먹인다.

#### ○獨活湯 ○독활탕

- 治胎驚, 發散風邪, 或因驚夜啼.
- 태경(胎驚)을 치료하며 풍사를 발산시킨다. 혹은 태경으로 생긴 야제를 치료한다.
- 獨活、羌活 各五錢, 檳榔、天麻、麻黃(去節)、甘草 各二錢半.
- 독활、강활 각 5돈, 빈랑、천마、마황(마디는 버린다)、감초 각 2.5돈.
- 右剉, 每半錢, 入竹葉三片, 燈心十莖, 水煎服.
- 이상을 썰고 0.5돈씩 죽엽 3장과 등심 10줄기와 함께 물에 달여 먹인다.



## 一方 다른 처방

- 月內胎驚, 辰砂、牛黃各少許, 猪乳汁調, 抹兒口中. ○又方, 全蝎頭尾全者三箇, 用生薄荷葉包, 外以線纏, 火上炙, 入朱砂、龍腦少許, 極細末, 麥門冬煎湯調下.
- 태어난 지 한 달 안에 태경(胎驚)이 생기면 진사와 우황을 돼지젖에 조금 타서 아이 입 속에 발라준다. ○다른 처방. 전갈(머리부터 꼬리까지 온전한 것) 3마리를 생박하잎으로 싸고 끈으로 겹을 묶은 후 불 위에서 굽는다. 주사와 용뇌를 조금 넣고 아주 잘게 가루 낸 후 맥문동 달인 물에 타서 먹인다.

張監役〔民翼〕子, 生不滿二七日, 得胎癇之症, 日發五十餘次. 余曰, 此落草時, 口中惡血, 未卽拭淨, 嚥入胃中, 化爲痰涎, 去來胸膈間, 而爲胎癇風也. 遂用紫霜丸〔方見癇疾〕, 放下白色膠痰一大盞而愈.

〔의안〕 감역관(監役官) 장민익(張民翼)의 아들이 태어난 지 14일이 되기도 전에 태간(胎癇)을 앓아 하루 5-10번 발작했다. 나는 "출산 당시에 입 속에 더러운 피가 있었는데 즉시 깨끗하게 닦아내지 않아 삼키게 되었고, 그것이 담연(痰涎)으로 변하여 가슴 속에서 왔다 갔다 하며 태간이 된 것입니다."라고 말하고 자상환(처방은 간질(癇疾)에 나온다)을 썼더니 하얗고 끈적이는 담연을 1대접 썬 후에 나았다.

1. 挾 : 感 ※규장각본 ↗

2. 碧 : 蒼 ※규장각본 ↗

## 胎驚夜啼 태경·야제

小兒月內夜啼, 有四證, 一曰寒, 二曰熱, 三曰口瘡重舌, 四曰客忤. 下半夜多啼者, 寒也. 面青, 口中氣冷, 手足腹亦冷, 曲腰乾啼, 手足抽掣, 眼目上視, 蓋夜則寒盛作痛, 甚則陰盛發躁, 所以夜啼, 或衣被過涼, 以致臟寒, 盤腸內釣, 肚腹脹痛者有之, 宜白殭散〔方見初生雜症〕、益黃散〔方見吐瀉〕, 以炒麥麩<sup>1</sup>臍中.

아이가 태어난 지 한 달도 되기 전에 밤마다 우는 것에는 4가지 증상이 있다. 첫 번째는 한증이며, 두 번째는 열증이고, 세 번째는 구창(口瘡)과 중설(重舌)이며, 네 번째는 객오(客忤)이다. 자정 이후에 많이 우는 것은 한증이다. 얼굴이 파래지고, 입김과 손발과 배가 차가우며, 웅크린 채 눈물 없이 울고, 손발이 뻗뻗하게 당기며, 눈동자를 위로 치뜨는데, 밤이 되면 한기가 왕성하여 통증이 생기고 심하면 음기가 왕성하여 어쩔 줄 모르게 되므로 밤에 우는 것이다. 간혹 옷가지나 이불이 너무 얇아서 장이 차가워져 반장(盤腸)·내조(內釣)·복창(腹脹)·복통이 생겼기 때문인 경우도 있다. 백강산(처방은 초생잡증(初生雜症)에 나온다)·익황산(처방은 토사(吐瀉)에 나온다)을 쓰면서 붉은 밀기울로 배꼽을 찜질해주어야 한다.

### ○六神散 ○육신산

- 治腹冷痛夜啼.
- 배가 차갑고 아파서 밤에 우는 것을 치료한다.
- 白茯苓、白扁豆(炒) 各二錢, 人參、白朮、山藥(炒) 各一錢, 甘草(炙) 七分.
- 백복령·백편두(볶는다) 각 2돈, 인삼·백출·산약(볶는다) 각 1돈, 감초(살짝 볶는다) 7푼.
- 右粗末, 每一錢, 入薑三棗二, 水煎服. 挾熱, 加黃連·竹葉, 血虛, 加當歸.
- 이상을 거칠게 가루 낸 후 1돈씩 생강 3조각과 대조 2개를 넣고 물에 달여 먹인

다. 열까지 나면 황련과 죽엽을 더하고, 혈이 허하면 당귀를 더한다.

上半夜驚惕多啼者, 熱也. 面赤, 口中氣熱, 手足腹亦熱, 仰身有汗, 心躁而啼, 到曉方息, 宜導赤散〔方見急驚〕, 加黃芩, 或通心飲〔方見臍風〕、龍腦安神丸〔方見急驚〕. 乳母過食酒糲, 或置熱處而發者有之.

자정 이전에 소스라치게 놀라며 계속 우는 것은 야제의 4가지 증상 중 열증이 다. 얼굴이 빨개지고 입김과 손발과 배가 뜨거우며, 가슴을 내밀면서 땀을 흘리고, 어쩔 줄 모르며 울다가 새벽이 되서야 진정된다. 도적산(처방은 급경(急驚)에 나온다)에 황금을 더하여 쓰거나, 혹은 통심음(처방은 제풍(臍風)에 나온다)·용뇌안신환(처방은 급경(急驚)에 나온다)을 써야 한다. 유모가 술이나 밀가루를 너무 많이 먹거나 아이를 뜨거운 곳에 두어서 발병하는 경우도 있다.

#### ○猪油膏 ○저유고

- 治胎驚夜啼.
- 태경(胎驚)으로 생긴 야제를 치료한다.
- 琥珀、防風 各一錢, 朱砂 五分.
- 호박·방풍 각 1돈, 주사 5푼.
- 右細末, 猪乳汁調一字, 抹兒口中.
- 이상을 잘게 가루 내고 돼지젖에 1자씩 타서 아이의 입 속에 발라준다.

#### ○鎮驚散 ○진경산

- 治同上.
- 위와 같이 태경(胎驚)으로 생긴 야제를 치료한다.
- 朱砂、牛黃、麝香 各少許.

- 주사·우황·사향 조금씩.
- 右末如麵, 猪乳調, 抹兒口中.
- 이상을 밀가루처럼 곱게 가루 내고 돼지젖에 개어 아이의 입 속에 발라준다.

○黃連飲 ○황련음

- 治心經有熱, 夜啼.
- 심경에 열이 있어 밤에 우는 것을 치료한다.
- 人參 一錢, 黃連 七分半, 甘草(炙) 二分半, 青竹葉 五片.
- 인삼 1돈, 황련 7.5푼, 감초(살짝 볶는다) 2.5푼, 청죽엽 5조각.
- 右粗末, 每半錢, 入薑一片, 水煎, 灌口中.
- 이상을 거칠게 가루 내고 0.5돈씩 생강 1조각을 넣고 물에 달여서 아이의 입에 흘려 넣어준다.

○燈心散 ○등심산

- 治小兒心燥, 尋常夜啼.
- 아이가 심번으로 밤마다 우는 경우를 치료한다.

燈火三四顆, 研細, 以燈心、蟬退煎湯調, 灌服. ○一方, 燈心<sup>2</sup>七枚, 鵬砂一字, 朱砂少許, 研細蜜調, 抹唇上, 立止.

등불 심지 3-4개를 잘게 갈고 등심과 선퇴 달인 물에 타서 입에 흘려 넣어준다.

○다른 처방. 등심 7개, 봉사 1자, 주사 약간을 잘게 갈고 꿀과 섞어 아이의 입술에 바르면 금세 울음을 멈춘다.

○甘豆湯 ○감두탕

- 治小兒胎熱夜啼, 又善解胎毒過飲熱乳.
- 아이가 태열(胎熱)로 밤에 우는 것을 치료한다. 또한 태독(胎毒)이나 뜨거운 것을 너무 많이 먹은 것을 풀어준다.
- 雄黑豆 二錢, 青竹葉 五分, 甘草·燈心 各一錢.
- 웅흑두(雄黑豆, 쥐눈이콩) 2돈, 청죽엽 5푼, 감초·등심 각 1돈.
- 右水煎去滓, 每取小許, 灌服. 一二歲兒, 量宜任服.〔雄黑豆, 小小者佳.〕
- 이상을 물에 달여 건더기를 버리고 조금씩 아이 입에 흘려 넣어준다. 1-2살 아이는 적절하게 가늠하여 먹인다.〔웅흑두는 아주 작은 것이 약효가 좋다.〕

小兒夜啼驚惕有痰者, 牛黃抱龍丸, 驚熱者, 涼驚丸·錢氏安神丸〔三方見驚風〕, 氣血俱虛, 腹痛夜啼者, 歸香散.

아이가 밤에 울면서 소스라치게 놀라고 가래가 있으면 우황포룡환을 쓰고, 놀라면서 열이 있으면 양경환이나 전씨안신환(3가지 처방은 경풍(驚風)에 나온다)을 쓴다. 기와 혈이 모두 허하면서 배가 아파 밤에 울면 귀향산을 쓴다.

#### ○歸香散 ○귀향산

- 治小兒氣血俱虛, 唇口焦燥, 夜啼.
- 아이가 기와 혈이 모두 허하여 입술과 입이 바짝 바르며 밤에 우는 것을 치료한다.
- 黃芪(蜜炒)·當歸(酒洗)·白朮·川芎·甘草(炙) 各等分, 木香·桂心 各半減.
- 황기(꿀을 문혀 볶는다)·당귀(술로 씻는다)·백출·천궁·감초(살짝 볶는다) 각각 같은 양, 목향·계심 각각 앞 약재의 절반.
- 右細末, 每挑少許, 着乳頭上, 使兒吮之.
- 이상을 잘게 가루 낸 후 조금씩 집어 젖꼭지에 붙이고 아이가 빨아먹게 한다.

小兒欲飲乳，乳到口便啼，身額皆熱者，看其口，若無瘡，必喉舌腫痛，宜牛黃涼膈丸，或薄荷湯調化，塗舌上。參考口瘡。

아이가 젖을 빨려고 하지만 젖이 입에 들어가자마자 울면서 몸통과 이마가 뜨거운 경우에는 아이의 입을 살펴보아야 한다. 입 속이 헐지 않았다면 분명 목구멍이나 혀가 붓고 아픈 것이니 우황양격환을 써야 한다. 혹은 우황양격환을 박하탕에 녹여서 아이 혀바닥에 발라준다. 구창(口瘡) 부분을 참고하라.

小兒日夜多啼，必黃昏前後尤甚者，乃客忤中惡。治見客忤條。○小兒癖積，夜則發熱多啼，到曉方息。治見癖積。

아이가 밤낮으로 계속 울면서 늘 해질녘 쯤 더욱 심해지는 것은 바로 객오(客忤)나 중악(中惡)이다. 치료법은 객오(客忤) 부분에 나온다. ○아이가 벽적(癖積)이 있으면 밤에 열이 나면서 계속 울다가 새벽이 되어서야 진정된다. 치료법은 벽적 부분에 나온다.

小兒月內多啼者，吉，胎熱胎毒胎驚俱散，且無奇疾。要知頻浴凍腹，便成臍風，不忌生人異物，則爲客忤驚啼，乳食重服，則吐瀉痰逆，過煖則口舌瘡瘍，過涼則臍寒釣氣，皆夜多啼哭，調理之道，適中而已。(古者，兒生三日內，不餉乳者，兒飢則多啼故也。)

아이가 태어난 지 한 달 안에는 많이 울어야 좋은 법이니 태열(胎熱)·태독(胎毒)·태경(胎驚)이 모두 흩어져서 장차 이상한 병이 없게 되기 때문이다. 반드시 알아야 할 점은 자주 씻기거나 배를 차갑게 하면 제풍(臍風)이 된다는 사실이다. 낯선 사람이나 이상한 것을 조심하지 않으면 객오(客忤)로 놀라며 울게 되고, 젖이나 음식을 자꾸 먹이면 구토와 설사를 하면서 가래를 토하고, 너무 따뜻하게 키우면 입이나 혀에 창이(瘡瘍)가 생기고, 너무 서늘하게 키우면 장한(臍寒)이나 내조(內釣)가 된다. 이것들은 모두 아이가 밤에 계속 울게 만드니 아이를 기르는 방법은 중도에 맞아야 한다.(옛날에는 아이가 태어난 후 3일 동안 젖을 주지 않았는데, 아이가 배고프면 많이 울기 때문이다.)

黃尚書〔欽〕孫兒, 生纔五六月, 晝則穩睡無<sup>3</sup>, 至初昏睡覺, 仍以不寐, 達宵而啼, 如是者殆二旬, 諸醫治以夜啼, 多方無效. 余問其昏曉小放尿, 而夜間不放否, 果然也. 遂語之曰, 此非夜啼, 乃陰疝也. 釣藤膏〔方見內釣〕, 每五分, 釣藤煎湯調化, 日三服, 是夜穩睡, 乃安.

〔의안〕 상서(尙書) 황흠(黃欽)의 손주가 태어난 지 겨우 5-6일 되었는데 낮에는 평온히 자고 멀쩡하다가 해가 저물면 잠을 깨서 다시 잠들지 못하고 밤새도록 울었다. 이런지가 거의 20일이나 되도록 다른 의원들이 야제를 치료하는 처방을 썼지만 전혀 효과가 없었다. 내가 해질녘이나 새벽녘에 오줌을 조금 누고 밤에는 오줌을 누지 않는지 물어보니 과연 그러하였다. 그들에게 "이 병은 야제가 아니라 음산(陰疝)입니다."라고 말하고 조등고(처방은 내조(內釣)에 나 온다)를 5푼씩 조구등 달인 물에 녹여서 하루에 3번 먹였더니 그날 밤에 편히 자면서 좋아졌다.

1. 𢒐 : 慰 ※규장각본 ↗

2. 心 : 火 ※규장각본 ↗

3. 𢒐 : \*恙 ※문맥상 ↗

## 及幼方卷之三 급유방 권3

橫城 趙廷俊重卿 集

횡성 조정준(趙廷俊, 字 重卿) 편저



## 變蒸 변(變)과 증(蒸)

變者變在五臟<sup>1</sup>, 蒸者蒸養六腑, 故變則上氣, 蒸則體熱. 小兒初生, 形體雖具, 臟腑氣血, 尙未成就, 而精神志意魂魄, 俱未生全, 故三十二日一變, 六十四日一蒸.

'변(變)'은 오장을 변화시키며 만드는 과정이고, '증(蒸)'은 육부를 무르익히고 기르는 과정이다. 그러므로 변이 일어나면 기운이 위로 뜨며, 증이 일어나면 몸이 뜨거워진다. 아이가 갓 태어났을 때 형체는 갖추고 있지만 오장육부와 기혈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며, 정신이나 의지나 혼백도 아직 형성되지 않은 상태이다. 그러므로 32일에 1번씩 변이 일어나고, 64일에 1번씩 증이 일어난다.

凡遇一變, 卽覺性情, 有異於前, 上唇中心, 有一點白泡如珠者, 是也. 初生至三十二日一變, 生腎主精, 六十四日二變一蒸, 生膀胱, 其發耳與尻冷, 九十六日三變, 生心主藏神, 其性爲喜, 一百二十八日四變二蒸, 生小腸, 其發汗出微驚, 一百六十日五變, 生肝主藏魂喜笑, 一百九十二日六變三蒸, 生膽, 其發兩目不閉而赤, 二百二十四日七變, 生肺主藏魄生聲, 二百五十六日八變四蒸, 生大腸, 其發膚熱而汗或不汗, 二百八十八日九變, 生脾主藏意與智, 三百二十日十變五蒸, 生胃, 其發不食腸痛而吐乳, 又手厥心陰<sup>2</sup>包絡, 與手小陽三焦<sup>3</sup>二經, 俱無形狀, 故不變而不蒸.

무릇 1번 변을 지나면 성정을 깨달아 이전과 다른 변화가 나타나는데 윗입술 중앙에 진주같이 흰 수포가 그것이다. 아이가 태어나서 32일에 1번하니 족소음신경을 만들어 정(精)을 주관하게 된다. 64일에 2번1증하니 족태양방광경을 만들어 귀와 엉덩이가 차가워지게 된다. 96일에 3번하니 수소음심경을 만들어 신(神)을 저장하게 되며, 이때의 성정은 기쁨이다. 128일에 4번2증하니 수태양소장경을 만들어 땀이 나고 살짝 놀라게 된다. 160일에 5번하니 족궤음간경을 만들어 혼(魂)을 저장하고 즐거워하고 웃을 줄 알게 된다. 192일에 6번3증하니 족소양담경을 만들어 두 눈이 제대로 보이게 되고 혈색이 돌게 된다. 224일에 7번하니 수태음폐경을 만들어 백(魄)을 저장하고 목소리를 내게 된다. 256일에 8번4증하니 수양명대장경을 만들어 피부에 열이 생기며 땀을 흘리는데 간

혹 흘리지 않기도 한다. 288일에 9변하니 족태음비경을 만들어 생각과 지혜를 저장하게 된다. 320일에 10변5증하니 족양명위경을 만들어 먹지 않으면 배가 아프며 젖을 토하기도 한다. 그리고 수궐음심포락과 수소양삼초경 2가지 경맥은 모두 형상이 없기 때문에 변과 증이 일어나지 않는다.

夫十變五蒸者, 天地之數以生成之然後, 生意志, 能言語, 知喜怒, 故云始全也. 十變後, 六十四日爲<sup>4</sup>大蒸, 計三百八十四日, 長其經脈手足, 故手受血而能持物, 足受血而能行立, 又六十四日爲二大蒸, 計四百四十八日, 則<sup>5</sup>言語意各有異於前, 又六十四日爲三大蒸, 計五百一十二日. 變蒸於<sup>6</sup>畢, 學語倚立, 扶步能食, 血脈筋骨, 皆牢.

무릇 10변5증은 천지의 역수에 따라 생성되는 법이니, 변증이 마친 후에 의지가 생기고 말을 하며 희노애락을 알게 되므로 비로소 온전한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이다. 10변 후에 64일이 지나면 1대증이 되는데 총 384일이다. 경맥과 손발을 자라게 하므로 손은 혈을 받아 물건을 칠 수 있게 되고, 발은 혈을 받아 걷고 설 수 있게 된다. 한 번 더 64일이 지나면 2대증이 되는데 총 448일이다. 이때는 말이나 생각이 이전과는 꽤나 달라진다. 한 번 더 64일이 지나면 3대증이 되는데 총 512일이다. 변과 증이 마무리되면 말을 배우고 기대서고 손을 잡고 걸으며 혼자 먹을 수 있고 혈맥과 근골이 모두 자리를 잡게 된다.

稟氣盛者, 暗變而無外症, 稟氣弱者, 乃有蒸病, 輕者, 發熱微汗似驚, 五日乃解, 重則<sup>7</sup>, 壯熱脈亂而數, 或汗或吐, 煩啼燥渴, 七八日始解, 與傷寒相似, 隨症調治, 或不治自愈, 切不可忘<sup>8</sup>投藥餌及鍼灸.

기질이 왕성한 아이는 눈치 채지 못하게 변하여 겉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없을 수도 있다. 기질이 약한 아이는 때마다 증병(蒸病)이 생기는데 가벼운 경우에는 열이 나고 살짝 땀을 흘리며 경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5일이 지나면 이내 풀린다. 심한 경우에는 열이 끓으며 맥이 어지러우면서 빨리 뛰고 땀을 흘리거나 토하기도 하며 미친 듯이 울고 입술이 바짝 마르다가 7-8일이 지나면 그제

야 풀린다. 상한 증상과 비슷하므로 증상에 따라 조리하거나 치료해야 하며 간혹 치료하지 않아도 저절로 낫기도 한다. 절대 함부로 약을 주거나 침이나 뜸을 쓰지 않아야 한다.

○小兒變蒸者, 陰陽水火, 蒸於血氣, 而使形體成就, 是五臟之變氣, 而七情之所由生也. 俗謂之牙生骨長, 比如蠶之有眠、龍之脫骨、虎之轉爪、花之易苗, 而胎熱隨以<sup>9</sup>散也.

○아이의 변과 증은 음양이 혈과 기를 무르익혀서 형체가 완성되게 하는 것으로, 오장이 만들어지는 단계이며 칠정이 생기는 과정이다. 사람들이 말하는 '이빨이 나고 뼈가 자란다'는 과정이니 '누에가 고치를 튼다. 용이 환골탈태한다. 호랑이가 발톱을 간다. 꽃이 새싹을 틔운다.'는 말과 통한다. 아이의 변과 증은 태열을 따라 흩어진다.

#### ○平和飮子 ○평화음자

- 治身熱微驚吐瀉, 不乳多啼.
- 몸통이 뜨겁고 살짝 경기를 하며 구토와 설사가 있고 젖을 빨지 않으며 계속 우는 경우를 치료한다.
- 白茯苓 一錢半, 人蔘、甘草 各五分, 升麻 二分.
- 백복령 1.5돈, 인삼·감초 각 5푼, 승마 2푼.
- 右剉, 水煎服. ○稟受弱者, 加白朮一錢, 變蒸前後三日, 各進一服, 可免百病, 及百日內, 亦宜.
- 이상을 썰고 물에 달여 먹인다. ○기질이 허약한 아이는 백출 1돈을 더하고 변과 증이 일어나는 앞뒤 3일에 각각 한 번씩 먹이면 온갖 병치레를 피할 수 있다. 백일이 되지 않은 아이에게도 좋다.

#### ○和氣散 ○화기산

- 治寒熱腹痛, 多啼不乳, 嘔吐泄瀉.
- 오한발열과 복통이 있어 계속 울면서 젖을 먹지 않고 구토하며 설사하는 경우를 치료한다.
- 木香、香附、厚朴、陳皮、藿香、人蔘、甘草 各分等.
- 목향、향부자、후박、진피、곽향、인삼、감초 각각 같은 양.
- 右麤末, 每一錢, 入薑棗各一, 煎服.
- 이상을 거칠게 가루 낸 후 1돈씩 생강 1조각과 대조 1개를 넣고 달여 먹인다.

#### ○柴胡飲 ○시호음

- 治骨熱心煩, 焦啼不寐.
- 골증열과 심번으로 까무러칠 듯이 울며 잠들지 못하는 경우를 치료한다.
- 柴胡、人蔘、麥門冬、甘草 各二分, 草龍膽(酒洗)、防風 各一分.
- 시호、인삼、맥문동、감초 각 2푼, 초롱담(술로 씻는다)、방풍 각 1푼.
- 右剉, 水煎服.
- 이상을 썰고 물에 달여 먹인다.

#### ○當歸湯 ○당귀탕

- 治有寒無熱, 腹痛泄瀉.
- 오한만 있고 열이 나지 않으면서 복통과 설사가 있는 경우를 치료한다.
- 當歸 四分, 木香、官桂、人蔘、甘草 各二分.
- 당귀 4푼, 목향、관계、인삼、감초 각 2푼.
- 右剉, 入薑棗各一, 水煎服.
- 이상을 썬 후 생강 1조각과 대조 1개를 넣고 물에 달여 먹인다.

○紫陽黑散 ○자양흑산

- 治變蒸, 解利諸熱.
- 변과 증을 치료하며 여러 열증을 풀어준다.
- 麻黃 二兩(不去節), 大黃 五錢, 杏仁(去皮) 二錢半(研).
- 마황(마디 채로) 2냥, 대황 5돈, 행인(껍질을 제거하여 간다) 2.5돈.
- 右三味, 和一處杵碎略, 燒存性, 後入杏仁膏, 和之<sup>10</sup>密盛貯, 每用<sup>11</sup>一字, <sup>12</sup>乳汁化嚥之.
- 위 3가지 약재를 한 곳에 섞어 공이로 대강 뺀고 약성이 남도록 태운 후 행인고를 넣고 꿀과 함께 잘 섞어서 그릇에 담는다. 1자씩 젖에 녹이고 아이가 빨아먹게 한다.

○參杏<sup>13</sup>膏 ○삼행고

- 治小兒變蒸潮熱.
- 아이의 변과 증에 일어나는 조열을 치료한다.
- 人蔘、杏仁(去皮尖)、升麻 各五分, 甘草(炙) 二分.
- 인삼、행인(껍질과 뾰족한 부분을 제거한다)、승마 각 5푼, 감초(살짝 볶는다) 2푼.
- 右極細末, 百日以前, 每服<sup>14</sup>一字, 用<sup>15</sup>麥門冬(去心)<sup>16</sup>煎湯, 食遠調服.
- 이상을 아주 곱게 가루 내고 백일 이전의 아이 기준으로 1자씩 맥문동(심을 뺀다) 달인 물에 타서 식간에 먹인다.

小兒生後, 氣血筋骨, 蒸養變生, 謂之變蒸, 兒一經之後, 神志比前稍覺有異, 俗所謂牙生骨長者, 此也. 三十二日一變, 六十四日一蒸者, 象天之數以應歲期, 兒之稟賦, 強弱虛實不同, 弱者, 不待日數而有先痛者, 實者, 無症候而有暗變不痛者, 何可拘於日數, 若身熱耳冷尻冷, 上唇有珠泡者, 變蒸也, 無此症者, 乃他病, 宜別作治法,

槩<sup>17</sup> 世俗不知變蒸之長氣血, 而身熱者, 謂之外感, 驚悸者, 謂之驚風, 吐瀉者, 謂之傷乳, 雜施諸方, 反傷真氣, 錯亂經絡, 使輕變爲重, 可勝言哉. 薛氏曰, 余嘗見一小兒至<sup>18</sup>變蒸, 發熱有痰, 投抱龍丸一粒, 卒至不救, 此戒藥餌忘<sup>19</sup>施也. 非但變蒸, 凡小兒之病, 難知的者, 不可汲汲雜治, 宜姑先善爲調護, 觀其變動而治之也.

〔안어〕 아이가 태어나서 기혈과 근골이 무르익고 변화하는 것을 '변증(變蒸)'이라고 한다. 아이가 한번 변증을 겪은 후에는 신지(神志)가 전에 비해 조금 일깨워져 달라지니 사람들이 말하는 '이빨이 나고 뼈가 자란다'는 것이 이것이다. 32일에 1변하고 64일에 1증하는 것은 천지의 역수가 날짜에 반영되는 것이다. 아이의 기질은 강약과 허실이 같지 않다. 약한 아이는 날짜가 되기도 전에 먼저 아프기도 하고, 튼실한 아이는 별다른 증상 없이 아프지 않고 조용히 변하는 경우도 있으니 어찌 날짜에 구애받겠는가. 몸통이 뜨겁고 귀와 엉덩이가 차가우며 윗입술에 진주 같은 수포가 생기면 변증이며, 이런 증상이 없는 경우는 다른 병이므로 구별하여 치료해야 한다. 대체로 사람들은 변증이 기와 혈을 자라게 한다는 점을 알지 못한 채 몸이 뜨겁다고 외감이라고 하거나 경계가 있으니 경풍이라고 하거나 구토와 설사를 하니 젖에 상했다고 하면서 여러 처방을 섞어 치료하여 도리어 진기를 상하게 하고 경락을 착란시켜 가벼운 병을 위중한 병으로 만들고 있으니 이런 경우를 다 말할 수 있겠는가. 설씨(薛氏)가 "나는 어떤 아이가 변증인 것을 본 적이 있다. 열이 나고 가래가 있어서 포룡환 1알을 먹였지만 결국 생명을 구하지 못했다."고 말하였으니 이처럼 약을 함부로 주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변증뿐만 아니라 모든 소아의 병은 명확히 알기 어려우므로 조바심 내면서 이런 저런 치료를 하지 말고 우선 잘 조리하고 돌보면서 증상의 변화를 살펴 치료해야 한다.

1. 變在五臟 : \*變生五臟 ※《의학입문》↩

2. 心陰 : \*陰心 ※규장각본↩

3. 焦 : 焦 ※규장각본↩

4. 글자없음 : 一 ※규장각본 ↩

5. 則 : ※규장각본 ↩

6. 於 : 旣 ※규장각본 ↩

7. 則 : 者 ※규장각본 ↩

8. 忘 : \*妄 ※규장각본 ↩

9. 以 : 而 ※규장각본 ↩

10. 密 : \*蜜 ※규장각본 ↩

11. 用 : ※규장각본 ↩

12. 글자없음 : 用 ※규장각본 ↩

13. 글자없음 : 仁 ※규장각본 ↩

14. 服 : ※규장각본 ↩

15. 用 : ※규장각본 ↩

16. (去心) : ※규장각본 ↩

17. 槩 : 𣎵 ※규장각본 ↩

18. 至 : ※규장각본 ↩

19. 忘 : \*妄 ※규장각본 ↩

## 丹毒 단독

小兒一切丹毒, 皆由於母食五辛, 及烘尿衣<sup>1</sup>乘熱不乾, 濕熱<sup>2</sup>淫, 心火驟盛, 以致毒與血搏<sup>3</sup>而風乘之, 所以赤腫遊走遍體, 不定其始發於四肢或頭面胸背, 令人煩悶腹脹, 其熱如火, 痛不可忍, 若自腹生出<sup>4</sup>四肢者, 易治, 自四肢生入腹者, 難療<sup>5</sup>, 治法先用鍼砭, 去其毒血, 外敷以<sup>6</sup>毒涼肌之藥, 內服以消毒發散之劑, 連翹敗毒散、升麻葛根湯(二方見外感)、犀角消毒飲, 或犀角地黃湯(<sup>7</sup>方見諸血)之類, 俱加紫草茸酒洗, 勿令毒氣陷伏, 其不可服冷藥者, 宜惺惺散(方見外感), 或過服寒涼之劑, 傷胃吐瀉者, 宜四君子湯(方見吐瀉), 加減用之, 天乙丸(方見諸熱), 亦可. 大抵首尾以發散消毒清熱去濕爲主.

아이의 여러 가지 단독(丹毒)은 모두 뱃속에 있을 때 어머니가 오신채를 먹었거나, 뜨거운 오줌이 옷이나 이불에 묻어 따뜻한 채 마르지 않아 습열이 배꼽으로 스며들어 심화가 갑자기 왕성해지고 결국 열독과 혈이 다투는 틈에 풍사가 침범한 것이다. 온몸 여기저기가 빨갛게 부어 사지나 얼굴이나 가슴이나 배 어느 곳에서 시작되는지 모르게 되어 아이가 답답해하며 배가 똥똥해지고 열이 불처럼 뜨겁고 참을 수 없이 아파하게 된다. 만약 배부터 시작되어 사지로 퍼진 경우라면 쉽게 치료할 수 있지만, 사지에서 배로 퍼진 경우는 치료가 어렵다. 치료법으로는 먼저 침이나 펴석으로 독혈을 짜고, 겉으로는 독기를 빼고 피부를 식혀주는 약을 바르고, 속으로는 독을 삭히며 열을 발산시키는 약인 연교패독산·승마갈근탕(두 처방은 외감에 나온다)·서각소독음을 먹이거나 혹은 서각지황탕(처방은 제혈에 나온다) 같은 처방에 자초용(술에 씻는다)을 더하여 독기가 속으로 잠복하지 않게 해야 한다. 차가운 성질의 약을 먹이지 않아야 하는 아이에게는 성성산(처방은 외감에 나온다)을 써야 한다. 한랭한 성질의 약 때문에 위장을 상하여 구토와 설사하는 아이에게는 사군자탕(처방



은 토사에 나온다)을 가감하여 쓰며, 천을환(처방은 제열에 나온다)도 괜찮다. 아이의 치료는 시작부터 끝까지 열을 발산시키고 독을 삭히며 열을 식히고 습을 없애는 것을 위주로 해야 한다.

○消毒飲 ○소독음

- 解諸般瘡毒、痘<sup>8</sup>紅疹毒、丹毒.
- 여러 가지 창독(瘡毒)、두창이나 마진의 독、단독을 풀어준다.
- 牛旁子(炒研) 四錢, 荊芥穗、防風 各二錢, 甘草 五分.
- 우방자(볶아서 간다) 4돈, 형개수、방풍 각 2돈, 감초 5푼.
- 右剉, 水煎服.
- 이상을 썰고 물에 달여 먹인다.

○犀角消毒飲 ○서각소독음

- 上方, 加犀角一錢.
- 소독음에 서각 1돈을 더한다.

○葛根消毒飲 ○갈근소독음

- 升麻葛根湯〔方見外感〕, 合消毒飲.
- 승마갈근탕(처방은 외감(外感)에 나온다)에 소독음을 합한다.

○芩連消毒飲 ○금련소독음

- 本方, 加黃芩、連翹.
- 소독음에 황금과 연교를 더한다.

○防風升麻湯 ○방풍승마탕

- 治小兒丹毒赤腫, 瀉心小腸熱.
- 아이가 단독으로 빨갱게 부은 것을 치료한다. 심장과 소장의 열을 사해준다.
- 防風、升麻、山梔<sup>9</sup>(炒)、麥門冬、木通、甘草(節) 各一錢.
- 방풍、승마、산치인(볶는다)、맥문동、목통、감초(마디) 각 1돈.
- 右剉, 入竹葉三片, 燈心十莖, 水煎服. 加生芩, 尤好<sup>10</sup>.
- 이상을 썰어 죽엽 3조각과 등심 10줄기를 넣고 물에 달여 먹인다. 생지황을 더 하면 더욱 좋다.

○葛根白朮散 ○갈근백출산

- 治小兒赤白丹毒遊走.
- 아이에게 붉거나 흰 단독이 돌아다니는 것을 치료한다.
- 葛根 一錢半, 白茯苓、白芍藥、升麻、白朮 各一錢, 枳殼 七分, 木香、甘草 各五分.
- 갈근 1.5돈, 백복령、백작약、승마、백출 각 1돈, 지각 7푼, 목향、감초 각 5푼.
- 右剉, 水煎服.
- 이상을 썰고 물에 달여 먹인다.

○拔毒散 ○발독산

- 治丹毒遊走焮痛.
- 단독이 돌아다녀 화끈거리고 아픈 것을 치료한다.
- 寒水石 二兩三<sup>11</sup>錢, 石膏 一兩, 黃柏、甘草 各三錢.
- 한수석 2.3냥, 석고 1냥, 황백、감초 각 3돈.

- 右末, 水調塗之. 芭蕉汁調付, 尤好.
- 이상을 가루 내고 물에 타서 환부에 발라준다. 파초즙에 타서 발라주면 더욱 좋다.

○冰黃散 ○빙황산

- 治同上.
- 위와 같이 단독이 돌아다녀 화끈거리고 아픈 것을 치료한다.
- 大黃、焰硝 各等分.
- 대황·염초 각각 같은 양.
- 右細末, 井水調塗, 以不乾爲度.
- 이상을 잘게 가루 내고 우물물에 타서 발라준다. 바른 것이 열독에 마르지 않을 때까지 계속한다.

○泥金膏 ○이금고

- 治<sup>12</sup>毒熱癰, 無名腫毒.
- 단독으로 뜨겁고 종기가 생기거나 기타 알 수 없는 종독(腫毒)을 치료한다.
- 蚯蚓糞 二分, 焰硝 一分.
- 구인분 2푼, 염초 1푼.
- 右末, 井水調付.
- 이상을 가루 내고 우물물에 타서 발라준다.

一方 다른 처방

- 治小兒丹毒, 以赤小豆末, 鷄子清調付, 乾則易付. 木麥末, 醋<sup>13</sup>調付之. 伏龍肝不拘多少, 爲末, 鷄子調付, 以不乾爲度. ○臘猪肉豆泡等物, 切片付之. ○藍葉、

水苔、芭蕉、浮萍之類,<sup>14</sup>搗爛付之, 其汁以鷄翎刷之. ○鯉魚、鱔魚等血, 皆塗之.

- 아이의 단독을 치료한다. 적소두 가루를 달걀흰자에 타서 발라주고 마르면 다시 발라준다. 목맥(木麥) 가루를 식초에 개어 발라준다. 복룡간을 분량에 관계 없이 가루 내고 달걀에 개어 발라준다. 바른 것이 열독에 마르지 않을 때까지 계속한다. ○선달에 잡은 돼지고기와 두부 등을 얇게 썰어서 붙여준다. ○남엽(藍葉)、수태(水苔)、파초、부평 같은 것들을 짓찧어서 환부에 붙여주고 국물은 닭털에 묻혀 발라준다. ○잉어나 드렁허리의 피를 환부에 발라준다.

## 蜚鍼法

### 기침법

- 多取蜚, 入竹筒內, 付赤暈處, 蜚吸血自落, 更浸<sup>15</sup>水再付, 冬月則蜚不付, 以溫水浸蜚, 置溫處即付, 此法畏鍼兒尤奇.
- 거머리를 많이 잡아서 대롱에 넣고 빨간 멍울에 대고 있으면 거머리가 피를 빨고 저절로 떨어진다. 떨어진 후에는 물에 담갔다가 다시 같은 방법으로 대고 있다. 겨울철에는 거머리가 잘 물지 않는데 따뜻한 물에 담근 후에 따뜻한 곳에 두면 잘 물게 된다. 이 방법은 침을 무서워하는 아이에게 아주 좋다.

按. 丹之所發, 百日內小兒最多, 一發之後, 未有中止, 必遍滿一身然後, 乃已, 故首尾幾一二朔, 如縷元氣, 其何能支保, 此小兒必死之疾也. 古之治法, 無過無不及, 今則不然, 以刼治爲務, 逐日亂刺, 或再或三, 過服寒涼之藥, 大損脾胃, 徑<sup>16</sup>致不救, 可勝惜哉. 丹毒雖曰因熱, 而發熱日久, 則不可專以治熱爲主, 血虛補血, 氣虛補氣, 胃寒溫中, 全在活法, 兼亦小心調護, 延拖時日, 則暗暗<sup>17</sup>之中, 自有生生之氣, 庶可有回蘇之望矣, 慎勿以過治爲主.

〔안어〕단독은 백일 이전의 아이에게 가장 많이 발병한다. 한번 발병한 후에는 도중에 멈추지 않고 반드시 온몸을 덮은 후에 멈추기 때문에 처음부터 나올 때까지 1-2달이 걸린다. 그동안 아이의 원기가 실날같아지니 어떻게 몸을 보전하겠는가. 이것이 아이가 반드시 죽게되는 병이 되는 까닭이다. 옛 치료법은 지

나침도 모자람도 없었으나 요새는 그렇지 않다. 강하게 치료하기를 힘쓰고 날마다 여기저기 침으로 찌르며 혹은 두 번 세 번 차가운 성질의 약을 먹여 아이의 비위를 크게 상하게 하면서 결국 살리지 못하고 있으니 참으로 애석하지 않은가. 단독은 비록 열 때문에 생기지만 발열이 오래되면 열만 치료하려고 해서 안된다. 혈이 허하면 혈을 보해가면서, 기가 허하면 기를 보해가면서, 위가 차가우면 속을 따뜻하게 해주는 등 상태에 따라 치료법을 바꿔야 한다. 아이의 비위가 차가운지 따뜻한지에 모든 구활이 달려있다. 또한 치료와 더불어 조심 조심 조리시키고 보살피면서 하루하루 넘기다보면 어느샌가 저절로 생기가 돌아 기사회생하는 희망도 가질 수 있을 것이니 절대 지나친 치료를 위주로 하지 말라.

1. 襟 : 衾 ※규장각본 [↩](#)

2. 侵 : 浸 ※규장각본 [↩](#)

3. 搏 : 博 ※규장각본 [↩](#)

4. 生出 : 至 ※규장각본 [↩](#)

5. 療 : 治 ※규장각본 [↩](#)

6. 拔 : 發 ※규장각본 [↩](#)

7. 글자없음 : 二 ※규장각본 [↩](#)

8. 글자없음 : 毒 ※규장각본 [↩](#)

9. 梘 : 藥 ※규장각본 [↩](#)

10. 好 : 妙 ※규장각본 [↩](#)

11. 三 : 二 ※규장각본 [↩](#)

12. 글자없음 : \*丹 ※규장각본 ↩

13. 醋 : 蘸 ※규장각본 ↩

14. 글자없음 : 宜 ※규장각본 ↩

15. 浸 : 侵 ※규장각본 ↩

16. 徑 : \*經 ※규장각본 ↩

17. 暗暗 : 昏昏 ※규장각본 ↩

## 胎瘡 태창

小兒胎瘡<sup>1</sup>, 因孕婦<sup>2</sup>七情之慾, 飲食<sup>3</sup>之毒遺兒之致也. 初生月內諸疾, 乃胎毒之淺者, 一二歲後所生之疾, 乃胎毒之深者, 胎瘡發於頭面胸背或四肢, 日夜搔痒, 血汗不止者, 宜涼血解毒, 若<sup>4</sup>日久津液外泄, 氣血<sup>5</sup>內耗, 肌肉焦枯者, 宜養血補氣, 並宜隨症治之.

아이의 태창(胎瘡)은 임신부의 감정이 지나치거나 음식의 독이 태아에게 흘러 들어간 결과이다. 생후 1달 이내의 병들은 태독이 얇게 침범한 경우이며, 1-2살 이후에 생기는 병들은 태독이 깊게 침범한 경우이다. 태창이 머리, 얼굴, 가슴, 등, 사지에 생겨서 밤낮으로 가려워하고 핏물이 그치지 않는 경우에는 혈을 식혀주고 독을 풀어줘야 한다. 만약 오랫동안 진물이 흘러 기와 혈이 부족해지고 살이 마르면서 검게 되는 경우에는 혈을 길러주고 기를 보해주어야 한다. 모두 증상에 따라 치료해야 한다.

### ○大連翹飲 ○대연교음

- 治小兒諸瘡, 胎熱胎風, 遍身生如粟米搔痒, 達宵不寐.
- 아이가 여러 가지 창이나 태열(胎熱), 태풍(胎風)으로 온몸에 좁쌀 같은 것이 생기고 가려워서 밤새도록 잠들지 못하는 것을 치료한다.
- 甘草 四分, 柴胡、黃芩、荊芥穗 各三分, 連翹、車前子(炒研)、瞿麥、滑石、惡實(炒研)、赤芍藥、山梔、木通、當歸、防風 各二分, 蟬退 二分半.
- 감초 4푼, 시호, 황금, 형개수 각 3푼, 연교, 차전자(볶아서 간다), 구맥, 활석, 약실(볶아서 간다), 적작약, 산치인, 목통, 당귀, 방풍 각 2푼, 선퇴 2.5푼.
- 右剉, 入竹葉二片, 燈心十莖, 水煎服.
- 이상을 썬 후 죽엽 2조각과 등심 10줄기를 넣고 물에 달여 먹인다.

○生料四物湯 ○생료사물탕

- 治同上.
- 위와 같이 아이가 여러 가지 창이나 태열(胎熱)·태풍(胎風)으로 온몸에 좁쌀 같은 것이 생기고 가려워서 밤새도록 잠들지 못하는 것을 치료한다.
- 生芩(酒洗)·赤芍藥·川芎·當歸·防風 各三分, 黃芩·薄荷 各二分.
- 생지황(술로 씻는다)·적작약·천궁·당귀·방풍 각 3푼, 황금·박하 각 2푼.
- 右剉, 水煎服. <sup>6</sup>心熱煩燥, 加升麻, 氣虛, 加參·朮.
- 이상을 썰고 물에 달여 먹인다. ○가슴속이 뜨겁고 답답하면 승마를 더하고, 기가 허하면 인삼과 백출을 더한다.

○牛黃解毒丹 ○우황해독단

- 治小兒胎瘡諸熱.
- 아이의 태창(胎瘡) 및 여러 가지 열증을 치료한다.
- 牛黃 三錢, 甘草·金銀花 各一兩, 紫草茸(酒洗) 五錢.
- 우황 3돈, 감초·금은화 각 1냥, 자초용(술로 씻는다) 5돈.
- 右細末, 煉蜜丸梧子大, 量兒大小, 薄荷或蟬退煎湯化服.
- 이상을 잘게 가루 내고 연밀과 섞어 오자대로 환을 빚는다. 아이의 몸집을 가늠하여 박하나 설편 달인 물에 녹여 먹인다.

○解毒散 ○해독산

- 治胎瘡, 感觸風寒, 忽完合, 身熱燥悶, 多啼不寐.
- 태창(胎瘡)이 있는 아이가 풍한에 감촉된 후 태창이 갑자기 아물고 몸통이 뜨거우며 입술이 마르고 답답해하며 계속 울면서 잠들지 못하는 것을 치료한다.



- 荊芥穗、牛旁子(炒研) 各三錢, 升麻 二錢, 薄荷、紫草茸(酒洗)、甘草 各一錢.
- 형개수、우방자(볶아서 간다) 각 3돈, 승마 2돈, 박하、자초옹(술로 씻는다)、감초 각 1돈.
- 右<sup>7</sup>末, 每一二錢, 入蔥白一, 紫蘇<sup>8</sup>葉三片, 水煎服乳母, 少與兒.
- 이상을 거칠게 가루 낸 후 1-2돈씩 총백 1줄기와 자소엽 3조각을 넣고 물에 달여 유모에게 먹이고 아이에게도 조금 먹인다.

#### ○九味解毒散 ○구미해독산

- 治胎毒, 遍身發瘡, 及諸熱煩燥.
- 태독(胎毒)으로 온몸에 창이 나는 경우와 여러 가지 열증 및 번조를 치료한다.
- 連翹(去實)、金銀花、白芷、當歸、赤芍藥 各一錢, 防風 七分, 黃連、山梔(炒) 各五分, 甘草 三分半.
- 연교(씨를 뺀다)、금은화、백지、당귀、적작약 각 1돈, 방풍 7푼, 황련、산치인(볶는다) 각 5푼, 감초 3.5푼.
- 右剉, 水煎, 子母并服.
- 이상을 썰고 물에 달여 아이와 어머니 모두에게 먹인다.

#### ○紫草膏 ○자초고

- 治諸般熱毒瘡, 及小兒胎瘡, 搔痒汁流, 夜啼不寐.
- 열독으로 생긴 여러 창과 아이가 태창을 긁어 진물이 흐르고 밤에 울며 잠들지 못하는 것을 치료한다.
- 紫草、黃連、黃柏、漏蘆 各五錢, 赤小豆、菉豆 各一合.
- 자초、황련、황백、누로 각 5돈, 적소두、녹두 각 1홉.
- 右細末, 猪脂和勻, 先以洗瘡, 後攤絁上貼之.

- 이상을 잘게 가루 내고 돼지기름과 잘 섞는다. 먼저 창을 씻고 그 다음에 비단에 발라 환부에 붙여준다.

#### ◦立效散 ◦입효산

- 治小兒胎瘡搔痒, 血汁不止, 以此收斂.
- 아이가 태창을 긁어서 핏물이 멎지 않는 것을 치료한다. 이 약으로 태창을 아물게 한다.
- 定粉(即胡粉)、松脂、黃連、黃柏、枯礬 各等分.
- 정분(호분)、송지、황련、황백、고백반 각각 같은 양.
- 右極細末, 猪脂或蠟油<sup>9</sup>化勻, 作膏, 青絢上攤貼.
- 이상을 아주 곱게 가루 낸 후 돼지기름이나 촛농에 잘 개어서 고약처럼 만들고 푸른 비단에 발라 환부에 붙여준다.

#### 外敷藥

##### 외부약

- 頭面肢體, 壞爛搔痒, 白楊木枝燒, 取瀝塗之. ◦外用, 兒父親小便, 以鷄羽刷瘡上, 或青黛末糝付. ◦桑木蟲屑燒存性, 細末, 入輕粉少許和勻, 乾則猪脂調付, 濕則乾糝. 或松蘿皮燒存性, 依上法付之. ◦猪膽汁刷瘡上. (炭火大塊, 淬水三次, 取澄, 洗瘡後, 訶子燒存性, 細末, 入輕粉少許和勻, 糝付瘡處, 乾則油調付.)
- 머리부터 몸통 및 손발까지 짓무르며 가려워 긁는 경우에는 백양목 가지 태운 수증기를 응결시켜 발라준다. ◦외용법. 아버지의 소변을 닭털에 묻혀 환부에 바른다. 혹은 청대 가루를 뿌려준다. ◦벌레가 갇아먹은 뽕나무 가루를 약성이 남도록 태워 잘게 가루 내고 경분을 조금 넣어 잘 섞는다. 환부에 물기가 없으면 돼지기름에 섞어 발라주고, 물기가 있으면 마른 가루를 뿌려준다. 혹은 소나무 껍질질을 약성이 남도록 태워 같은 방법으로 발라준다. ◦돼지의 쓸개즙을 환부에 발라준다. (큰 숯불을 물에 담그기를 3차례 하고 맑은 옷물만 모아 창을 씻어

준다. 그리고 가자를 약성이 남도록 태워 잘게 가루 낸 후 경분을 약간 넣어 잘 섞고 창에 뿌려준다. 환부가 말라있으면 참기름에 개어 발라준다.)

## 洗法

### 세법

- 春用柳條、荊芥, 夏用棗葉、槐枝, 秋用苦蔘煎湯, 溫洗胎瘡, 風寒外束, 則內熱熾盛, 多啼搔痒, 皮膚壞爛, 宜密室溫處以禦風寒, 天氣溫和之時, 則頻與澡洗, 換着洗衣, 外宣其鬱熱之氣, 或煩熱之時, 則間間些服牛黃解毒丹, 使消毒發出, 無有陷伏之患.
- 봄에는 버들가지나 형개 달인 물, 여름에는 대추나무 잎이나 회화나무 가지 달인 물, 가을에는 고삼 달인 물로 따뜻할 때 태창을 씻어준다. 풍한으로 겉에서 움츠려들면 속에서 열이 타올라 계속 울면서 가려워하고 피부가 문드러지니 바람 들지 않는 따뜻한 곳에서 풍한을 막아주어야 한다. 날씨가 온화할 때에는 자주 씻기고 옷을 갈아입히는 한편 입었던 옷은 빨아야 한다. 겉으로는 울체된 열을 발산시켜 주어야 한다. 혹시 번열이 있다면 중간 중간 우황해독단을 조금 먹여서 열독을 삭히고 방출시켜야 태창이 속으로 숨을 우려가 없을 것이다.

古方云, 小兒胎瘡, 不宜服藥, 不得已服藥, 此乃下法, 不知完合之後, 更有何疾也, 且乳食勿令過飽, 亦勿觸風寒, 調理有節, 自然完合.〔滿身胎瘡, 經年不愈, 瘡汁不止, 氣血外泄, 面黃肥瘦, 不成完人者, 亦多矣. 觀其輕重, 漸次內發外斂, 少無損害.〕

옛 의서에 '아이의 태창에는 약을 먹이지 않아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만 약을 먹인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초보적인 방법이며 태창이 완전히 아문 후에 다시금 어떤 병이 생길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젖이나 음식을 너무 배불리 먹이지도 말고 풍한에 노출시키지도 않으면서 절도에 맞게 잘 돌보면 태창이 자연스레 완전히 아물게 된다.〔온몸의 태창이 몇년 동안 낫지 않아 핏물이 멎지 않으면 기와 혈이 밖으로 빠져나가 얼굴이 누레지고 비쩍 말라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증상의 경중을 살펴서 차근차근 안에서는 발산시키고 겉에서는 수렴시키면 조금도 손해날 일이 없을 것이다.〕

滿頭餅瘡, 卽癩頭瘡, 胎毒之甚者也. 古法, 防風通聖散, 酒製爲末, 每一二錢, 水煎服, 三十貼乃效. 考瘡疾腦瘡參治.

머리 가득 생긴 병창(餅瘡)은 나두창(癩頭瘡)이니 태독이 심하여 그런 것이다. 옛 치료법에 '방풍통성산을 술로 법제하여 가루 내고 1-2돈씩 물에 달여 먹이면 30첩 정도에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감질(瘡疾)의 뇌감(腦瘡) 부분을 참고하여 치료하라.

#### ○防風通聖散 ○방풍통성산

- 治風熱, 中風不語, 破傷風, 小兒驚風, 積熱胎瘡, 或瘡疹黑陷, 或熱極生風, 舌強口噤筋惕, 肉瞤熱結, 大小便不通.
- 다음 증상을 치료한다. 풍열, 중풍으로 말하지 못하는 것, 파상풍, 소아의 경풍, 열이 쌓여 생긴 태창, 혹은 창진(瘡疹)이 검게 함몰된 것, 혹은 열이 극심하여 풍증이 된 것, 혀가 굳고 입을 악다물며 힘줄이 뻣뻣한 것, 살이 떨리고 열이 울결된 것, 대소변을 보지 못하는 것.
- 滑石 一錢七分, 甘草 一錢二分, 石膏(煨)、黃芩、桔梗 各七分, 防風、川芎、赤芍藥、當歸、大黃、麻黃、薄荷、連翹、芒硝 各四分半, 荊芥、白朮、梔子 各三分半.
- 활석 1.7돈, 감초 1.2돈, 석고(불에 달군다)、황금、길경 각 7푼, 방풍、천궁、적작약、당귀、대황、마황、박하、연교、망초 각 4.5푼, 형개、백출、치자 각 3.5푼.
- 右剉, 入姜五片, 水煎服. ○除麻黃、石膏、滑石, 其餘酒浸焙乾, 如是三次, 後入三材, 并爲細末, 量宜用, 名酒製通聖散, 治風熱燥三者之總劑也.
- 이상을 썬 후 생강 5조각을 넣고 물에 달여 먹인다. ○마황과 석고와 활석을 제외하고 나머지 약재는 술에 담갔다가 불에 쪄서 말리기를 3차례 한다. 그 후에 제외했던 3가지 약재를 넣고 모두 잘게 가루 내어 적절하게 쓴다. 이 처방은 주제통성산이라고 하며 풍증과 열증과 조증(燥症) 3가지를 함께 다스리는 약이

다.

## 治癩頭瘡方

나두창(癩頭瘡)을 치료하는 처방

- 松脂、黃蠟 各一兩, 白芷(炒)、羌活、秦艽 各五錢, 樑上塵、亂髮灰 各四錢, 枯白礬、黃丹、石雄黃 各三錢, 輕粉 一錢半, 香油 三兩. 右細末<sup>10</sup>, 先煎油, 入羌、<sup>11</sup> 芡熬, 色焦黑去滓, 入諸藥, 更煎成膏, 攤青絨上貼用.
- 송진、황랍 각 1냥, 백지(볶는다)、강활、진교 각 5돈, 양상진、난발회 각 4돈, 고백반、황단、석웅황 각 3돈, 경분 1.5돈, 참기름 3냥. 이상을 잘게 가루내거나 썰어둔다. 먼저 참기름을 달이다가 강활과 진교를 넣고 졸이다가 색깔이 검게 되면 찌꺼기를 걷어내고 나머지 약재를 넣은 후 다시 달여 고약처럼 만든다. 푸른 비단에 발라 환부에 붙여준다.

## ◦加味黃蠟膏 ◦가미황랍고

- 治癩頭瘡, 無名惡瘡.
- 나두창(癩頭瘡)과 이름 모를 악창(惡瘡)을 치료한다.
- 明松脂、黃蠟 各一兩, 苦蔘、秦艽、羌活、白芷、亂髮灰 各三錢, 玄參、生地黃 各五錢.
- 명송지、황랍 각 1냥, 고삼、진교、강활、백지、난발회 각 3돈, 현삼、생지황 각 5돈.
- 右細末<sup>12</sup>, 入香油二錢<sup>13</sup>熬, 至色黑去滓, 再煎, 入石雄黃末五錢, 輕粉末一錢, 攪勻成膏, 攤絨上貼瘡處.
- 이상을 잘게 썰어 참기름 2잔에 넣고 졸이다가 검은색이 되면 찌꺼기를 걷어낸 후 다시 달인다. 석웅황 가루 5돈과 경분 가루 1돈을 넣고 잘 저어서 고약처럼 만든다. 비단에 발라 창에 붙여준다.

1. 瘡 : 疾 ※규장각본 <

2. 婦 : 母 ※규장각본 <

3. 食 : 水 ※규장각본 <

4. 若 : 數 ※규장각본 <

5. 氣血 : 血氣 ※규장각본 <

6. 글자없음 : \*○ ※규장각본 <

7. 麤 : 細 ※규장각본 <

8. 葉 : ※규장각본 <

9. 蠟油 : \*燭油 ※《증치준승》 <

10. 末剉 : 剉 ※규장각본 <

11. 글자없음 : 苴 ※규장각본 <

12. 剉 : 末 ※규장각본 <

13. 錢 : \*鏊 ※규장각본 <

## 膿耳 농이

小兒膿耳, 乃胎熱釀成而痛也, 膿汁潰出, 以綿頻拭, 乃免耳聾之患, 否則濃汁結核, 塞耳成聾, 此聾耳也. 初發之時, 身熱驚啼, 症似外感, 而亦未知何<sup>1</sup>樣症候也, 勿以湯散, 以金銀花煎水, 調牛黃少許服之, 不過一二日內, 自潰.

아이의 농이(膿耳)란 태열로 고름이 생기며 아파하는 증상이다. 고름이 터져 나오면 솜으로 자주 닦아주어야만 귀가 먹을 우려가 없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고름이 뭉치고 귀를 막아 귀머거리가 되는데 이것이 정이(聾耳)이다. 처음 발병할 때에는 몸이 뜨겁고 경기하면서 울기 때문에 증상이 외감과 비슷하고 어떤 증상의 징후인지 알지 못한다. 다른 처방을 쓰지 말고 금은화 달인 물에 우황을 조금 타서 먹이면 1-2일이 지나기 전에 저절로 고름이 터진다.

### ○紅綿散 ○흥면산

- 治膿汁流出, 久不止.
- 귀에서 고름이 흘러나오며 오랫동안 멎지 않는 경우를 치료한다.
- 枯白礬、海螵蛸 各一錢, 乾胭脂 五分, 麝香 一字.
- 고백반、해표초 각 1돈, 건연지 5푼, 사향 1자.
- 右細末, 以紙撚洗去膿汁, 仍以吹塗藥末, 綿<sup>2</sup>脂塞耳中. ○五倍子燒存性細末, 吹入耳中, 膿汁卽止. 枯<sup>3</sup>白礬末, 亦好.
- 이상을 잘게 가루 내고 종이를 꼬아 고름을 닦아준 후 약 가루를 귀에 붙여 넣고 건연지를 문힌 솜으로 귀를 막아준다. ○오배자를 약성이 남도록 태워 잘게 가루 내고 귀에 붙여 넣으면 고름이 금세 멎는다. 고백반 가루도 좋다.

### 一方 다른 처방

- 聾耳, 取香油, 入耳中, 日四五次, 聾耳濕軟, 以針刮出即開. ○種地蔥葉上開竅, 入生地龍一條, 經數日化爲水, 傾出, 入耳中如上法. ○薄荷、石菖蒲、蔥白等生者, 搗取汁, 入耳中, 治小兒膿耳痛, 及蟲蟻入耳刺痛.
- 정이(聾耳)에는 참기름을 하루 4-5번 귀에 넣어준다. 정이가 젖어 부드러워졌을 때 바늘로 긁어내면 금세 뚫린다. ○땅에 심겨 있는 파 앞의 끝을 자르고 살아있는 지렁이 1마리를 넣는다. 며칠 지나고 보면 물처럼 녹아있는데 이것을 따라내어 하루 4-5번 귀에 넣어준다. ○생박하와 생식창포와 생총백을 찢어 즙을 내고 귀에 넣는다. 아이가 귀에 고름이 나며 아파하는 경우와 벌레가 귀에 들어가 찌르듯이 아픈 경우를 치료한다.

韓掌令〔永徽〕, 晚得一子, 纔過一朔, 忽身熱多啼, 時時驚惕, 邀諸醫問之. 余曰, 嬰兒之病, 何能詳知, 不過胎熱而已, 但眉毛嘖蹙, 手近耳邊, 則跳身驚啼, 必是膿耳. 姑觀數日, 似當自潰, 不宜多服發散耗氣之劑, 以傷榮衛生發之氣. 主家不信, 一兩日內, 所服牛黃, 至三分餘, 又以乳道, 用敗毒散五六貼, 數日後, 果潰膿出, 諸症雖差, 然自是氣不實多病, 終未免夭札.

〔의안〕 장령(掌令) 한영휘(韓永徽)는 느지막이 자식을 하나 얻었는데 태어난 지 한 달도 못되어 갑자기 몸통이 뜨거워지고 계속 울며 자주 경기를 하여 여러 의원들을 모시고 병에 대해 물었다. 나는 "갓난아이의 병을 어떻게 자세히 알겠습니까마는 태열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다만 눈썹을 찡그리고, 손을 귓가에 가져가면 몸을 피하면서 놀라 우니 분명 농이(膿耳)입니다. 우선 며칠 두고 보면 아마 저절로 고름이 터질 것이니 발산하고 기운을 소모시키는 약을 많이 먹이지 않아야 합니다. 영기와 위기와 생기를 상하게 하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하였다. 집안사람들은 내 말을 믿지 않고 1-2일 사이에 먹인 우황이 3푼 정도나 되었으며 또한 젖으로 먹이는 방법으로 패독산을 5-6첩 썼다. 며칠 후에 과연 고름이 터져 나오면서 증상들은 차도가 있었다. 그러나 이때부터 기운이 약해지고 병치레가 잦더니 결국 요절을 면치 못하였다.



1. 樣 : 藥 ※규장각본 ↩

2. 臙 : 咽 ※규장각본 ↩

3. 白 : ※규장각본 ↩

## 痘科說 두과설

痘疹自中古以後, 始有之, 而自是, 作者繼起, 自成一家, 不可勝記, 然別無異同, 而皆<sup>1</sup>是青之藍紫之朱也. 李挺入門, 痘瘡以正傳爲要云, 而以余管見, 入門痘瘡方, 裒聚諸方, 論議精詳, 比諸正傳, 尤明且備, 學瘍醫者, 誠用力於此書, 則自可得其要領, 而余於此病, 既無真的經驗之功, 故獨闕而不著, 聊書此以識之.

두창은 중세 이후부터 있었고 이때부터 의서를 쓴 이들이 계속 생겨 스스로 일가를 이룬 이들을 다 적을 수 없을 정도이다. 그러나 특별한 차이점이 없었으니 모두 청색과 남색의 차이거나 자색과 주색의 차이 정도였다. 이천의 《의학입문》 두창(痘瘡) 부분은 《의학정전》으로 요체를 세웠다고 적었지만 나의 관건으로는 《의학입문》 두창 부분은 여러 의서를 모아 논의가 정밀하고 자세하니 《의학정전》과 비교해 보아도 더욱 분명하고 체계가 있다. 두창을 공부하는 자가 진지하게 《의학입문》에 힘을 쏟는다면 저절로 두창의 요령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두창에 대해 제대로 된 치료 경험이 없기 때문에 유독 두창만 빠진 채 책을 썼다. 겨우 이런 얘기를 써서 설명해놓는다.

<sup>1</sup>. 皆 : 自 ※규장각본 ↩

## 及幼方卷之四 금유방 권4

橫城 趙廷俊重卿 集

황성 조정준(趙廷俊, 字 重卿) 편저

## 諸驚 경풍

小兒元氣未充, 神魂未定, 或見生人異物, 或聞厲聲響器, 驚入心之胞絡<sup>1</sup>, 火炎<sup>2</sup>舍空而痰聚, 痰生熱, 熱生風, 心肝脾病也. 又有心內積熱而驚惕, 肝內生風而發搐, 痰涎壅盛, 風熱併作, 所以暴<sup>3</sup>緊急也. 蓋心主熱, 脾主痰, 肝主風, 相因而發, 謂之驚風痰熱可也, 謂之驚熱風痰, 亦可也. 大要, 驚熱者錢氏安神丸, 熱甚者涼驚丸, 虛者溫驚丸, 痰盛者辰砂化痰丸、抱龍丸, 痰熱者奪命散, 驚風痰熱全者, 天麻防風丸也.

아이는 원기가 아직 가득차지 않았고 정신과 혼도 안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간혹 낯선 사람이나 이상한 사물을 보거나 무서운 소리나 울리는 소리를 들으면 놀란 마음이 심포락으로 들어간다. 심화가 타올라 신(神)이 머물던 거처가 비게 되면 담이 모이게 되는데, 담은 열을 생기게 하고 열은 다시 풍을 생기게 하므로 심장과 간장과 비장에 병이 드는 것이다. 또한 심장에 열이 쌓여 경기를 하거나 간장에 풍이 생겨 축닉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담연이 응성한 상태에서 풍과 열까지 일어나 갑자기 심하게 당기는 것이다. 심장은 열을 주관하고 비장은 담을 주관하며 간장은 풍을 주관하는데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 발병한다. 그러므로 경풍(驚風)과 담열(痰熱)이라고 해도 괜찮고 경열(驚熱)과 풍담(風痰)이라고 해도 상관없다. 치료의 큰 방향은 경열(驚熱)에는 전씨안신환, 열이 심하면 양경환, 허하면 온경환, 담이 왕성하면 진사화담환이나 포룡환, 담열(痰熱)에는 탈명산, 경풍과 담열이 모두 있으면 천마방풍환을 쓰는 것이다.

驚積者, 受驚日久而積成之也, 其症, 額汗, 喘息煩渴, 寒熱往來, 肚熱, 睡中覺腹內有物跳動, 瀉下如白脂豆砂, 是也. 治法, 量與辰砂膏疏導, 甚者, 靈砂丸下, 後以茯神湯(方見下), 調理脾胃.

경적(驚積)은 놀란 마음이 오래도록 쌓여서 생긴 병이다. 증상으로는 이마에 땀이 나고 숨을 헐떡이며 목이 타고 한열왕래가 있으며 배가 뜨겁고 잘 때 배속에서 무언가 꿈틀대는 것이 느껴지고 하얀 기름같이 몽글몽글한 설사를 하게

된다. 치료법으로는 아이의 몸집을 가늠하여 진사고를 먹여서 대변으로 빼내고, 심한 경우에는 영사환으로 설사시킨 후 복신탕(처방은 아래에 나온다)으로 비위를 잘 조리시켜야 한다.

傷風挾驚者, 內有積熱, 外挾感風, 而發身熱頭痛, 口中氣麤而熱, 神<sup>4</sup>困昏憤, 先用惺惺散、參蘇飲、人蔘羌活散(三方見外感), 或大青膏, 取表解散.

상풍(傷風)에 경기까지 하는 것은 속에 쌓인 열이 있는 상태에서 풍사에 외감되었기 때문에 몸통에 열이 나며 머리가 아프고 입 속의 숨이 거칠고 뜨거우며 정신이 혼미하게 된다. 우선 성성산·삼소음·인삼강활산(3개 처방은 외감에 나온다)을 쓰거나 대청고를 써서 표부의 사기를 풀어주어야 한다.

傷食挾驚者, 內傷乳食壅熱, 或因食後遇驚, 而發身熱溫<sup>5</sup>, 或嘔吐不食, 大便酸臭, 先用人蔘羌活散, 加蘇葉、青皮, 取表消導, 次用瀉青丸, 加辰砂、蝎梢, 祛風鎮驚. 食癖挾驚發熱者, 寬熱飲(方見下), 痰積者, 白餅子(方見癖積)下. 驚食兩重, 四肢搐搦, 痰熱壅盛者, 先與靈砂丸通利, 次服啓脾散.(方見吐瀉)

상식(傷食)에 경기까지 하는 경우는 젖이나 음식에 손상되어 열이 뭉치거나 식후에 놀라게 되었기 때문에 몸통에 열이 나며 배가 따뜻해지고 간혹 구토하면서 먹지 못하고 대변에서 시큼한 냄새가 나게 된다. 먼저 인삼강활산에 소엽과 청피를 더하여 써서 표증을 대변으로 내보낸 후에 사청환에 진사와 갈초를 더하여 써서 풍사를 몰아내고 경기를 진정시켜야 한다. 식벽(食癖)에 경기까지 하며 열이 나는 경우에는 관열음(처방은 아래에 나온다)을 쓰고 담적(痰積)이 있으면 백병자(처방은 벽적에 나온다)로 설사시킨다. 경풍과 식상이 모두 심하여 사지가 오그라들며 담열이 웅성한 경우에는 먼저 영사환을 먹여 설사시키고 그 다음에 계비산(처방은 토사에 나온다)을 먹인다.

驚風搐搦者<sup>6</sup>, 有四證八候, 四證<sup>7</sup>, 驚風痰熱也, 四肢搐搦而已, 八候者, 牙關緊急, 搖頭竄視, 口張<sup>8</sup>出舌, 角弓反張, 身體掣顫, 手足搐搦, 四肢【足+拳】<sup>9</sup>攣, 十指開合. ○搐有真假, 假者, 搐搦反張斜視, 而牙關不緊, 是外感風寒, 內傷飲食, 挾驚而成也, 雖頻<sup>10</sup>不死, 眞搐者, 內生驚癇也, 八候俱全, 十無一生. ○搐有逆順, 男搐左視, 左眼

上竄, 女搐右視, 右眼下竄爲順, 反此逆. ○治搐之法, 有先後, 故治搐, 先於截風, 治風, 先於利驚, 治驚, 先於豁痰, 治痰, 先解其毒, 若四證俱有, 又當兼施并理, 一或有遺, 必生他症.

경풍으로 생긴 축닉(搐搦)에는 4증과 8후가 있다. 4증은 경기·풍증·담증·열증이니 사지에 경련이 생기는 정도이다. 8후는 ①턱이 굳어 입을 벌리지 못하는 것, ②머리를 흔들며 눈동자가 한곳으로 치우치는 것, ③입을 벌리고 혀를 내미는 것, ④각궁반장, ⑤몸이 당기며 떨리는 것, ⑥손발의 축닉, ⑦사지가 오그라드는 것, ⑧양손을 계속 오므렸다 피는 것이다. ○축닉에는 진축(眞搐)과 가축(假搐)이 있다. 가축(假搐)은 경련·각궁반장·사시 증상을 보이지만 턱은 굳지 않는데, 이는 풍한에 외감되거나 음식으로 내상을 입은 상태에서 무언가에 놀라 생기며, 증상이 자주 나타나더라도 죽지는 않는다. 진축(眞搐)은 몸속에서 경간(驚癇)이 생긴 것으로 8후가 모두 나타나며 열에 하나도 살지 못한다. ○축닉에는 역증과 순증이 있다. 남자는 왼쪽을 보게 했을 때 왼쪽 눈동자가 위로 치우치는 경우, 여자는 오른쪽을 보게 했을 때 오른쪽 눈동자가 아래로 치우치는 경우가 순증이다. 역증은 이와 반대인 경우이다. ○축닉을 치료하는 방법에는 선후가 있다. 축닉을 치료할 때에는 풍증을 없애는 것이 우선이며, 풍증을 치료할 때에는 경기를 다스리는 것이 우선이며, 경기를 치료할 때에는 담을 소통시키는 것이 우선이며, 담증을 치료할 때에는 열독을 풀어주는 것이 우선이다. 4증이 모두 있는 경우에도 당연히 이 방법을 함께 써가며 동시에 다스려야 하니 하나라도 빠뜨리면 반드시 다른 증상이 생기게 된다.

驚風搐搦, 有晨夕之分, 寅卯辰時搐者, 肝木旺也, 當以腎氣丸〔方見解顛〕補腎, 瀉青丸瀉肝, 巳午未時搐者, 心火旺也, 當以腎氣丸補肝, 導赤散瀉心, 申酉戌時搐者, 肺金旺也, 當以益黃散〔方見吐瀉〕補脾, 導赤散抑心, 瀉青丸抑肝, 亥子丑時搐者, 水土俱旺之時, 水虛不旺, 惟土旺也, 當以瀉黃散瀉脾, 導赤散、涼驚丸抑心. 要知五臟轉<sup>11</sup>變, 皆痰爲患, 蓋痰乃風苗, 火靜則伏於脾, 火動則壅於肺, 痰火交作則爲

急驚, 或成嗽痺<sup>12</sup>, 痰火結滯, 則爲癇釣, 或爲咳嗽, 痰火來去, 則爲瀉青, 皆由脾濕而來, 所以驚風忌純用風藥, 不問急慢, 當以養血藥爲使, 古方保元湯加白芍藥, 爲慢驚美劑也.

경풍으로 생긴 축낙(搐搦)은 시간의 구분이 있다. 인시·묘시·진시에 축낙이 생기는 경우는 간목이 왕성해지기 때문이므로 신기환(처방은 해로(解顱)에 나온다)으로 신기를 보하고 사청환으로 간기를 사해주어야 한다. 사시·오시·미시에 축낙이 생기는 경우는 심화가 왕성해지기 때문이므로 신기환으로 간기를 보하고 도적산으로 심기를 사해주어야 한다. 신시·유시·술시에 축낙이 생기는 경우는 폐금이 왕성해지기 때문이므로 익황산(처방은 토사(吐瀉)에 나온다)으로 비기를 보하고 도적산으로 심기를 눌러주어야 한다. 해시·자시·축시에 축낙이 생기는 경우는 신수와 비토가 함께 왕성해져야 하는 때에 신수가 허하고 비토만 왕성해지기 때문이므로 사황산으로 비기를 사해주고 도적산이나 양경환으로 심기를 눌러주어야 한다. 꼭 알아야 할 것은 오장의 전변은 모두 담이 원인이라는 것이다. 대체로 담은 풍증의 싹이니 화기가 고요하면 비장에 숨어 있다가 화기가 요동치면 폐장을 막게 된다. 담과 화기가 동시에 일어나면 급경풍이 되며 간혹 후비(喉痺)가 생기기도 한다. 담과 화기가 엉겨 막히게 되면 풍간(風癇)이나 내조(內釣)가 되며 간혹 기침을 하기도 한다. 담과 화기가 왔다가 가면 푸른 설사를 하는데, 이는 모두 비장이 습하여 생기는 것이다. 그러므로 경풍에 풍증을 치료하는 약만 써서는 안되고 급경풍과 만경풍을 불문하고 혈을 기르는 약으로 사약(使藥)을 삼아야 하니 옛 방서에서 보원탕에 백작약을 더한 처방을 만경풍의 특효약이라고 하였다.

古方云, 驚風, 用巴豆、輕粉、芒硝、腦、麝<sup>13</sup>之類, 往往變成他症, 其害尤速, 寧用羌活、細辛<sup>14</sup>、荊芥、青皮、乾薑之類, 以代腦、麝發散, 柴胡、山梔、獨活、枳殼、大黃之類, 以代巴、硝通利. 蓋瀉青丸, 治肝熱尋衣領<sup>15</sup>, 或搐或不搐, 諸藥不止等症. 如驚熱<sup>16</sup>出於心肺者, 宜桑白皮、葶藶、赤茯苓、車前子、山梔、甘草, 薑棗煎服, 從小便利之. 導赤散, 能瀉肝風降心火, 最利驚熱, 或加山梔、羌活、大黃. 又有驚虛<sup>17</sup>驚痢, 一切雜症者, 又當以意會之, 參用各門藥, 可也.

옛 방서에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경풍에 파두、경분、망초、용뇌、사향 같은 약을 쓰면 종종 다른 증상으로 변하여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차라리 강활、세신、형개、청피、건강 같은 약으로 용뇌나 사향의 발산시키는 약성을 대신하고, 시호、산치인、독활、지각、대황 같은 약으로 파두나 망초의 통리(通利)시키는 약성을 대신하는 편이 낫다.' 대체로 사청환은 간의 열독으로 옷깃을 매만지면서 축닉은 생기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며 여러 약을 써도 몇지 않는 증상을 치료한다. 만약 경열(驚熱)이 심장과 폐장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상백피、정력、적복령、차전자、산치인、감초에 생강과 대조를 넣고 달여 먹여, 열이 소변을 따라 나오게 해야 한다. 도적산은 간풍을 사하고 심화를 내려주어 경열을 가장 잘 빼주는데, 간혹 산치인、강활、대황을 더해 쓰기도 한다. 또한 경학(驚瘡)이나 경리(驚痢) 및 기타 증상에 대해서는 병증을 제대로 이해한 후에 해당 부분을 참고하여 쓰는 것이 옳다.

小兒驚風搐搦時，切勿把捉，風氣方盛，流入筋脈，半身不遂，使之任搐，風力<sup>18</sup>通行經絡，不致傷人。

아이가 경풍으로 축닉이 생겼을 때 절대 잡아서 진정시키지 말아야 하니 풍의 기운이 왕성해져 근맥까지 흘러들어가 반신불수가 되기 때문이다. 그냥 마음대로 오그라들도록 놔두면 풍의 기운이 경락까지만 돌아다녀 사람을 상하게 하지 않는다.

1. 絡：絡 ※규장각본 ←

2. 舍：舍 ※규장각본 ←

3. 烈：熱而 ※규장각본 ←

4. 神：身 ※규장각본 ←

5. 壯：\*肚 ※《의학입문》←



6. 者 : ※규장각본 ↩

7. 글자없음 : 者 ※규장각본 ↩

8. 口張 : 張口 ※규장각본 ↩

9. 【足+拳】 : \*拳 ※문맥상 ↩

10. 글자없음 : 發 ※규장각본 ↩

11. 轉 : 傳 ※규장각본 ↩

12. 嗽痺 : \*喉痺 ※《의학입문》 ↩

13. 腦、麝 : 麝香 ※규장각본 ↩

14. 羌活、細辛 : 細辛、羌活 ※규장각본 ↩

15. 領 : 直視 ※규장각본 ↩

16. 熱 : 血 ※규장각본 ↩

17. 虛 : \*瘡 ※규장각본 ↩

18. 力 : 氣 ※규장각본 ↩

## 急驚 급경풍

急驚者, 八候俱全, 加以面赤唇紅, 渾身壯熱, 口中氣亦熱, 作渴引飲, 大便秘小便赤, 脈浮數洪緊. 原因, 內有實熱, 外挾風邪, 風熱并作, 氣亂痰壅, 所以百脈凝滯, 關竅不通, 發時暴熱, 發過如故, 百日內見此症, 二三發不止者, 亦死. ○搐搦反張斜視, 而牙關不緊, 口無痰涎而氣熱者, 未可直以驚風治之, 恐是傷風傷寒, 挾食挾驚痘疹等症, 假搐者也, 先宜蘇合香元, 以薄荷煎湯, 入薑汁化服, 順氣下痰, 嚏驚散吹鼻, 經脈流通.

급경풍은 축낙의 8후가 모두 있고 거기에 더하여 얼굴과 입술이 붉고 온몸이 매우 뜨거우면서 입김도 뜨겁고 갈증을 느끼며 마실 것을 찾고 똥을 누지 못하며 오줌이 붉고 맥은 부·삭·홍·긴하다. 원인은 속에 실열이 있는 상태에서 걸으로 풍사에 감촉되어 풍과 열이 함께 일어나면서 기운이 흐트러지고 담이 막혔기 때문이다. 모든 맥이 막혀 관규(關竅)가 소통되지 못하기 때문에 발작할 때는 갑자기 열이 났다가 발작을 그치면 예전과 같이 멀쩡하다. 생후 백일 안에 이 증상이 나타나고, 2-3번 발작하여 그치지 않는 경우는 죽게 된다. ○축낙·각궁반장·사시가 있지만 입을 악다물지 않고 입에 끈적이는 침은 없으나 입김이 뜨거운 경우에는 무조건 경풍으로 여겨 치료해서는 안된다. 아마도 이는 상풍이나 상한이 있는 상태에서 상식이나 경풍이나 두창 등의 증상을 동반한 가축(假搐)일 것이다. 우선 박하 달인 물에 생강즙을 넣고 소합향원을 녹여 먹여 기운을 편안하게 하고 담을 내린 후 체경산을 코에 붙여 넣어 경맥을 통하게 해야 한다.

### ○開關散 ○개관산

- 治驚風, 口噤不開.
- 경풍으로 입을 악다물고 벌리지 못하는 것을 치료한다.

- 蜈蚣 一條(炙), 白殭蠶(炒) · 南星(炮) 各一錢, 麝香 一字, 猪牙皂角 三錠(略燒存性).
- 오공(살짝 볶는다) 1마리, 백강잠(볶는다) · 남성(습지에 싸서 굽는다) 각 1돈, 사향 1자, 저아조각(약성이 남도록 약간 태운다) 3개.
- 右末, 以手點薑汁, 蘸藥少許, 擦牙, 或溫水化, 開<sup>1</sup>滴入藥三兩, 點於口中, 涎出自開.
- 이상을 가루 낸 후 손가락으로 생강즙을 찍어 가루를 조금 묻히고 어금니를 문지른다. 혹은 따뜻한 물에 타고 입을 열어 약물을 2-3번 떨어뜨린 후 입 속에 가루를 뿌리면 끈적한 침을 흘리며 입이 저절로 열린다.

○嚏驚散 ○채경산

- 治急慢驚, 及諸病昏迷不醒.
- 급경풍 · 만경풍 및 온갖 병으로 정신이 혼미하여 깨지 못하는 것을 치료한다.
- 半夏(生) 一錢, 皂角 五分.
- 반하(생것) 1돈, 조각 5푼.
- 右末, 取豆許, 吹入鼻中, 卽醒.
- 이상을 가루 내고 콩알만큼을 콧속에 넣어 넣으면 즉시 깨어난다.

○敗毒散 ○패독산

- 治急驚風初起, 搐搦上竄, 角弓反張, 一切感風, 傷寒頭疼, 發熱咳嗽, 鼻塞聲重, 及痘瘡初發驚搐.
- 급경풍 초기에 축닉이 생기고 눈을 위로 치켜뜨며 각궁반장이 된 경우, 여러 가지 감풍과 상한으로 머리가 아프고 열이 나며 기침하고 코가 막히며 목소리가 가라앉는 경우, 두창 초기의 경축(驚搐)을 치료한다.

- 人蔘、羌活、獨活、柴胡、前胡、地骨皮、川芎、桔梗、枳殼、天麻、全蝎(去毒)、白附子(煨)、殭蠶(炒)、赤茯苓 各等分, 甘草 半減.
- 인삼、강활、독활、시호、전호、지골피、천궁、길경、지각、천마、전갈(독을 뺀다)、백부자(젓불에 묻어 굽는다)、백강잠(볶는다)、적복령 각각 같은 양, 감초 절반.
- 右剉, 入薑三, 水煎服. ◦痘疹, 去蔘、苓, 反助熱.
- 이상을 썬 후 생강 3조각을 넣고 물에 달여 먹인다. ◦두창에는 인삼과 적복령을 빼야하니 도리어 열을 돕기 때문이다.

#### ◦大青膏 ◦대청고

- 治急驚風, 宜用此發散.
- 급경풍을 치료하려면 이 약으로 발산시켜야 한다.
- 白附子(炮) 一錢半, 天麻、青戴 各一錢, 烏蛇肉、蝎梢 各五分, 辰砂、天竺黃、麝香 各一字.
- 백부자(습지에 싸서 굽는다) 1.5돈, 천마、청대 각 1돈, 오사육、갈초 각 5푼, 진사、천축황、사향 각 1자.
- 右末, 薑汁成膏, 月內兒粳米大, 半歲兒半梔子大, 一歲兒一梔子大, 以薄荷竹葉湯化下.
- 이상을 가루 내고 생강즙에 개어 고약처럼 만든다. 생후 1달 이내의 아이는 멍쌀 크기, 6달 정도의 아이는 조자(梔子) 절반 크기, 돌 정도 된 아이는 조자 크기 만큼을 박하와 죽엽을 달인 물에 녹여 먹인다.

#### ◦驅風膏 ◦구풍고

- 治肝風發驚搐, 及胎風.
- 간풍으로 경축(驚搐)이 발작한 것과 태풍(胎風)을 치료한다.

- 羌活、防風、當歸、草龍膽(酒洗, 炒)、川芎、山梔、大黃(煨)、蝎梢、朱砂、甘草 各等分, 麝香 少許.
- 강활、방풍、당귀、초롱담(술로 씻은 후 볶는다)、천궁、산치인、대황(젓불에 묻어 굽는다)、갈초、주사、감초 각각 같은 양, 사향 조금.
- 右末, 沙糖<sup>2</sup>和丸芡實大, 每一丸, 薄荷竹葉蜜湯<sup>3</sup>化下.
- 이상을 가루 내고 설탕을 섞어 검실대로 환을 빚는다. 1환씩 박하、죽엽、꿀을 달인 물에 녹여 먹인다.

#### ○涼驚丸 ○양경환

- 治急驚風裡有積熱.
- 급경풍으로 속에 적열이 생긴 경우를 치료한다.
- 黃連 一兩, 草龍膽(酒洗)、防風、青黛 各三錢, 龍腦 五分, 牛黃、麝香 各一字.
- 황련 1냥, 초롱담(술로 씻는다)、방풍、청대 각 3돈, 용뇌 5푼, 우황、사향 각 1자.
- 右末, 麪糊和丸粟米大, 每取一二十丸, 金銀泡湯下.
- 이상을 가루 내고 밀가루풀과 섞어 속미대로 환을 빚는다. 10-20환씩 금은화 달인 물로 먹인다.

#### ○瀉青丸 ○사청환

- 治肝經風熱, 急驚搐搦, 及凡肝實症, 并皆用之.〔一名涼肝丸〕
- 간경(肝經)의 풍열로 생긴 급경풍과 축닉을 치료한다. 모든 간실증(肝實症)에 쓴다.〔양간환이라고도 한다〕
- 羌活、當歸、川芎(去油)、山梔(炒)、大黃(煨)、防風、草龍膽 各等分.
- 강활、당귀、천궁(유지 부분을 제거한다)、산치인(볶는다)、대황(젓불에 묻

어 굽는다)·방풍·초롱담 각각 같은 양.

- 右末, 蜜丸芡實大, 每一丸, 竹葉湯同砂糖, 或溫水化下.
- 이상을 가루 내고 꿀과 섞어 검실대로 환을 빚는다. 1환씩 죽엽 달인 물에 설탕을 타서 먹이거나 온수에 녹여서 먹인다.

#### ○利驚丸 ○이경환

- 治急驚, 身熱面赤, 口中氣熱, 大小便黃赤, 宜下, 裡熱實者, 用此<sup>4</sup>.
- 급경풍으로 몸통이 뜨겁고 얼굴이 붉으며 입김이 뜨겁고 대소변이 노랗거나 붉은 경우를 치료한다. 속에 실열이 있으면 이 약으로 하법을 써야 한다.
- 黑丑(頭末) 五錢, 天竺黃、青黛、輕粉 各一錢.
- 흑축(말물가루) 5돈, 천축황·청대·경분 각 1돈.
- 右末, 蜜丸豌豆大, 一歲兒用一丸, 薄荷湯化下.
- 이상을 가루 내고 꿀과 섞어 완두대로 환을 빚는다. 돌 된 아이 기준으로 1환씩 박하탕에 녹여 먹인다.

#### ○防風湯 ○방풍탕

- 治急驚後, 餘熱未退, 時復手足搐掣, 心悸不寧.
- 급경풍을 앓은 후에 열이 가시지 않고 가끔씩 다시 손발이 오그라들면서 힘줄이 당기고 가슴이 뛰면서 마음이 편하지 않은 경우를 치료한다.
- 防風、川芎、大黃(煨)、白芷、黃芩、甘草 各半兩, 細辛 二錢, 薄荷 二錢半.
- 방풍·천궁·대황(젓불에 묻어 굽는다)·백지·황금·감초 각 0.5냥, 세신 2돈, 박하 2.5돈.
- 右剉焙爲末, 每服一錢, 用溫湯調服.
- 이상을 썰고 불에 말려 가루 낸 후 1돈씩 따뜻한 물에 타서 먹인다.

○宣風散 ○선풍산

- 疎導風熱, 驚風痰熱, 四症俱備者, 極效.
- 풍열을 흩어준다. 경기·풍증·담증·열증의 4증이 모두 있는 경우에 효과가 아주 좋다.
- 鷄心檳榔 二箇, 甘草·橘紅 各半兩, 黑牽牛(半生半炒, 頭末) 二兩.
- 계심빈랑 2개, 감초·귤홍 각 0.5냥, 흑견우(두말, 반은 생것으로 반은 볶는다) 2냥.
- 右末, 每服半錢, 蜜湯調下.
- 이상을 가루 내고 0.5돈씩 꿀 달인 물에 타서 먹인다.

○疎風散 ○소풍산

- 治驚風痰熱, 四症俱盛.
- 경기·풍증·담증·열증의 4증이 모두 심한 경우를 치료한다.
- 黑丑(頭末)·大黃(略煨) 各三錢, 檳榔·陳皮(去白) 各二錢, 加芒硝 一錢.
- 흑축(말물가루)·대황(살짝 잿불에 묻어 굽는다) 각 3돈, 빈랑·진피(흰 부분을 제거한다) 각 2돈. 망초 1돈을 더한다.
- 右細末, 每半錢, 蜜水調下.
- 이상을 잘게 가루 내고 0.5돈씩 꿀물에 타서 먹인다.

○犀角湯 ○서각탕

- 治心驚熱盛.
- 깜짝 놀라 열이 심하게 나는 경우를 치료한다.
- 犀角(水磨取汁)·防風·木通·赤茯苓·桑白皮(炒)·甘草(炙) 各等分.

- 서각(물에 갈아 즙을 낸다)·방풍·목통·적복령·상백피(볶는다)·감초(살짝 볶는다) 각각 같은 양.
- 右爲末, 每三字, 水煎, 調犀角汁服.
- 이상을 가루 낸다. 3자씩 물에 달이고 서각 간 물을 타서 먹인다.

#### ○導赤散 ○도적산

- 治心小腸熱, 小便不利.
- 심장과 소장의 열로 오줌이 잘 나오지 않는 경우를 치료한다.
- 生芡(酒洗)·木通·甘草 各一錢, 竹葉 七片.
- 생지황(술로 씻는다)·목통·감초 각 1돈, 죽엽 7조각.
- 右剉, 水煎服.
- 이상을 썰고 물에 달여 먹인다.

#### ○加味導赤散 ○가미도적산

- 本方, 加防風、山梔仁(炒)、麥門冬各一錢, 薄荷三分.
- 도적산에 방풍·산치인(볶는다)·맥문동 각 1돈과 박하 3푼을 더한 것이다.
- 右剉, 入燈心、竹葉煎服. 治心熱尤速.
- 이상을 썰고 등심과 죽엽과 함께 달여 먹인다. 심열을 치료하는 효과가 빠르다.

#### ○靈神膏 ○영신고

- 治心經邪熱, 驚悸不寧.
- 심경(心經)의 열사(熱邪)로 경계(驚悸)가 생겨 불안해하는 경우를 치료한다.
- 辰砂·赤茯苓 各一兩, 麥門冬 五錢, 麝香 一錢半.



- 진사·적복령 각 1냥, 맥문동 5돈, 사향 1.5돈.
- 右細末, 煉蜜作小餅子, 每一餅, 臨睡以薄荷湯化下.
- 이상을 잘게 가루 내고 연밀과 섞어 작은 떡처럼 만든다. 1개씩 자기 전에 박하탕에 녹여 먹인다.
- 一老醫常言, 小兒驚搐, 多是熱症, 不宜使用驚風藥, 只以導赤散, 加防風、竹葉, 用二三貼, 導去心經邪熱, 其搐立止, 次服靈神膏. ○驚搐, 多由於肝風得心熱而發也, 風者耗液, 熱者燥血, 加以風藥治之, 則風能勝濕, 有重竭之患, 故養血清心, 治驚之正法也.
- 어떤 나이 많은 의원이 늘 말하였다. "아이의 경축(驚搐)은 대부분 열 때문에 생기는 증상이므로 경풍(驚風)에 쓰는 약을 그냥 쓰면 안되고 도적산에 방풍과 죽엽을 더하여 2-3첩 써서 심경(心經)의 열사(熱邪)를 빼주면 경축이 곧 그친다. 그 다음에 영신고를 먹여야 한다." ○경축은 대부분 간풍(肝風)이 심열(心熱)과 만나서 생긴다. 풍은 진액을 소모시키고 열은 혈을 말리기 때문에 풍약을 더하여 치료하면 풍이 습을 이기게 되므로 습을 거둬 소진시키는 부작용이 있다. 그러므로 혈을 길러주고 심열을 없애는 것이 경축의 올바른 치료법이다.

#### ○半夏丸 ○반하환

- 治驚搐後, 風痰潮上, 服之神效.
- 경축 후에 풍담이 규칙적으로 올라오는 것을 치료한다. 이 약을 먹이면 귀신같은 효과가 있다.
- 半夏(生) 二兩, 赤茯苓、枳殼 各一兩, 朴硝 二錢半.
- 반하(생것) 2냥, 적복령·지각 각 1냥, 박초 2.5돈.
- 右細末, 生薑自然汁煮糯米粉, 丸菉豆大, 每三十丸, 食後淡薑湯下.
- 이상을 잘게 가루 내고 생강즙을 넣어 쏘 찹쌀 풀과 섞어 녹두대로 환을 빚는다. 30환씩 식후에 생강을 연하게 달인 물로 먹인다.

○載風丸 ○절풍환

- 治急驚痰搐.
- 급경풍으로 담증과 축낙이 있는 경우를 치료한다.
- 天麻、白薑蠶(炒)、南星(炮) 各二錢, 蜈蚣 一條(炙), 白附子(炮)、防風、朱砂、全蝎(去毒) 各一錢, 麝香 一字.
- 천마、백강잠(볶는다)、남성(습지에 싸서 굽는다) 각 2돈, 오공(살짝 볶는다) 1마리, 백부자(습지에 싸서 굽는다)、방풍、주사、전갈(독을 제거한다) 각 1돈, 사향 1자.
- 右細末, 蜜丸梧子大, 每一丸, 薄荷湯化下.
- 이상을 잘게 가루 내고 꿀과 함께 오자대로 환을 빚는다. 1환씩 박하탕에 녹여 먹인다.

○保幼化風丹 ○보유화풍단

- 治驚風四證八候, 去風痰, 驚熱自止.
- 경풍의 4증과 8후가 나타난 경우를 치료한다. 풍증과 담증을 없애주면 경기와 열증은 자연히 멎는다.
- 南星(炮)、半夏、川烏(炮)、白附子(炮) 各一兩, 鬱金 五錢.
- 남성(습지에 싸서 굽는다)、반하、천오(습지에 싸서 굽는다)、백부자(습지에 싸서 굽는다) 각 1냥, 울금 5돈.
- 右末, 裝入<sup>5</sup>月黃牛膽內, 陰乾百日, 取出研末, 每一兩, 入雄黃、朱砂、鵬砂、焰硝各一錢, 片腦、麝香各少許, 共爲末, 蜜丸豌豆大, 燈心薄荷湯化下一二丸.
- 이상을 가루 내어 선달에 잡은 황소의 쓸개 안에 넣고 그늘에서 100일간 말린 후에 약재를 꺼내고 갈아서 가루로 만든다. 가루 1냥에 옹황、주사、봉사、염

초 각 1돈과 편뇌·사향을 약간 넣고 한꺼번에 다시 가루로 만든다. 꿀에 개어 완두대로 환을 빚고 등심과 박하 달인 물에 1-2환씩 녹여 먹인다.

#### ○抱龍丸 ○포룡환

- 治驚風潮搐, 身熱昏睡, 能下痰熱, 乃心肺肝藥也.
- 경풍으로 규칙적으로 오그라들고 몸통이 뜨거워지며 의식이 없는 경우를 치료한다. 이 약은 담과 열을 빼주니 심장과 폐장과 간장을 모두 치료하는 약이다.
- 牛膽南星 一兩(無膽星, 生者, 剉炒熟用), 天竺黃 五錢, 雄黃·朱砂 各二錢半, 麝香 一字.
- 우담남성 1냥(없으면 생남성을 썰고 볶아서 익혀 쓴다), 천축황 5돈, 옹황·주사 각 2.5돈, 사향 1자.
- 右末, 甘草膏和丸芡實大, 溫水或薄荷湯化服一二丸, 百日內, 分三服. ○痰壅嗽<sup>6</sup>甚, 薑湯下, 心虛驚惕, 人蔘琥珀煎湯下.
- 이상을 가루 낸 후 감초고와 섞어 검실대로 환을 빚는다. 따뜻한 물이나 박하탕에 1-2환을 녹여 먹인다. 100일이 지나지 않은 아이는 3번에 나누어 먹인다. ○가래가 차서 기침이 심한 경우에는 생강탕으로 먹인다. 심기가 허하여 잘 놀라는 경우에는 인삼과 호박(琥珀) 달인 물로 먹인다.

#### ○牛黃抱龍丸 ○우황포룡환

- 治急慢驚風, 痰咳潮搐, 能鎮驚安神, 及風熱風癰等症.
- 급경풍·만경풍으로 가래 기침을 하며 규칙적으로 오그라드는 것을 치료한다. 이 약은 경기를 진정시키고 정신을 편안하게 하며 풍열(風熱)과 풍치(風癰) 같은 증상도 치료한다.
- 膽星 一兩, 天竺黃 五錢, 雄黃·辰砂 各二錢半, 麝香·眞珠·琥珀 各一錢, 牛黃 五分.

- 우담남성 1냥, 천축황 5돈, 옹황·진사 각 2.5돈, 사향·진주·호박(琥珀) 각 1돈, 우황 5푼.
- 右末, 甘草膏和丸芡實大, 金箔爲衣, 服法上同. ○一方, 膽星八錢, 雄黃·人蔘·茯苓各一錢半, 辰砂一錢二分, 白僵蠶三分, 釣藤一兩半, 天竺黃二錢半, 牛黃二分, 麝香五分製, 服法上同. ○臘雪水煮甘草爲膏和丸, 尤好.
- 이상을 가루 내고 감초고와 섞어 검실대로 환을 빻은 후 금박을 입힌다. 복용법은 위와 같다. ○다른 처방. 우담남성 8돈, 옹황·인삼·복령 각 1.5돈, 진사 1.2돈, 백강잠 3푼, 조구등 1.5냥, 천축황 2.5돈, 우황 2푼, 사향(법제한다) 5푼. 복용법은 위와 같다. ○납설수에 감초를 고아 고약처럼 만든 것으로 환을 빻으면 효과가 더욱 좋다.

#### ○辰砂和痰丸 ○진사화담환

- 治風化<sup>7</sup>痰, 安神定魄, 和咽膈清頭目, 止咳嗽除風熱.
- 풍증을 치료하고 담을 녹이며 정신과 혼을 안정시키고 목구멍과 흉격을 편하게 하며 머리와 눈을 맑게 하고 기침을 멎게 하며 풍열을 없애준다.
- 半夏<sup>8</sup> 三兩, 南星(炮) 一兩, 辰砂·枯礬 各五錢.
- 반하국 3냥, 남성(습지에 써서 굽는다) 1냥, 진사·고백반 각 5돈.
- 右末, 薑汁煮糊丸梧子大, 朱砂爲衣, 生薑薄荷湯, 量兒下之.
- 이상을 가루 내고 생강즙을 넣어 쉰 풀에 개어 오자대로 환을 빻은 후 주사를 곁에 입힌다. 아이의 몸집을 가늠하여 생강과 박하 달인 물로 먹인다.

#### ○南極壽星湯 ○남극수성탕

- 治急驚搐搦, 眼翻口噤, 搖頭天吊, 痰嗽喘熱.
- 급경풍으로 축닉이 생기며 눈이 떨리고 입을 악다물며 머리를 떨고 천조풍의 증상이 있으며 가래 기침을 하고 숨이 가빠하며 열이 나는 경우를 치료한다.

- 南星(炮) 一錢, 防風 五分, 白附子(炮)、蟬退(去頭足翅)、薄荷、甘草 各三分.
- 남성(습지에 싸서 굽는다) 1돈, 방풍 5푼, 백부자(습지에 싸서 굽는다)、선향(머리、발、날개는 버린다)、박하、감초 각 3푼.
- 右剉, 水一盞煎至半服.
- 이상을 썰고 물 1잔에 넣어 절반이 되도록 달인 후 먹인다.

○防風溫膽<sup>9</sup>湯 ○방풍온담탕

- 治驚風, 消痰疏風順氣.
- 경풍을 치료한다. 가래를 삭이고 풍사를 소통시키며 기운을 조화롭게 한다.
- 半夏、枳殼、赤茯苓 各五分, 陳皮、防風 各二分半, 人蔘 二分, 甘草 一分半.
- 반하、지각、적복령 각 5푼, 진피、방풍 각 2.5푼, 인삼 2푼, 감초 1.5푼.
- 右剉, 入薑一片, 紫蘇二葉, 水煎, 調大驚元、小驚元服.
- 이상을 썰고 생강 1조각과 자소엽 2개를 넣어 물에 달인다. 대경원이나 소경원과 함께 먹인다.

○溫膽湯 ○온담탕

- 治心膽虛忪, 觸事易驚, 夢寐不祥, 虛煩不得眠.
- 심장과 담이 허약하여 어떤 일에도 쉽게 놀라고 악몽을 꾸거나 허번(虛煩)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를 치료한다.
- 半夏(製)、枳實(炒)、白茯苓、陳皮 各二錢, 青竹茹 一錢, 甘草 五分.
- 반하(법제한다)、지실(볶는다)、백복령、진피 각 3돈, 청죽여 1돈, 감초 5푼.
- 右麤末, 每服一錢, 入竹茹小許, 薑一棗一, 水一盞半煎至一盞服. ○驚悸怔忡, 失志不寐, 皆是痰涎沃心, 宜用此理痰.
- 이상을 거칠게 가루 낸다. 가루 1돈에 죽여 약간과 생강 1조각과 대조 1개를 넣

고 물 1.5잔이 1잔이 되도록 달여 먹인다. ○경계(驚悸)·정충(怔忡)이나 의욕을 잃고 잠들지 못하는 증상은 모두 담연(痰涎)이 심장으로 흘러든 것이니 이 약으로 담을 다스려야 한다.

#### ○不驚丹 ○불경단

- 治因驚氣<sup>10</sup>而吐逆<sup>11</sup>作搐, 痰涎壅塞, 手足掣縮, 目睛斜視, 常服, 疏風順氣, 自不作驚, 和脾胃進飲食.
- 경기로 구토하고 축낙이 생기며 담연이 막히고 손발이 당기며 눈이 사시가 된 경우를 치료한다. 늘 먹이면 풍사를 소통시키고 기운을 조화롭게 하며 이후로 경기를 하지 않게 되고 비위의 기운을 조화롭게 하여 음식을 잘 먹게 된다.
- 枳殼(去心, 夫炒微黃) 一兩, 淡豆豉(焙乾)·南星·茯神 各半兩, 蝎梢 五十尾 (去尖毒), 淨蕪荑 二錢半(先入乳鉢內, 極細研爛).
- 지각(심을 뺀 후 밀기울과 함께 노르스름하게 볶는다) 1냥, 담두시(겉불에 말린다)·남성·복신 각 0.5냥, 갈초 50개(뽕족한 부분의 독을 제거한다), 깨끗이 씻은 무이(먼저 약사발에 넣고 아주 잘게 빨아둔다) 2.5돈.
- 右除蕪荑餘五味, 焙爲末, 再同蕪荑, 乳鉢內杵勻, 醋煮糯米粉糊丸, 周歲內嬰孩粟米大, 每服三十丸, 至五十丸, 乳汁下, 三歲以上者麻仁大, 每服五十丸及六十丸, 溫米清湯<sup>12</sup>下, 候一時得吃乳食.
- 이상에서 무이를 제외한 5가지 약재를 불에 말려 가루 낸 후 무이와 함께 다시 약사발에 넣어 골고루 뺑고 식초를 넣어 쏜 풀과 섞는다. 돌 전의 아이 기준으로 속미대로 환을 빻어 30-50환씩 젓과 함께 먹인다. 3살부터는 마자대로 환을 빻은 후 50-60환씩 따뜻한 송농으로 먹이고 1시진(2시간) 정도 기다렸다가 젓이나 음식을 먹인다.

#### ○錢氏安神丸 ○전씨안신환

- 治急驚風, 及心熱驚啼.
- 급경풍 및 심열로 놀라며 우는 것을 치료한다.
- 麥門冬(去心)、馬牙硝、白茯苓、山藥、寒水石、甘草 各五錢, 朱砂 三錢, 龍腦 二字.
- 맥문동(심을 뺀다)、마아초、백복령、산약、한수석、감초 각 5돈, 주사 3돈, 용뇌 2자.
- 右爲末, 蜜和兩作三十丸, 每服一丸, 砂糖水下.
- 이상을 가루 내고 꿀과 섞어 1냥을 30환이 되도록 만든다. 1환씩 설탕물에 먹인다.

○龍腦安神丸 ○용뇌안신환

- 治大人小兒驚風癇疾, 骨蒸身熱, 傷寒發熱, 解心熱變蒸發熱, 無時驚啼.
- 성인이나 아이의 경풍과 간질이나 골증열 및 상한발열을 치료한다. 심열(心熱)이나 변증열을 풀어주며 아무 때나 놀라면서 우는 것을 치료한다.
- 白茯苓、人蔘、地骨皮、麥門冬、朱砂、桑白皮、犀角、甘草 各二錢, 牛黃五分, 龍腦、麝香 各三分, 馬牙硝 二分.
- 백복령、인삼、지골피、맥문동、주사、상백피、서각、감초 각 2돈, 우황 5푼, 용뇌、사향 각 3푼, 마아초 2푼.
- 右末, 蜜丸兩作三十丸, 金箔爲衣, 每一丸, 冬月溫水, 夏月井水化, 量兒服.〔正傳用茯神〕
- 이상을 가루 내고 꿀에 개어 1냥으로 30환을 만든 후 금박을 입힌다. 1환씩 겨울에는 따뜻한 물에 여름에는 우물물에 녹여서 먹이되, 아이의 몸집을 가늠하여 먹인다.〔《의학정전》에는 복신을 썼다〕

○金箔鎮心丸 ○금박진심환

- 治驚風, 鎮心安神.
- 경풍을 치료한다. 마음을 진정시키고 정신을 편안하게 한다.
- 全蝎 七箇(以薄荷葉包裹, 慢火炙乾)、天麻、防風、羌活、牛黃、赤茯苓、犀角、朱砂、麝香、甘草 各一錢.
- 전갈 7개(박하잎에 싸서 약한 불에 구워 말린다)、천마、방풍、강활、우황、적복령、서각、주사、사향、감초 각 1돈.
- 右末, 蜜丸梔子大, 金箔爲衣, 每一二丸, 薄荷湯化下.
- 이상을 가루 내고 꿀에 개어 조자 크기로 환을 빚은 후 금박을 입힌다. 1-2환씩 박하탕에 녹여 먹인다.

○寧心膏 ○영심고

- 治小兒<sup>13</sup>惺惚不寧, 恐懼多哭, 睡中驚魘.
- 아이가 정신이 혼미하고 불안해하며 무서워하면서 계속 울고 자다가 가위눌리는 경우를 치료한다.
- 朱砂 二錢, 人蔘、白朮、白茯苓、白茯神、山藥、羌活、甘草 各一錢, 龍腦、麝香 各一字.
- 주사 2돈, 인삼、백출、백복령、백복신、산약、강활、감초 각 1돈, 용뇌、사향 각 1자.
- 右末, 蜜丸芡實大, 每一丸, 薄荷湯化下.
- 이상을 가루 내고 꿀에 개어 검실 크기만하게 환을 빚는다. 1환씩 박하탕에 녹여 먹인다.

○茯神湯 ○복신탕

- 治心氣不足, 虛而驚悸, 日常煩哭, 及生下羸瘦多驚.



- 심기(心氣)가 부족하거나 허약하여 놀라고 두근거리거나 늘 미칠 듯이 울거나 태어나서부터 바짝 마르고 자주 놀라는 것을 치료한다.
- 白茯神、人蔘、當歸 各半兩, 甘草(炙) 二錢.
- 백복신、인삼、당귀 각 0.5냥, 감초(살짝 볶는다) 2돈.
- 右剉, 每服二錢, 水一盞煎七分. ○有微熱煩燥, 入麥門冬、地骨皮.
- 이상을 썰고 2돈씩 물 1잔이 7할이 되도록 달여 먹인다. ○미열과 번조가 있으면 맥문동과 지골피를 더하여 쓴다.

#### ○大驚元 ○대경원

- 治驚風, 安神定驚<sup>14</sup>, 又治心熱夜啼.
- 경풍을 치료한다. 정신을 편안하게 하며 놀람을 진정시킨다. 또한 심열(心熱)로 밤에 우는 것을 치료한다.
- 酸棗仁(去皮, 蚌粉炒)、甘草(炙) 各五錢, 人蔘、赤茯苓、白朮、朱砂、麥門冬、木香、代赭石(醋煮) 各二錢半, 白殭蠶(炒)、桔梗(尾) 各一錢二分半, 全蝎 三箇(去毒), 金銀箔 各三片.
- 산조인(껍질을 제거하고 조개 가루와 함께 볶는다)、감초(굽는다) 각 5돈, 인삼、적복령、백출、주사、맥문동、목향、대자석(식초에 달인다) 각 2.5돈, 백강잠(볶는다)、길경(잔뿌리) 각 1.25돈, 전갈 3개(독을 제거한다), 금박、은박 각 3조각.
- 右末, 蜜丸梧子大, 金銀箔爲衣, 薄荷湯化下一二丸.
- 이상을 가루 내고 꿀에 개어 오자대로 환을 빚은 후 금박과 은박을 입힌다. 박하탕에 1-2환을 녹여 먹인다.

#### ○小驚元 ○소경원

- 治驚風, 肝心經熱.
- 경풍으로 간경(肝經)이나 심경(心經)에 열이 있는 경우를 치료한다.
- 鬱金(皂角<sup>15</sup>浸煮)、黃連、馬牙硝、木香、藿香、草龍膽 各二錢半, 全蝎 三箇(去毒).
- 울금(조각물에 담가서 끓인다)、황련、마아초、목향、곽향、초롱담 각 2.5돈, 전갈(독을 제거한다) 3마리.
- 右末, 糲<sup>16</sup>糊丸梧子大, 朱砂爲衣, 金箔裹之, 每二三丸, 薄荷煎湯化下.
- 이상을 가루 내고 밀가루풀과 섞어 오자대로 환을 빚은 후 주사를 곁에 입히고 금박으로 싼다. 2-3환씩 박하 달인 물에 녹여 먹인다.

#### ○靈砂丸 ○영사환

- 治小兒風痰, 及驚積腹內跳動, 至危篤者, 如神.
- 아이의 풍담(風痰) 및 경적(驚積)이 뱃속에서 꿈틀거리는 경우를 치료한다. 매우 위독한 경우에 귀신처럼 잘 듣는다.
- 南星(炮)、半夏(製)、巴豆(去殼, 酒煮乾三次) 各二錢半, 朱砂(半衣半入)、全蝎(去毒) 各一錢半, 白殭蠶(炒) 三分半, 輕粉 少許.
- 남성(습지에 써서 굽는다)、반하(법제한다)、파두(껍질을 까서 술에 끓였다 말리기를 세 번한다) 각 2.5돈, 주사(반은 곁에 입히고, 반은 약재로 넣는다)、전갈(독을 제거한다) 각 1.5돈, 백강잠(볶는다) 3.5푼, 경분 약간.
- 右末, <sup>17</sup>和丸黍米大, 每二三丸, 驚風, 金銀花湯下, 其餘, 薑湯下. ○一方, 巴豆, 勿煮爲霜用.
- 이상을 가루 내고 서미대로 환을 빚는다. 2-3환씩 먹이는데, 경풍에는 금은화 달인 물로 먹이고 나머지는 생강 달인 물로 먹인다. ○다른 방서에는 파두를 술에 끓이지 않고 파두상을 만들어 쓴다고 하였다.

○寬熱飲 ○관열음

- 治小兒驚熱天釣, 手足搐搦, 肚腹有熱, 兼治食積乳癖, 生痰動氣<sup>18</sup>, 大小便不通.
- 아이의 경열(驚熱)이나 천조풍으로 손발의 축닉과 배 부분이 뜨거운 것을 치료한다. 또한 식적이나 유벽(乳癖), 담이 생겨 동기(動氣)가 있는 것, 대소변을 보지 못하는 것도 치료한다.
- 枳殼 一兩(去穢, 以巴豆四十九立<sup>19</sup>同炒黃, 去巴豆), 大黃、朴硝 各五錢, 甘草 一錢.
- 지각 1냥(속을 버리고 파두 49개와 함께 누렇게 볶은 뒤에 파두는 버린다), 대황、박초 각 5돈, 감초 1돈.
- 右末, 每三五分, 薄荷湯調服.
- 이상을 가루 내고 3-5푼씩 박하탕에 타서 먹인다.

○金星丸 ○금성환

- 治急驚, 壯熱瘦<sup>20</sup>壅, 大便不通.
- 급경풍으로 열이 몹시 나고 담이 차며 똥을 누지 못하는 증상을 치료한다.
- 鬱金(末)、石雄黃 各二錢半, 膩粉 半錢, 巴豆 七箇(取霜).
- 울금(가루)、석웅황 각 2.5돈, 이분 0.5돈, 파두 7개(파두상으로 만든다).
- 右研勻, 醋糊丸黍米大, 一歲兒二丸, 薄荷湯化下.
- 이상을 골고루 빻고 식초를 넣어 쏘 풀과 섞어 서미대로 환을 빚는다. 1살 아이 기준으로 2환을 박하탕에 녹여 먹인다.

○牛旁子湯 ○우방자탕

- 治傷風, 發熱煩燥, 鼻塞氣喘, 痰嗽驚搐, 及諸瘡, 赤紫丹毒, 咽喉腫痛.
- 상풍으로 열이 나고 번조증이 있으며 코가 막히고 숨을 헐떡이며 가래 기침을 하고 경축이 생기는 것과 여러 가지 창, 단독으로 붉거나 보랏빛이 된 것, 목구멍이 붓고 아픈 것을 치료한다.
- 牛旁子 三兩(略炒, 研碎), 大黃 一兩半, 防風(去蘆)・薄荷(去老梗) 各一兩, 荊芥 四兩, 甘草 一兩一錢半.
- 우방자 3냥(살짝 볶아서 간다), 대황 1.5냥, 방풍(노두를 제거한다)・박하(높고 딱딱한 부분을 제거한다) 각 1냥, 형개 4냥, 감초 1.15냥.
- 右麤末, 二錢, 水一盞煎七分, 溫服.
- 이상을 거칠게 가루 낸 후 2돈을 물 1잔에 넣고 7할이 되도록 달여서 따뜻하게 먹인다.

○鎮心丸 ○진심환

- 治急驚風, 安心止驚, 散邪涼膈.
- 급경풍을 치료한다.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경기를 그치게 하며 풍사를 흘리고 흥격을 시원하게 한다.
- 山藥・白茯苓 各一兩, 寒水石(煨)・甘草(炙) 各七錢半, 甜硝(白者)・朱砂 各五錢, 人蔘 二錢半, 龍腦・麝香 各五分.
- 산약・백복령 각 1냥, 한수석(불에 달군다)・감초(굽는다) 각 7.5돈, 침초(흰 것)・주사 각 5돈, 인삼 2.5돈, 용뇌・사향 각 5푼.
- 右末, 蜜丸, 每一兩作五十丸, 金箔爲衣, 薄荷湯下一丸.
- 이상을 가루 내고 꿀로 환을 빚되 1냥으로 50환을 만든 후 금박을 입힌다. 박하탕에 1환씩 먹인다.

○溫驚丸 ○온경환

- 治急驚虛症.
- 급경풍의 허증을 치료한다.
- 牛膽南星 四兩, 天竺黃 一兩, 朱砂 一錢半, 胭脂胚、龍腦 各五分.
- 우담남성 4냥, 천축황 1냥, 주사 1.5돈, 연지배、용뇌 각 5푼.
- 右末, 牛膽汁和丸芡實大, 砂糖水化下.
- 이상을 가루 내고 소의 쓸개즙으로 검실 만하게 환을 빚는다. 설탕물에 녹여 먹인다.

#### ○定志丸 ○정지환

- 治驚風已退, 神志未定, 以此調之.
- 경풍 증상이 사라졌지만 정신이 안정되지 못했을 때 이 약으로 조리한다.
- 琥珀、茯神、遠志肉(薑製焙)、人蔘、白附子(炮)、天麻、天門冬(去心)、甘草(炙)、酸棗仁(炒) 各等分.
- 호박、복신、원지육(생강즙에 법제하고 곁불에 말린다)、인삼、백부자(습지에 싸서 굽는다)、천마、천문동(심을 뺀다)、감초(살짝 볶는다)、산조인(볶는다) 각각 같은 양.
- 右末, 煉蜜丸芡子大, 朱砂爲衣, 每服一丸, 燈心薄荷湯調下. ○一方有乳香.
- 이상을 가루 내고 연밀과 섞어 조자대로 환을 빚은 후 주사를 곁에 입힌다. 1환씩 등심과 박하 달인 물에 타서 먹인다. ○어떤 방서에는 유향이 있기도 하다.

#### ○天麻散 ○천마산

- 治小兒急慢驚風, 及大人中風涎盛, 半身不遂, 言語難<sup>21</sup>澁, 不省人事.
- 아이의 급경풍、만경풍을 치료하며, 성인이 중풍으로 끈적한 침을 질질 흘리고 반신불수되며 말을 어눌하게 하고 인사불성된 경우도 치료한다.

- 半夏 七錢, 天麻 二錢半, 甘草(炙)、茯苓、白朮 各三錢.
- 반하 7돈, 천마 2.5돈, 감초(살짝 볶는다)、복령、백출 각 3돈.
- 右用水一盞, 入磁罐內, 煮藥令水半, 將老薑三錢同煮, 候乾爲細末, 每服一錢或五分, 薑棗湯調下.
- 이상을 물 1잔과 함께 사기그릇에 넣고 달여 물이 절반이 되면 늙은 생강 3돈을 넣고 달인 후 건더기가 마르기를 기다려 잘게 가루 낸다. 1돈 혹은 5푼씩 생강과 대조 달인 물에 타서 먹인다.

小兒驚風後半身不遂, 乃風入經絡, 不能流通之致. 以牛黃清心丸, 薄荷煎湯, 量兒大小調服, 汗出, 風從汗散而愈.

아이가 경풍이 나은 후에 반신불수가 되는 경우는 풍사가 경락을 침범하여 경락이 제대로 흐르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우향청심환을 박하 달인 물에 타고 아이의 몸집을 가늠하여 먹이면 땀을 흘리게 되는데 풍사가 땀을 따라 흘러지며 낫는다.

驚風後啞不能言者, 天南星一箇, 去皮臍, 炮爲末, 三歲兒半錢或一字, 猪膽汁調, 以薄荷湯化下. 又鷄頭丸〔方見五軟〕, 或黃連肥兒丸〔方見疳疾〕, 以遠志、石菖蒲煎湯化下. 或驚熱者, 朱砂安神丸〔方見癇疾〕, 或黃連薑炒細末, 每一二分, 遠志、石菖蒲、茯神煎湯調服, 黃連去心熱.

경풍이 나은 후에 병어리가 되어 말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천남성(껍질과 꼭지를 제거하고 습지에 싸서 구운 후에 가루 낸다) 1개를 3살 기준으로 0.5돈 혹은 1자씩 저담즙과 섞어 박하탕에 녹여 먹인다. 또는 계두환(처방은 오연(五軟)에 나온다)이나 황련비아환(처방은 감질(疳疾)에 나온다)을 원지와 석창포 달인 물에 녹여 먹인다. 간혹 경열(驚熱)이 나는 경우에는 주사안신환(처방은 간질에 나온다)을 먹이거나 혹은 황련(생강즙에 축여 볶은 후 잘게 가루 낸다) 1-2푼씩을 원지、석창포、복신 달인 물에 타서 먹인다. 황련은 심열(心熱)을 없애는 효능이 있다.

驚風後眼睛不正者, 風入頭腦, 牛黃丸〔方見眼疾〕, 用嚏驚散吹鼻, 卽正. ○牛肝一片細切, 入全蝎、白殭蠶末各三分, 水煮取汁服.

경풍이 나은 후에 눈동자의 위치가 똑바르지 않은 경우는 풍사가 머리 속으로 침범했기 때문이다. 우황환(처방은 안질에 나온다)을 먹이고 체경산을 콧속에 넣어넣으면 즉시 똑바로 돌아온다. ○소의 간 1조각을 잘게 자르고 전갈과 백강잠 가루를 각 3푼씩 넣어 물에 달인 후 국물을 먹인다.

### 灸法 구법

- 百會穴, 諸陽所會, 百脈所宗, 灸之, 驚痰卽下, 半身不遂, 眼睛不正, 惡<sup>22</sup>不能言等症, 俱效. ○小兒急驚後, 搐搦等症, 頓止, 而但喉<sup>23</sup>痰未下, 精神久不覺, 灸百會穴, 用嚏驚散鼻嚏, 卽醒.
- 백회혈은 모든 양맥이 모이는 곳이며 모든 맥의 우두머리이다. 이곳에 뜸을 뜨면 경담(驚痰)이 즉시 내려간다. 반신불수와 눈동자 위치가 삐뚤어진 것과 말을 하지 못하는 증상에 모두 효과가 있다. ○아이가 급경풍이 나은 후에 축닉 등의 증상은 모두 멎었으나 목에 가래가 내려가지 않고 오랫동안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경우에는 백회혈에 뜸을 뜨고 체경산을 콧속에 넣어 넣어 재채기시키면 즉시 깨어난다.

急驚不治證, 眼睛翻轉, 口中出血, 兩足擺跳, 肚腹搐動, 摸體尋衣, 神昏氣促, 噴藥不下, 通關不嚏, 心中熱痛忽大叫者, 皆不治.

급경풍의 불치증. 눈동자가 뒤집힌 경우, 입 속에서 피가 나는 경우, 두 발을 덜덜 떠는 경우, 배가 당기면서 꿈틀대는 경우, 몸을 더듬으며 옷을 계속 만지는 경우, 정신이 혼미하고 숨이 가쁜 경우, 약을 뱉으며 넘기지 못하는 경우, 통관해도 재채기를 하지 않거나, 가슴이 뜨겁고 아프다가 갑자기 크게 소리 지르는 경우는 모두 치료하지 못한다.

一方, 小兒急驚風, 雀甕〔一名天漿子〕三枚, 朱砂三分, 并研, 每少許, 薄荷煎湯調灌.  
 ○甜生梨汁一盞, 入生薄荷汁、生薑汁、白蜜各少許, 和勻, 微溫灌服, 治心熱驚搐.  
 ○風痰壅於喉間, 聲如引鉅, 脣面顫跳, 手足搐掣, 白殭蠶(直者炒)、白附子(炮)各三分, 南星(炮)五分, 并細末, 每一字, 磨刀水調灌服. ○小兒內熱蘊積, 發爲急驚癇風者, 馬齒莧搗取汁, 和白蜜、干汁少許, 微煎服.

어떤 방서에서는 아이의 급경풍에 작옹(천장자라고도 한다) 3개와 주사 3푼을 함께 갈고 조금씩 박하 달인 물에 타서 입으로 흘려 넣는다고 하였다. ○달콤한 생배의 즙 1잔에 생박하즙·생강즙·꿀을 각각 조금씩 넣고 잘 섞은 후에 살짝 따뜻하게 하여 입에 흘려 넣어주면 심열(心熱)로 생긴 경축(驚搐)을 치료한다. ○풍담이 목구멍에 막혀 목에서 쉿소리가 나고 입술과 얼굴이 떨리며 손발이 오그라드는 경우에는 백강잠(곧은 것을 볶는다)과 백부자(습지에 싸서 굵는다) 각 3푼, 남성(습지에 싸서 굵는다) 5푼을 모두 잘게 가루 내고 1자씩 칼 간 물에 타서 입에 흘려 넣는다. ○아이가 속에 열이 쌓여서 급경간풍(急驚癇風)으로 발작하는 경우에는 마치현을 짓찧은 즙에 꿀과 생강즙을 약간 탄 후 살짝 달여 먹인다.

李相國〔宜顯〕子, 三歲發驚瘧, 症甚危惡, 用人蔘羌活散〔方見外感〕, 加殭蠶、全蝎、白附子, 以解表邪而愈. 自是, 驚瘧每年或一發或二三發, 如是者數年, 諸醫咸以爲風痰發癇, 用追風祛痰丸. 余曰, 肝心二經, 胎熱藏伏, 遇感冒, 則風熱相搏而發, 非癇也, 用此燥劑, 非但無效, 反傷氣血, 或生他症, 有不可知, 若經痘疹, 則胎熱自散, 永無復發之患. 後七歲經痘, 而果不發.

〔의안〕상국(相國) 이의현(李宜顯)의 아들이 3살에 경치(驚瘧)가 생겼는데 증상이 매우 위독하였다. 인삼강활산(처방은 외감(外感)에 나온다)에 백강잠·전갈·백부자를 더하여 써서 걸의 사기를 풀어주었더니 나았다. 이때부터 경치가 매년 1-3번정도 발병하여 이와 같이 된 지가 몇년되었다. 여러 의원들이 모두 풍담으로 간질이 발병했다고 여기고는 추풍거담환을 썼다. 나는 "간경(肝經)과 심경(心經)에 태열이 잠복해 있는 상태에서 감모에 걸렸고 그 결과



풍사와 열이 서로 부딪혀 발병한 것이지 간질이 아닙니다. 추풍거담환 같은 말리는 성질의 약을 쓴다면 효과가 없을 뿐 아니라 도리어 기와 혈을 상하게 하여 혹시 다른 증상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만약 두창이나 마진을 앓고 나면 태열이 저절로 흩어져 영영 재발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말하였다. 그 후 7살 때 두창을 앓고선 과연 재발하지 않았다.

崔副學(昌大)孫兒, 百日內得驚搐, 日發四五次. 余曰, 此眞搐, 不治. 有一醫易言自當, 終至不救, 蓋百日內未周歲少兒, 發驚眞搐者, 十無一生也.

〔의안〕 부학(副學) 최창대(崔昌大)의 손주가 백일이 채 안되어 경축(驚搐)을 앓았는데 하루에 4-5번 발작하였다. 나는 "이 병은 진축(眞搐)이므로 치료하지 못합니다."라고 말하였다. 어떤 의원이 자신이 고칠 수 있다고 쉽게 말했지만 결국 생명을 구하지 못하게 되었다. 대체로 백일 전이나 돌 전의 갓난아이가 진축이 발병한 경우에는 열에 하나도 살리지 못한다.

權參奉外孫, 頭面胎瘡, 久未收斂, 忽完合落痂, 而達宵悲泣不寐, 或發聲大笑, 病家邀諸醫問症. 余曰, 此兒裡有大熱, 必是驚搐也. 一醫曰, 脾虛腹痛也. 余曰, 胎瘡忽然完合, 則裡熱作, 悲泣發笑者, 心熱也, 二便不利者, 胃大小腸熱也, 耳前額上, 心肝部位, 有青色者, 乃發驚之兆, 何謂脾虛腹痛耶. 彼曰, 外觸風寒, 表鬱而胎瘡完合也, 夜則陰寒之氣盛, 故腹痛甚而不寐多啼也, 發笑者, 虛熱之象<sup>24</sup>也, 二便不利者, 多食生冷之物, 寒氣鬱遏腸胃, 如寒疝便不通之類也, 面有青色者, 亦虛寒之症也. 余曰, 啼<sup>25</sup>而無淚者痛, 啼而有淚者驚, 今其悲泣何也. 彼曰, 啼有乾濕之別, 心氣動則俱有淚, 何可執一偏而論乎. 余曰, 表鬱而胎瘡完合, 則必有身熱, 而今其無身熱, 何也. 彼曰, 未及發熱, 故身不熱也. 余曰, 此兒今日發驚則可治, 若過數日, 雖華扁, 難以下手, 宜急用利驚丸, 急下其驚熱, 兼服導赤散, 加白芍藥、黃連, 以清心抑肝, 則其庶幾乎. 主家難於利驚丸之峻烈, 用彼言, 煎人蔘養胃湯, 未及服而大發驚搐, 八候俱全, 熱極暴烈. 主家問, 今日發驚則可治者, 何也. 曰, 肝風, 得心熱而發也, 此

兒本來心肝二經,俱有實熱,若耗血液累日,則病益深,古人云,速發則可治,遲發則難治者,此也,用利驚丸急下者,救血液之義也.仍用利驚丸,數次泄下,繼用導赤散三劑,驚搐更不發而愈.

(의안) 권 참봉의 외손주가 머리와 얼굴에 태창이 생겨 오래도록 아물지 않다가 갑자기 아물고 딱지도 떨어졌는데 밤새도록 슬픈 듯이 눈물을 흘리면서 울며 잠들지 못하고 간혹 소리를 지르며 크게 웃기도 하였다. 그 집에서 여러 의원을 모셔 어떤 병인지 물었다. 내가 "이 아이는 속에 심한 열이 있는 것으로 분명히 경축(驚搐)입니다."라고 하자 어떤 의원은 "비장이 허하여 배가 아픈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내가 "태창이 갑자기 아문 것은 속에 열이 생겼기 때문이며, 슬픈 듯이 눈물을 흘리면서 울거나 크게 웃는 것은 심장의 열 때문이며, 대소변을 잘 보지 못하는 것은 위와 대소장의 열 때문이며, 귀 앞과 이마 위(심장과 간장과 연결된 부위)가 푸른빛을 띠는 것은 바로 경축이 생기려는 징조인데 당신은 어찌 비장이 허하여 배가 아픈 것이라고 하는가?"라고 반문하니 그자는 "풍한에 노출되어 몸의 겉이 울체되었기 때문에 태창이 아문 것이며, 밤은 음기와 한기가 왕성해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복통이 심해져 잠들지 못하며 계속 우는 것이며, 크게 웃는 것은 허열의 징조이며, 대소변을 잘 보지 못하는 것은 생것이나 차가운 음식을 많이 먹어 한기가 위와 대소장을 막히게 한 것으로 한산(寒疝)에 걸리면 대소변이 잘 통하지 않는 것과 같은 원리이며, 얼굴에 푸른빛이 도는 것도 허한의 증상이다."라고 대답하였다. 내가 다시 "울면서 눈물이 없는 경우는 통증이 있는 것이며 눈물이 있는 경우는 경축인데 지금 슬픈 듯이 눈물을 흘리며 우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말하니 그자는 "울음에는 건습(乾濕)의 구별이 있다고 하지만 마음이나 기분이 움직이더라도 다 눈물을 흘리는데 한쪽만 고집하여 논리로 삼아서야 되겠는가."라고 답하였다. 내가 이번에는 집안사람들에게 "이 아이가 오늘 경축이 발병했으면 치료할 수 있지만 만약 며칠이 지났다면 화타나 편작이라도 손쓰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급히 이경환을 써서 경열(驚熱)을 빼주어야 합니다. 동시에 도적산에 백작약과 황련을 더해 써서 심열을 없애고 간기를 억누른다면 아마 거의 나을 것입니

다."라고 말하였으나 집안사람들은 이경환처럼 강한 약을 쓰기 두려워서 그자의 말대로 인삼양위탕을 달여 먹였다. 그러자 약을 다 먹기도 전에 경축이 심하게 발작하고 8후가 모두 나타났으며 열이 아주 극렬해졌다. 집안사람들이 "오늘 경축이 발병하면 치료할 수 있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라고 묻기에 "간목인 풍증은 심화인 열과 만나면 발작합니다. 이 아이는 본래 심경(心經)과 간경(肝經)에 모두 실열이 있는 상태였으니 만약 며칠 동안 혈과 진액이 소모되었다면 병이 더욱 깊어졌을 것입니다. 옛 사람이 말하기를 '빨리 발병하면 치료할 수 있지만 천천히 발병하면 치료하기 어렵다'는 것이 이와 같은 경우입니다. 이경환으로 급히 열을 빼주는 것은 혈과 진액을 더 이상 소모시키지 않고 보전하려는 의도였습니다."라고 답하였다. 그리고 이경환을 써서 여러 번 설사시키고 이어서 도적산 3첩을 썼더니 경축이 다시는 발작하지 않으며 나아

一小兒無痛處，而面唇色青，夜則咬牙，或手足伸縮。余曰，此肝風血虛，發驚之<sup>26</sup>兆也。服四物湯〔方見諸血〕，加釣藤、全蝎、殭蠶而愈。

(의안) 어떤 아이가 특별히 아픈 곳이 없으나 얼굴과 입술이 파랗게 되고 밤에는 이를 갈며 간혹 팔다리를 접었다 폈다 하였다. 내가 "이 증상은 풍사와 혈허로 경축이 발병하려는 징조입니다."라고 말하며 사물탕(처방은 제혈(諸血)에 나온다)에 조구등·전갈·백강잠을 더하여 먹이니 나아졌다.

一女僕問<sup>27</sup>隣家有傀儡戲，抱兒突入，兒見而驚痊，戴眼反張，久乃回甦，自是聞急呼之聲，或見生人，面非常物，輒復驚塞<sup>28</sup>搐搦，或日再三，如是者月餘，形神大脫。余用猪心血，調朱砂一字，龍腦小許，而愈，其後觸驚又發，服寧心膏乃安。

(의안) 어떤 여종이 이웃집에서 꼭두각시놀이 소리를 듣고 아이를 업은 채 갑자기 들어갔는데 아이가 그 장면을 보고는 경기를 일으켜 눈이 돌아가고 각궁 반장 되었다가 오래 지난 후에 정신을 차렸다. 이때부터 급히 크게 부르는 소리를 듣거나 낯선 사람을 보거나 이상한 물건을 대하면 갑자기 다시 놀라고 질색하며 축닉이 생겼고, 어떤 날에는 2-3번 발작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지낸

지가 한 달이 넘어 살이 바싹 마르고 났이 나가게 되었다. 내가 돼지 심장 피에 주사 1자와 응뇌를 약간 타서 먹이게 하니 나았다. 그 후에 놀라는 일이 생기자 다시 발작하였는데 영심고를 먹이니 곧 편안해졌다.

一小兒急驚塞, 兩日身不熱, 而面青肢冷, 握拳戴眼, 頭與脚向後, 而腰背離席, 鳩尾下中腕上, 堅硬如石, 重按則搐掣反張益甚, 雜試以治驚之方, 終無應. 余曰, 此非驚風, 乃<sup>29</sup>食<sup>29</sup>堵塞胸膈, 挾痰不下而發也. 陳皮、生薑煎湯, 服消積丸〔方見諸積〕七丸, 俄而, 盡吐所服藥, 更用廿丸, 過數食頃, 搐掣反張, 比前一倍, 吐出餅肉, 瀉下雜食, 而頭面身體, 汗流沾浹, 呼吸低微, 神氣昏綴, 若不能保, 用異功散〔方見吐瀉〕, 倍人蔘, 加香砂、神麴、麥芽, 調理而安.

〔의안〕 어떤 아이가 갑자기 경기하면서 질색하여 이틀 동안 몸통은 뜨겁지 않고 얼굴은 파랗게 되며 사지가 차갑게 되고 주먹을 꼭 쥐며 눈알이 뒤집히고 머리와 다리가 뒤로 젖혀지면서 허리와 등이 이부자리에서 떨어졌으며 구미 골과 중완 사이가 돌처럼 딱딱해졌고 꼭 누르면 축닉이나 각궁반장이 더욱 심해졌다. 여러 가지 경풍을 치료하는 처방을 써보았으나 결국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내가 "이 증상은 경풍이 아니라 바로 음식이 흉격에 막히고 가래까지 낀 까닭에 내려가지 못하여 생긴 것입니다."라고 말하며 진피와 생강 달인 물에 소적환(처방은 제적(諸積)에 나온다)을 7환 먹였더니 조금 후에 먹었던 약을 모조리 토하였다. 다시 20환을 먹이고 몇 식경이 지나자 축닉과 각궁반장이 전보다 2배 심해지더니 떡과 고기를 토해내고 소화되지 않은 음식을 설사하며 얼굴과 몸통에 땀이 흘러 옷을 적시면서 호흡이 미약해지고 정신이 혼미해져 목숨을 부지할 수 없을 것 같았다. 이공산(처방은 토사(吐瀉)에 나온다)에 인삼을 2배로 넣고 향사、신국、맥아를 더하여 쓰면서 잘 조리시키니 편안해졌다.

1. 開：調 ※규장각본 ←

2. 和：爲 ※규장각본 ←

3. 化 : 和 ※규장각본 ←

4. 宜下, 裡熱實者, 用此 : \*裡熱實者, 宜下用此 ※문맥상 ←

5. 臍 : \*臍 ←

6. 嗽 : 咳 ※규장각본 ←

7. 化 : 和 ※규장각본 ←

8. 麴 : 曲 ※규장각본 ←

9. 膽 : 痰 ※규장각본 ←

10. 氣 : 風 ※규장각본 ←

11. 逆 : 瀉 ※규장각본 ←

12. 湯 : 酒 ※규장각본 ←

13. 忤 : 恍 ※규장각본 ←

14. 驚 : 志 ※규장각본 ←

15. 皂角 : 皂角水 ※규장각본 ←

16. 糲 : 蜜 ※규장각본 ←

17. 글자없음 : 水 ※규장각본 ←

18. 氣 : 風 ※규장각본 ←

19. 立 : 粒 ※규장각본 ←

20. 瘦 : \*痰 ※《증치준승》 ←

21. 難 : 艱 ※규장각본 ←

22. 惡 : \*啞 ※규장각본 ←

23

23. 喉 : 候 ※규장각본 <

24. 象 : 狀 ※규장각본 <

25. 啼 : 驚 ※규장각본 <

26. 驚之 : 痼 ※규장각본 <

27. 問 : \*聞 ※규장각본 <

28. 塞 : 寒 ※규장각본 <

29. 餘 : \*飲 ※규장각본 <

## 慢驚 만경풍

慢驚者, 多因乳食不調, 損傷脾胃, 吐瀉日久, 中<sup>1</sup>氣大虛而發, 或大病後, 或外感傳變陰症而成, 或過服寒涼之藥, 或峻下直瀉傷脾而成. 外症, 身體或冷或熱, 或吐或瀉, 或不吐瀉, 又時口眼旁引, 手足痠痿, 昏睡露睛, 其脈沈遲, 此脾虛生風, 無陽之候, 以溫補爲主. 且慢驚雖云陰症, 有半陽半陰, 如傷寒半表裏者, 當分而治之, 不可專以溫補也. 錢氏曰, 男子以瀉得之爲重, 女子以吐得之爲重也.

만경풍은 대부분 젖이나 음식을 적절하게 먹지 못하여 비위가 손상된 상태에서 구토와 설사를 며칠 동안 하다가 중기(中氣)가 크게 허하게 되어 발병한다. 혹은 큰 병을 앓은 후나 외감증이 음증으로 전변되어 생기기도 하고, 혹은 차가운 성질의 약재를 너무 많이 먹이거나 하법을 강하게 써서 비장이 손상되어 생기기도 한다.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으로는 몸이 차가워지거나 뜨거워지기도 하고, 구토하거나 설사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다. 또한 가끔 입과 눈이 옆으로 삐뚤어지고 손발에 경련이 일며 혼수상태에 빠져 눈알이 뒤집히기도 한다. 맥은 침지(沈遲)하다. 이 병은 비기(脾氣)가 허하여 풍증이 생긴 것으로 양증이 없으므로 따뜻하게 보해주는 것을 위주로 치료해야 한다. 만경풍은 비록 음증이라고 하지만 반음반양증(半陽半陰症)인 경우도 있어 상한의 반표반리증(半表半裏症)과 비슷하니 마땅히 구분하여 치료해야 하며 무조건 따뜻하게 보해주어서는 안된다. 전씨가 말하기를 "남자는 설사로 만경풍이 생긴 경우가 위증하며, 여자는 구토로 생긴 경우가 위증하다."고 하였다.

### ○白朮散 ○백출산

- 治吐瀉日久不止, 津液枯<sup>2</sup>, 煩渴<sup>3</sup>引飲, 肌膚烘熱, 欲成慢驚.
- 구토와 설사가 오랫동안 멎지 않아 온몸의 진액이 고갈되어 번갈로 물을 찾고 피부가 뜨끈뜨끈해지면서 만경풍이 되려는 경우를 치료한다.

- 葛根 二錢, 人蔘、白朮、白茯苓、木香、藿香、甘草 各一錢.
- 갈근 2돈, 인삼、백출、백복령、목향、곽향、감초 각 1돈.
- 右剉, 水煎任意服, 或麤末, 每二錢, 煎服. ○泄瀉, 加山藥、白扁豆、肉豆蔻. ○已成慢驚, 加天麻、細辛、全蝎、白附子. ○驚風吐瀉, 身熱煩渴, 皆津液內耗, 不問陰陽, 多煎滿意, 取足飲之, 彌多彌好. ○一名錢氏白朮散, 一名清寧散.
- 이상을 썰고 물에 달여 임의로 먹인다. 혹은 거칠게 가루 내고 2돈씩 물에 달여 먹인다. ○설사를 하면 산약、백편두、육두구를 더한다. ○이미 만경풍이 되었으면 천마、세신、전갈、백부자를 더한다. ○경풍으로 구토와 설사를 하고 몸통이 뜨거우며 번갈이 있는 이유는 모두 진액이 안에서 소모되었기 때문이다. 음증과 양증을 불문하고 가능한 많이 달여 먹을 수 있는 만큼 마시게 한다. 많이 먹일수록 더욱 좋다. ○일명 전씨백출산、청녕산이다.

#### ○黃芪益黃散 ○황기익황산

- 治慢驚, 此藥不燥不熱, 眞補脾之聖藥也.
- 만경풍을 치료한다. 이 약은 말리거나 뜨거운 성질이 없으니 참으로 비장을 보하는 성약이다.
- 黃芪 二錢, 人蔘、陳皮 各一錢, 白芍藥 七分, 生甘草、炙甘草 各五分, 白茯苓 四分, 黃連 二分.
- 황기 2돈, 인삼、진피 각 1돈, 백작약 7푼, 감초(생것)、감초(살짝 볶는다) 각 5푼, 백복령 4푼, 황련 2푼.
- 右麤末, 每二錢, 水煎至半, 時時溫服. ○凡驚兒瀉青色, 大禁涼驚丸, 蓋風木旺, 必克脾土, 當先實其土, 後瀉其木也. 當於心經中, 以甘補脾土之源, 更於脾土中, 瀉火以甘寒, 補金以酸涼, 使脾土金旺火衰, 則風木自虛矣.
- 이상을 거칠게 가루 내고 2돈씩 물에 넣고 절반이 되도록 달여 자주 따뜻하게 먹인다. ○아이가 놀란 후에 푸른색 설사를 하는 경우에는 절대로 양경환을 금한다. 풍목이 왕성해지면 반드시 비토를 억제하기 때문에 마땅히 먼저 비토를



충실하게 하고 그 후에 풍목을 사해주어야 한다. 마땅히 심경(心經) 속에서 단 맛의 약재로 비토의 근원을 보해주고, 다시금 비토 중에 단 맛의 차가운 약재로 심화를 사해주면서 신 맛의 서늘한 약재로 폐금을 보해주어 비토 속에서 폐금을 왕성하게 하고 심화를 쇠약하게 하면 풍목은 저절로 약해질 것이다.

#### ○黃芪湯 ○황기탕

- 治慢驚大風, 大便泄<sup>4</sup>青色.
- 심한 만경풍으로 푸른색의 설사를 하는 경우를 치료한다.
- 黃芪 二錢, 人蔘 一錢, 甘草(炙) 五分, 加白芍藥 一錢.
- 황기 2돈, 인삼 1돈, 감초(살짝 볶는다) 5푼. 백작약 1돈을 더한다.
- 右剉, 水煎服.<sup>5</sup> 此風木旺, 必克脾土, 宜先實其土, 後瀉其木, 是神治之法也. 蓋黃芪、人蔘、甘草以補脾土, 白芍藥以瀉肝木. ○一名保元湯.
- 이상을 썰고 물에 달여 먹인다. ○이 증상은 풍목이 왕성해지면 반드시 비토를 억누르는 형국이다. 먼저 비토를 충실하게 하고 그 후에 간목을 사해주는 방법이니 귀신같이 치료하는 방법이다. 황기·인삼·감초로 비토를 보하며, 백작약으로 간목을 사한다. ○일명 보원탕이다.

#### ○觀音散 ○관음산

- 治脾困多瀉, 不思乳食, 精神昏困, 四肢厥冷, 欲成慢驚. 古方, 吐瀉身涼觀音散, 吐瀉身熱白朮散.
- 비장이 노곤하여 자주 설사하며 젖이나 음식을 먹으려 하지 않고 정신이 혼미하며 사지 끝이 차가워 만경풍이 되려고 하는 경우를 치료한다. 옛 방서에 '구토·설사하며 몸통이 서늘하면 관음산이요, 구토·설사하며 몸통이 뜨거우면 백출산이네.'라고 하였다.
- 人蔘 一錢, 蓮肉、神麴 各二分, 白茯苓 一分半, 白朮、黃芪、木香、白扁豆

(炒)、甘草 各一分.

- 인삼 1돈, 연육·신국 각 2푼, 백복령 1.5푼, 백출·황기·목향·백편두(볶는다)·감초 각 1푼.
- 右剉, 入薑二棗一, 藿香三葉, 同煎服.
- 이상을 썬 후 생강 2조각, 대조 1개, 곱향 3잎을 넣고 함께 달여 먹인다.

#### ○全蝎觀音散 ○전갈관음산

- 治吐瀉慢驚, 及慢脾風.
- 구토와 설사를 하는 만경풍 및 만비풍을 치료한다.
- 前方, 加羌活、防風、天麻、全蝎也.
- 관음산에 강활·방풍·천마·전갈을 더한다.

#### ○補脾湯 ○보비탕

- 治慢驚風, 補脾化痰清熱.
- 만경풍을 치료한다. 비장을 보하며, 담을 녹이고, 열을 없앤다.
- 白朮 一錢三分, 白芍藥(酒炒) 一錢, 白茯苓、半夏 各七分, 陳皮、黃芪(蜜水炒)、人蔘、當歸、川芎、肉豆蔻(煨)、乾葛、神麴(炒) 各五分, 黃連(薑炒)、甘草(炙) 各三分.
- 백출 1.3돈, 백작약(술에 축여 볶는다) 1돈, 백복령·반하 각 7푼, 진피·황기(꿀물에 축여 볶는다)·인삼·당귀·천궁·육두구(젓불에 묻어 굽는다)·전갈·신국(볶는다) 각 5푼, 황련(생강즙에 축여 볶는다)·감초(살짝 볶는다) 각 3푼.
- 右剉, 水煎稍稍服.
- 이상을 썰고 물에 달여 조금씩 먹인다.

○參朮半夏湯 ○삼출반하탕

- 治慢驚風, 子母俱服.
- 만경풍을 치료한다. 아이와 어머니에게 같이 먹인다.
- 人蔘、白朮 各二錢, 半夏、天麻 各七分, 白茯苓、陳皮 各五分, 細辛、薄荷、甘草 各二分, 全蝎(炒) 一枚.
- 인삼、백출 각 2돈, 반하、천마 각 7푼, 백복령、진피 각 5푼, 세신、박하、감초 각 2푼, 전갈(볶는다) 1마리.
- 右剉, 入薑二, 水煎服.
- 이상을 썬 후 생강 2조각을 넣고 물에 달여 먹인다.

○銀白散 ○은백산

- 治慢驚風, 助胃祛風.
- 만경풍을 치료한다. 위기를 도와주며 풍사를 제거한다.
- 蓮肉、白扁豆(炒)、白茯苓 各二錢, 白附子(炮)、人蔘、天麻、全蝎(炒)、木香、藿香、甘草(炒) 各一錢, 陳米(炒) 三錢.
- 연육、백편두(볶는다)、백복령 각 2돈, 백부자(습지에 싸서 굽는다)、인삼、천마、전갈(볶는다)、목향、곽향、감초(볶는다) 각 1돈, 진미(볶는다) 3돈.
- 右麤末, 每二錢, 入薑二片, 冬瓜仁二七枚, 同煎服.
- 이상을 거칠게 가루 낸 후 2돈씩 생강 2조각과 동과인 14개를 넣고 함께 달여 먹인다.

○紫金錠子 ○자금정자

- 治急慢驚風, 痰涎潮搐, 或吐或瀉, 不思乳食, 神昏氣弱.
- 급경풍、만경풍으로 가래와 끈적한 침이 있으며 규칙적으로 축닉이 생기고 간

혹 구토나 설사를 하면서 젖이나 음식 생각이 없고 정신이 혼미하며 기운이 약해진 경우를 치료한다.

- 人參、白茯苓、白茯神、山藥(炒)、赤石脂(煅醋淬七次)、白朮、乳香、辰砂 各三錢, 麝香 一錢.
- 인삼、백복령、백복신、산약(볶는다)、적석지(불에 달궈 식초에 7차례 담금 질 한다)、백출、유향、진사 각 3돈, 사향 1돈.
- 右末, 以糕一兩爲糊和丸彈子大, 金箔爲衣, 每一丸, 薄荷湯化服.
- 이상을 가루 내고 백설기 1냥으로 쏜 풀에 개어 탄자대로 환을 빻은 후 금박을 입힌다. 1환씩 박하탕에 녹여 먹인다.

#### ○防風元 ○방풍원

- 治慢驚風.
- 만경풍을 치료한다.
- 人參、天麻、防風 各五錢, 全蝎(炒)、白僵蠶(炒)、甘草 各二錢半, 朱砂、雄黃 各一錢七分半.
- 인삼、천마、방풍 각 5돈, 전갈(볶는다)、백강잠(볶는다)、감초 각 2.5돈, 주사、웅황 각 1.75돈.
- 右末, 蜜丸芡實大, 人參湯或冬瓜仁湯化下.
- 이상을 가루 내고 꿀에 개어 검실대로 환을 빻은 후 인삼탕이나 동과인탕에 녹여 삼키게 한다.

#### ○醒脾散 ○성비산

- 治脾困昏沈, 吐瀉不止, 漸成慢驚.
- 비장이 노곤하여 정신이 혼미하고 구토와 설사가 멎지 않아 점점 만경풍이 되

는 경우를 치료한다.

- 人參、白朮、白茯苓、白附子、白殭蠶(炒)、天麻、木香、甘草 各五分, 全蝎(炒) 二分半.
- 인삼、백출、백복령、백부자、백강잠(볶는다)、천마、목향、감초 각 5푼, 전갈(볶는다) 2.5푼.
- 右麤末, 每二錢, 入薑二棗一, 水煎漸漸服, 不可頃服.
- 이상을 거칠게 가루 낸 후 2돈씩 생강 2조각과 대조 1개를 넣고 물에 달여 조금씩 먹인다. 한 번에 모두 먹이지 말아야 한다.

#### ○大溫驚元 ○대온경원

- 治心熱煩燥夜啼, 常用, 安神定志去驚.
- 심열로 생긴 번조와 야제를 치료한다. 늘 먹이면 정신을 안정시키고 경기를 없앤다.
- 人參、茯苓、白朮、辰砂、麥門冬、木香、代赭石(醋淬) 各二錢半, 甘草(炙)、酸棗仁(去皮, 蚌粉炒) 各五錢, 殭蠶(炒)、桔梗(尾) 各一錢二分半, 全蝎(炒) 三箇, 金銀箔 各三片.
- 인삼、백복령、백출、진사、맥문동、목향、대자석(식초에 담금질한다) 각 2.5돈, 감초(살짝 볶는다)、산조인(껍질을 까서 방분에 볶는다) 각 5돈, 백강잠(볶는다)、길경(잔뿌리) 각각 1.25돈, 전갈(볶는다) 3개, 금박、은박 각 3조각.
- 右末, 蜜丸梧子大, 金銀箔爲衣, 薄荷湯化下一二丸. ○急驚潮熱, 薄荷竹茹湯下, 慢驚, 冬瓜仁湯下, 夜啼, 竈心土湯下, 搐搦, 防風湯下, 傷風, 荊芥湯下, 痘疹, 蟬退湯下. ○驚風已退, 神志未定者, 加琥珀、遠志. ○驚風後, 心燥煩啼不寐, 加淡豆豉二十枚.
- 이상을 가루 내고 꿀에 개어 오자대로 환을 빚은 후 금박과 은박을 입힌다. 박하탕에 1-2환을 녹여 먹인다. ○급경풍에 조열이 있으면 박하와 죽여 달인 물로 먹

인다. 만경풍에는 동과인탕으로 먹인다. 야제가 있으면 부뚜막 속의 흙을 끓인 물로 먹인다. 축낙이 있으면 방풍탕으로 먹인다. 상풍에는 형개탕으로 먹인다. 두창이나 마진에는 설퇴탕으로 먹인다. ○경풍은 나았지만 정신이 안정되지 못한 경우에는 호박(琥珀)과 원지를 더해 쓴다. ○경풍이 나은 후에 가슴이 뜨겁고 답답하며 울면서 잠들지 못하는 경우에는 담두시 20알을 더해 쓴다.

#### ○天麻防風丸 ○천마방풍환

- 治撮口臍風, 及一切急慢驚風, 手足搐掣, 口眼顫動, 痰涎壅盛, 昏憤不省.
- 찰구와 제풍 및 급경풍、만경풍으로 생긴 손발의 축낙, 입과 눈의 떨림, 담연이 목에 심하게 막힌 증상, 정신이 혼미하여 인사불성된 증상을 치료한다.
- 天麻、防風、人參 各一兩, 全蝎 七箇, 殭蠶(炒)、粉草 各五錢, 雄黃、朱砂 各二錢半, 牛黃 一錢, 麝香 五分.
- 천마、방풍、인삼 각 1냥, 전갈 7개, 백강잠(볶는다), 분초 각 5돈, 옹황、주사 각 2.5돈, 우황 1돈, 사향 5푼.
- 右末, 蜜丸梧子大, 每一丸至二丸, 薄荷煎湯化下.
- 이상을 가루 내고 꿀에 개어 오자대로 환을 빚은 후 1-2환씩 박하탕에 녹여 먹인다.

慢驚初傳, 尚有八候陽症者, 但於生胃藥中, 加以截風定搐, 如殭蠶、全蝎、白附子、天麻、南星之類, 平均陰陽, 不必專一回陽也.

만경풍 초기인데도 아직 8후와 양증이 있는 경우에는 위기를 돕는 약재에 풍사를 꺾고 축낙을 안정시키는 백강잠、전갈、백부자、천마、남성같은 약재를 더하여 음양의 기운을 골고루 맞춰주어야 한다. 오로지 양기를 회복시키려고만 해서는 안된다.

#### ○蟬蝎散 ○선갈산

- 治慢驚, 尙有陽證, 用此截風.
- 만경풍인데도 양증이 있는 경우에 이 약으로 풍사를 꺾는다.
- 全蝎 七箇, 蟬退 二十一箇, 南星 一箇, 甘草 二分半.
- 전갈 7개, 선퇴 21개, 남성 1개, 감초 2.5푼.
- 右麤末, 每一錢, 入薑三棗二, 水煎服.
- 이상을 거칠게 가루 낸 후 1돈씩 생강 3조각과 대조 2개를 넣고 물에 달여 먹인다.

#### ○太乙保生丹 ○태을보생단

- 治慢驚, 尙有陽證者.
- 만경풍인데도 양증이 있는 경우를 치료한다.
- 全蝎(全者) 十四箇, 白附子(生用)、殭蠶(炒)、牛膽南星、蟬殼、琥珀、防風、朱砂 各一錢, 麝香 五分.
- 전갈(전체가 온전한 것) 14개, 백부자(생것을 쓴다)、백강잠(볶는다)、우담남성、선각、호박、방풍、주사 각 1돈, 사향 5푼.
- 右末, 米糊丸梧子大, 金箔爲衣, 每一二丸, 薄荷湯化下.
- 이상을 가루 낸 후 쌀로 쑨 풀에 개어 오자대로 환을 빚고 금박을 입힌다. 1-2환씩 박하탕에 녹여 먹인다.

#### ○釣藤飲 ○조등음

- 治吐瀉, 脾虛生風, 欲成慢驚.
- 구토와 설사로 비토가 허해져 풍사가 생기고 만경풍이 되려는 경우를 치료한다.
- 釣鉤藤 五分, 蟬退(去頭足翅)、白殭蠶(炒)、人蔘、麻黃(去節)、防風、天麻

- ・蝎尾(炒) 各二分, 川芎、甘草(炙) 各一分.
- 조구등 5푼, 선퇴(머리와 발과 날개는 버린다)·백강잠(볶는다)·인삼·마황(마디를 제거한다)·방풍·천마·갈미(볶는다) 각 2푼, 천궁·감초(살짝 볶는다) 각 1푼.
- 右剉, 水煎服. ○虛寒, 加附子炮一分.
- 이상을 썰고 물에 달여 먹인다. ○허한에는 부자(습지에 싸서 굽는다) 1푼을 더해 쓴다.

○溫白丸 ○온백환

- 治慢驚風, 尙有陽證.
- 만경풍인데도 양증이 있는 경우를 치료한다.
- 白殭蠶(炒)·白附子(生)·南星(炮) 各一兩, 天麻 五錢, 全蝎(炒) 一錢.
- 백강잠(볶는다)·백부자(생것)·남성(습지에 싸서 굽는다) 각 1냥, 천마 5돈, 전갈(볶는다) 1돈.
- 右末, 麪糊丸菉豆大, 生薑米飲下二三十丸.
- 이상을 가루 낸 후 밀가루로 쏘 푼에 개어 녹두대로 환을 빚는다. 생강으로 쏘 미음으로 20-30환을 먹인다.

○轉驚丸 ○전경환

- 治小兒脾氣虛弱, 泄瀉瘦恹, 冷疳洞泄, 及嘔吐轉成慢驚, 身冷瘈瘲等症.
- 비장의 기운이 허약한 아이가 설사로 훌쩍하게 여위고 냉감(冷疳)이나 동설(洞泄) 및 심한 구토로 만경풍이 되어 몸통이 서늘하며 경련하는 증상 등을 치료한다.
- 人蔘、防風、白附子(炮)·白殭蠶(炒)·全蝎(炒) 各一錢, 南星(炮)·天麻 各



二錢.

- 인삼、방풍、백부자(볶는다)、백강잠(볶는다)、전갈(볶는다) 각 1돈, 남성(습지에 싸서 굽는다)、천마 각 2돈.
- 右末, 麪糊丸芡實大, 每一二丸, 薑湯化下.
- 이상을 가루 내고 밀가루를 넣어 쏘 풀에 개어 검실대로 환을 빚는다. 1-2환씩 생강탕에 녹여 먹인다.

#### ◦南星飲 ◦남성음

- 治慢驚, 脾困痰盛, 不思乳食.
- 만경풍에 비장이 노곤하여 가래가 심하고 젖이나 음식 생각이 없는 경우를 치료한다.
- 大南星 一箇(炒赤), 冬瓜仁、白扁豆(薑炒) 各三錢.
- 큰 남성 1개(빨강게 볶는다), 동과인、백편두(생강즙에 축여 볶는다) 각 3돈.
- 右麤末, 每一二錢, 薑二片, 防風少許, 同煎服.
- 이상을 거칠게 가루 낸 후 1-2돈씩 생강 2조각과 방풍을 조금 넣고 함께 달여 먹인다.

#### ◦至聖保命丹 ◦지성보명단

- 治急慢驚風, 及胎驚天弔.
- 급경풍、만경풍 및 태경(胎驚)과 천조풍을 치료한다.
- 南星(炮) 三錢, 白附子(炮)、天麻、蟬殼(去頭足翅)、白殭蠶(炒)、防風 各二錢, 全蝎 十四箇, 麝香 五分.
- 남성(습지에 싸서 굽는다) 3돈, 백부자(습지에 싸서 굽는다)、천마、선각(머리와 다리와 날개를 버린다)、백강잠(볶는다)、방풍 각 2돈, 전갈 14개, 사향 5푼.

- 右末, 飯丸梧子大, 朱砂爲衣, 每一丸, 薄荷湯化下.
- 이상을 가루 낸 후 밥알에 이겨 오자대로 환을 빚고 주사를 곁에 입힌다. 1환씩 박하탕에 녹여 먹인다.

#### ○千金散 ○천금산

- 治急慢驚風, 痰喘雖至危, 但灌藥下咽, 卽活.
- 급경풍 · 만경풍을 치료한다. 담천(痰喘)으로 매우 위중한 상태라도 이 약을 입에 흘려 넣어 목구멍을 넘기면 곧 살아난다.
- 黃連、天麻、朱砂 各四分, 全蝎(炒)、白殭蠶(炒) 各三分, 膽星、甘草 各二分, 牛黃、龍腦 各六厘.
- 황련 · 천마 · 주사 각 4푼, 전갈(볶는다) · 백강잠(볶는다) 각 3푼, 우담남성 · 감초 각 2푼, 우황 · 용뇌 각 0.6푼.
- 右末, 每一二分, 薄荷燈心湯調下.
- 이상을 가루 내고 1-2푼씩 박하와 등심 달인 물에 타서 먹인다.

#### ○星香散 ○성향산

- 治急慢驚風, 搐搦竄視涎潮.
- 급경풍 · 만경풍으로 축닉이 생기며 눈이 돌아가고 끈적한 침이 흐르는 증상을 치료한다.
- 南星(炮) 二錢半, 木香、橘紅 各一錢, 全蝎 二箇.
- 남성(습지에 써서 굽는다) 2.5돈, 목향 · 곽홍 각 1돈, 전갈 2개.
- 右麤末, 每一二錢, 入薑一片, 水煎頻灌, 大便去涎, 卽愈.
- 이상을 거칠게 가루 낸 후 1-2돈씩 생강 1조각을 넣고 물에 달여 자주 입에 흘려 넣어준다. 대변으로 끈적한 것이 나오면서 곧 좋아진다.

○三味天漿子散 ○삼미천장자산

- 治慢驚風搐搦.
- 만경풍으로 축닉이 생긴 것을 치료한다.
- 天漿子、白殭蠶、全蝎 各三枚.
- 천장자、백강잠、전갈 각 3개.
- 右細末, 每一字, 薄荷煎湯調下.
- 이상을 잘게 가루 내고 1자씩 박하 달인 물에 타서 먹인다.

○備急丸 ○비급환

- 治急慢驚風.
- 급경풍、만경풍을 치료한다.
- ○五月五日, 取白頸蚯蚓, 不拘多少, 去泥, 焙乾爲末, 加朱砂等分, 糊丸菉豆大, 朱砂爲衣, 每一丸, 白湯下. ○一法, 取蚯蚓, 以竹刀中斷之, 看取急跳者, 治急驚, 慢跳者, 治慢驚, 各另研爛, 和朱砂末, 作丸菉豆大, 分二器貯之, 記而用之, 神妙.
- ○5월 5일에 흰색 환대가 있는 지렁이를 잡을 수 있는 만큼 잡아 진흙을 씻어내고 불에 찢어 말린 후 가루 낸다. 같은 양의 주사를 준비하고 가루를 풀에 개어 녹두대로 환을 빻은 후 주사를 겉에 입힌다. 1환씩 끓인 물로 먹인다. ○다른 방법. 지렁이를 잡아 대칼로 가운데를 자른다. 잘 살펴보아 빠르게 꿈틀대는 놈은 급경풍에 쓰고, 느리게 꿈틀대는 놈은 만경풍에 쓴다. 각각 별도로 짓찧어 주사가루와 섞은 후 녹두대로 환을 빻는다. 2개 그릇에 나누어 담고 잘 적어두었다가 상황에 맞게 쓴다. 효과가 아주 신묘하다.

○靈脂丸 ○영지환

- 治急慢驚風, 痰在喉膈, 乳汁藥物, 並不吞下.
- 급경풍 · 만경풍으로 가래가 목구멍부터 가슴까지 있어서 젖이나 약을 모두 삼키지 못하는 경우를 치료한다.
- 五靈脂(炒水飛) · 白附子 · 木香 · 殭蠶 各一分, 全蝎 半分, 朱砂 一錢, 南星 五錢.
- 오령지(볶은 후 수비한다) · 백부자 · 목향 · 백강잠 각 1푼, 전갈 0.5푼, 주사 1돈, 남성 5돈.
- 右細末, 醋煮生半夏糊丸梧子大, 每二三丸, 薑湯化灌.
- 이상을 잘게 가루 낸다. 생반하를 넣어 달인 식초를 넣은 꿀에 개어 오자대로 환을 빚는다. 2-3환씩 생강탕에 녹여 입에 흘려 넣어준다.

#### ○安神散 ○안신산

- 治急慢驚風搐搦.
- 급경풍 · 만경풍으로 축닉이 생긴 경우를 치료한다.
- ○全蝎四箇, 塘水浸一宿, 用南星一箇, 開一竅, 入蝎在內, 以南星末蓋口, 麪包, 火煨赤色, 埋土中一宿去火毒, 取出去南星, 用全蝎爲末, 每一字, 磨刀水調服.
- ○전갈 4개를 연못에 하룻밤 담가놓는다. 남성 1개에 구멍을 하나 내어 전갈을 속에 집어넣고 남성이가루로 입구를 덮은 후 밀가루 반죽으로 싸서 불에 빨갛게 굽는다. 흙 속에 하룻밤 묻어 화독을 제거한 후 남성을 벗기고 전갈만 가루 낸다. 1자씩 칼 같은 물에 타서 먹인다.

#### ○奪命散 ○탈명산

- 大能控風痰, 不問急慢驚風, 痰塞咽喉, 其響如潮, 名曰潮涎, 百藥不能過咽, 命在須臾, 但用此藥入喉, 痰即墜下, 功有萬全, 奪天地之造化也.
- 풍담을 잘 제어한다. 급경풍 · 만경풍을 불문하고 가래가 목구멍을 막아 소리가

마치 바다물의 조수와 같아 '조연(潮涎)'이라고 부른다. 모든 약을 목으로 넘기지 못하여 목숨이 경각에 달렸을 때 단지 이 약을 먹이면 가래가 즉시 내려가니 확실한 효과가 있다. 자연의 섭리까지 바꾼다는 의미이다.

- 靑礞石 一兩(同焰硝五錢, 入礞內火煨, 待硝盡, 候礞石如金色, 取用.)
- 청몽석 1냥(염초 5돈과 함께 솔에 넣고 불로 달구어 염초가 없어지고 청몽석이 금빛 같이 된 것을 쓴다)
- 右末, 蒸餅丸菉豆大, 每二丸, 急驚, 薄荷湯下, 慢驚, 木香湯下, 但礞硝雖能利痰, 非胃家所好, 故以木香佐之, 能裹痰隨大便出, 而無糞來, 不動臟腑, 始知藥妙.
- 이상을 가루 낸 후 증병과 섞어 녹두대로 환을 빚는다. 2환씩 먹이되 급경풍에는 박하탕으로, 만경풍에는 목향탕으로 먹인다. 청몽석과 염초가 비록 담을 뚫어주긴 하지만 위가 약한 사람에게는 좋지 않다. 그러므로 목향을 좌약(佐藥)으로 삼아 담을 감싼 채 대변으로 내보내면서도 똥은 나오지 않아 장부를 자극하지 않으니 이것으로 약의 오묘함을 알 수 있다.

按. 奪命散治痰之功, 奪天地之造化者, 乃古人累試神驗之言也. 然遇<sup>6</sup>此症, 用此劑, 不爲不多, 而卒無應效, 豈古人之言不足信而然耶, 抑古方礞石煨出如金色, 而今之煨者色黑, 故藥有真假而然耶. 姑記此以俟後賢也.

〔안어〕 탈명산의 가래를 치료하는 효능이 자연의 섭리까지 바꾼다는 것은 바로 옛 사람이 누차 시험해보고 신호한 경험을 말한 것이다. 그러나 이 증상을 마주했을 때 이 약을 쓴 경우가 적지 않건만 결국 효과가 없었다. 옛 사람의 말이 거짓이라 그런 것인가, 아니면 옛 방서에서는 청몽석을 달궈 꺼내면 금색이라고 했으나 지금 달궈보면 검은색이 되는 것으로 보아 약재의 품질이 달라 그런 것인가. 우선 이 경험을 기록해 두고 후세의 현인을 기다린다.

慢驚已作, 外無八候陽證, 而吐瀉不止, 身體口鼻氣俱冷者, 以人參、乾薑、附子、肉桂、川烏、硫黃之類, 專一回陽也.

만경풍이 이미 시작되었고 겉으로 8후와 양증이 없으면서 구토와 설사가 멎지 않고 몸통과 입과 코의 숨이 모두 서늘한 경우에는 인삼、건강、부자、육계、천오、유황 같은 약재로 오로지 양기를 회복시키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加味朮附湯 ◦가미출부탕

- 治吐瀉後，變成慢驚，或因臟寒洞泄得者.
- 구토와 설사 후에 만경풍으로 악화된 경우 혹은 오장이 차가워 동설(洞泄)하는 경우를 치료한다.
- 附子(炮)、白朮 各一兩, 肉豆蔻(煨) 二枚, 木香、甘草(炙) 各五錢.
- 부자(습지에 싸서 굽는다)、백출 각 1냥, 육두구(젓불에 묻어 굽는다) 2개, 목향、감초(살짝 볶는다) 각 5돈.
- 右麤末, 每一二錢, 入薑棗, 煎服.
- 이상을 거칠게 가루 낸 후 1-2돈씩 생강과 대조를 넣고 물에 달여 먹인다.

◦烏蝎散 ◦오갈산

- 治慢驚純陰證, 吐瀉不止.
- 만경풍으로 음증만 있으며 구토와 설사가 멎지 않는 증상을 치료한다.
- 人參、白朮、白茯苓、川烏(炮)、甘草(炙)、南星(炮) 各一錢.
- 인삼、백출、백복령、천오(습지에 싸서 굽는다)、감초(살짝 볶는다)、남성(습지에 싸서 굽는다) 각 1돈.
- 右剉, 入薑三棗二, 水煎服.
- 이상을 썬 후 생강 3조각과 대조 2개를 넣고 물에 달여 먹인다.

◦釀乳方 ◦양유방

- 治慢驚風, 能溫補脾胃.
- 만경풍을 치료한다. 이 약은 비위를 따뜻하게 보해준다.
- 人參、木香、藿香、沈香、陳皮、神麴(炒)、麥芽(炒) 各一錢, 丁香 五分.
- 인삼、목향、곽향、침향、진피、신국(볶는다)、맥아(볶는다) 각 1돈, 정향 5푼.
- 右剉, 入薑五, 紫蘇五葉, 棗三枚, 同煎, 乳母食後, 須去乳汁盡, 方取服之, 卽仰臥霎時, 次令兒吮數口不可過, 如嘔定, 繼服參朮半夏湯、補脾益眞湯, 以溫補脾胃, 此良法也.
- 이상을 썬 후 생강 5조각과 자소엽 5개와 대조 3개를 넣고 함께 달인다. 유모가 밥을 먹은 후 반드시 젖을 다 짜버린 후에 약을 먹게 하고, 즉시 하늘을 보고 잠깐 누워있게 한다. 그 다음 아이에게 몇 모금 젖을 빨게 하되 너무 많이 먹지 않도록 한다. 트림을 하면 이어서 삼출반하탕、보비익진탕을 먹여 비위를 따뜻하게 보해준다. 이것이 좋은 방법이다.

#### ◦前朴散 ◦전박산

- 治心腹結氣, 或嘔噦吐瀉, 腹脹痛驚哭.
- 배의 결기(結氣) 혹은 구토와 설사를 하며 배가 똥똥하고 아파하면서 놀락 우는 증상을 치료한다.
- 前胡、白朮、人參、陳皮、良薑、藿香、甘草、厚朴 各等分.
- 전호、백출、인삼、진피、양강、곽향、감초、후박 각각 같은 양.
- 右剉, 每服三錢, 水一盞煎七分, 稍熱空心服.
- 이상을 썬 후 3돈씩 물 1잔에 넣고 7할이 되도록 달여 조금 뜨겁게 빈속에 먹인다.

#### ◦六柱散 ◦육주산

- 治嘔吐泄瀉, 胃虛脾慢, 手足俱冷, 六脈沈微.
- 구토와 설사로 비위가 허약해지고 손발이 차가우며 육맥이 침미(沈微)한 경우를 치료한다.
- 人蔘、白茯苓、附子(炮)、木香、肉荳蔻(煨)、白朮 各半兩, 甘草 一錢半.
- 인삼、백복령、부자(습지에 싸서 굽는다)、목향、육두구(젓불에 묻어 굽는다)、백출 각 0.5냥, 감초 1.5돈.
- 右剉, 每二錢, 水一盞, 薑三棗一, 煎七分, 不拘時溫服.
- 이상을 썬 후 2돈씩 생강 2조각과 대조 1개를 넣고 물 1잔이 7할이 되도록 달인다. 아무 때나 따뜻하게 먹인다.

○固眞湯 ○고진탕

- 治吐瀉痢後, 胃虛脾慢, 四肢口鼻, 氣冷沈困, 不省人事.
- 구토와 설사나 이질을 앓은 후에 비위가 허약해져 사지와 입과 코의 숨이 서늘하며 축 까라져 인사불성된 증상을 치료한다.
- 人蔘、附子、白茯苓、白朮 各二錢五分, 山藥(炒)、黃芪(蜜炙)、肉桂(去皮)、甘草(煨) 各二錢.
- 인삼、부자、백복령、백출 각 2.5돈, 산약(볶는다)、황기(꿀을 묻혀 굽는다)、육계(껍질을 벗긴다)、감초(젓불에 묻어 굽는다) 각 2돈.
- 右剉, 每二錢, 水一盞, 薑三棗二, 煎七分, 空心服.
- 이상을 썬 후 2돈씩 생강 3조각과 대조 2개를 넣고 물 1잔이 7할이 되도록 달여 빈속에 먹인다.

○金液丹 ○금액단

- 治久寒痼冷, 及吐痢日久, 身冷脈微, 欲成慢驚.



- 오랜 한증이 고질병이 된 경우 및 구토와 설사를 오랫동안 하여 몸통이 차갑고 맥이 미약하며 만경풍이 되려는 경우를 치료한다.
- ○石硫黃(明潔不雜沙石者)十兩, 打碎以絹袋盛, 無灰酒煮三伏時, 細末, 每一兩, 用蒸餅一兩, 湯浸去水, 脈<sup>7</sup>和丸梧子大, 量兒大小, 米飲化服.
- 석유황(투명하여 모래나 돌이 섞이지 않는 것) 10냥을 부수어 비단주머니에 담고 무회주에 3복시 동안 끓인 후 잘게 가루 낸다. 뜨거운 물에 데쳤다가 물기를 뺀 증병(蒸餅) 1냥과 석유황 가루 1냥을 섞어 오자대로 환을 빚은 후 아이의 몸집을 가늠하여 미음에 녹여 먹인다.

#### ○硫附丸 ○유부환

- 治慢驚純陰症, 身面冰冷.
- 만경풍에 음증만 있어서 몸통과 얼굴이 얼음처럼 서늘한 증상을 치료한다.
- 生附子(尖) 二箇, 熟硫黃 一錢, 蜆硝 七介.
- 생부자(뽕족한 부분) 2개, 숙유황 1돈, 갈초 7개.
- 右末, 薑汁糊丸梧子大, 量宜加減, 米飲化下.
- 이상을 가루 내고 생강즙을 넣어 쏜 풀에 개어 오자대로 환을 빚는다. 아이의 몸집에 따라 가감하여 미음에 녹여 먹인다.

#### ○雙金丸 ○쌍금환

- 治吐瀉日久, 脾胃虛損, 手足厥冷, 精神昏塞, 多睡露睛, 口鼻氣冷, 欲成慢驚.
- 구토와 설사를 오랫동안 계속하여 비위가 허약해지고 손발 끝이 서늘하며 정신이 혼미하고 계속 잠을 자면서 눈알이 드러나며 입과 코의 숨이 서늘한 증상을 보이며 만경풍이 되려는 경우를 치료한다.
- 金液丹, 與青州白元子, 等分同研, 生薑米飲調灌之. 唯多服乃效, 雖至危者, 往

往死中得生, 十救八九. 沈存中云, 金液丹, 治吐痢, 垂絕服之, 得活, 須多服乃驗, 眞小兒吐瀉之妙劑也.<sup>8</sup>

- 금액단과 청주백원자 각각 같은 양을 갈아 생강으로 쏘 미음에 타서 입에 흘려 넣어준다. 많이 먹여야만 효과가 있다. 매우 위중한 경우에도 이따금 죽음에서 되살리기도 하며 열에 여덟아홉은 살린다. 심존중이 이르기를 '금액단은 구토와 설사를 치료하니 목숨이 끊어지려 할 때도 이 약을 먹이면 살릴 수 있다. 반드시 많이 먹여야 효험이 있다.'고 했으니 참으로 아이의 구토와 설사를 치료하는 신묘한 약이다.

#### ○青州白元子 ○청주백원자

- 治風痰壅盛, 嘔吐眩暈, 及小兒驚風.
- 풍담(風痰)이 꼭 막혀서 구토하며 어지러워하는 증상 및 아이의 경풍을 치료한다.
- 半夏 七兩, 南星 三兩, 白附子 二兩, 川烏 五錢.
- 반하 7냥, 남성 3냥, 백부자 2냥, 천오 5돈.
- 右生爲末, 清水浸, 春五夏三, 秋七冬十日, 朝夕換水, 候日數足, 乃取納生絹袋中, 濾過其滓, 再研濾過, 以盡爲度, 澄清去水, 曬乾, 又爲末, 以糯米粥清和丸菉豆大, 薑湯吞下三五十丸, 小兒量宜化服.
- 이상을 수치를 하지 않고 날 것으로 가루 낸 후 맑은 물에 봄에는 5일, 여름에는 3일, 가을에는 7일, 겨울에는 10일 담그고 아침저녁으로 물을 바꿔준다. 날 수가 차기를 기다려 고운 망사주머니에 넣고 찌꺼기를 걸러낸 후 다시 갈아 찌꺼기가 나오지 않을 때까지 걸러낸다. 맑은 옷물을 따라내고 별에 말려 다시 가루낸다. 이 가루를 찹쌀죽의 옷물에 개어 녹두대로 환을 빚고 생강탕으로 30-50환을 삼키게 한다. 아이의 몸집을 가늠하여 필요하면 녹여 먹인다.

慢驚元氣虛損, 而至於昏憤者, 急灸百會穴, 痰聲在喉間, 非痰也, 乃脾虛不能攝涎而似痰, 灸之即下.

만경풍으로 원기가 손상되어 혼절하는 지경에 이른 경우에는 급히 백회혈에 뜸을 뜬다. 목에서 가래 소리가 나는데 이는 가래가 아니라 비장이 허약해져 끈적이는 침을 잡아주지 못해 가래처럼 된 것이다. 뜸을 뜨면 곧 내려간다.

古方, 因吐瀉得者, 理中湯, 加木香, 或五苓散, 因臟寒洞瀉者, 加味朮附湯, 因下積聚轉成者, 木香調氣散, 因外感寒邪得者, 先與桂枝解肌湯, 因夏月脾胃伏熱, 大吐瀉得者, 當解暑熱, 不可專一回陽. ○吐瀉後, 欲成慢驚風, 半陰半陽症, 用南星(炮)・白朮(土炒)等分, 細末, 取雀瓮研取汁, 和丸芡實大, 釣藤煎湯或薄荷煎湯化服. ○范文正公家傳方, 生附子・人參等分, 濃煎, 候冷服以治慢驚. 又硫黃研如粉一二錢, 生薑米飲調服. 蓋小兒慢驚, 皆由於脾氣大虛, 無陽之候, 非若急驚暴熱無陰者, 溫寒燥濕, 行氣健脾, 適合其宜也.

옛 방서에 이렇게 쓰여 있다. '구토와 설사로 만경풍이 되면 이증탕에 목향을 더해 쓰거나 오령산을 쓴다. 오장이 차가워 동설하다가 만경풍이 되면 가미출부탕을 쓴다. 적취에 하법을 쓰다가 만경풍이 되면 목향조기산을 쓴다. 한사에 외감되어 만경풍이 되면 우선 계지해기탕을 쓴다. 여름철 비위에 잠복한 열사로 크게 구토하며 설사하다가 만경풍이 되면 마땅히 서열(暑熱)을 풀어주어야지 오로지 양기를 회복시키려고만 하면 안된다.' ○구토와 설사 후에 만경풍이 되려는 경우는 반음반양증(半陰半陽症)이다. 남성(습지에 싸서 굽는다)・백출(흙과 함께 볶는다) 각각 같은 양을 잘게 가루 낸 후 작옹(雀瓮) 간 좁에 개어 검실대로 환을 빚고 조구등 달인 물이나 박하 달인 물에 녹여 먹인다. ○범중엄 집안에 전해지는 방서에 생부자와 인삼 각각 같은 양을 걸쭉하게 달여 식힌 후 먹이면 만경풍을 치료한다고 하였다. 또, 곱게 간 유향 1-2돈을 생강으로 썬 미음에 타서 먹인다고 하였다. 대체로 아이의 만경풍은 모두 비기가 크게 허해 생기는 것으로 양증이 나타나지 않는다. 급경풍으로 갑자기 열이 나면서 음증이 없는 경우와 같지 않으니 한기를 덥히고 습기를 말리는 것과 기운을 소통시키고 비장을 튼실하게 하는 것을 상황에 따라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慢驚不治證, 四肢厥冷, 吐瀉不止, 面黯神慘, 胃痛鴉聲, 兩脇動氣, 口生白瘡, 髮直搖頭, 眼睛不轉, 手足牽引者, 皆不治.

만경풍의 불치증. 사지 끝이 서늘한 것, 구토와 설사가 멎지 않는 것, 얼굴이 검게 되면서 정신이 혼미한 것, 위가 아프면서 거위소리를 내는 것, 양쪽 옆구리가 꿈틀대는 것, 입에 하얀 창이 생기는 것, 머리카락이 곤두서면서 머리가 떨리는 것, 눈알이 움직이지 않는 것, 손발이 당기는 것은 모두 불치증이다.

按. 古人云, 急驚, 十無一死, 慢驚, 百無一生, 此明驗之言, 小兒吐瀉, 已極虛脫, 脾虛生風, 已成慢驚, 則無可奈何, 若欲成未成之時, 急用峻溫驟補, 使脾土旺而肺金生, 則肝木之風自平, 庶免慢驚之患, 首尾用四君子湯加減, 如肝虛生風多困, 加半夏麴(炒)、沒石子等分, 冬瓜仁少許, 薑棗煎服. 腹痛驚啼身冷, 手足微有痠癢, 睡臥不穩, 加肉豆蔻、乾薑、釣藤等分, 全蝎、白殭蠶、白附子、木香、桂心半減, 煎用而全在臨證意會耳. 古方中, 麝香開竅, 龍腦、輕粉下涎, 朱砂涼心, 爲純陽實熱者, 設虛者, 專要斟酌用之, 推此而治, 庶或可及矣.

[안어] 옛 사람이 '급경풍은 열에 하나도 죽지 않지만, 만경풍은 백에 하나도 살지 못한다.'고 하였으니 이 말은 분명히 경험하고 하는 말이다. 아이가 구토와 설사로 이미 몸이 허약해졌을 때는 비토가 허하여 풍증이 생긴다. 이미 만경풍이 되었다면 어떻게 할 수 없으나 아직 만경풍이 되지는 않았다면 따뜻하게 보해주는 성질이 강한 약을 급히 써야 한다. 비토가 왕성해지고 폐금이 살아나게 되면 간목인 풍증이 저절로 평온해져 만경풍에 걸릴 위험에서 벗어날 것이다. 시종일관 사군자탕을 가감하여 써야 한다. 간장이 허하여 풍증이 생기고 자주 피곤한 경우에는 반하국(볶는다)、물석자 각각 같은 양과 동과인을 약간 더한 후 생강과 대조를 넣고 물에 달여 먹인다. 배가 아프고 놀라 울며 몸통이 서늘하고 손발이 약간 떨리며 편히 잠들지 못하는 경우에는 육두구、건강、조구등 각각 같은 양과 전갈、백강잠、백부자、목향、계심 각각 절반을 달여서 쓰되, 치료결과는 모두 증상을 이해하는 정도에 달려있다. 옛 방서에 '사향은 구구(九竅)를 열어주고, 용뇌와 경분은 담연을 내려주며, 주사는 가슴

을 시원하게 한다.'고 하였으나 양증만 있으면서 실열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허한 경우에는 상태에 따라 가늠하여 써야 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치료한다면 아마 옛 방서의 뜻에 미칠 수 있을 것이다.

洪尙書〔玄<sup>9</sup>輔〕女, 生纔五六月, 暴吐暴瀉, 一兩日, 元氣大陷, 用白朮散, 連服三貼, 煩渴身熱嘔吐泄瀉之證, 倍焉, 又用理中湯, 加丁香、木香, 身體口氣轉冷, 而眼視上竄, 手足微搐, 又服參附煎湯, 終無應. 諸醫皆以爲暑熱所傷, 將用月經. 余曰, 吐瀉之餘, 脾虛生風, 欲成慢驚, 溫補之劑, 尚恐不及, 況以陰冷之藥攻之乎. 金液丹, 如法製用, 初服時, 藥物從穀道直出, 連服芡實大三十餘丸, 其夜手足微溫, 胃氣漸生而痊.

〔의안〕 상서(尙書) 홍헌보(洪鉉輔, 1680-1740)의 딸이 태어난 지 겨우 5-6개월인데 심하게 구토와 설사를 하여 1-2일 만에 원기가 크게 무너졌다. 백출산 3첩을 연달아 먹었더니 번갈아 신열, 구토, 설사 증상이 두 배로 되었고, 다시 이중탕에 정향, 목향을 더해 썼더니 몸통과 숨이 오히려 서늘해지면서 눈을 위로 치켜뜨고 손발이 조금 오그라들었다. 또다시 인삼과 부자를 달여 먹었지만 끝내 반응이 없었다. 의원들이 모두 더위에 상했다고 여기면서 이번에는 월경수를 쓰려고 하였다. 나는 "구토와 설사를 한 후에는 비토가 허해져 풍증이 생기는 법이니 만경풍이 되려고 하는 상태이다. 따뜻하게 보해주는 성질의 약으로도 오히려 부족할까 걱정해야 하는데, 하물며 서늘한 성질의 약으로 병을 공격해서야 되겠는가."라고 말하였다. 금액단을 평상시처럼 법제하여 썼더니 처음 먹일 때는 약이 그대로 대변으로 나왔고, 검실만한 환으로 30환 정도 연달아 먹었더니 그날 밤에 손발이 조금씩 따뜻해지고 위기(胃氣)가 점차 살아나며 나왔다.

一小兒傷於暑熱, 身熱煩渴, 腹脹, 小便不利者, 殆過二旬. 余曰, 暑熱燦人元氣, 況小兒乎, 身熱煩渴等證, 胃<sup>10</sup>虛津燥之致也. 用錢氏白朮散, 而半減藿香、木香, 加蓮肉、白扁豆, 以補脾生津, 則肌熱自息, 小便亦且<sup>11</sup>自利矣. 有一醫曰, 時當炎暑,

身熱煩渴, 決知其非虛證也. 主家信其言, 用月經地龍飲之類, 半日之間, 吐瀉大作, 身熱倍加, 呼吸急促, 煩悶不安, 轉成慢驚而不救焉.

[의안] 어떤 아이가 무더위에 상하여 몸통이 뜨겁고 번갈과 복창이 있으며 소변이 잘 나오지 않은 지 무려 20일이 지났다. 내가 "무더위는 사람의 원기를 녹여버리니 아이들에게는 어떻겠습니까. 몸통이 뜨겁고 번갈 등의 증상은 비장이 허하여 진액이 말라버렸기 때문입니다. 전씨백출산에서 곽향·목향은 절반으로 줄이고 연육·백편두를 더하여 비장을 보하고 진액이 생기게 한다면 피부의 열이 저절로 떨어지며 소변도 저절로 잘 나오게 될 것입니다."라고 말하였다. 어떤 의원이 "요새 날씨가 무덥기 때문에 몸통이 뜨겁고 번갈이 있는 것이지 결단코 허증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합니다."라고 말하였다. 집안사람들은 그 의원의 말을 믿고 월경수나 지룡음 같은 약을 썼다. 그랬더니 반나절 만에 구토와 설사가 심하게 생기고 몸통이 몇 배나 뜨거워지며 호흡이 빨라지고 답답하여 가만히 있지 못하더니 결국 만경풍으로 악화되어 목숨을 구하지 못했다.

1. 中 : 日 ※규장각본 ←

2. 渴 : \*竭 ※규장각본 ←

3. 煩渴 : ※규장각본 ←

4. 太便泄 : 便瀉 ※규장각본 ←

5. 글자없음 : \*○ ※문맥상 ←

6. 遇 : 過 ※규장각본 ←

7. 脈 : \*餅 ※의학강목 ←

8. 원본에는 주치증과 같이 써있으나 가독성을 위하여 임의로 나누었다. ←

9. 玄 : \*鉉 ※규장각본 ↩

10. 胃 : \*脾 ※규장각본 ↩

11. 且 : 必 ※규장각본 ↩

## 慢脾風 만비풍

慢脾風之候, 面青額汗, 舌短頭低, 眼合不開, 睡中搖頭, 吐舌頻嘔, 噤口咬牙, 手足微搐而不收, 或身冷身溫而其脈沈微, 陰氣極盛, 胃氣極虛, 總歸虛處, 惟脾所受, 故曰脾風. 若逐風則無風可逐, 治驚則無驚可療, 但脾間痰涎虛熱往來矣. 眼合者, 脾困神迷也, 世所謂慢脾難療者, 如燈無油漸見昏滅, 錢氏用雙金丸, 截風回陽也.

만비풍의 징후는 얼굴이 파래지며 이마에 땀이 나고, 혀가 짧아지며 머리를 떨구고, 눈을 뜨지 않고 계속 감고 있으며, 자면서 머리를 떨고, 혀를 늘어뜨리며 자주 구역질을 하고, 입을 악다물며 이를 갈고, 손발이 살짝 오그라들면서 가누지 못하는 것이다. 몸은 서늘한 경우도 있고 따뜻한 경우도 있으며 맥은 침미(沈微)하다. 음기가 아주 왕성해지면 위기는 매우 허해지는데 사기는 모두 허한 부분으로 흘러가게 되니 오직 비장만 사기를 받게 된다. 그러므로 비풍(脾風)이라고 하는 것이다. 풍사를 몰아내려고 해도 몰아낼 풍사가 없으며, 경기를 치료하려고 해도 치료할 경기가 없기 때문에 결국 비장에 담연과 허열이 돌아다니게 되는 것이다. 눈을 감는 것은 비장이 노곤하여 정신이 혼미해지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만비풍은 치료하기 어렵다'고 하는 것은 마치 등잔에 기름이 없어지면 점점 깜깜해져 불이 꺼지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전씨는 쌍금환을 써서 풍사를 꺾고 양기를 회복시켰다.

### ○生附四君子湯 ○생부사군자탕

- 治慢脾風, 助脾回陽.
- 만비풍을 치료한다. 비장을 돕고 양기를 회복시킨다.
- 人參、白朮、白茯苓、生附子、甘草(炙) 各一錢.
- 인삼、백출、백복령、생부자、감초(살짝 볶는다) 각 1돈.
- 右剉, 入薑五, 水煎灌下, 若手足煖而甦省, 卽止.



- 이상을 썬 후 생강 5조각을 넣고 물에 달여 입에 흘려 넣는다. 손발이 따뜻해지면서 정신을 차리면 약을 멈춘다.

◦蝎附散 ◦갈부산

- 治慢脾風, 回陽豁痰.
- 만비풍을 치료한다. 양기를 회복시키고 담을 뚫어준다.
- 附子(炮) 二錢, 南星(炮)、白附子(炮)、木香 各一錢, 全蝎 七枚(去毒).
- 부자(습지에 싸서 굽는다) 2돈, 남성(습지에 싸서 굽는다)、백부자(습지에 싸서 굽는다)、목향 각 1돈, 전갈(독을 제거한다) 7마리.
- 右剉, 取一錢, 入薑五, 水煎服.
- 이상을 썬 후 1돈씩 생강 5조각을 넣고 물에 달여 먹인다.

◦補脾益眞湯 ◦보비익진탕

- 治慢脾風.
- 만비풍을 치료한다.
- 丁香、木香、訶子皮、陳皮、厚朴、草果(煨)、白朮、肉豆蔻(煨)、白茯苓、人參、桂枝、半夏、附子(炮)、甘草(炙) 各二分, 全蝎(炒) 一枚.
- 정향、목향、가자피、진피、후박、초과(젓불에 묻어 굽는다)、백출、육두구(젓불에 묻어 굽는다)、백복령、인삼、계피、반하、부자(습지에 싸서 굽는다)、감초(살짝 볶는다) 각 2푼, 전갈(볶는다) 1개.
- 右剉, 入薑二棗一, 水煎灌服, 訖令揉心下以助藥力.
- 이상을 썬 후 생강 2조각과 대조 1개를 넣고 물에 달여 입에 흘려 넣어준다. 먹인 후에 손으로 명치를 문질러 약의 효력을 도와주어야 한다.

◦黑附湯 ◦흑부탕

- 治慢脾風危急者.
- 만비풍으로 위급한 경우를 치료한다.
- 附子(炮) 三錢, 木香 一錢半, 白附子(炮) 一錢, 甘草(炙) 五分.
- 부자(습지에 싸서 굽는다) 3돈, 목향 1.5돈, 백부자(습지에 싸서 굽는다) 1돈, 감초(살짝 볶는다) 5푼.
- 右剉, 分二貼, 入薑五, 水煎服, 得手足溫蘇醒爲度.
- 이상을 썰어 2첩으로 나눈 후 생강 5조각을 넣어 물에 달여 먹인다. 손발이 따뜻해지고 정신을 차릴 때까지 한다.

◦白殭蠶丸 ◦백강잠환

- 治陽氣未甚虛脫, 風痰凝滯脾間.
- 양기가 심하게 소진되지 않았으면서 풍담이 비장에 응체된 경우를 치료한다.
- 南星(炮) 二錢, 白殭蠶(炒)、地龍(去土培乾)、全蝎(炒)、五靈脂(炒) 各一錢.
- 남성(습지에 싸서 굽는다) 2돈, 백강잠(볶는다)、지룡(흙을 털고 구워서 말린다)、전갈(볶는다)、오령지(볶는다) 各 1돈.
- 右末, 煮半夏麴爲糊丸麻子大, 每五六丸, 薑湯下.
- 이상을 가루 낸 후 반하국을 졸여서 만든 풀에 개어 마자대로 환을 빚고 5-6환씩 생강탕에 먹인다.

## 癇疾 간질

癇者, 卒然暈倒, 目瞪流涎, 神氣鬱勃, 四肢搐掣, 沈默昏憤, 似死似生, 其聲惡叫, 過後惺惺, 症似急驚, 驚則不吐沫, 癇則吐沫, 似剛瘥, 而瘥則一身強硬, 終日不醒, 癇則四體柔而醒. 有五臟癇, 又有風驚食三癇, 及陰陽兩癇, 治各不同焉.

간질은 갑자기 졸도하면서 눈을 부릅뜨고 끈적한 침을 흘리며 정신이 빙빙 돌고 사지가 당기며 소리를 내지 못하고 정신이 혼미해져 마치 죽은 것 같기도 하고 산 것 같기도 하며 괴상한 소리를 내는 것이다. 시간이 지나 정신이 들어서는 급경풍과 증상이 비슷한데 급경풍은 거품을 토하지 않지만 간질은 거품을 토한다. 또한 강치(剛瘥)와 증상이 비슷한데 강치는 온몸이 경직되어 종일 토록 깨어나지 못하지만 간질은 사지와 몸통이 부드럽고 시간이 지나면 깨어난다. 오장에 따른 간질이 있으며 풍간(風癇)·경간(驚癇)·식간(食癇)의 3간과 음간(陰癇)·양간(陽癇)도 있다. 치료법은 각각 다르다.

心癇卽羊癇, 聲如羊, 面赤目瞪, 吐舌, 心煩驚悸.

심간(心癇)은 양간(羊癇)이라고도 하는데, 내는 소리가 양과 비슷하기 때문이다. 얼굴이 빨강게 되며 눈을 부릅뜨고 혀바닥을 토하며 심번과 경계 증상을 보인다.

### ○鎮心丸 ○진심환

- 治心癇.
- 심간을 치료한다.
- 遠志、石雄黃、鐵粉、琥珀 各二錢, 辰砂 一錢, 麝香 五分.
- 원지、석웅황、철분、호박(琥珀) 각 2돈, 주사 1돈, 사향 5푼.
- 右細末, 棗肉丸黃豆大, 金箔爲衣, 麥門冬湯化下.

- 이상을 잘게 가루 낸 후 대조 과육에 개어 황두대(黃豆大)로 환을 빚고 금박을 입힌다. 맥문동 달인 물에 녹여 먹인다.

肝癇卽犬癇, 聲如犬, 面靑如藍, 屈指如數, 啼叫反折.

간간(肝癇)은 견간(犬癇)이라고도 하는데, 내는 소리가 개와 비슷하기 때문이다. 얼굴이 쪽빛처럼 파랗게 되며 숫자를 세는 것처럼 손가락을 구부리고 소리 지르며 울면서 몸을 뒤로 젖힌다.

#### ○散風丹 ○산풍단

- 治肝癇.
- 간간을 치료한다.
- 膽星 二錢, 羌活、獨活、防風、天麻、人蔘、荊芥穗、川芎、細辛、柴胡 各一錢.
- 우담남성 2돈, 강활、독활、방풍、천마、인삼、형개수、천궁、세신、시호 각 1돈.
- 右細末, 蜜丸梧子大, 每二丸, 紫蘇煎湯化下, 大者三四丸, 亦治剛瘓.
- 이상을 잘게 가루 낸 후 꿀에 개어 오자대로 환을 빚는다. 2환씩 자소엽 달인 물에 녹여 먹이며, 큰 아이는 3-4환을 먹인다. 강치(剛瘓)도 치료한다.

脾癇卽牛癇, 聲如牛, 面黃腹脹, 停積成癖自利.

비간(脾癇)은 우간(牛癇)이라고도 하는데, 내는 소리가 소와 비슷하기 때문이다. 얼굴이 누렇게 되며 배가 빵빵해지고, 체하면서 장벽(腸癖)이 되어 설사를 하게 된다.

#### ○妙聖丹 ○묘성단

- 治脾癇.

- 비간을 치료한다.
- 代赭石(煅醋淬七次)、雄黃、蝎梢、辰砂、杏仁 各二錢, 輕粉、麝香 各一字, 巴豆 二粒(去皮, 爲霜).
- 대자석(불에 달궈 식초에 담금질하기를 7차례 한다)、웅황、갈초、진사、행인 각 2돈, 경분、사향 각 1자, 파두 2알(껍질은 버리고 파두상으로 만든다).
- 右細末, 棗肉丸梧子大, 每一丸, 杏仁煎湯化下.
- 이상을 잘게 가루 낸 후 대조 과육과 섞어 오자대로 환을 빚는다. 1환씩 행인 달인 물에 녹여 먹인다.

肺癇卽鷄癇, 聲如鷄, 面白反視, 吐沫潮涎, 驚掣.

폐간(肺癇)은 계간(雞癇)이라고도 하는데, 내는 소리가 닭과 비슷하기 때문이다. 얼굴이 하얗게 되고 눈이 뒤집히며 거품을 토하면서 끈적한 침을 규칙적으로 흘리고 경기를 일으키며 경직한다.

#### ○天星丸 ○천성환

- 治肺癇.
- 폐간을 치료한다.
- 膽星、全蝎、蟬退 各二錢半, 防風、白附子(炮)、天麻、白殭蠶(炒) 各一錢半, 麝香 五分.
- 우담남성、전갈、선훈 각 2.5돈, 방풍、백부자(습지에 싸서 굽는다)、천마、백강잠(볶는다) 각 1.5돈, 사향 5푼.
- 右細末, 棗肉丸菉豆大, 每二三丸, 荊芥生薑煎湯化下.
- 이상을 잘게 가루 낸 후 대조 과육과 섞어 녹두대로 환을 빚는다. 2-3환씩 형개와 생강 달인 물에 녹여 먹인다.

腎癇卽猪癇, 聲如猪, 面黑如晦, 瞋目視人, 吐出清沫, 如尸不動.

신간(腎癇)은 저간(猪癇)이라고도 하는데, 내는 소리가 돼지와 비슷하기 때문이다. 얼굴이 그믐처럼 검게 되며 눈을 부라리면서 사람들을 보고 뭉은 거품을 토하면서 시체처럼 움직이지 않는다.

○腎癇湯 ○신간탕

- 治腎癇.
- 신간을 치료한다.
- 獨活、麻黃、川芎、大黃(煨)、甘草 各六分.
- 독활、마황、천궁、대황(갯불에 묻어 굽는다)、감초 각 6푼.
- 右剉, 入薑二, 水煎服.
- 이상을 썬 후 생강 2조각을 넣고 물에 달여 먹인다.

○五色丸 ○오색환

- 治五癇.
- 오장의 간질을 치료한다.
- 雄黃 一兩, 珍珠、朱砂 各五錢, 黑鉛、水銀 各二兩.
- 옹황 1냥, 진주、주사 각 5돈, 흑연、수은 각 2냥.
- 右先將鉛鎔化, 入水銀結砂, 研細末, 次入諸藥末, 和勻, 蜜丸麻子大, 每三四丸, 金銀薄荷湯化下.
- 이상에서 먼저 흑연을 불로 녹이고 수은을 넣어 결정을 만든 후 갈아서 잘게 가루 낸다. 그 다음 나머지 약을 넣고 가루 내어 잘 섞은 후 꿀에 개어 마자대로 환을 빚는다. 3-4환씩 금은화와 박하 달인 물에 녹여 먹인다.

風癇者, 小兒氣血未斂, 筋骨不聚, 爲風邪所傷, 名風癇, 屈指如數, 有熱生痰, 宜先疏風然後, 清痰散熱, 安神定搐, 宜散風丹.

풍간(風癇)은 아이의 기와 혈이 아직 자리 잡히지 않고 근골이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풍사에 상한 것이기 때문에 풍간이라고 부른다. 숫자를 헤아리듯이 손가락을 굽히고 열이 나면서 가래가 생긴다. 우선 풍사를 흡은 후에 가래를 없애고 열을 내려주어 정신을 안정시키고 축닉을 진정시켜야 하니 산풍단을 써야 한다.

#### ○追風祛痰丸 ○추풍거담환

- 治風痰發癇.
- 풍담(風痰)으로 발작한 간질을 치료한다.
- 半夏(湯泡爲末) 六兩(分作二分, 以一分, 皂角汁浸作麴, 一分, 薑汁浸作麴), 南星 三兩(剉, 一半白礬水浸, 一半皂角水浸, 一宿), 防風、天麻、殭蠶(炒)、白附子(煨)、皂角(炒) 各一兩, 全蝎(炒)、白礬(枯)、木香 各五錢.
- 반하 6냥(끓는 물에 담갔다가 가루 낸다. 2개로 나누어 하나는 조각물에 담갔다가 누룩으로 빚고, 다른 하나는 생강즙에 담갔다가 누룩으로 빚는다), 남성 3냥(썬다. 절반은 백반물에, 다른 절반은 조각물에 하룻밤 담근다), 방풍、천마、백강잠(볶는다)、백부자(젓불에 묻어 굽는다)、조각(볶는다) 각 1냥, 전갈(볶는다)、백반(고)、목향 각 5돈.
- 右細末, 薑汁糊丸菉豆大, 朱砂爲衣, 薑湯下二三十丸.
- 이상을 잘게 가루 낸 후 생강즙을 넣어 쏘 풀에 개어 녹두대로 환을 빚고 주사를 곁에 입힌다. 생강탕에 20-30환을 먹인다.

驚癇者, 因駭怖積驚, 啼叫恍惚, 宜治驚然後, 清三焦, 去熱化痰, 宜定魄丸, 用青黛一錢爲衣, 金銀、薄荷、川芎煎湯化服.

경간(驚癇)은 무섭고 놀란 일이 누적되어 경기를 하고 소리 지르며 울면서 정신이 없는 것이다. 경기를 치료한 후에 삼초의 열을 없애야 한다. 열을 없애고 담을 녹이려면 정백환을 써야 하니 청대 1돈을 곁에 입힌 후에 금은화、박하

、천궁 달인 물에 녹여 먹인다.

○朱砂安神丸 ○주사안신환

- 治心虛驚悸怔忡, 滋養心血.
- 심장이 허하여 생긴 경계(驚悸)、정충(怔忡)을 치료한다. 심장의 혈을 길러주는 약이다.
- 黃連 六錢, 朱砂 五錢, 甘草、乾地黃(酒洗) 各三錢半, 當歸(酒洗) 二錢半.
- 황련 6돈, 주사 5돈, 감초、건지황(술로 씻는다) 각 3.5돈, 당귀(술로 씻는다) 2.5돈.
- 右細末, 蒸餅和丸黍米大, 每二三十丸, 津唾嚥下, 或米飲下. ○東垣曰, 熱淫所勝, 以黃連之苦寒, 去心煩除濕熱爲君, 以甘草、地黃之甘寒, 瀉火補氣滋生陰血爲臣, 當歸補血不足, 朱砂納浮溜之火, 以安神明也.
- 이상을 잘게 가루 낸 후 증병(蒸餅)과 섞어 서미대로 환을 빚는다. 20-30환씩 침으로 삼키게 하거나 미음으로 먹인다. ○이동원은 "열이 넘쳐 왕성해진 경우에 황련의 쓰고 차가운 성질이 심번과 습열을 없애는 효과가 있으니 군약으로 삼는 것이고, 감초와 지황의 달고 차가운 성질이 화기를 사하고 기를 보하며 음혈을 기르는 효과가 있으니 신약으로 삼는 것이고, 당귀는 부족한 혈을 보하는 것이고, 주사는 떠다니는 화기를 잡아서 정신을 안정시키는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定魄丸 ○정백환

- 治因驚發癇.
- 경기로 간질이 발작하는 경우를 치료한다.
- 人參、琥珀、茯神、遠志、朱砂、天麻、石菖蒲、天門冬、酸棗仁(炒)、甘草 各等分.



- 인삼、후박、복신、원지、주사、천마、석창포、천문동、산조인(볶는다)、감초 각각 같은 양.
- 右細末, 蜜丸梔子大, 朱砂爲衣, 每一丸, 川芎薄荷煎湯化下.
- 이상을 잘게 가루 낸 후 꿀에 개어 조자대로 환을 빚고 주사를 곁에 입힌다. 1환씩 천궁과 박하 달인 물에 녹여 먹인다.

#### ○三癇丹 ○삼간단

- 治風驚食三癇.
- 풍간、경간、식간의 3간을 치료한다.
- 蜈蚣 一條(灸), 膽星 二錢, 全蝎(炒)、玄胡索、防風、蘆薈(煨)、白附子(炮)、遠志、朱砂 各一錢, 麝香 一字, 金銀箔 各三片.
- 오공(굽는다) 1마리, 우담남성 2돈, 전갈(볶는다)、현호색、방풍、노회(불에 달군다)、백부자(습지에 써서 굽는다)、원지、주사 각 1돈, 사향 1자, 금박、은박 각 3조각.
- 右細末, 糊丸梧子大, 金銀箔爲衣, 每一丸, 蘇葉菖蒲湯化下.
- 이상을 잘게 가루 낸 후 꿀에 개어 오자대로 환을 빚고 금박과 은박을 입힌다. 1환씩 소엽과 창포 달인 물에 녹여 먹인다.

#### ○沈香天麻湯 ○침향천마탕

- 治小兒因驚成癇發搐, 痰涎壅塞, 目直, 項背強急, 喉中有聲, 神思如痴.
- 아이가 경기로 간질이 되어 축닉이 발작하고 담연이 막히며 눈에 초점이 없고 뒷목과 등이 뻣뻣해지고 목에서 소리가 나며 정신이 나간 듯한 증상을 치료한다.
- 羌活 五分, 獨活 四分, 防風、天麻、半夏、附子(炮) 各三分, 沈香、益智仁、

川烏(炮) 各二分, 乾薑(炮)、當歸、甘草 各一分半.

- 강활 5푼, 독활 4푼, 방풍·천마·반하·부자(습지에 써서 굽는다) 각 3푼, 침향·익지인·천오(습지에 써서 굽는다) 각 2푼, 건강(습지에 써서 굽는다)·당귀·감초 각 1.5푼.
- 右剉, 入薑三片, 水煎服. 先灸兩矯穴 各三七壯. ○陽矯穴神脈, 在足外踝下五分, 容爪甲白肉際. ○陰矯穴照海, 在足內踝下四分, 令人穩坐, 足底相對白肉際, 微前骨下陷中.
- 이상을 썬 후 생강 3조각을 넣고 물에 달여 먹인다. 우선 두 교혈에 각각 3·7장 뜸을 뜬다. ○양교혈(陽矯穴)은 신맥이다. 다리 바깥쪽 복사뼈 아래로 5푼 떨어진 지점으로 손톱만큼 떨어져 있는 하얀 살 경계 부분이다. ○음교혈(陰矯穴)은 조해이다. 다리 안쪽 복사뼈 아래 4푼 떨어진 지점으로 사람을 편하게 앉게 했을 때 발바닥이 서로 맞닿는 하얀 살 부분의 약간 앞에 있는 뼈 아래 움푹한 곳이다.

食癇者, 食時遇驚, 停乳食而大便酸臭, 或結痞, 先寒後熱, 宜先消積然後, 治癇. 又有痰火作癇者, 宜吐痰瀉火, 安神定驚, 紫霜丸, 用蝎梢煎湯下之, 或醒脾散〔方見慢驚〕作丸服.

식간(食癇)은 음식을 먹을 때 놀라서 젖이나 음식이 내려가지 않고 대변에서 시큼한 냄새가 나며, 간혹 배에 덩어리가 만져지거나 오한이 난 후에 열이 나기도 한다. 먼저 막힌 음식을 소화시킨 후에 간질을 치료해야 한다. 담화(痰火)가 있어서 간질이 된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가래를 토하게 하고 화기를 사해서 놀란 정신을 안정시켜야 한다. 자상환을 갈초 달인 물로 먹여 대변으로 빼내거나 혹은 성비산(처방은 만경(慢驚)에 나온다)을 환으로 만들어 먹여야 한다.

#### ○紫霜丸 ○자상환

- 治食癇, 及腹中食積, 痰癖嘔乳〔嘔音顯, 不嘔而吐也〕.
- 식간 및 뱃속에 음식이 적체되어 담벽(痰癖)이 되거나 젖을 바로 토하는 경우를

치료한다.〔'嘔'은 '현'으로 읽는다. 구역질 없이 바로 토하는 것이다〕

- 代赭石(煨醋淬七次)、赤石脂 各一兩, 巴豆 三十粒(去皮膜, 爲霜), 杏仁 五十粒(去皮尖雙仁).
- 대자석(불에 달궈 식초에 담금질하기를 7차례 한다)·적석지 각 1냥, 파두 30알(겉·속껍질을 버리고 파두상으로 만든다), 행인 50알(껍질과 뾰족한 부분과 쌍인을 제거한다).
- 右先將杏仁泥、巴豆霜, 入二石末和勻, 搗千杵, 若硬入少蜜, 貯密器中, 月內兒服麻子大一粒, 乳汁化下, 百日內服小豆大. ○食癇用此, 取積並不虛人. 凡兒有熱, 不欲飲乳, 眠睡不寧, 常常驚悸, 此發癇之漸, 卽以此藥導之, 減其盛勢, 則無驚風癇釣之患矣. ○一方, 代赭石二錢, 巴豆二十一粒(去皮油), 杏仁二十一箇, 右末, 飯丸麻子大, 服如上法. ○頑痰膠固, 食積結滯, 時發驚瘈搐反者, 尋常藥餌, 未易驅逐, 兒元氣未虛, 病氣已實, 則在上者, 引以吐之, 在裏者, 墜以下之, 紫霜丸、白餅子〔方見癖積〕之類, 量宜加減用之, 則其效如神.
- 이상에서 우선 행인과 파두상에 대자석과 적석지 2가지 돌가루를 넣고 잘 섞은 후 수없이 찼는다. 반죽이 딱딱해지면 꿀을 조금 넣어 그릇에 밀봉해 놓았다가 쓴다. 생후 1달이 안된 아이에게는 마자대로 1알을 젖에 녹여서 먹이고, 백일이 안된 아이에게는 소두대로 먹인다. ○식간에 이 약을 쓰면 적체를 치료하되 사람을 허하게 만들지 않는다. 대체로 아이가 열이 있으면 젖을 빨려고 하지도 않고 편하게 잠들지 못하며 자주 놀라는데, 이 증상들은 간질이 발병하려는 단계이므로 이 약으로 열을 빼내주어 병이 왕성해지는 것을 덜어주면 경풍이나 간질에 걸리지 않을 것이다. ○다른 처방. 대자석 2돈, 파두(껍질과 유지 부분을 제거한다) 21알, 행인 21개. 이상을 가루 내고 밥알과 섞어 마자대로 환을 빚는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먹인다. ○완담이 끈적하게 떨어지지 않고 식적이 정체되어 가끔씩 경치(驚瘈)나 축닉이나 각궁반장이 발작하는 경우에는 보통의 약재로 쉽게 몰아낼 수 없다. 아이의 원기가 허하지 않고 병이 이미 실증이 된 경우에 한하여 완담이 위쪽에 있으면 끌어내어 토하게 하고, 속에 있으면 떨어뜨려 대변으로 빼내야 한다. 자상환·백병자(처방은 벽적(癖積)에 나온다) 같은 약을

아이의 몸집대로 가감하여 쓰면 그 효과가 귀신같다.

陽癇者, 身熱抽掣, 啼叫仰臥, 面光脈浮, 病在腑, 易治, 忌溫藥, 宜朱砂安神丸, 或錢氏安神丸.〔方見急驚〕

양간(陽癇)은 몸통이 뜨거우며 손발이 당기고 울부짖으며 하늘을 향해 몸을 뒤로 젖히고 얼굴에 광이 나며 맥은 부(浮)하다. 병이 육부에 있으니 쉽게 치료할 수 있고, 따뜻한 성질의 약을 피해야 한다. 주사안신환이나 전씨안신환(처방은 급경(急驚)에 나온다)을 써야 한다.

#### ○清心滾痰丸 ○청심곤담환

- 治癲癇驚狂, 一切恠症, 專治痰火.
- 전간(癲癇)과 경광(驚狂) 등 모든 괴질을 치료하는데 담화(痰火)를 주로 치료한다.
- 大黃(酒蒸)、黃芩 各四兩, 犀角、青礞石(同焰硝如法煅)、皂角、朱砂 各五錢, 沈香 二錢半, 麝香 五分.
- 대황(술에 찐다)、황금 각 4냥, 서각、청몽석(염초와 함께 일반적인 방법으로 불에 달군다)、조각、주사 각 5돈, 침향 2.5돈, 사향 5푼.
- 右細末, 水和丸小豆大, 朱砂爲衣, 溫水下二三十丸.
- 이상을 잘게 가루 낸 후 물에 개어 소두대로 환을 빚고 주사를 곁에 입힌다. 따뜻한 물에 20-30환을 먹인다.

#### ○牛黃瀉心湯 ○우황사심탕

- 治癇疾, 及心經邪熱, 狂亂, 精神不爽.
- 간질 및 심경(心經)의 열사로 발광하며 정신이 맑지 못한 경우를 치료한다.
- 大黃(生) 一兩, 龍腦、朱砂、牛黃 各一錢.

- 대황(생것) 1냥, 용뇌·주사·우황 각 1돈.
- 右細末, 每一二錢, 生薑汁和蜜水調服. ○一名南極延生湯.
- 이상을 잘게 가루 낸 후 1-2돈씩 생강즙과 꿀물에 타 먹인다. ○일명 남극연생탕이다.

陰癇者, 身冷不能啼叫, 不至搐掣, 昏倒面黯, 脈沈微, 病在臟, 難治, 以釣藤飲〔方見慢驚〕, 加肉桂·附子, 救之.

음간(陰癇)은 몸통이 서늘하고 울부짖지 않으며 사지가 당기지 않고 정신을 잃고 쓰러지며 얼굴이 거무스름하고, 맥은 침미(沈微)하다. 병이 오장에 있으니 치료가 쉽지 않다. 조등음(처방은 만경(慢驚)에 나온다)에 육계와 부자를 더해 써서 목숨을 구해야 한다.

#### ○竹瀝丸 ○죽력환

- 通治陰陽癇.
- 음간과 양간을 치료한다.
- 白朮(蜜炒)·厚朴(甘草水煮) 各二錢半, 附子(炮)·犀角 各一錢, 全蝎 七枚(每介用薄荷葉裹, 湯泡一伏時炙黃).
- 백출(꿀을 묻혀 볶는다)·후박(감초물에 달인다) 각 2.5돈, 부자(습지에 싸서 굽는다)·서각 각 1돈, 전갈 7개(한 개씩 박하잎에 싸서 끓는 물에 1복시 담갔다가 누렇게 굽는다).
- 右細末, 竹瀝和丸黑豆大, 每一丸, 金銀薄荷湯, 量兒化服.
- 이상을 잘게 가루 낸 후 죽력과 섞어 흑두대로 환을 빚는다. 1환씩 금은화와 박하 달인 물에 녹여 먹이되, 아이의 몸집을 가늠하여 먹인다.

#### ○猪心丸 ○저심환

- 治五種癲癇, 及婦人心風血迷, 神效.
- 다섯 가지 전간 및 부인의 심풍(心風)과 혈미(血迷)를 치료한다. 신효하다.
- 甘遂末一錢, 以猪心血, 和勻, 將猪心, 批作兩片, 入在內合, 定以線札縛, 皮紙包濕, 慢火煨熟, 取藥出研末, 入辰砂一錢, 和勻, 分作四丸, 每一丸, 所煨猪心煎湯化下, 如大便下惡物, 卽止, 不效, 再服一丸.<sup>1</sup>一名甘遂散.
- 감수 가루 1돈을 돼지 심장의 피와 잘 섞는다. 돼지의 심장을 2개로 쪼개고 섞은 것을 속에 넣은 후 끈으로 묶고 얇은 종이로 싸서 물에 녹이고 은근한 불로 구워 익힌 다음 약만 꺼내어 가루 낸다. 진사 1돈을 넣어 잘 섞고 나누어 4환으로 만든다. 1환씩 구웠던 돼지 심장 달인 물에 타서 먹인다. 대변으로 이상한 것이 쏟아지면 약을 멈춘다. 효과가 없으면 1환을 다시 먹인다. ○감수산이라고도 한다.

#### ○淸神湯 ○淸心湯

- 治驚癇.
- 경간을 치료한다.
- 犀角(鎔)、遠志(薑製焙)、白蘚皮、石菖蒲、人蔘、甘草(炒) 各一錢半.
- 서각(얇게 깎아 가루 낸다)、원지(생강즙에 법제하고 곁불에 말린다)、백선피、석창포、인삼、감초(볶는다) 각 1.5돈.
- 右末, 每服五七分, 麥門冬煎湯調下.
- 이상을 가루 내고 5-7푼씩 맥문동 달인 물에 타서 먹인다.

#### ○養心丸 ○養心丹

- 治憂愁思慮傷心, 或心血不足, 驚悸怔忡, 少睡不寐, 或水停心下, 懊惱心煩, 甚至癇搐.
- 지나친 걱정과 근심으로 심기가 손상된 경우, 혹은 심혈이 부족하여 경계나 정충이 있고 잠을 잘 자지 못하는 경우, 혹은 마신 물이 명치에 막혀서 오놓(懊惱)

이나 심번이 있고 심지어 간질과 축닉이 생긴 경우를 치료한다.

- 白茯苓、白茯神、當歸(酒洗)、生地黃(酒洗) 各一錢, 黃芪(蜜灸)、遠志(製) 各八分, 川芎、柏子仁、酸棗仁(炒) 各七分, 半夏麴 六分, 人參 五分, 甘草(炙) 、桂皮 各三分, 五味子 十四粒.
- 백복령、백복신、당귀(술로 씻는다)、생지황(술로 씻는다) 각 1돈, 황기(꿀을 묻혀 굽는다)、원지(법제한다) 각 8푼, 천궁、백자인、산조인(볶는다) 각 7푼, 반하국 6푼, 인삼 5푼, 감초(살짝 볶는다)、계피 각 3푼, 오미자 14알.
- 右麴末, 每服一二錢, 入薑棗水煎服. ○水結胸, 加檳榔、赤茯苓.
- 이상을 거칠게 가루 낸 후 1-2돈씩 생강과 대조를 넣고 물에 달여 먹인다. ○수결 흥에는 빈랑과 적복령을 더한다.

#### ○紫河車丸 ○자하거환

- 治諸癇.
- 여러 간질을 치료한다.
- 紫河車, 初生男胎肥厚者一箇, 洗淨, 重湯蒸爛, 研化, 入人蔘、當歸末, 和勻, 爲丸如芡實大, 每服五六丸, 乳汁化下. (○又方, 紫河車蒸研爛, 人乳和勻如泥, 日二三次服. 又紫河車蒸爛如膏, 入糯米末, 丸梧子大, 每五六十丸, 米飲下, 久服乃效.)
- 갓 태어난 사내아이의 태반에서 얻은 자하거 두툼한 것 1개를 깨끗이 씻어 중탕으로 푹 찢 후 갈고, 여기에 인삼과 당귀 가루를 넣고 잘 섞어 검실대로 환을 빚는다. 5-6환씩 젖에 녹여 먹인다. (○다른 처방. 자하거를 찢서 갈고 젖과 섞어 질게 만든 후 하루에 2-3번 먹인다. 또 다른 처방. 자하거를 증기로 푹 찢서 고약처럼 만들고 찹쌀가루를 넣어 오자대로 환을 빚는다. 50-60환씩 미음으로 먹인다. 오래 먹어야 효과가 있다.)

○代赭石散 ○대자석산

- 治陰陽癇.
- 음간과 양간을 치료한다.
- 代赭石, 煅醋淬, 研爲末, 水飛過曬乾, 更爲研, 每服半錢, 以金銀煎湯, 和金箔銀箔調, 日進二服. 脚脛上有赤癍, 乃邪氣發出, 可治, 無赤癍則難治.
- 대자석을 불에 달궜다가 식초에 담금질하고 갈아서 가루 낸 후, 수비하여 벌에 말리고 다시 간다. 0.5돈씩 금박·은박과 섞어서 금은화 달인 물에 하루 2번 먹인다. 정강이 윗부분에 붉은 반점이 있으면 사기가 빠져나오는 것이니 치료할 수 있지만, 붉은 반점이 없으면 치료가 어렵다.

○神應丹 ○신응단

- 治小兒驚癇, 神不守舍, 觸物易驚, 常常怵惚恐懼.
- 아이가 경간으로 정신이 나가고 사소한 것에도 쉽게 놀라며 계속 정신을 못 차리고 무서워하는 증상을 치료한다.
- 辰砂水飛, 不拘多少, 雄猪心血和勻, 入蒸餅爲丸芡實大, 每服一丸, 食後臨臥, 以人蔘當歸煎湯化服.
- 수비한 주사를 분량에 관계없이 수퇘지 심장의 피와 잘 섞은 후 증병과 함께 검실대로 환을 빚는다. 1환씩 식후나 자기 전에 인삼과 당귀 달인 물로 녹여 먹인다.

○蜜陀<sup>2</sup>僧散 ○밀타승산

- 治心癇不語, 及諸驚失音.
- 심간으로 말하지 못하는 경우 및 놀라서 소리를 내지 못하는 경우를 치료한다.
- 用<sup>3</sup>蜜陀<sup>4</sup>僧爲末, 每五分, 米醋湯調下. 大人服一錢, 熱酒下.



- 밀타승을 가루 낸 후 5푼씩 쌀과 식초 달인 물에 타서 먹인다. 어른은 1돈씩을 뜨거운 술로 먹는다.

○荊礬丸 ○형반환

- 治太陽陽明二經癇, 又治諸癇.
- 태양경과 양명경의 간질과 여러 가지 간질을 치료한다.
- 荊芥穗 四兩, 白礬 二兩.
- 형개수 4냥, 백반 2냥.
- 右細末, 棗肉和丸麻子大, 每服二十丸, 荊芥湯下, 次三十丸四十丸, 又次五十丸, 俱食前服.
- 이상을 잘게 가루 내고 대조 과육과 섞어 마자대로 환을 빚는다. 20환씩 형개탕에 먹이다가, 그 다음에 30-40환을 먹이고, 그 다음에 50환을 먹인다. 모두 식전에 먹인다.
- 一方, 月經血和靑黛一錢, 水調服, 治小兒驚癇發熱, 一服即差. ○辰砂一錢, 牛黃五分, 麝香一分, 共細末, 以猪心熱血和勻, 每二三分, 薄荷湯下.
- 다른 처방. 월경혈과 청대 1돈을 물에 타서 먹인다. 아이가 경간으로 열이 날 때 한 번 먹이면 즉시 좋아진다. ○진사 1돈, 우황 5푼, 사향 1푼을 모두 잘게 가루 낸 후 뜨거운 돼지 심장의 피와 잘 섞고 2-3푼씩 박하탕에 먹인다.

癇症方萌起, 耳後高骨間, 必有靑紋紛紛如線見之, 急以瓜破, 須令血出, 啼叫尤得氣通, 或以針刺出血, 亦可. ○夾邪怪而發癇者, 其色變易無常, 見人羞怕, 治與客忤同.

간질이 막 발작하려고 할 때 귀 뒤의 특 튀어나온 뼈 부근에 분명 푸른 실 같은 핏줄이 퍼져있을 것이다. 급히 손톱으로 찌어 피를 내면 소리 지르며 울면서 기가 통하게 된다. 혹은 바늘로 찔러 피를 내어도 괜찮다. ○사수나 괴질이 있

으면서 간질이 발작한 경우에는 낮빛이 이상하게 변하다가 사람을 만나면 부끄러워하거나 무서워하는데, 치료법은 객오와 같다.

李進士子三歲, 順經痘疹, 無他疾病, 數年後, 忽驚塞而搐搦反張, 眼睛翻騰, 面青惡叫, 吐出涎沫, 有頃乃已, 自此以後, 一月一二發, 或三四發者, 周年. 余曰, 凡癇難治之症也, 惟小兒則食積痰熱, 結滯腸脾間, 去來發作, 若大能通利, 庶有萬一之幸, 遂用紫霜十丸, 微利數次, 翌日再用二十丸, 大泄四五次. 仍以參朮半夏湯〔方見慢驚〕, 調理脾胃, 兼治風痰然後, 更用前藥, 數次泄下, 則癇症幾盡去, 但頭眩惡心之症間發, 遂於六君子〔方見泄瀉〕, 加白附子、天麻, 兼服截風丸〔方見急驚〕而愈.

〔의안〕 이 진사(李進士)의 아들이 3살 때 두창도 순하게 넘어가고 별다른 병도 없었다. 몇년 후에 갑자기 놀라면서 축닉과 각궁반장이 생기고 눈이 뒤집히며 얼굴이 퍼렇게 되면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끈적한 침과 거품을 토하다가 얼마 지나면 금세 그쳤다. 이 때 이후로 1달에 1-2번 혹은 3-4번 발작한 지 1년 정도 된 상태였다. 내가 "대체로 간질은 치료가 어려운 병이긴 하지만 유독 아이들은 식적이나 담열이 장이나 비장 부근에 맺히기 때문에 가끔씩 발작합니다. 크게 설사를 시키면 혹시 차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리고는 자상환 10환을 썼더니 살짝 설사를 몇번 했고, 다음날 다시 20환을 썼더니 크게 4-5번 설사를 하였다. 이어서 삼출반하탕〔처방은 만경(慢驚)에 나온다〕으로 비위의 기운을 조리하면서 동시에 풍담을 치료하였다. 그 후에 다시 자상환을 썼더니 여러 번 설사를 하더니 간질이 거의 없어졌다. 다만 현훈과 오심 증상이 사이사이 나타났다. 결국 육군자탕〔처방은 설사에 나온다〕에 백부자와 천마를 더한 것과 절풍환〔처방은 급경(急驚)에 나온다〕을 같이 먹었더니 나았다.

1. 글자없음 : \*○※문맥상 ↩

2. 陀 : 佗 ※규장각본 ↩

3. 用 : ※규장각본 ↩

4. 陀 : 佗 ※규장각본 ↩

## 剛柔瘧 강치·유치

瘧與瘧，亦驚風之類，身軟時醒者爲瘧，身強直不醒者爲瘧。瘧者手足冰冷，瘧者舉身強直，本一病，當以陽強陰柔別之，剛瘧有汗，陰<sup>1</sup>瘧無汗。肢體強直，腰身反張，甚於風癇。剛瘧宜解肌，麻黃葛根湯主之，柔瘧宜溫中，理中湯〔方見吐瀉〕主之，通用小續命湯。○瘧症，氣血俱虛，不可純用風藥，宜八物湯加陳皮，以補血氣。

치(瘧)와 경(瘧)도 경풍 종류인데 몸통이 부드럽고 가끔씩 깨어나는 경우는 간질이라고 하고, 몸통이 뻣뻣하고 깨어나지 못하는 경우는 치(瘧)라고 한다. 치(瘧)는 손발이 얼음같이 서늘하고, 경(瘧)은 온몸이 뻣뻣하지만 원래 같은 병이다. 마땅히 양은 강하고 음은 부드럽다는 특징으로 구별해야 하니 강치(剛瘧)는 땀이 나고 유치(柔瘧)는 땀이 나지 않는다. 사지와 몸통이 뻣뻣해지고 허리가 뒤로 꺾이는 증상이 풍간(風癇)보다 심하다. 강치는 해기시켜야 하므로 마황갈근탕으로 치료하고, 유치는 속을 따뜻하게 해야 하므로 이중탕(처방은 토사에 나온다)으로 치료하고, 소속명탕은 두 가지를 모두 치료한다. ○치병은 기와 혈이 모두 허하기 때문에 생기므로 풍을 치료하는 약만 써서는 안된다. 팔물탕에 진피를 더하여 기와 혈을 보해주어야 한다.

### ○麻黃葛根湯

#### ○마황갈근탕

- 葛根 一錢半, 麻黃 一錢, 桂枝、白芍藥、甘草 各五分.
- 갈근 1.5돈, 마황 1돈, 계피·백작약·감초 각 5푼.
- 右剉, 入薑三片, 水煎服.
- 이상을 썬 후 생강 3조각을 넣고 물에 달여 먹인다.

### ○小續命湯 ○소속명탕

- 治卒中風, 不省人事, 又治剛柔瘥, 破傷風.
- 졸중풍으로 인사불성된 경우를 치료한다. 또한 강치와 유치 및 파상풍도 치료한다.
- 防風 一錢半, 防己、肉桂、杏仁、黃芩、白芍藥、人參、川芎、麻黃、甘草 各一錢, 附子(炮) 五分.
- 방풍 1.5돈, 방기·육계·행인·황금·백작약·인삼·천궁·마황·감초 각 1돈, 부자(습지에 써서 굽는다) 5푼.
- 右剉, 入薑三棗二, 水煎, 量兒大小服.
- 이상을 썬 후 생강 3조각과 대조 2개를 넣고 물에 달여서 아이의 몸집을 가늠하여 먹인다.

○烏藥順氣散 ○오약순기산

- 治一切中風, 先服此, 疏通氣道, 又治癱瘓, 及歷節風.
- 모든 중풍을 치료한다. 우선 이 약을 먹여서 기의 통로를 소통시켜야 한다. 또한 탄탄풍과 역절풍도 치료한다.
- 麻黃、陳皮、烏藥 各一錢半, 川芎、白芷、白殭蠶(炒)、枳殼、桔梗 各一錢, 乾薑(炒) 五分, 甘草 三分.
- 마황·진피·오약 각 1.5돈, 천궁·백지·백강잠(볶는다)·지각·길경 각 1돈, 건강(볶는다) 5푼, 감초 3푼.
- 右剉, 入薑三棗二, 水煎服.
- 이상을 썬 후 생강 3조각과 대조 2개를 넣고 물에 달여 먹인다.

1. 陰 : \*柔 ※문맥상 ←



## 天弔 천조풍

天弔者, 因乳母過食酒麪炙燂等熱物, 令兒心肺生熱, 痰鬱氣滯, 加以外觸風寒, 卒然驚搐, 頭目仰視(驚風則無仰視), 如魚上釣之形, 眼目翻騰, 或啼或笑, 喜怒無常, 如邪祟者然也, 甚者爪甲如藍.

천조풍은 유모가 술·밀가루·구운 고기·전 같이 뜨거운 성질의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서 아이의 심장과 폐장에 열이 생기게 되고 담과 기가 울체된 상태에서 풍한에 외감되어 생기는 것이다. 그 증상은 갑자기 경축이 생기고 머리와 눈은 위를 향하는데(경풍은 머리와 눈이 위로 향하는 증상이 없다) 마치 물고기가 낚시에 걸려 위로 올라오는 형태와 비슷하고 눈은 뒤집힌다. 혹은 울다가 웃으면서 감정 기복이 심하기도 한데 마치 귀신들린 것 같다. 심한 경우에는 손톱이 쪽빛처럼 된다.

### ○釣藤散 ○조등산

- 治天弔風.
- 천조풍을 치료한다.
- 釣鉤藤 一錢, 人蔘、犀角 各五分, 全蝎(炒)、天麻 各二分, 甘草 一分.
- 조구등 1돈, 인삼·서각 각 4푼, 전갈(볶는다)·천마 각 2푼, 감초 1푼.
- 右剉, 水煎服.
- 이상을 썰고 물에 달여 먹인다.

### ○九龍控涎散 ○구룡공연산

- 治上同.
- 위와 같이 천조풍을 치료한다.

- 蜈蚣 一條(酒塗灸), 臘茶、雄黃、甘草(炙) 各二錢, 乳香、天竺黃、白礬(枯)、荊芥穗 各一錢, 菉豆(半生半炒) 百粒.
- 오공(술을 발라 굽는다) 1마리, 납다、웅황、감초(살짝 볶는다) 각 2돈, 유향、천축황、백반(고)、형개수 각 1돈, 녹두(반은 생것, 반은 볶는다) 100알.
- 右細末, 每半錢, 人蔘薄荷湯調服.
- 이상을 잘게 가루 낸 후 0.5돈씩 인삼과 박하 달인 물에 타서 먹인다.

#### ○釣藤飲子 ○조등음자

- 治驚風天弔, 卒然驚悸, 眼目翻騰.
- 경풍이나 천조풍으로 갑자기 놀라며 가슴이 뛰고 눈이 뒤집히는 것을 치료한다.
- 釣藤(炒) 五分, 麻黃(去節)、甘草(炙) 各三分, 天麻、川芎、防風、人蔘 各七分, 全蝎(炒去毒) 五箇, 殭蠶(炒) 七枚.
- 조구등(볶는다) 5푼, 마황(마디를 제거한다)、감초(살짝 볶는다) 각 3푼, 천마、천궁、방풍、인삼 각 7푼, 전갈(볶아서 독을 제거한다) 5개, 백강잠(볶는다) 7개.
- 右剉, 入薑三, 水煎服.
- 이상을 썬 후 생강 3조각을 넣고 물에 달여 먹인다.

內傷飲食, 挾積受驚, 肚熱脹硬, 睡中腹內跳動, 以寬熱飲(方見急驚), 泄下惡物然後, 調化脾胃, 不可誤作驚風治之. ○風熱盛者, 至聖保命丹, 痰盛者, 抱龍丸, 熱盛者, 涼驚丸(三方見驚風).

음식에 상한 상태에서 식적이 생기고 놀라게 되면 배가 뜨거워지면서 땀땀하며 단단해지고 잘 때 뱃속이 꿈틀거리게 된다. 이때에는 관열음(처방은 급경에 나온다)으로 노폐물을 설사시킨 후에 비위의 기운을 조화롭게 해주어야 한



다. 경풍으로 오인하여 치료해서는 안된다. ○풍열이 왕성한 경우에는 지성보명단을, 담이 왕성한 경우에는 포룡환을, 열이 왕성한 경우에는 양경환을 써야 한다.(3가지 처방은 경풍에 나온다)

## 객忤 객오

客忤者, 兒心氣不足, 遇生人異物, 則觸忤驚怖, 脾臟冷而痛, 夜則多啼, 狀如癇風, 而眼不竄視, 吐沫氣喘, 黃昏時分, 啼哭尤甚, 釣藤散〔方見天弔〕・錢氏安神丸〔方見急驚〕主之, 與夜啼參治.

객오는 아이의 심기가 부족하여 낯선 사람이나 이상한 것을 보면 놀라고 두려워하는 것이다. 그 증상은 비장이 서늘하면서 아프고 밤이면 계속 울어 마치 간질과 모습이 비슷하지만 눈알은 돌아가지 않고 거품을 토하면서 숨을 헐떡이며 해질녘에 울음이 더욱 심해진다. 조등산〔처방은 천조에 나온다〕이나 전씨안신환〔처방은 급경에 나온다〕으로 치료해야 한다. 야제 부분을 참고하여 치료하라.

### ○雄麝散 ○웅사산

- 治客忤夜啼.
- 객오로 밤에 우는 증상을 치료한다.
- 雄黃 一錢, 乳香 五分, 麝香 一字.
- 옹황 1돈, 유향 5푼, 사향 1자.
- 右末, 每一字, 鷄冠血調灌, 仍以母衣覆身, 卽愈.
- 이상을 가루 낸 후 1자씩 계관혈에 타서 입에 흘려 넣어주고 어머니의 옷으로 몸을 덮어주면 곧 좋아진다.

中馬汗氣臭, 或馬鳴驚忤者, 用馬尾燒煙, 頻薰兒面, 以差爲度, 或先用薑湯調蘇合元, 次用豆豉, 水濕搗丸鷄子大, 磨兒額上及足心各五六遍, 次磨臍心及上下, 良久壁開, 自有毛, 卽擲之.

말의 땀이나 숨이나 냄새에 접촉되거나 혹은 말 울음소리에 놀란 경우에는 말 총 태운 연기를 아이 얼굴에 자주 씌어준다. 차도가 있을 때까지 한다. 다른 방법. 우선 생강탕에 소합향원을 타서 먹힌다. 그 다음에 두시에 물을 조금 넣고 찹어서 계자대로 환을 빻은 후 아이의 정수리와 발바닥에 각각 5-6번씩 문지른다. 그 다음에 배꼽과 배꼽 위아래 부분에 문지른다. 한참 후에 환을 쪼개보면 털이 있는데 즉시 뽑아버린다.

## 內釣 내조

內釣者, 內臟抽掣釣痛, 由胎中寒氣壅結, 兼驚而得, 外證, 面青唇黑, 四肢逆冷, 僂  
僂反張, 痛不可忍, 外腎腫痛, 眼有紅筋血點.(腹痛, 如鐵鉤釣腸之狀, 故曰內釣)

내조는 내장이 뽑히는 듯 낚시에 걸린 듯 아픈 증상으로 뱃속에 있을 때 한기가 맏힌 상태에서 놀라서 생기게 된다. 겉으로 보이는 증상으로는 얼굴에 푸른 빛이 돌고 입술이 검게 되며 사지 끝이 서늘하고 몸을 오그렸다 뒤로 젖혔다 하며 아파서 견딜 수 없어하고 불알이 붓고 아파하며 눈에는 붉은 핏줄과 빨간 점이 생긴다. (배가 아플 때 마치 쇠꼬챙이에 내장이 걸린 듯하므로 내조라고 부른다.)

### ○釣藤膏 ○조등고

- 治內釣痛不可忍.
- 내조로 아파서 참을 수 없는 경우를 치료한다.
- 木香、薑黃 各四錢, 乳香、沒藥 各三錢, 木鼈子(肉) 十箇.
- 목향、강황 각 4돈, 유향、몰약 각 3돈, 목별자(과육) 10개.
- 右細末, 蜜調成膏, 收罐內, 量兒大小, 釣鉤藤或薄荷煎湯化服.
- 이상을 잘게 가루 낸 후 꿀과 버무려 고약처럼 만들고 항아리에 넣는다. 아이의 몸집을 가늠하여 조구등이나 박하 달인 물에 녹여 먹인다.

### ○五味木香散 ○오미목향산

- 治內釣盤腸疝痛.
- 내조、반장(盤腸)、산증(疝症)으로 아픈 것을 치료한다.
- 川練肉 七枚(用巴豆三十五粒, 去皮, 同炒黃色, 去豆), 木香、史君子(肉)、玄

胡索(炒)·茴香(炒) 各一錢.

- 천련육(파두 35개와 함께 껍질을 깠 천련육을 넣고 누렇게 되도록 볶은 후 파두는 버린다) 7개, 목향·사군자(과육)·현호색(볶는다)·회향(볶는다) 각 1돈.
- 右細末, 量兒大小加減, 米飲調服.
- 이상을 잘게 가루 낸 후 아이의 몸집대로 가감하여 미음에 타서 먹인다.

#### ◦古芍歸湯 ◦고궁귀탕

- 治內釣冷痛上衝.
- 내조에 냉통(冷痛)이 위로 치받는 증상을 치료한다.
- 當歸·川芎 各等分, 加乾薑·肉桂 等分, 丁香·沈香·青皮·小茴 減半.
- 당귀·천궁 각각 같은 양. 건강·육계를 같은 양만큼, 정향·침향·청피·소회는 절반만큼 더한다.
- 量宜加減, 煎服.
- 이상을 아이의 몸집대로 가감한 후 물에 달여 먹인다.

#### ◦魏朮散 ◦위출산

- 治內釣上衝驚啼.
- 내조로 통증이 치밀어 올라 경기를 부리며 우는 증상을 치료한다.
- 莪朮 五錢, 阿魏 一錢.
- 아출 5돈, 아위 1돈.
- ◦先用溫水化阿魏, 浸莪朮一宿, 焙乾爲末, 每半錢, 蘇葉煎湯或米飲調下.
- 먼저 따뜻한 물에 아위를 녹이고 아출을 하룻밤 담가놓았다가 불에 쪄어 말린 후 가루 낸다. 0.5돈씩 소엽 달인 물이나 미음에 타서 먹인다.

○乳香丸 ○유향환

- 治上同.
- 위와 같이 내조로 통증이 치밀어 올라 놀라면서 우는 증상을 치료한다.
- 乳香 五分, 沒藥、沈香 各一錢, 蝎梢 十四箇, 檳榔 一錢半.
- 유향 5푼, 몰약·침향 각 1돈, 갈초 14개, 빈랑 1.5돈.
- 右細末, 蜜丸梧子大, 一二丸, 菖蒲釣藤煎湯化服.
- 이상을 잘게 가루 낸 후 꿀에 개어 오자대로 환을 빚는다. 1-2환씩을 창포와 조구등 달인 물에 녹여 먹인다.

○木香丸 ○목향환

- 治驚風內釣, 腹痛, 眼目翻騰.
- 경풍이나 내조로 배가 아프고 눈이 뒤집히는 증상을 치료한다.
- 木香、全蝎(炒去毒) 各五分, 沒藥、茴香、釣藤 各一錢.
- 목향·전갈(볶아서 독을 제거한다) 각 5푼, 몰약·회향·조구등 각 1돈.
- 右細末, 以大蒜研爛, 和丸梧子大, 曬乾, 每一二丸, 釣藤煎湯化下.
- 이상을 잘게 가루 낸 후 큰 마늘 다진 것과 섞어 오자대로 환을 빚고 벌에 말린다. 1-2환씩 조구등 달인 물에 녹여 먹인다.

○沈乳感應丸 ○침유감응환

- 治一切積痛、蟲痛、盤腸痛、內釣冷痛.
- 적체·회충·반장(盤腸)으로 생긴 통증 및 내조로 생긴 냉통을 치료한다.
- 沈香、乳香、杏仁、木香、丁香 各一錢, 肉豆蔻(煨) 一箇, 百草霜 一分, 巴豆 十四箇(去殼, 爲霜).

- 침향·유향·행인·목향·정향 각 1돈, 육두구(갯불에 묻어 굽는다) 1개, 백초상 1푼, 파두 14개(겉질을 벗기고 파두상으로 만든다).
- 右細末, 酒煮過黃蠟和丸菉豆大, 每三四丸, 薑湯或釣鉤藤煎湯下. ○痢疾腹痛, 裏急後重, 亦宜.
- 이상을 잘게 가루 낸 후 술에 푹 찢 황랍과 섞어 녹두대로 환을 빚는다. 3-4환씩 생강탕이나 조구등 달인 물에 먹인다. ○이질로 배가 아프며 뱃속이 불편하고 뒤가 무거울 때도 좋다.

一士人子, 生未滿十朔, 患內釣, 三晝夜陡劇, 元氣漸削, 而啼不能聲, 眼不能開, 身面俱冷, 有奄奄難救之狀. 用釣藤膏二錢許, 分三服之, 其痛立止, 能吮乳就睡, 朝起, 眼中赤點無痕, 仍安.

〔의안〕 어떤 양반의 자녀가 10달을 채우지 못하고 태어난 후 내조를 앓았는데 3일 밤낮동안 아주 병세가 심하여 원기가 점점 줄어들고 우는 소리도 못 내며 눈도 뜨지 못하고 몸통과 얼굴이 모두 서늘하여 목숨 살리기 어려운 간당간당한 상황이었다. 조등고 2돈 정도를 3번에 나누어 먹였더니 통증이 바로 멎었고 젖을 빨며 잠이 들었다.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 눈에 있던 빨간 점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이내 편안해졌다.

沈參判〔聖希〕孫兒, 亦患內釣, 搐掣叫痛, 勢甚危篤, 用釣藤膏, 立愈, 可謂神劑, 李梴亦以至寶稱之.

〔의안〕 참판(參判) 심성희(沈聖希)의 손주도 내조를 앓았는데 팔다리가 오그라들면서 소리 지르고 아파하여 병세가 아주 위독하였다. 조등고를 써서 금세 나았으니 참으로 귀신같은 처방이라 할 만 하다. 이천도 이 약을 지극한 보배라고 일컬었다.

## 龜胸 구흉

龜胸者, 胸骨高起, 其狀如龜, 此肺藏受熱, 脹滿胸高, 卽成. 此疾, 槩因乳母多食五辛灸燂熱物之致也, 痰嗽氣急喘滿, 宜瀉白散〔方見諸熱〕, 加片芩(酒炒)、山梔(薑炒)各等分, 煎服. 痰盛, 合二陳湯〔方見咳嗽〕.

구흉은 흉골이 높게 솟아 거북이 모양 같이 되는 것으로 폐장이 열사를 받아 가슴이 뻥뻥해지고 흉골이 높게 솟게 된다. 이 병은 대개 유모가 오신채나 구운 고기나 전 같이 뜨거운 음식을 많이 먹어 생기게 되며 가래기침을 하고 숨이 가빠지며 헐떡이는 증상이 있다. 사백산(처방은 제열에 나온다)에 편금(술에 축여 볶는다)과 산치인(생강즙에 축여 볶는다) 각각 같은 양을 더하여 달여 먹여야 한다. 가래가 심할 때는 이진탕(처방은 해수에 나온다)을 합하여 먹인다.

### ○百合丹 ○백합단

- 治龜胸.
- 구흉을 치료한다.
- 大黃 七錢半, 天門冬、杏仁、百合、木通、桑白皮、枳殼、甜葶藶(炒)、石膏(煨) 各五錢.
- 대황 7.5돈, 천문동、행인、백합、목통、상백피、지각、침정력(볶는다)、석고(불에 달군다) 각 5돈.
- 右細末, 蜜丸菉豆大, 白湯下五七丸.
- 이상을 잘게 가루 낸 후 꿀에 개어 녹두대로 환을 빚고 끓인 물에 5-7환을 먹인다.





## 龜背 구배

龜背者, 嬰兒生下, 不能護背, 客風吹脊, 入於骨髓, 或坐太早, 背脊骨突起, 偃僂如龜, 多成癰疾, 宜服松藥丹, 又取龜尿, 點脊骨凸處, 或灸肺腧、膈腧 三五七莊<sup>1</sup>.

구배는 아이가 갓 태어난 후에 등을 잘 감싸주지 않아서 풍사가 등줄기로 침입하고 골수까지 들어가서 생기거나 혹은 너무 일찍 앉혀 생기게 된다. 등과 척추가 튀어나와 거북이처럼 구부정하게 되며 대부분 고질병이 된다. 송예단을 먹이고, 거북이 오줌을 구하여 척추의 튀어나온 곳에 찍어 발라준다. 혹은 폐수, 격수에 3-5장 뜸을 뜬다.

### ○松藥丹 ○송예단

- 治龜背.
- 구배를 치료한다.
- 松花、枳殼、防風、獨活 各一兩, 桂心、麻黃、大黃(酒炒)、前胡 各五錢.
- 송화, 지각, 방풍, 독활 각 1냥, 계심, 마황, 대황(술에 축여 볶는다), 전호 각 5돈.
- 右細末, 蜜丸黍米大, 量兒大小, 米飲下.
- 이상을 잘게 가루 낸 후 꿀에 개어 서미대로 환을 빚는다. 아이의 몸집을 가늠하여 미음에 먹인다.
- 一方, 何首烏爲末, 龜尿調付脊骨凸上, 自始萌連付此藥不絕, 以不乾爲度, 久久厚貼, 則間或有收效者.
- 다른 처방. 하수오를 가루 내고 거북이 오줌에 타서 등이 튀어나온 곳에 바른다. 이때부터 연달아 끊임없이 이 약을 발라주고, 약이 마르지 않게 한다. 오랫동안 두껍게 붙여놓으면 간혹 효과가 있기도 하다.

取龜尿法, 蓮葉上安龜, 稍久, 龜乃漸出頭, 以眼顧視之時, 急以鏡照之, 驚怯尿自出.  
○又法, 猪鬃衝插鼻孔, 龜尿自出, 以器承儲用之. ○上二法依施而難得, 但龜尾尻灸之, 則尿多放.

거북이 오줌을 얻는 방법. 연잎 위에 거북이를 놓고 한참 있으면 거북이가 점점 머리를 내미는데 눈을 뜰 때 급히 거울로 햇빛을 비추면 깜짝 놀라서 오줌을 싣다. ○다른 방법. 돼지의 뺏뺏한 털로 거북이의 콧구멍을 찌르면 거북이가 오줌을 싣는데 그릇에 담아 두었다가 싣다. ○이 2가지 방법으로 해도 오줌을 얻기 어려운 경우에는 단지 거북이 꿈무늬를 불로 지저도 오줌을 잔뜩 싣다.

按. 小兒胸骨高起者, 氣血漸長, 筋骨充實, 則勿藥自平, 如龜背者, 病在骨髓, 針<sup>2</sup>藥罔效, 終至不救, 但打撲墜落, 傷其大顙下一二顙, 以成偃僂者, 雖不免病癱人, 而亦不至死亡.

[안어] 아이의 흉골이 높게 솟은 구흉은 기와 혈이 점점 자라고 근골이 충실해지면서 약을 쓰지 않아도 저절로 평평해지지만, 구배 같은 경우는 병이 골수에 있기 때문에 침과 약이 모두 효과가 없고 결국 구할 수 없게 된다. 다만 맞거나 떨어져서 대추 아래 1-2개 척추가 상하여 구부정하게 된 경우에는 비록 장애를 피하지는 못하지만 죽음에 이르지 않는다.

1. 三五七莊 : \*三五莊 ※《동의보감》↩

2. 針 : \*鍼 ※규장각본 ↩

## 解顱 해로

解顱者, 頭縫開解不合, 由腎氣不成故也. 腎主髓腦, 爲髓海, 腎氣有虧, 腦髓不足, 如木無根不過千日, 終成廢人, 宜腎氣丸, 或八物湯, 加(酒炒)芩、連, 外用南星、白藪爲末, 醋調攤帛上, 貼顱開處, 灸手慰之.

해로는 머리뼈가 붙지 않고 벌어진 것으로 신장의 기운이 영글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다. 신장은 골수와 뇌를 주관하는 수해(髓海)인데 신장의 기운이 부족하면 뇌수가 부족하게 된다. 마치 나무에 뿌리가 없으면 1000일을 넘길 수 없는 것과 같으니 결국 장애가 생기게 된다. 신기환을 쓰거나, 혹은 팔물탕에 황금(술에 축여 볶는다)·황련(술에 축여 볶는다)를 더해 써야 한다. 외치법으로는 남성과 백령을 가루 내고 식초에 타서 천에 바른 후 머리뼈가 열린 곳에 붙이고 불에 찢 손으로 찜질해준다.

### ○三辛散 ○삼신산

- 治解顱.
- 해로를 치료한다.
- 乾薑 七錢半, 細辛、桂心 各五錢.
- 건강 7.5돈, 세신·계심 각 5돈.
- 右細末, 薑汁和貼顱上, 以熱手慰之, 兒面赤即愈.
- 이상을 잘게 가루 내고 생강즙과 섞어 솥구멍에 붙인 후 뜨거운 손으로 찜질해 준다. 아이의 얼굴이 발갛게 되면서 곧 낫는다.

### ○六味地黃丸 ○육미지황환

- 治虛勞, 腎氣衰弱, 久新憔悴, 寢汗發熱, 五臟齊損, 瘦弱虛煩, 骨蒸委弱, 脈沈

而虛。此藥全補左尺腎水，兼理脾胃，少年水虧火旺，陰虛之症，最宜服之。

- 허로로 신장의 기운이 쇠약하거나, 오랫동안 혹은 얼마 전부터 초체하거나, 잘 때 땀을 흘리며 열이 나거나, 오장이 모두 손상되었거나, 비쩍 마르고 허번하거나, 골증열로 힘이 없이 약하면서 맥은 침하고 허한 경우를 치료한다. 이 처방은 왼쪽 척맥에 해당하는 신수를 온전히 보해주면서 비위도 다스려주기 때문에 수기가 허하고 화기가 왕성한 음허증이 있는 아이에게 가장 적합하다.
- 熟地黃 八兩, 山藥、山茱萸 各四兩, 白茯苓、牡丹皮、澤瀉 各三兩.
- 숙지황 8냥, 산약、산수유 각 4냥, 백복령、목단피、택사 각 3냥.
- 右細末, 蜜丸梧子大, 空心鹽湯或溫酒下五七十丸. ○血虛陰衰, 熟芩爲君, 精滑, 山茱萸爲君, 小便或多或少, 白茯苓爲君, 小便淋瀝, 澤瀉爲君, 心氣不足, 牡丹皮爲君, 皮膚乾澁, 山藥爲君〔熟芩泥膈, 浸薑汁, 拌縮砂末, 曬用〕.
- 이상을 잘게 가루 낸 후 꿀에 개어 오자대로 환을 빚고 빈속에 엽탕이나 따뜻한 술에 50-70환씩 먹인다. ○혈이 허하고 음기가 쇠한 경우에는 숙지황을 군약으로 삼는다. 정액이 새는 경우에는 산수유를 군약으로 삼는다. 소변이 잦거나 조금씩 나오는 경우에는 백복령을 군약으로 삼는다. 소변이 찝끔찝끔 떨어지면 택사를 군약으로 삼는다. 심기가 부족한 경우에는 목단피를 군약으로 삼는다. 피부가 건조한 경우에는 산약을 군약으로 삼는다.〔숙지황은 갈아서 생강즙에 담갔다가 축사 가루와 섞은 후別に 말려서 쓴다.〕

#### ○腎氣丸 ○신기환

- 六味丸一劑, 加五味子四兩, 滋養肺金, 以生腎水之源. ○此藥, 水泛爲痰之聖藥, 血虛發熱之神劑, 又能補肝益胃, 治與上同.
- 육미지황환 1제에 오미자 4냥을 더한 것으로 폐금을 길러주어 신수의 근원을 살아나게 한다. ○이 처방은 수기가 넘쳐 담이 된 경우의 명약이며, 혈이 허하여 열이 나는 경우의 성약이다. 또한 간기를 보해주며 위기를 더해준다. 주치는 육미지황환과 같다.

○八味丸 ○팔미환

- 六味丸一劑, 加附子、肉桂各一兩, 製服法, 與六味丸同. ○命門陽虛, 腎氣虧損, 下元氣虛, 冷腰痛脚軟, 夜多漩尿, 面黑皮皺, 耳鳴目暗之良藥<sup>1</sup>.
- 육미지황환 1제에 부자와 육계를 1냥씩 더한 것으로 제법과 복용법은 육미지황환과 같다. ○명문의 양기가 허하거나, 신기가 빠져버렸거나, 하원(下元)의 기운이 허하거나 냉요통·각연(脚軟)이 있거나, 밤에 자주 이불에 오줌을 싸거나, 얼굴이 검게 되면서 피부가 푸석해지거나, 이명이 있으면서 눈앞이 깜깜해지는 증상이 있을 때 좋은 처방이다.

○當歸地黃丸 ○당귀지황환

- 六味丸一劑, 加當歸三兩, 以補血不足.
- 육미지황환 1제에 당귀 3냥을 더한 것으로 부족한 혈을 보해준다.

○人參地黃丸 ○인삼지황환

- 六味丸, 加人參一兩, 以補氣不足.
- 육미지황환에 인삼 1냥을 더한 것으로 부족한 기를 보해준다.

以上丸劑, 并治腎氣不成, 顱顙自開, 又治骨節呈露如鶴膝, 及氣血俱虛.

이상의 환약은 신장의 기운이 영글지 못한 경우나 머리뼈가 벌어진 경우까지도 치료한다. 또한 뼈마디가 드러나 학슬푹처럼 된 경우와 기와 혈이 모두 허한 경우도 치료한다.

○八物湯 ○팔물탕

- 治虛勞, 氣血兩虛, 能調陰陽.

- 허로로 기와 혈이 모두 허한 경우를 치료한다. 음양의 기운을 고르게 해준다.
- 人參、白朮、白茯苓、熟地黃、當歸、白芍藥、川芎、甘草 各一錢.
- 인삼、백출、백복령、숙지황、당귀、백작약、천궁、감초 각 1돈.
- 右剉, 水煎服. ◦熱, 加(酒炒)芩、連.
- 이상을 썰고 물에 달여 먹인다. ◦열이 있으면 황금(술에 축여 볶는다)과 황련(술에 축여 볶는다)를 더하여 쓴다.

#### ◦十全大補湯 ◦십전대보탕

- 八物湯, 加黃芪、肉桂等分, 治氣血兩虛, 陽氣不足, 虛汗黃瘦尤可.
- 팔물탕에 황기와 육계 각각 같은 양을 더한 것이다. 기와 혈이 모두 허하고 양기가 부족하며 허한(虛汗)을 흘리며 누렇게 마르는 경우에 더욱 좋다.

顱填者, 顱門腫起也. 脾主肌肉, 乳哺失宜, 脾氣虧損, 則臟腑不調, 氣逆上衝, 而爲填脹, 宜補中益氣湯〔方見吐瀉〕、人參地黃丸, 或風熱上攻, 顱門突起者, 瀉青丸〔方見驚風〕.

십전(顱填)은 솟구멍이 붓고 튀어나오는 것이다. 비장은 기육을 주관하는데 젖을 제대로 먹지 못해 비장의 기운이 빠지게 되면 장부의 균형이 깨져 기운이 거꾸로 위로 치밀어 오르기 때문에 붓고 튀어나오는 것이다. 보중익기탕(처방은 토사에 나온다)이나 인삼지황환을 써야 한다. 간혹 풍열이 위로 치받아 솟구멍이 튀어나온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사청환(처방은 경풍에 나온다)을 쓴다.

顱陷者, 顱門成坑也. 久泄久痢, 脾氣下陷, 氣血虛弱, 不能上充腦髓, 故顱門如坑, 不得平滿, 黃狗頭骨, 灸黃爲末, 鷄子清調敷, 補中益氣湯, 或十全大補湯, 加炮附子, 煎服.

신함(顱陷)은 솟구멍이 움푹해진 것이다. 오랜 설사나 이질로 비장의 기운이 무너지면 기와 혈이 허약해져 뇌수를 채워줄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솟구멍이 구덩이처럼 되고 평평하게 채워지지 못하는 것이다. 황구의 머리뼈를 누렇게 구워 가루 낸 후 달걀흰자와 섞어 바른다. 보중익기탕이나 십전대보탕에 부자(습지에 싸서 굽는다)를 더하고 물에 달여 먹인다.

---

1. 藥 : 劑 ※규장각본 ↩



## 五軟五硬 오연·오경

五軟者, 頭軟、項軟、身軟、手軟、脚軟, 是也, 名曰胎怯. 原因父精不足, 母血衰弱之致, 縱使成人, 精髓不充, 筋骨痿弱, 肌肉瘦黃, 神色昏慢, 六淫所侵, 疾病多生, 以調元散, 雙補氣血, 六味丸, 滋補腎水, 謹慎調養, 乃可支保.

오연(五軟)은 두연(頭軟)·항연(項軟)·신연(身軟)·수연(手軟)·각연(脚軟)으로 태겁(胎怯)이라고도 한다. 아버지의 정(精)이 부족하고 어머니의 혈이 쇠약하기 때문에 생긴다. 비록 사람의 형체는 갖추었지만 정수가 채워지지 않고 근골이 힘없이 약하며 기육이 누렇게 마르고 정신이 혼미하기 때문에 육기가 침범하면 병이 자주 생긴다. 조원산으로 기와 혈을 동시에 보해주고 육미지황환으로 신수를 늘려주며 조심 또 조심하면서 잘 길러주면 목숨을 보전할 수 있다.

頭軟者, 頭不正, 項軟者, 天柱骨倒也, 有吐瀉久弱而成, 宜補脾胃, 補中益氣湯〔方見吐瀉〕, 大病後, 天柱骨倒, 十全大補湯〔方見解顱〕, 腎疳, 有天柱骨倒, 參考疳疾, 有傷寒未及發表成者, 難治.

두연(頭軟)은 머리가 똑바로 서있지 못한 것이며 항연(項軟)은 목을 가누지 못하는 것으로, 오랜 구토와 설사로 약해져서 생기기 때문에 비위를 보해주는 보중익기탕(처방은 토사에 나온다)을 써야 한다. 큰 병을 앓은 후에 목을 가누지 못하는 경우에는 십전대보탕(처방은 해로(解顱)에 나온다)을 써야 한다. 신감(腎疳)으로 목을 가누지 못하는 경우에는 감질 부분을 참고하라. 상한에 미처 발표시키지 못해 목을 가누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치료하기 어렵다.

### ○羊角散 ○양각산

- 治肝膽伏熱, 唇面俱紅, 肌膚溫熱, 筋緩項軟.
- 간장과 담에 잠복된 열로 입술과 얼굴이 모두 붉고 피부가 뜨끈뜨끈하며 힘줄

이 늘어져 항연이 생긴 경우를 치료한다.

- 羚羊角、白茯苓、虎脛骨(酥灸)、酸棗仁、桂心、防風、熟苳、甘草 各等分.
- 영양각, 백복령, 호경골(연유를 발라 굽는다), 산조인, 계심, 방풍, 숙지황, 감초 각각 같은 양.
- 右細末, 每一錢, 溫酒或米飲調服.
- 이상을 잘게 가루 낸 후 1돈씩 따뜻한 술이나 미음에 타서 먹인다.

#### ○涼肝丸 ○양간환

- 治同上, 又治痘後目赤腫痛.
- 주치는 위의 양각산과 같다. 또한 두창을 앓은 후에 눈이 빨개지며 붓고 아픈 증상을 치료한다.
- 防風 二錢, 人參、赤茯苓 各一錢半, 黃芩、茺蔚子、玄參(酒洗)、大黃(酒炒)、知母 各一兩.
- 방풍 2돈, 인삼, 적복령 각 1.5돈, 황금, 충울자, 현삼(술로 씻는다), 대황(술에 축여 볶는다), 지모 각 1냥.
- 右末, 蜜丸菉豆大, 量兒大小, 食後茶清下.
- 이상을 가루 낸 후 꿀에 개어 녹두대로 환을 빚는다. 아이의 몸집을 가늠하여 식 후에 찹물로 먹인다.

#### ○健骨散 ○건골산

- 治久患痿疾, 體虛不食, 及諸病後天柱骨倒.
- 오래된 위병(痿病)으로 몸 전체가 허약하고 먹지 못하는 증상 및 병을 앓은 후에 목을 가누지 못하는 증상을 치료한다.
- 單白殭蠶炒爲末, 每三五分, 薄荷泡酒調服, 日二三次.

- 백강잠을 볶아서 가루 낸 후 3-5푼씩 박하를 담근 술에 타서 하루 2-3번 먹인다.

#### ○生筋散 ○생근산

- 木鱉子六箇, 葶麻子六十箇, 俱去殼搗爛, 先抱起兒頭, 磨頂上令熱後, 用津唾調勻, 貼軟處.
- 목별자 6개, 피마자 60개를 모두 껍질을 까서 짓찧는다. 우선 아이의 머리를 안아서 세우고 정수리를 문질러서 따뜻하게 한 후 약에 침을 잘 섞어 정수리의 말랑말랑한 부분에 붙인다.

#### ○貼頂方 ○첩정방

- 生附子、南星等分, 爲末, 生薑自然汁調, 付頂軟處.
- 생부자와 남성 각각 같은 양을 가루 낸 후 생강즙과 섞어 정수리의 말랑말랑한 부분에 붙인다.

手軟者, 無力以動, 所受肝弱, 兩手筋縮, 不能舒伸也.

수연(手軟)은 손을 움직일 힘이 없는 것으로, 간장이 허약하여 양 손의 근이 수축된 상태로 펴지 못하는 증상이다.

#### ○薏苡丸 ○의이환

- 治手軟無力.
- 수연으로 손에 힘이 없는 증상을 치료한다.
- 薏苡仁、當歸、秦艽、酸棗仁、防風、羌活 各一兩.
- 의이인、당귀、진교、산조인、방풍、강활 각 1냥.
- 右末, 蜜丸梔子大, 每一丸或二丸, 麝香荊芥煎湯化下.
- 이상을 가루 낸 후 꿀에 개어 조자대로 환을 빚는다. 1-2환씩 사향과 형개 달인

물에 녹여 먹인다.

脚軟者, 行遲也, 乃骨髓不滿, 氣血不充, 筋脈不能束骨, 宜腎氣丸〔方見解顱〕, 加牛膝、五加皮、鹿茸.

각연(脚軟)은 걸음이 느린 것으로, 골수가 가득 차지 못하고 기와 혈도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근맥이 뼈를 잡아주지 못하는 것이다. 신기환(처방은 해로에 나온다)에 우슬·오가피·녹용을 더하여 써야 한다.

#### ○羊角丸 ○양각환

- 治五歲不能行.
- 다섯 살이 되어도 걷지 못하는 증상을 치료한다.
- 羚羊角、虎脛骨(酥灸)、生苳、酸棗仁、白茯苓 各五錢, 桂心、防風、當歸、黃芪 各二錢半.
- 영양각·호경골(연유를 발라 굽는다)·생지황·산조인·백복령 각 5돈, 계심·방풍·당귀·황기 각 2.5돈.
- 右末, 蜜丸芡實大, 每一二丸, 溫酒化服. ○加五加皮一兩, 牛膝、木瓜各五錢, 治二三歲不能行.
- 이상을 가루 낸 후 꿀에 개어 검실대로 환을 빚고 1-2환씩 따뜻한 술에 녹여 먹인다. ○오가피 1냥, 우슬·목과 각 5돈을 더해 쓰면 2-3살이 되어도 걷지 못하는 증상을 치료한다.

#### ○海桐散 ○해동산

- 治脚脂蹇縮無力, 不能伸展.
- 다리와 발가락이 힘없이 오그라들어 쭉 펴지 못하는 증상을 치료한다.
- 海桐皮、牡丹皮、當歸、熟苳、牛膝(酒洗) 各二分, 山茱萸、補骨脂 各一分.

- 해동피·목단피·당귀·숙지황·우슬(술로 씻는다) 각 2푼, 산수유·보골지 각 1푼.
- 右剉, 入葱, 煎服.
- 이상을 썬 후 충백을 넣고 달여 먹인다.

○虎骨丸 ○호골환

- 治行遲.
- 걸음이 더딘 증상을 치료한다.
- 虎脛骨(酥炙)·乾芩·酸棗仁(炒)·白茯苓·肉桂·防風·當歸·川芎·牛膝(酒洗)·黃芪 各等分.
- 호경골(연유를 발라 굽는다)·건지황·산조인(볶는다)·백복령·육계·방풍·당귀·천궁·우슬(술로 씻는다)·황기 각각 같은 양.
- 右末, 蜜丸麻子大, 木瓜湯下十丸.
- 이상을 가루 낸 후 꿀에 개어 마자대로 환을 빚고 목과탕에 10환을 먹인다.

○五加皮散 ○오가피산

- 治三歲不能行.
- 세 살이 되어도 걷지 못하는 증상을 치료한다.
- 五加皮 二錢半, 牛膝(酒洗)·木瓜 各一錢二分半.
- 오가피 2.5돈, 우슬(술로 씻는다)·목과 각 1.25돈.
- 右細末, 每一錢, 米飲調下.
- 이상을 잘게 가루 낸 후 1돈씩 미음에 타서 먹인다.

○調元散 ○조원산

- 治行遲.
- 걸음이 더딘 증상을 치료한다.
- 山藥 五分(炒黃), 白朮、白芍藥、熟苳、當歸、川芎、黃芪(蜜炒) 各二分半, 人參、白茯苓、茯神 各二分, 甘草 一分半, 石菖蒲 一分.
- 산약(누렇게 볶는다) 5푼, 백출·백작약·숙지황·당귀·천궁·황기(꿀을 묻혀 볶는다) 각 2.5푼, 인삼·백복령·복신 각 2푼, 감초 1.5푼, 석창포 1푼.
- 右剉, 入薑三棗二, 水煎服.
- 이상을 썬 후 생강 3조각과 대조 2개를 넣고 물에 달여 먹인다.

身軟者, 肉少皮膚自離, 飲食不爲肌膚, 四君子湯、補中益氣湯(二方見吐瀉), 遍身筋軟者, 鹿茸四斤丸, 加當歸、青鹽各等分.

신연(身軟)은 살이 별로 없고 피부가 푸석푸석하며 음식을 먹어도 살이 붙지 않는 증상이다. 사군자탕과 보중익기탕(두 처방은 토사에 나온다)을 쓴다. 온몸에 힘이 없는 경우에는 녹용사근환에 당귀·청염 각각 같은 양을 더하여 쓴다.

#### ○鹿茸四斤丸 ○녹용사근환

- 治身軟筋骨痿弱.
- 신연으로 근골에 힘이 없고 허약한 경우를 치료한다.
- 肉蓯蓉(酒浸去甲)、牛膝(酒洗)、木瓜、兔絲子、熟苳、鹿茸(酥灸)、天麻、杜沖、五味子 各等分.
- 육종용(술에 담갔다가 껍질을 제거한다)·우슬(술로 씻는다)·목과·토사자·숙지황·녹용(연유를 발라 굽는다)·천마·두충·오미자 각각 같은 양.
- 右細末, 蜜丸梧子大, 每三五十丸, 溫酒或米飲下.
- 이상을 잘게 가루 낸 후 꿀에 개어 오자대로 환을 빚는다. 30-50환씩 따뜻한 술

이나 마음으로 먹인다.

口軟者, 語遲也, 嬰兒在胎<sup>1</sup>, 母卒有驚怖, 驚氣乘胞絡之經, 使生子心神不足, 舌本不通, 五歲猶不能言.

구연(口軟)은 말이 더딘 증상으로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어머니가 갑자기 놀라게 되어 놀란 기운이 수결음심포경을 침범했기 때문에 아이의 심신이 부족하고 혀뿌리까지 기운이 잘 소통되지 않아 5살이 되어도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 ○菖蒲丸 ○창포환

- 治心氣不足不能言, 又治諸病後不能言.
- 심기가 부족하여 말을 하지 못하는 증상과 병을 앓은 후에 말을 하지 못하는 증상을 치료한다.
- 石菖蒲、人參、麥門冬、遠志、當歸、川芎 各二錢, 乳香、朱砂 各一錢.
- 석창포、인삼、맥문동、원지、당귀、천궁 각 2돈, 유향、주사 각 1돈.
- 右末, 蜜丸麻子大, 每二三十丸, 米飲下, 日三服.
- 이상을 가루 낸 후 꿀에 개어 마자대로 환을 빚는다. 20-30환씩 미음에 하루 3번 먹인다.

#### ○鷄頭丸 ○계두환

- 治諸病後不能言.
- 병을 앓은 후에 말을 하지 못하는 증상을 치료한다.
- 鷄頭 一箇(灸), 鳴蟬 三箇(灸焦), 大黃(炒)、甘草(灸) 各一兩, 人參、木通、黃芪 各五錢, 當歸、川芎、遠志、麥門冬 各七錢半.
- 계두(굽는다) 1개, 명선(까맣게 굽는다) 3개, 대황(볶는다)、감초(굽는다) 각 1

냥, 인삼·목통·황기 각 5돈, 당귀·천궁·원지·맥문동 각 7.5돈.

- 右末, 蜜丸小豆大, 每五丸, 空心米飲下, 久服取效.
- 이상을 가루 낸 후 꿀에 개어 소두대로 환을 빚는다. 5환씩 빈속에 미음으로 먹인다. 오래 먹어야 효과가 있다.

齒遲者, 齒生遲也, 因稟氣不足, 骨髓不能充骨, 故齒乃遲生而不能固, 宜腎氣丸、十全大補湯(三<sup>2</sup>方見解顚), 加黃栢、知母(鹽酒炒), 外用當歸、川芎、白芍藥、沈香、甘草、山藥各等分, 細末, 糝齒齦上, 仍以白湯漱口調服.

치지(齒遲)는 이가 더디게 나는 것이다. 타고난 기운이 부족하여 골수가 뼈를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이가 더디게 나고 견고히 붙어있지 못하는 것이다. 신기환·십전대보탕(두 처방은 해로에 나온다)에 황백·지모(소금 넣은 술에 축여 볶는다)를 더해 써야 한다. 외치법으로는 당귀·천궁·백작약·침향·감초·산약 각각 같은 양을 잘게 가루 낸 후 이와 잇몸에 뿌려주고 끓인 물로 입을 헹구다가 삼킨다.

- 一方, 雄鼠糞二十粒, 每日用一粒, 揩齒齦上, 至二十一日, 齒乃生. ○老雄鼠脊骨, 爲末, 入麝香少許, 和勻, 以針刺齦上皮數三處, 將藥末擦摩, 日三四次.
- 다른 처방. 숫쥐의 똥 20알을 구하여 매일 1알씩 이와 잇몸에 문지르면 21일째 이가 난다. ○늙은 숫쥐의 척추를 가루 낸 후 사향을 조금 넣고 잘 섞는다. 바늘로 잇몸을 3군데 정도 찌르고 약 가루를 그곳에 문지른다. 이렇게 하루 3-4번 한다.

髮遲者, 髮生遲也, 因稟受氣血不足, 不能榮於上也.

발지(髮遲)는 머리카락이 더디게 나는 것이다. 타고난 기와 혈이 부족하기 때문에 위쪽을 길러주지 못하는 것이다.

○肉蓯蓉丸 ○육종용환



- 治頭髮不生, 又色黃焦, 短不長.
- 머리카락이 나지 않는 경우를 치료한다. 또한 색깔이 약간 노랗거나 머리카락이 자라지 않는 경우도 치료한다.
- 肉蓯蓉(酒浸去甲)、當歸(酒洗)、熟苳、川芎、白芍藥 各一兩, 胡粉 五錢.
- 육종용(술에 담갔다가 껍질을 제거한다)、당귀(술로 씻는다)、속지황、천궁、백작약 각 1냥, 호분 5돈.
- 右細末, 蜜丸黍米大, 每十丸, 黑豆湯下, 仍磨化抹頭上.
- 이상을 잘게 가루 낸 후 꿀에 개어 서미대로 환을 빚는다. 10환씩 검은콩 달인 물에 먹이고, 그 검은콩을 갈아서 머리에 문질러준다.
- 一方, 頭髮不生, 或稀短不長, 香薷<sup>3</sup>二兩, 水一椀, 煎至半, 入猪膽<sup>4</sup>半兩, 和勻, 每日塗頭髮.
- 다른 처방. 머리카락이 나지 않거나 듚성듬성하거나 자라지 않는 경우에는 향유 2냥을 물 1사발에 넣고 절반이 되도록 달인 후 돼지 쓸개 0.5냥과 잘 섞어 매일 머리카락에 발라준다.

五硬者, 頭項四肢, 強直冰冷, 乃肝受風邪也, 宜小續命湯、烏藥順氣散(二方見剛症). ◦腹大骨痛不寬者, 五積散(方見外感), 加烏藥僵蠶, 若心腹俱硬面青者, 死.

오경(五硬)은 머리와 뒷목과 사지가 뻣뻣해지면서 얼음처럼 서늘해지는 것으로 간장이 풍사를 받아서 생긴다. 소속명탕·오약순기산(두 처방은 강치에 나온다.)을 써야 한다. ◦배가 부풀고 뼈가 아프며 불편한 경우에는 오적산(처방은 외감에 나온다)에 오약과 백강잠을 더하여 쓴다. 만약 배 전체가 단단하고 얼굴이 파랗게 되면 죽는다.

按. 解顱五硬等證, 其或生後不能調護而成, 神不脫能乳食者, 猶或可治也. 本稟腎水不成, 以致斯疾者, 古人良方雖多, 亦末如之何也已.

〔안어〕해로나 오경 같은 병은 간혹 생후에 잘 돌보지 못하여 생길 수도 있는데, 정신이 멀쩡하고 젖이나 밥을 먹는 경우라면 간혹 치료할 수도 있다. 그러나 태어날 때부터 신수가 영글지 않아서 병이 된 경우에는 옛 사람들이 좋다는 처방이 많다 하더라도 어떻게 할 수 없을 따름이로다.

---

1. 胎：腹 ※규장각본 [↩](#)

2. 三：\*二 ※문맥상 [↩](#)

3. 薰：油 ※규장각본 [↩](#)

4. 膽：肝 ※규장각본 [↩](#)

## 鶴膝 학슬풍

鶴膝風者, 其腿漸細, 其膝愈大, 狀如鶴膝, 所稟腎氣不足, 外邪乘之, 膝內作痛, 而外色不變, 若數月內, 焮腫色赤而作膿者, 可治, 腫硬色白而不作膿者, 難治, 宜腎氣丸〔方見解顱〕, 加五加皮、鹿茸、牛膝, 外以大南星炮, 爲末醋調, 烘熱貼之.

학슬풍은 허벅지가 점점 가늘어지면서 무릎이 점점 커져서 모양이 마치 학의 무릎같이 되는 것이다. 타고난 신장의 기운이 부족한 상태에서 사기가 침범하여 무릎이 아프지만 피부색은 변함이 없다. 만약 몇달 안에 후끈하며 붓고 빨갛게 되면서 고름이 생기는 경우에는 치료할 수 있지만, 딱딱하게 붓고 하얗게 되면서 고름이 생기지 않는 경우에는 치료가 어렵다. 신기환〔처방은 해로에 나온다〕에 오가피, 녹용, 우슬을 더해 써야 한다. 외치법으로는 큰 남성(습지에 싸서 굽는다)을 가루 낸 후 식초에 개어 뜨겁게 데워 붙여준다.

### ○大防風湯 ○대방풍탕

- 治鶴膝風, 腫痛不消, 或潰而不斂.
- 학슬풍으로 붓고 아픈 것이 가라앉지 않는 경우 혹은 고름은 터졌으나 아물지 않는 경우를 치료한다.
- 熟地黃 一錢半, 白朮、防風、當歸、白芍藥、杜沖、黃芪 各一錢, 附子(炮)、川芎、牛膝(酒洗)、羌活、人參、甘草 各五分.
- 숙지황 1.5돈, 백출, 방풍, 당귀, 백작약, 두충, 황기 각 1돈, 부자(습지에 싸서 굽는다), 천궁, 우슬(술로 씻는다), 강활, 인삼, 감초 각 5푼.
- 右剉, 入薑五片棗二枚, 水煎服. 祛風順氣, 活血脈, 壯筋骨. ○小兒膝大腫痛者, 十無一生.
- 이상을 썬 후 생강 5조각과 대조 2개를 넣고 물에 달여 먹인다. 이 약은 풍사를 몰아내고 기를 순조롭게 하며 혈맥을 살아나게 하고 근골을 튼튼하게 한다. ○

아이가 무릎이 심하게 붓고 아픈 경우는 열에 하나도 살지 못한다.

○獨活湯 ○독활탕

- 治鶴膝, 及中風中濕, 腰背手足疼痛, 晝輕夜重, 四肢痿痺不仁.
- 학슬풍을 치료한다. 또한 증풍과 증습으로 허리나 배나 손발이 쭈시고 아프며 낮에는 덜하다가 밤에 심한 경우와 사지가 힘이 없고 저리며 감각이 이상한 경우도 치료한다.
- 獨活 五錢, 黃芪(蜜炒)、當歸(酒洗)、白朮、薄桂、牛膝(酒洗) 各二錢半, 甘草(炙) 二錢.
- 독활 5돈, 황기(꿀을 묻혀 볶는다)、당귀(술로 씻는다)、백출、박계、우슬(술로 씻는다) 각 2.5돈, 감초(살짝 볶는다) 2돈.
- 右剉, 每二錢, 入薑三蔥白二, 水煎, 空心溫服.
- 이상을 썬 후 2돈씩 생강 3조각과 총백 2줄기를 넣고 물에 달여서 빈속에 따뜻하게 먹인다.

# 及幼方卷之五 금유방 권5

橫城 趙廷俊重卿 集

횡성 조정준(趙廷俊, 字 重卿) 편저

## 麻疹〔俗紅疫〕마진〔홍역〕<sup>1</sup>

麻疹, 乃腸胃之熱, 蒸於肺, 挾外感內傷而並發, 與痘症, 表似同, 裏實異. 初熱三日, 出脹共三日, 出而又沒沒而又出, 出沒一周時許, 重者, 遍身彌脹, 眼亦封閉, 有赤白微黃不同, 仍要紅活, 最嫌黑陷, 及面目胸腹稠密, 咽喉纒纏者, 逆, 發不出而喘者, 卽死. 與大科癰疹相似, 又與傷寒發痧, 亦相似, 但發痧如錦紋有空缺處, 如雲頭狀, 麻則如麻遍身無空, 而但疏密不同耳. 仍有夾痧夾丹夾瘡同出者.

마진은 장위의 열이 폐를 뜨겁게 한 상태에서 외감이나 내상이 겹쳤을 때 발생하며, 두창과 겉은 비슷하지만 속은 전혀 다르다. 처음 열이 나는 기간이 3일, 열꽃이 돋고 부풀어 오르는 기간이 3일(열꽃이 돋은 후 없어지기도 하고, 없어진 후 다시 돋기도 한다)로 열꽃이 돋았다가 없어지는 데 1주일 정도이다. 심한 경우에는 온몸에 빼곡히 부풀고 눈도 뜨지 못한다. 색깔은 붉은색·흰색·약간 누런색으로 같지 않는데 탕탕하고 새빨갳게 되는 것이 중요하며 검게 움푹 파이면서 얼굴·눈·가슴·배에 뽕뽕하게 나고 목구멍 속까지 번진 경우는 가장 좋지 않은 경우이니 역증이다. 열꽃은 있으나 부풀지 않고 숨을 헐떡이는 경우는 곧 죽게 된다. 성인의 은진(癰疹)과 비슷하다. 상한으로 생긴 반진과도 비슷한데 반진은 마치 비단 무늬에 구름 모양 같이 빈 곳이 있는 반면에, 마진은 삼씨처럼 온몸에 빈 곳 없이 덮고 있고 밀도가 다를 뿐이다. 물론 마진에 반진·단독·창이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初起呵欠, 發熱惡寒, 咳嗽噴嚏, 流涕頭眩, 全類傷寒, 但面赤中指冷爲異, 宜升麻葛根湯〔方見外感〕, 加蘇葉·葱白以解肌, 切忌大汗, 痧不紅者亦宜, 乃麻症初起之神方. 潮熱甚, 加芩<sup>2</sup>連·地骨皮, 譫語, 調朱砂六一散〔方見暑症〕, 咳嗽, 加麻黃·杏仁·麥門冬·石膏, 咳甚, 別用涼膈散〔方見咽喉〕, 泄瀉, 四苓散〔方見泄瀉〕, 便血, 合犀角地黃湯〔方見諸血〕, 衄血, 加炒山梔, 寒熱如瘧, 小紫胡湯〔方見外感〕.

발병 초기에는 하품하고 오한발열이 있으며 기침과 재채기를 하며 콧물이 흐르고 머리가 어지러워 모든 증상이 상한과 비슷한데, 다만 얼굴이 붉어지고 증지가 차가워지는 증상이 다르다. 승마갈근탕(처방은 외감에 나온다)에 소엽과 총백을 더하여 해기시켜야 하고 절대 땀을 크게 내지 말아야 한다. 열꽃이 새빨갰지 않은 경우에도 적합하니 마진 발병 초기의 신호방이다. 조열이 심한 경우에는 황금、황련、지골피를 더한다. 섬어(譫語)에는 주사육일산(처방은 서증에 나온다)을 타서 쓴다. 기침에는 마황、행인、맥문동、석고를 더한다. 심한 기침에는 별도로 양격산(처방은 인후에 나온다)을 쓴다. 설사에는 사령산(처방은 설사에 나온다)을 함께 쓴다. 변혈에는 서각지황탕(처방은 제혈에 나온다)을 합해 쓴다. 코피에는 산치인(볶는다)을 더해 쓴다. 학질처럼 한열왕래가 있으면 소시호탕(처방은 외감에 나온다)을 함께 쓴다.

#### ○加味升麻湯 ○가미승마탕

- 治麻疹表藥, 或隣家已有疹, 預宜服此.
- 마진에 발표시키는 약이다. 이웃사람이 마진에 걸렸다면 미리 이 약을 먹여야 한다.
- 升麻、玄參(酒洗)、柴胡、黃芩 各五錢, 葛根、赤芍藥 各四錢, 獨活、甘草 各三錢.
- 승마、현삼(술로 씻는다)、시호、황금 각 5돈, 갈근、적작약 각 4돈, 독활、감초 각 3돈.
- 右剉, 每日用四錢, 入薑三蔥白二, 水煎服.
- 이상을 썬 후 매일 4돈씩 생강 3조각과 총백 2줄기를 넣고 물에 달여 먹인다.

#### ○蘇葛湯 ○소갈탕

- 初發熱, 未見點跡, 發表之藥, 暫可用之. 其錢數, 量兒大小, 加減製服.

- 발병 초기 열은 나지만 열꽃이 보이지 않을 때 발표시키는 약으로 잠깐 쓰는 약이다. 분량은 아이의 몸집을 가늠한 후 가감하여 지어 먹인다.
- 蘇葉、葛根、甘草 各二錢, 白芍藥 一錢半, 陳皮、砂仁 各五分.
- 소엽、갈근、감초 각 2돈, 백작약 1.5돈, 진피、사인 각 5푼.
- 右剉, 入薑三葱白二, 水煎服.
- 이상을 썬 후 생강 3조각과 총백 2줄기를 넣고 물에 달여 먹인다.

#### ○麻黃湯 ○마황탕

- 發熱六七日以後, 明是疹子, 而却不見出, 此肌膚堅厚, 腠理閉密, 又或爲風寒所襲, 或曾有吐利, 內氣陷伏, 急用此發表, 外用胡荽酒蘸麻刮之, 如不出, 不治.
- 마진으로 6-7일 동안 열이 난 후 분명히 열꽃은 있으나 좀처럼 밖으로 돋지 않는 것은 피부가 단단하고 두껍거나 주리가 닫혀있고 뻣뻣하기 때문이다. 또한 풍한이 침범하거나 예전부터 구토와 설사를 하여 중기가 무너져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다. 급히 이 약으로 발표시키면서 외치법으로는 호유주를 삼베에 적셔 곁어주어야 한다. 그래도 열꽃이 돋지 않으면 치료하지 못한다.
- 麻黃(去節)、升麻、牛蒡子(炒研)、蟬退(淨洗, 去頭足翅)、甘草 各一錢.
- 마황(마디를 제거한다)、승마、우방자(볶아서 간다)、선훈(깨끗이 씻은 후 머리、발、날개를 떼다)、감초 각 1돈.
- 右剉, 入細茶一錢, 薑三葱白二, 水煎服. 煩渴, 加石膏四錢調服.
- 이상을 썬 후 세다(細茶) 1돈, 생강 3조각, 총백 2줄기를 넣고 물에 달여 먹인다. 번갈이 있으면 석고 4돈을 타서 먹인다.

#### ○二仙湯 ○이선탕

- 治麻疹已出而<sup>3</sup>腹沒, 或出不盡, 心慌啼哭不止, 十分危急, 死在須臾, 或下痢腹



痛.

- 마진에 열꽃이 돋았다가 다시 가라앉거나 혹은 돋다 말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울음을 그치지 않는 증상은 매우 위급하여 죽음이 경각에 달린 상태이다. 간혹 설사를 하며 배가 아픈 경우도 있다.
- 黃芩、白芍藥 各等分.
- 황금、백작약 각각 같은 양
- 右剉, 水煎服.
- 이상을 썰고 물에 달여 먹인다.

#### ○桂枝解毒湯 ○계지해독탕

- 治麻疹初起, 如大寒之時, 不可不以此辛溫之藥發之.
- 마진 초기에 쓰는 약이다. 날씨가 매우 추울 때에는 반드시 맵고 따뜻한 성질의 이 약으로 발표시켜야 한다.
- 桂枝、麻黃、赤芍藥、防風、荊芥、羌活、甘草、桔梗、人參、川芎、牛蒡子(炒研) 各等分.
- 계지、마황、적작약、방풍、형개、강활、감초、길경、인삼、천궁、우방자(볶아서 간다) 각각 같은 양.
- 右剉, 入薑三蔥白二, 水煎, 量宜服.
- 이상을 썬 후 생강 3조각과 총백 2줄기를 넣고 물에 달여 아이의 몸집을 가늠하여 먹인다.

#### ○升麻解毒湯 ○승마해독탕

- 治麻疹發散之劑, 如時煖時寒, 以此辛平之藥發之.
- 마진에 걸렸을 때 발산시키는 약이다. 덥다가 춥다가 하는 경우에는 맵고 평이

한 성질의 이 약으로 발산시킨다.

- 升麻、葛根、荊芥穗、人參、紫胡、前胡、牛旁子(炒研)、桔梗、防風、羌活、赤芍藥、淡竹葉、連翹、甘草 各等分.
- 승마、갈근、형개수、인삼、시호、전호、우방자(볶아서 간다)、길경、방풍、강활、적작약、담죽엽、연교、감초 각각 같은 양.
- 右剉, 入薑三葱白二, 水煎服.
- 이상을 썬 후 생강 3조각과 총백 2줄기를 넣고 물에 달여 먹인다.

麻疹已出, 煩燥作渴者, 黃連解毒湯, 合白虎湯〔二方見外感〕, 喘滿便秘者, 前胡枳殼湯, 加茯苓、大黃、甘草、五味子, 煎服. 便閉三四日, 小承氣湯〔方見外感〕, 或四順清涼飲〔方見大便不通〕, 譫語溺閉者, 導赤散〔方見急驚〕, 如泄者, 四苓散〔方見吐瀉〕, 加車前子、木通, 譫語發狂者, 黃連解毒湯〔方見外感〕、辰砂六一散〔方見暑症〕, 夜重熱甚, 井水調牛黃膏服, 或牛黃六一散.〔方見暑症〕

마진에 열꽃이 돋은 상태에서 번조나 갈증이 있는 경우에는 황련해독탕에 백호탕을 합하여 쓴다.〔두 처방은 외감에 나온다〕 숨이 가쁘고 가슴이 그득하며 변비가 있는 경우에는 전호지각탕에 복령、대황、감초、오미자를 더하여 달여 먹인다. 대변을 3-4일 동안 누지 못한 경우에는 소승기탕〔처방은 외감에 나온다〕이나 사순청량음〔처방은 대변불통에 나온다〕을 쓴다. 섬어(譫語)를 하며 소변이 막힌 경우에는 도적산〔처방은 급경에 나온다〕을 쓴다. 감병(痘病)에는 사령산〔처방은 토사에 나온다〕에 차전자와 목통을 더한다. 섬어를 하며 발광하는 경우에는 황련해독탕〔처방은 외감에 나온다〕이나 진사육일산〔처방은 서증에 나온다〕을 쓴다. 밤에 증상이 심하며 열도 심한 경우에는 우물물에 우황고를 타서 먹이거나 우황육일산〔처방은 서증에 나온다〕을 쓴다.

#### ○牛黃膏 ○우황고

- 治熱入血室, 夜熱譫狂.

- 열이 혈실(血室)에 들어가 밤에 열이 나면서 섬어·발광하는 경우를 치료한다.
- 朱砂、鬱金 各三錢, 牡丹皮 二錢, 甘草 一錢, 龍腦 五分, 牛黃 二錢半.
- 주사·울금 각 3돈, 목단피 2돈, 감초 1돈, 용뇌 5푼, 우황 2.5돈.
- 右末, 蜜丸 梔子大, 每一丸, 井水化下.
- 이상을 가루 낸 후 꿀에 개어 조자대로 환을 빚는다. 1환씩 우물물에 녹여 먹인다.

#### ○白虎解毒湯 ○백호해독탕

- 治麻疹已出, 謔語煩燥作渴. 此心火乘肺也.
- 마진에 열꽃이 돋았는데 섬어·번조·갈증이 있는 경우를 치료한다. 이런 경우는 심화가 폐금을 올라탔기 때문이다.
- 石膏(煨)、知母、黃連、黃芩、生芩、山梔仁(炒研)、天花粉 各一錢, 犀角 五分(水磨取汁).
- 석고(불에 달군다)·지모·황련·황금·생지황·산치인(볶아서 간다)·천화분 각 1돈, 서각 5푼(물에 갈아 즙을 낸다).
- 右剉, 入淡竹葉十片, 水煎, 調犀角汁服.
- 이상을 썬 후 담죽엽 10개를 넣고 물에 달여 서각즙을 타서 먹인다.

#### ○十仙散 ○십선산

- 治麻疹後熱不退, 潮熱煩渴, 夜不能寐, 唇口焦黑, 謔語神昏.
- 마진을 앓은 후에 열이 떨어지지 않고 조열과 번갈아 있으며 밤에 잠들지 못하고 입술과 입속이 까맣게 되고 섬어를 하며 정신이 혼미한 경우를 치료한다.
- 葛根、柴胡、玄蔘、黃連、黃芩、梔子、陳皮、赤茯苓、枳殼、生芩 各等分.
- 갈근·시호·현삼·황련·황금·치자·진피·적복령·지각·생지황 각각

같은 양.

- 右剉, 入薑三, 水煎服.
- 이상을 썬 후 생강 3조각을 넣고 물에 달여 먹인다.

#### ○前胡枳殼湯 ○전호지각탕

- 治麻疹後, 熱盛喘滿便秘.
- 마진을 앓은 후에 열이 심해지고 숨이 차며 가슴이 그득하고 변비가 생긴 경우를 치료한다.
- 前胡、枳殼、赤茯苓、大黃(酒炒)、甘草 各等分, 五味子 半減.
- 전호、지각、적복령、대황(술에 축여 볶는다)、감초 각각 같은 양, 오미자 절반 분량.
- 右剉, 水煎服.
- 이상을 썰고 물에 달여 먹인다.

#### ○黃芩湯 ○황금탕

- 治紅疹後, 熱未退, 煩渴譫語, 夜則尤甚.
- 마진을 앓은 후에 열이 떨어지지 않고 번갈과 섬어가 있으며 밤에 더욱 심해지는 경우를 치료한다.
- 黃連、黃芩、赤芍藥、生芩、木通、枳殼、當歸<sup>4</sup>、玄蔘 各一錢, 甘草 五分.
- 황련、황금、적작약、생지황、목통、지각、당귀초、현삼 각 1돈, 감초 5푼.
- 右剉, 水煎服.
- 이상을 썰고 물에 달여 먹인다.

◦加味地骨皮散 ◦가미지골피산

- 治疹出發, 熱不退, 飲食不進, 咳嗽喘急.
- 마진에 열꽃이 돋은 후 열이 떨어지지 않고 음식을 넘기지 못하며 기침을 하고 숨을 헐떡이는 경우를 치료한다.
- 地骨皮 一錢半, 桑白皮、麥門冬 各一錢, 柴胡、葛根、赤芍藥 各五分, 犀角 三分, 甘草 二分半.
- 지골피 1.5돈, 상백피·맥문동 각 1돈, 시호·갈근·적작약 각 5푼, 서각 3푼, 감초 2.5푼.
- 右剉, 水煎服.
- 이상을 썰고 물에 달여 먹인다.

疹子出沒, 以六時爲准, 假如子後出者, 午時卽收, 午後出者, 子時卽收, 乃陽生陰成, 陰生陽成, 自然之數也. 凡此旋出旋沒者, 輕也, 若一出<sup>5</sup>連綿, 三四日不收者, 熱盛也. 沒後熱氣漸熾, 危症相仍者, 重感毒戾之氣, 神昏譫語者, 半生半死, 貴在調治.

마진의 열꽃이 돋고 가라앉는 것은 6시진(12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예를 들어 자시에 돋으면 오시에 가라앉으며 오시에 돋으면 자시에 가라앉는 법이니, 이것이 양이 태어나면 음이 완성되고 음이 태어나면 양이 완성되는 천지의 역수(曆數)이다. 이처럼 때가 되면 돋았다가 때가 되면 가라앉는 경우는 가벼운 증상이다. 만약 한 차례 계속 돋기만 하고 3-4일이 되어도 가라앉지 않는 경우는 열이 왕성하기 때문이다. 열꽃이 가라앉은 후에 열기가 점점 달아올라 위중한 증상이 점점 심해지는 경우는 거듭 독기에 감촉된 것이다. 정신이 혼미해지고 섭어를 하는 경우는 절반은 살고 절반은 죽게 되므로 잘 조리하면서 치료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麻疹退後, 身有微熱者, 此虛熱, 不須施治, 待氣血和暢, 自然退去, 疹色淡紅而不收, 不食困倦, 夜則微煩不寐者, 心血不足也, 宜養血化癍湯, 或四物湯〔方見諸血〕, 加減用之, 微微咳嗽, 連續不絕者, 餘熱未盡也, 瀉白散〔方見諸血〕加減, 甚則氣喘咳嗽, 連聲不住, 粥飲湯水, 吐出不納者, 毒熱乘肺也, 門冬清肺湯, 或千金麥門冬湯.

마진이 나온 후에 몸통에 미열이 있는 경우는 허열이므로 굳이 치료하지 않아도 기와 혈이 안정되기를 기다리면 자연히 없어진다. 열꽃의 색깔이 담홍색이면서 가라앉지 않고 음식을 먹지 못하며 피곤해하고 밤이면 약한 번열로 잠들지 못하는 경우는 심혈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양혈화반탕을 쓰거나 사물탕〔처방은 제혈에 나온다〕을 가감하여 써야 한다. 기침을 아주 약하게 하지만 계속하여 끊임없이 하는 경우는 열이 남아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백산〔처방은 제혈에 나온다〕을 가감하여 쓴다. 심하면 숨을 헐떡이며 기침하면서 연달아 기침소리가 멈추지 않고 미음이나 물을 모두 토하면서 도무지 먹지 못하는데, 이는 열독이 폐장으로 침입한 것이다. 문동청폐탕이나 천금맥문동탕을 쓴다.

#### ○加味瀉白散 ○가미사백산

- 治熱嗽不止.
- 열수(熱嗽)가 멎지 않는 것을 치료한다.
- 桑白皮、石膏 各二錢, 地骨皮、知母 各一錢, 桔梗、黃芩(酒炒) 各七分, 甘草 五分.
- 상백피、석고 각 2돈, 지골피、지모 각 1돈, 길경、황금(술에 축여 볶는다) 각 7푼, 감초 5푼.
- 右剉, 入薑三, 水煎食後服.
- 이상을 썬 후 생강 3조각을 넣고 물에 달여 식후에 먹인다.

○門冬清肺湯 ○문동청폐탕

- 治火乘肺, 咳嗽喘急, 身熱小便短澀, 嘔吐不食.
- 열이 폐장을 침범하여 기침을 하면서 숨을 헐떡이고 몸통이 뜨거우며 오줌을 짙끔짙끔 자주 누고 구토하면서 먹지 못하는 증상을 치료한다.
- 天門冬、麥門冬、知母、貝母、桑白皮、桔梗、地骨皮、款冬花、馬兜鈴(蜜水炒)、杏仁(夫炒)、牛蒡子(炒研)、甘草 各等分.
- 천문동、맥문동、지모、패모、상백피、길경、지골피、관동화、마두령(꿀물에 축여 볶는다)、행인(밀기울과 함께 볶는다)、우방자(볶아서 간다)、감초 각각 같은 양.
- 右剉, 每三四錢, 入薑三, 水煎服.
- 이상을 썬 후 3-4돈씩 생강 3조각을 넣고 물에 달여 먹인다.

○千金麥門冬湯 ○천금맥문동탕

- 治麻疹後, 火熱乘肺, 咳嗽唾血喘促, 身熱不能臥.
- 마진을 앓은 후에 열이 폐장을 침범하여 기침하면서 피를 뱉고 숨을 헐떡이며 몸통이 뜨겁고 편히 눕지 못하는 경우를 치료한다.
- 麥門冬、桑白皮、生苧 各七分, 半夏、紫<sup>6</sup>菀、桔梗、麻黃、淡竹葉 各五分, 五味子、甘草 各三分.
- 맥문동、상백피、생지황 각 7푼, 반하、자완용、길경、마황、담죽엽 각 5푼, 오미자、감초 각 3푼.
- 右剉, 入薑三, 水煎服.
- 이상을 썬 후 생강 3조각을 넣고 물에 달여 먹인다.

○紅疫後, 火熱乘肺, 麻黃其可用乎. 渴而煩悶, 半夏亦不可用, 去此二味, 加貝母、天花粉, 爲穩當也.

○〔안어〕 홍역을 앓은 후 열이 폐장을 침범하였으니 마황을 쓸 수 있겠는가. 갈증이 있으면서 속이 답답한 상태이니 반하도 쓰지 말아야 한다. 이 2가지 약재를 빼고 패모와 천화분을 더하여 쓰는 것이 마땅하다.

#### ○養血化癍湯 ○양혈화반탕

- 治麻出色淡, 三四日不消身熱, 夜睡不安.
- 열꽃이 돋은 후 열꽃의 색깔이 연하고 3-4일이 지나도 몸통의 열이 가라앉지 않아 밤에 편히 잠들지 못하는 경우를 치료한다.
- 黃芪 二錢, 當歸、乾芩 各一錢半, 玄參(酒洗) 五分, 紅花(酒洗)、蟬退(去頭足翅) 各一分半.
- 황기 2돈, 당귀、건지황 각 1.5돈, 현삼(술로 씻는다) 5푼, 홍화(술로 씻는다)、선훈(머리、발、날개를 떼다) 각 1.5푼.
- 右剉, 水煎服.
- 이상을 썰고 물에 달여 먹인다.

紅疹初發之時, 自汗或衄血者, 不須治之, 亦發散之義也. 汗則毒從汗散, 衄則毒從衄解<sup>7</sup>, 但不可太過, 如汗多者, 白虎湯, 合黃連解毒湯〔二方見外感〕, 衄多者, 犀角地黃湯, 或四物湯〔二方見血門〕, 加玄參、黃連、連翹、黃芩、牡丹皮. 疹子已沒後, 衄血煩燥, 身熱飲水者, 最重, 犀角地黃湯, 加減用之.

마진 초기의 자한이나 코피는 굳이 치료하지 않는데 열을 발산시키려는 의도이다. 자한으로는 열독이 땀과 함께 발산되며, 코피로는 열독이 코피를 따라 풀어지기 때문이다. 다만 너무 심하지 않아야 한다. 만약 자한이 심한 경우에는 백호탕에 황련해독탕을 합하여 쓰고(두 처방은 외감에 나온다), 코피가 심한 경우에는 서각지황탕을 쓰거나 사물탕에 현삼、황련、연교、황금、목단



피를 더해 써야 한다.(두 처방은 혈문에 나온다) 열꽃이 사그라든 이후에 코피가 나거나 번조가 생기거나 몸통이 뜨겁거나 물을 찾는 경우는 아주 위중한 경우이니 서각지황탕을 가감하여 써야 한다.

○茅根湯 ○모근탕

- 治衄血不止, 不問癍疹已出已沒, 並皆服<sup>8</sup>之.
- 마진에 코피가 멎지 않는 경우를 치료한다. 열꽃이 나거나 사그라든 것과 상관없이 모두 먹인다.
- 白茅根、生苧 各一錢半, 黃芩(酒炒)、山梔仁(炒研) 一錢, 鬱金 七分.
- 백모근·생지황 각 1.5돈, 황금(술에 축여 볶는다)·산치인(볶아서 간다) 1돈, 울금 7푼.
- 右剉, 水煎, 調百草霜末一錢服.
- 이상을 썬 후 물에 달여 백초상 가루 1돈을 타서 먹인다.

○淸金飲 ○청금음

- 治熱迫肺經, 衄血不止.
- 열독이 폐경(肺經)을 침범하여 코피가 멎지 않는 경우를 치료한다.
- 黃芩(酒炒) 一錢半, 麥門冬、生苧(酒洗) 各一錢, 當歸(酒洗)、牡丹皮 各七分, 川芎、鬱金 各五分.
- 황금(술에 축여 볶는다) 1.5돈, 맥문동·생지황(술로 씻는다) 각 1돈, 당귀(술로 씻는다)·목단피 각 7푼, 천궁·울금 각 5푼.
- 右剉, 入生梨一大片, 薄荷十葉, 竹葉五片, 水煎服.
- 이상을 썬 후 큰 생배 1개, 박하 10잎, 죽엽 5조각을 넣고 물에 달여 먹인다.

紅疹初發時泄瀉, 乃毒氣瀉出, 不須治之, 沒後泄瀉, 餘毒未盡, 柴苓湯〔方見吐瀉〕, 去半夏、桂心, 加白芍藥、防風, 或辰砂六一散〔方見暑症〕, 天乙丸〔方見諸熱〕. 麻疹退後, 餘毒下流, 變作膿血痢, 裏急後重, 日夜度數無算者, 黃芩芍藥湯、香連丸, 虛滑者, 標白丸〔三方見痢疾〕, 斷之. 考痢疾門參治.

마진 초기의 설사는 열독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므로 굳이 치료하지 않아도 된다. 열꽃이 사그라든 이후의 설사는 열독이 남아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령탕(처방은 토사에 나온다)에서 반하와 계심을 빼고 백작약과 방풍을 더하여 쓰거나, 진사육일산(처방은 서증에 나온다)·천을환(처방은 제열에 나온다)을 쓴다. 마진이 나온 후에 남은 열독이 아래로 흘러 피고름을 싸고 속이 당기며 뒤가 묵직하고 밤낮으로 셀 수 없을 정도로 설사를 하는 경우에는 황금작약탕·향련환을 쓴다. 허리(虛痢)나 활리(滑痢)인 경우에는 저백환으로 설사를 멈춰주어야 한다(세 처방은 이질에 나온다). 이질 부분을 참고하여 치료하라.

#### ◦加味黃芩湯 ◦가미황금탕

- 治紅疹後毒熱, 下痢腹痛, 裏急後重.
- 마진을 앓은 후 남은 열독으로 설사하면서 배가 아프고 속이 당기면서 뒤가 묵직한 증상을 치료한다.
- 白芍藥 三錢, 黃芩、黃連 各一錢半, 甘草 七分, 檳榔 五分.
- 백작약 3돈, 황금·황련 각각 1.5돈, 감초 7푼, 빈랑 5푼.
- 右剉, 水煎, 調滑石末一錢服. ◦血痢, 加地榆.
- 이상을 썬 후 물에 달여 활석 가루 1돈을 타서 먹인다. ◦혈리(血痢)에는 지유를 더해 쓴다.

#### ◦太乙神明丹 ◦태을신명단

- 癘疫紅疹大熾, 大人小兒傳染, 死亡相繼者, 一服, 有神明之驗.
- 전염병이나 마진이 크게 돌아 어른이나 아이 할 것 없이 전염되어 죽는 경우가 끊이지 않을 때 한번 먹으면 신묘한 효과가 있다.
- 菉豆、赤小豆(洗淨, 留皮炒熟) 各四兩, 葛根 二兩, 升麻 一兩半, 蘇葉 一兩, 白芍藥、柴胡、黃芩 各七錢半, 丹參、鬼箭羽、辰砂、雄黃 各五錢<sup>9</sup>.
- 녹두、적소두(깨끗이 씻은 후 껍질째 볶아서 익힌다) 각 4냥, 갈근 2냥, 승마 1.5냥, 소엽 1냥, 백작약、시호、황금 각 7.5돈, 단삼、귀전우、진사、웅황 각 5돈.
- 右細末, 蜜丸彈子大, 辰砂二錢半爲衣, 一歲兒一丸四破服. —<sup>10</sup>二三歲服半丸, 四五歲以上服一丸, 以白沸湯, 早朝化服, 限三日連服.
- 이상을 잘게 가루 낸 후 꿀에 개어 탄자대로 환을 빚고 진사 2.5돈을 곁에 입힌다. 1살 아이는 1/4환, 2-3살은 1/2환, 4-5살 이상은 1환을 아침 일찍 끓인 물에 녹여서 먹인다. 최대한 3일까지만 연달아 먹인다.

疹出之時, 咽喉腫痛者, 熱毒上熏<sup>11</sup>於肺, 宜活龍散, 或牛黃涼膈丸, 以井水調化細細灌呷, 甚者喉塞, 水飲不入, 喉聲如引鉅, 以鍼刺出血, 山豆根末, 入竹管內, 吹塗喉腫處.

열꽃이 돋을 때 목구멍이 붓고 아픈 것은 열독이 폐장을 혼증했기 때문이다. 활룡산이나 우황양격환을 우물물에 녹여서 조금씩 입에 흘려 넣어주어야 한다. 심한 경우에는 목구멍이 막혀 물을 먹지 못하며 목에서 톱질 소리가 난다. 침으로 찔러 피를 내고 산두근(山豆根) 가루를 대롱에 넣어 목구멍이 부은 곳에 붙여 넣어준다.

疹發熱之初, 多似傷風, 惟疹子, 則咳嗽噴嚏, 鼻流清涕, 眼胞腫, 其淚汪汪, 面浮腫, 雙頰赤, 惡心乾嘔, 爲異耳, 但見此候, 卽是疹子, 便宜謹避風寒, 戒葷腥厚味, 用藥以表散之, 使皮膚通暢, 腠理開, 而疹毒易出也.

마진 초기에 열이 날 때는 대부분 상풍(傷風)의 증상과 비슷하다. 마진은 기침과 재채기를 하고 많은 콧물이 흐르며 눈꺼풀이 붓고 눈물이 그렇그렇하며 얼굴이 붓고 양 볼이 붉으며 메스꺼움과 헛구역질이 있다는 점이 다르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마진이 확실하므로 즉시 풍한을 피하고 훈채(葷菜)나 비리거나 기름진 음식을 조심하면서 약으로 표부의 사기를 흠어 피부가 잘 소통되고 주리가 열리게 해야만 마진의 독기가 쉽게 빠져나간다.

麻疹正出之時，雖不進飲食者，但得麻疹淡紅，潤澤真正，不爲害也，蓋熱毒未解，內蘊實熱，自不必食，退後若不食，當隨<sup>12</sup>用四物湯，加神麴、砂仁，一二貼，決能食矣。如胃虛者，忌下。

마진에 열꽃이 돋은 때에는 비록 음식을 넘기지 못하더라도 열꽃이 담홍색이며 탕글탱글하고 잘 돋았다면 해가 되지 않는다. 대체로 열독이 아직 풀리지 않아서 속에 실열로 쌓이게 되고, 그 결과 자연히 음식을 먹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마진이 나온 후에도 먹지 못한다면 증상에 따라 사물탕에 신국·사인을 더해 써야 하며, 1-2첩을 먹이면 분명 먹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위기가 허한 경우에는 하법을 쓰지 말아야 한다.

麻疹既出之時，如色紅紫，乾燥暗晦，乃火盛毒熾，宜四物湯，用生芩，加(酒)紅花、(酒炒)黃芩。

마진으로 열꽃이 이미 돋은 경우에 색깔이 홍자색이며 마르고 불투명한 것은 열독이 매우 왕성해졌기 때문이다. 사물탕에 숙지황 대신 생지황을 넣고 홍화(술로 법제한다)와 황금(술에 축여 볶는다)을 더해 써야 한다.

麻疹既出，已過三日，不能沒者，乃內有虛熱，宜用四物湯進之，如失血之症，加犀角汁解之。

마진으로 열꽃이 이미 돋은 지 3일이 지났는데도 가라앉지 않는 것은 속에 허열이 있기 때문이다. 사물탕을 써야 한다. 실혈 증상이 있으면 서각즙을 더하여 풀어준다.

麻疹已退後, 須避風寒戒水濕, 如或不謹, 遂致終身之咳嗽患瘡, 無有愈也.

마진이 나은 후에는 반드시 풍한을 피하고 습기를 조심해야 한다. 만일 조심하지 않으면 반드시 평생토록 기침을 하거나 창이 생겨 낫지 않게 된다.

麻疹前後, 大忌豬肉魚酒鷄子之類, 恐惹終身之咳, 只宜用老鷄精肉煮食, 少助滋味, 可也.

마진에 걸리기 전후에는 돼지고기·생선·술·달걀 같은 음식을 절대 금해야 한다. 평생토록 기침을 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늙은 닭이나 쇠고기를 끓여 먹으면서 조금씩 입맛을 돋우는 편이 좋다.

孕婦出麻, 當以四物湯, 倍白朮·條芩·艾葉, 安胎清熱爲主, 則胎決無危, 而麻疹易出矣. 如胎氣上沖<sup>13</sup>, 急用芎根艾葉煎湯, 磨生櫛榔服之, 更以大劑四物進之.

임산부가 마진으로 열꽃이 돋을 때에는 사물탕에 백출·조금·애엽을 2배로 더하여 써서 태아를 편안히 하고 열을 없애는 것을 위주로 하면 태아가 절대로 위험하게 되지 않고 열꽃도 쉽게 돈다. 만약 태아가 위로 부딪혀오면 급히 정근(芎根)과 애엽 달인 물에 생빈랑을 갈아 넣어 먹이고, 그 후에 사물탕을 대제(大劑)로 달여 먹인다.

麻<sup>14</sup>子沒後, 餘熱內攻, 循衣摸床, 譫語妄言, 神昏喪志者, 死, 如熱輕餘毒未除, 必先見諸氣色, 雖預防之, 始終以升麻葛根湯爲主, 或消毒飲·解毒湯, 隨症選用, 仍忌魚腥葱蒜之物.

열꽃이 사그라든 후 남은 열독이 속으로 침범하여 옷을 쓰다듬거나 침상을 더듬거나 헛소리나 망언을 하거나 정신이 혼미해지거나 열이 빠지는 경우에는 죽게 된다. 만약 열이 심하지 않아 남은 열독이 없어지지 않은 것 같은 때에는 반드시 먼저 아이의 기색을 살펴야 한다. 예방하는 약을 먹었더라도 시종일관 승마갈근탕을 위주로 쓰면서 간혹 소독음이나 해독탕을 증상에 따라 골라 써야 한다. 또한 생선과 비린 음식과 파와 마늘 같은 음식을 금해야 한다.

古謂麻卽疹也. 疹出如麻成朵, 痘出如豆成粒, 皆象其形而名也夫. 胎毒一也, 痘出於五臟, 臟屬陰, 陰主血, 故痘有形而有汁, 其症寒熱有備也. 疹出於六腑, 腑屬陽, 陽主氣, 故疹有形而無漿, 其形多實熱而無寒也. 爲症既異, 則治法亦殊, 痘宜內實, 可用補劑, 疹忌內實, 只宜解散, 惟初熱發表, 略相似耳, 既出之後, 痘則補氣以生血, 疹宜補陰以制陽, 何也. 蓋疹熱甚, 則陰分受其煎熬, 而血多虛耗, 故治以清火滋陰爲主, 不可少動其氣, 所以人蔘、半夏若燥悍之劑, 首尾當深忌也. 世知痘症所繫之重, 不知疹之殺人尤甚, 方書多忽而不備, 良可太息<sup>15</sup>也. 又曰, 麻愛清涼, 痘愛溫, 不易常道, 然虛則補, 實則瀉, 醫家之活法, 血虛用四物湯, 氣虛用四君子湯, 天寒傷冷, 則溫中理中, 亦一時之權道也.

옛날에 마(麻)라는 글자는 진(疹, 마진)의 의미이다. 마진으로 열꽃이 돋으면 삼의 씨앗 모양 같고, 두창으로 열꽃이 돋으면 콩알 모양 같으니 모두 그 증상의 모습을 형상하여 이름을 붙인 것이리라. 2가지 모두 태독이 원인이라는 점은 같다. 두창은 오장에서 발생하는데 오장은 음에 속하고 음은 혈을 주관하기 때문에 두창은 형태도 있고 진물도 있으며 증상에 오한발열이 있다. 마진은 육부에서 발생하는데 육부는 양에 속하고 양은 기를 주관하기 때문에 마진은 형태는 있지만 진물이 나지 않으며 증상에 실열이 있고 오한은 없는 경우가 많다. 증상이 다르다면 치료법도 달라야 한다. 두창은 속을 채워주어야 하니 보하는 약을 써야 하고, 마진은 속을 채워서 안되니 단지 풀어주고 흠여주어야 한다. 두 병은 발생 초기 표부에 열이 난다는 점만 비슷할 뿐이다. 열꽃이 돋은 후에 두창은 기를 보하여 혈을 만들어 주어야 하며, 마진은 음기를 보하여 양기를 억제해야 하는데 왜 그럴까? 아마도 마진으로 열이 심하면 음분(陰分)이 그 열기를 받아서 혈이 허해지거나 소모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화기를 없애고 음기를 복돋는 치료를 위주로 해야 하며 기를 조금이라도 건드리지 않아야 한다. 인삼이나 반하 같이 바짝 말리는 약재를 시종일관 절대 금해야 하는 까닭이다. 사람들은 두창이 위중한 증상이라는 사실은 알지만, 마진으로 죽게 되는 경우가 더 많다는 사실은 모른다. 방서에도 대부분 소홀히 여겨 자세히 쓰여 있지 않으니 참으로 큰 한숨이 나오는 일이다. 또 방서에서 "마진은 시원하

게 해주어야 하며, 두창은 따뜻하게 하는 것은 바뀌지 않는 원칙이다. 그러나 허하면 보해주고 실하면 사해주는 것이 의원의 치료 방법이다. 열이 허하면 사물탕을 쓰고 기가 허하면 사군자탕을 쓰거나, 날씨가 추워서 한기에 상하면 속을 따뜻하게 조리해주는 것도 임시방편이 될 것이다."고 말하였다.

○按.我國<sup>16</sup>肅<sup>26</sup>廟朝丁亥,自春至夏,八路紅疫大熾,兒少死亡,不知其幾千萬.余於其時,多有經驗,非但癘氣之甚毒,不無人事之未盡,蓋世人之治疹,徒知有熱,而不知熱中有虛,過投至陰寒涼之藥,使胃氣內脫,邪氣反勝,雜症相仍,漸至危篤,又或戒此而專不治熱,竟至不救,良可歎也.初起發散者,治疹之始事,出後清熱者,治疹之中事,沒後則觀其熱之進退,量其兒之虛實,謹慎調理<sup>17</sup>者,治疹之終事也,欲醫此症者,不可不知也.

〔안어〕 우리 숙종 정해년(1707년) 봄부터 여름까지 조선 팔도에 마진이 크게 돌았는데 그때 죽은 아이들이 몇 천, 몇 만 명인지 모른다.<sup>18</sup> 나는 그 당시에 경험한 바가 많았는데, 전염병이 매우 독할 뿐 아니라 대응하는 방법도 미진하다는 사실이었다. 사람들이 마진을 치료할 때 열이 있다는 것만 알고, 열에 허증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여 매우 차가운 약재를 때려 넣기 때문에 위기가 탈진되고 사기가 도리어 왕성해지며 여러 증상이 서로 영향을 끼치게 되어 점점 위독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또한 누군가는 이런 부작용을 조심하느라 열을 제대로 치료하지 못하여 결국 생명을 구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으니 참으로 탄식할 일이다. 초기에 열을 발산시키는 것이 마진 치료의 시작이고, 열꽃이 돋은 후에 열을 없애는 것이 마진 치료의 중간이며, 열꽃이 사그라든 후에 열의 상태와 아이의 허실을 잘 관찰하여 조심스럽게 조리시키는 것이 마진 치료의 마지막이다. 마진을 치료하려는 자는 이런 이치를 반드시 알아야 한다.

朴主簿四歲兒患紅疹,始痛三日,遍滿一身,色如丹霞,頷下腫赤浮大堅硬,連于兩耳,諸醫用猪糞汁,敷大黃膏.余曰,此則癘疫中蝦蟆瘟大毒者,雖無治法,然當先以消毒解毒爲主,不可過用至陰冰冷之藥,折以壓之也.數日之內,喉門堵塞<sup>19</sup>,水漿不入,頷下腐潰,色黑內穿,毒水不止而歿.

〔의안〕 박 주부(主簿)의 네 살배기 아이가 마진에 걸렸는데 처음에는 3일 동안 앓으면서 온몸에 열꽃이 가득 찼고 색깔은 붉은 노을 같았으며 턱 아래가 붉게 부으면서 크고 단단하게 부풀어 양쪽 귀까지 이어졌다. 여러 의원이 돼지 똥물을 쓰거나 대황고를 붙였다. 나는 "이 병은 역병 중에 하마온(蝦蟆瘟)이라는 위독한 병입니다. 비록 치료법은 없다고 하지만 우선 독기를 빼주고 풀어주는 것을 위주로 해야지 매우 차가운 약을 너무 많이 써서 병세를 꺾고 누르려 해서 안됩니다."라고 말하였다. 며칠 후에 목구멍이 막히면서 물을 넘기지 못하고 턱 아래가 썩으면서 검게 변하며 속으로 구멍이 나고 독물이 멋지 않더니 죽게 되었다.

李信川三歲孫兒患紅疹，發癍之後，頭皮腫大光明，目睛突起，眼胞鼻面俱浮，啼不能聲，乳不能吮，沈困倦怠，無氣力可動。余曰，見今紅疹，乃天行時疫，而有**大毒不治**<sup>20</sup>者，**蝦蟆**<sup>21</sup>瘟、大頭瘟，是也，此兒之病，即大頭瘟，無藥可治，若感之淺，而神氣不奪，乳食無減者，砭去惡血，外泄毒氣，則或有生者，然十之一也。

〔의안〕 이 신천(信川)의 세 살배기 손주가 마진을 앓았는데 열꽃이 돋은 후 두피가 크게 부으면서 윤기 나고, 눈알이 튀어나오며, 눈꺼풀과 코와 얼굴이 모두 붓고, 울어도 목소리가 나지 않으며, 젖을 빨지 못하여 축 까라지고, 움직일 힘이 없었다. 나는 "요즘 마진이 돌고 있으니 전염된 것이며, 독기가 심하여 치료하지 못하는 하마온(蝦蟆瘟)·대두온(大頭瘟) 같은 병입니다. 손주의 병은 대두온인데 약으로 치료하지 못합니다. 만약 약하게 옳아 정신과 기력이 무너지지 않고 먹는 것이 줄지 않은 경우에 침으로 악혈을 짜서 독기를 밖으로 빼내면 간혹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열 명 중에 한 명입니다."라고 말하였다.

一士人女年十六，重患紅疫，以野乾猪糞等水調，牛黃膏，日服十餘器，殆近旬而無分效，且生別症，遍身蒼色，延及肢末，躁悶跳亂，如在湯火中。余曰，此多服寒涼之藥，胃寒發躁，而**兼**<sup>22</sup>有蟲厥，當用理中湯，有數三痘醫執己見，力勸其加用二糞，余顧無奈何。許知事站來見曰，近來紅疹專任痘醫，以致後悔者多，此病之咎，專在



兩屎之多服, 不知胃寒發燥, 而反務用野乾<sup>23</sup>, 可乎. 急用理中湯〔方見吐瀉〕一貼而神效. 許公, 多讀古方, 精解醫理, 若非許公, 其將殆矣. 以此見之, 庸醫之誤殺人, 何限吁.

〔의안〕 어떤 선비의 16살 된 딸이 심하게 마진을 앓았다. 야인건(野人乾)·저분(猪糞) 등을 물에 타서 우황고를 하루에 10그릇 정도 먹은 지 거의 열흘이 되었지만 조금도 효과가 없었다. 게다가 다른 증상까지 생겼는데 온 몸통이 푸른 빛이 되고 점점 사지 끝까지 번지고 있었으며 불 속에 있는 듯이 답답해하며 발버둥을 쳤다. 내가 "이 병은 차가운 성질의 약을 많이 먹어 위가 차가워지고 조증이 생긴 것이며 또한 회궤(蛔厥)까지 겹친 것이므로 당연히 이충탕을 써야 합니다."라고 말하였다. 서너 명의 두의(痘醫, 두창 전문 의원)가 자기들의 견해를 고집하면서 야인건·저분을 더해 다시 써보라며 힘껏 권했는데 내가 어쩔 수 없었다. 지사(知事) 허점(許站, 1649-1732)이 찾아와 말하였다. "근래에 마진을 두의가 맡고 있기 때문에 후회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아이의 병은 오로지 야인건·저분을 너무 많이 먹었기 때문인데 위가 차가워져 조증이 생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야인건·저분을 쓰라고 힘써 말하니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급히 이충탕〔처방은 토사에 나온다〕 1첩을 썼더니 효과가 아주 좋았다. 허점은 옛 방서를 많이 읽어 의학의 이치를 정밀하게 이해한 사람으로 그 분이 아니라면 아마도 죽게 되었을 것이다. 이로 미루어 보건대 용렬한 의원이 잘못하여 사람을 죽이게 되는 일이 어찌 이런 일 뿐이었겠는가.

李判官子年五歲, 患紅疹, 甚不輕, 初間微見旋沒, 至七日不發, 而諸症轉加, 奄奄難救, 以紫草茸酒水相煎, 調猪尾膏, 連服數次, 置諸溫處, 過一二時許, 微有汗氣, 而遍體紅斑, 一時齊出, 身熱驚搐之症稍定, 精神昏瞶之候頓減, 仍以調治而痊.

〔의안〕 이 판관(判官)의 5살 된 아이가 마진을 앓았는데 증세가 심각하였다. 초반에는 열꽃이 살짝 보이더니 금세 사그라들어 7일이 지나도록 돈지 않다가 여러 증상들이 점점 심해져 숨이 간당간당하고 살 수 없을 것 같았다. 자초용

을 술과 물에 달이고 저미고(猪尾膏)를 타서 몇 차례 연달아 먹인 후 아랫목에 누웠다. 1-2시진(2-4시간)쯤 지나자 살짝 땀이 나면서 온몸에 선홍색 열꽃이 일시에 돋더니 열과 경축이 점점 안정되고 정신이 혼미하던 증상도 확 줄었다. 그 후에 잘 조리시키며 치료하니 나았다.

李監役<sup>24</sup> 七歲孫兒, 始紅疹六日, 發散消毒清熱之藥, 幾至二十餘劑, 未有瘰跡, 而身熱煩渴驚搐譫狂之等症<sup>25</sup>, 日漸加重, 醫皆却走, 病家束手. 余曰, 此兒之病, 比他尤毒, 第用下利之藥, 大瀉裡熱, 則庶有望矣. 乃用牛黃瀉心湯〔方見癰疾〕, 調利驚丸〔方見急驚〕, 大瀉數次, 神氣稍定, 疹瘰透出, 諸症頓減. 退疹之後, 咳嗽又劇, 以甘草浸猪膽汁, 作丸〔方見咳嗽〕服, 調理乃愈.

〔의안〕 이 감역(監役)의 7살 된 손주가 마진에 걸려 초기 6일 동안 발산·소독·청열하는 약을 거의 20첩정도 먹였지만 열꽃이 돋지 않고 신열·번갈·경축·섬어·전광 같은 증상이 날마다 점점 심해졌다. 결국 의원들은 모두 돌아갔고 그 집안에서는 속수무책인 상황이었다. 내가 "이 아이의 병은 독기가 유독 심합니다. 그러니 우선 설사시키는 약을 써서 몸속의 열을 크게 빼주면 아마 희망이 있을 듯합니다."라고 말하였다. 우황사심탕〔처방은 간질에 나온다〕에 이경환〔처방은 급경에 나온다〕을 함께 썼더니 몇 번 크게 설사한 후 정신이 점점 안정되고 열꽃이 돋았으며 다른 증상은 확 줄었다. 마진이 나온 후에 기침이 다시 극성을 부렸는데 감초를 저담즙에 담갔다가 환을 빚어 먹이고 잘 조리시켰더니 곧 나았다.〔처방은 해수에 나온다〕

1. 마진、홍역、홍진은 마진으로, 두창、두증、두역은 두창으로, 반진、반은 반진으로 번역하였다. 마진、마、진、진자는 문맥에 따라 열꽃으로 번역하였다. ←

2. 芩：黃 ※규장각본 ←

3. 腹：\*復 ※규장각본 ←

4. 稍 : \*梢 ※규장각본 [↩](#)

5. 出 : 日 ※규장각본 [↩](#)

6. 芫 : 苑 ※규장각본 [↩](#)

7. 解 : 散 ※규장각본 [↩](#)

8. 服 : 用 ※규장각본 [↩](#)

9. 錢 : 分 ※규장각본 [↩](#)

10. 一 : \* ※문맥상 [↩](#)

11. 熏 : 薰 ※규장각본 [↩](#)

12. 隨 : 隨症 ※문맥상 [↩](#)

13. 冲 : 衝 ※규장각본 [↩](#)

14. 麻 : 疹 ※규장각본 [↩](#)

15. 太息 : 歎 ※규장각본 [↩](#)

16. 원본에는 대두(擡頭)되어 있음. [↩](#)

26. 肅 : 兩 ※규장각본 [↩](#)

17. 理 : 治 ※규장각본 [↩](#)

18. 속종실록 45권, 속종 33년 4월 26일 무신(평안도에 홍역으로 사망한 사람이 1만 수천 명이라고 장문하다) 기사 등 참조 [↩](#)

19. 寒 : \*塞 ※규장각본 [↩](#)

20. 治 : 知 ※규장각본 [↩](#)

21. 瘰 : \*蠼 ※규장각본 [↩](#)

22. 兼 : 魚 ※규장각본 [↩](#)

23. 글자없음 : 猪糞 ※규장각본 [↩](#)

24. 役 : 司 ※규장각본 [↩](#)

25. 等症 : 證 ※규장각본 [↩](#)

## 癰疹〔附癰疹〕반진 및 은진

癰者, 色紅, 有點無顆粒, 而如錦紋也. 疹者, 浮小有顆粒, 而如粟米, 蚊蟲咬迹<sup>1</sup>, 隨出隨沒也〔有赤疹白疹, 胎熱小兒, 多有之〕, 皆因胃熱助心火, 入于肺而發, 或內有熱, 而外觸風寒而發, 俱宜解表發散, 敗毒散〔方見外感〕, 或消毒飲〔方見丹毒〕, 加減用之.

반(癰, 반진)은 색깔이 선홍색이며 무늬는 있지만 과립처럼 튀어나오지는 않아 마치 비단무늬 같은 것이다. 진(疹, 열꽃)은 약간 붓고 과립처럼 튀어나와 마치 좁쌀이나 벌레에 물린 자국 같고, 돋았다가 사그라들었다가 한다.〔붉은 열꽃과 투명한 열꽃이 있으며 태열이 있는 아이에게 자주 나타난다〕 2가지 모두 위열이 심화를 만나 폐장으로 흘러들어가기 때문에 생기고, 간혹 속에 열이 있는 상태에서 풍한에 감촉되어 생기기도 한다. 모두 표부를 풀어주고 열을 발산시켜야 하니 패독산(처방은 외감에 나온다)을 쓰거나 소독음(처방은 단독에 나온다)을 가감하여 써야 한다.

陰證發疹者, 其色微紅, 微出胸背手足, 稀少而痒, 若作熱投之涼藥, 大誤, 此無根失守之火, 聚於胸中, 上熏<sup>2</sup>於肺, 傳于皮膚而發, 但如蚊虱咬迹<sup>3</sup>狀, 而無錦紋紅色, 宜溫而散之, 或處溫而微汗, 自消. 以枳實酒煎洗之, 或枳實切片麩炒黃, 溫酒浸半日, 勿泄氣, 去枳實, 量宜溫服.

음증으로 생긴 열꽃은 색깔이 연붉은색이며 가슴·등·손·발에 살짝 돋는데 드물게 조금 나지만 가렵다. 열증으로 보고 서늘한 성질의 약을 먹이는 것은 큰 잘못이다. 이 증상은 무근지화(無根之火)가 가슴에 모여들어 위쪽으로 폐장을 훈증하고 그 영향이 피부에 전해져 발생한 것으로, 모기나 이에 물린 자국 같은 형태만 있고 비단무늬 형태가 없으며 선홍색도 아니다. 속을 따뜻하게 해주어 표부를 풀어주거나 따뜻한 곳에 눕혀서 살짝 땀을 내주면 저절로 사그

라든다. 치료법으로는 지실을 술에 넣고 달여 씻겨준다. 혹은 지실을 썰고 밀기울과 함께 누렇게 볶아 따뜻한 술에 반나절 담그되 김이 새지 않도록 한 후 지실을 건져내고 적당량을 따뜻하게 먹인다.

○消癰青黛飲 ○소반청대음

- 治陽毒發癰, 如錦紋搔痒.
- 양독으로 생긴 반진이 비단무늬 같고 가려운 경우를 치료한다.
- 黃連、石膏、知母、紫胡、玄參、生芡、山梔(炒)、犀角、青黛 各一錢, 人參、甘草 各五分.
- 황련, 석고, 지모, 시호, 현삼, 생지황, 산치인(볶는다), 서각, 청대 각 1돈, 인삼, 감초 각 5푼.
- 右剉, 入薑一棗一, 水煎, 入苦酒一匙服.
- 이상을 썰어 생강 1조각과 대조 1개를 넣고 물에 달인 후 식초 1술을 넣어 먹인다.

○玄參升麻湯 ○현삼승마탕

- 治陽毒發癰, 煩燥譫狂, 咽喉閉痛.
- 양독으로 반진이 생기고 번조, 섬어, 전광이 있으며 목구멍이 막히고 아픈 증상을 치료한다.
- 玄參(酒洗)、升麻、甘草 各三錢.
- 현삼(술로 씻는다), 승마, 감초 각 3돈.
- 右剉, 水煎服.
- 이상을 썰고 물에 달여 먹인다.

○化癰湯 ○화반탕

- 治陽毒溫毒熱毒發癰. ○卽人參白虎湯也.
- 양독·온독(溫毒)·열독으로 생긴 반진을 치료한다. ○곧 인삼백호탕이다.

○犀角玄參湯 ○서각현삼탕

- 治陽毒發癰, 清心胃火, 消解瘡毒.
- 양독으로 생긴 반진을 치료한다. 심장과 위의 화독을 없애며 창독(瘡毒)을 풀어 준다.
- 升麻 二錢, 黃芩 一錢半, 便香附、犀角(水磨取汁)、玄參 各一錢, 人參 五分, 甘草 三分, 加大青 一錢.
- 승마 2돈, 황금 1.5돈, 변향부자·서각(물에 갈아 즙을 낸다)·현삼 각 1돈, 인삼 5푼, 감초 3푼에 대청 1돈을 더한다.
- 右剉, 水煎服.
- 이상을 썰고 물에 달여 먹인다.

○調中湯 ○조중탕

- 治內傷外感, 爲陰症發癰.
- 내상이나 외감으로 생긴 음증 때문에 반진이 생긴 경우를 치료한다.
- 蒼朮 一錢半, 陳皮 一錢, 縮砂、藿香、白芍藥、桔梗、半夏、白芷、羌活、只殼、甘草 各七分, 川芎 五分, 麻黃、桂枝 各三分.
- 창출 1.5돈, 진피 1돈, 축사·곽향·백작약·길경·반하·백지·강활·지각·감초 각 7푼, 천궁 5푼, 마황·계지 각 3푼.
- 右剉, 入薑三, 水煎服.

- 이상을 썬 후 생강 3조각을 넣고 물에 달여 먹인다.

○升麻鼈甲湯 ○승마별갑탕

- 治陰毒發癰.
- 음독으로 생긴 반진을 치료한다.
- 升麻 二錢, 當歸、甘草 各一錢二分, 鼈甲(酒炙) 一錢, 雄黃(末) 四分, 川椒 二十粒.
- 승마 2돈, 당귀、감초 각 1.2돈, 별갑(술에 축여 굽는다) 1돈, 옹황(가루) 4푼, 천초 20알.
- 右剉, 水煎, 調雄黃末服.
- 이상을 썬 후 물에 달여 옹황가루를 타서 먹인다.

---

1. 咬迹：蛟跡 ※규장각본 ↩

2. 熏：薰 ※규장각본 ↩

3. 咬迹：蛟跡 ※규장각본 ↩



## 及幼方卷之六 급유방 권6

橫城 趙廷俊重卿 集

횡성 조정준(趙廷俊, 字 重卿) 편저

## 諸熱 제열

肝熱者, 左頰先赤, 身熱, 手尋衣領, 亂捻物, 多怒多驚, 甚則搐搦反張, 寅卯時益甚, 瀉青丸〔方見驚風〕. 壯熱飲水, 嗽喘悶亂者, 瀉白散〔方見咳嗽〕主之. 血虛驚搐, 清肝湯, 加參、朮.

간열(肝熱)이 있으면 왼뺨이 먼저 붉어지고 몸통이 뜨거우며 손으로 옷깃을 더듬고 이리저리 물건을 잡으려 하며 자주 성내고 놀라는데, 심하면 축낙이나 각궁반장이 생긴다. 인시에서 묘시 사이(새벽녘)에 더욱 심해진다. 사청환(처방은 경풍에 나온다)을 써야 한다. 고열로 물을 마시려 하고 기침을 심하게 하면서 가슴이 답답한 경우에는 사백산(처방은 해수에 나온다)으로 치료한다. 혈허로 경축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청간탕에 인삼과 백출을 더해 쓴다.

### ○柴胡清肝湯 ○시호청간탕

- 治肝膽三焦, 風熱怒火, 或乍寒乍熱, 往來寒熱.
- 간경、담경、삼초경이 외부의 풍열(風熱)과 내부의 노화(怒火)에 손상되어 추웠다 더웠다 하면서 한열왕래가 있는 경우를 치료한다.
- 柴胡、山梔(炒) 各一錢半, 黃芩、人參、川芎 各一錢, 桔梗 八分, 連翹、甘草 各五分.
- 시호、산치인(볶는다) 각 1.5돈, 황금、인삼、천궁 각 1돈, 길경 8푼, 연교、감초 각 5푼.
- 右剉, 水煎服.
- 이상을 썰고 물에 달여 먹인다.

### ○柴胡飲子 ○시호음자

- 解肌熱、蒸熱、積熱, 或汗後餘熱, 大便堅硬.
- 피부의 열이나 골증열이나 적열(積熱)을 풀어준다. 간혹 한법을 쓴 후에 남은 열로 대변이 딱딱해진 경우에도 쓴다.
- 當歸 一錢, 大黃(酒炒) 八分, 赤芍藥、黃芩 各七分, 柴胡、人參 各五分, 甘草 四分.
- 당귀 1돈, 대황(술에 축여 볶는다) 8푼, 적작약、황금 각 7푼, 시호、인삼 각 5푼, 감초 4푼.
- 右剉, 水煎服.
- 이상을 썰고 물에 달여 먹인다.

#### ○清肝湯 ○청간탕

- 治肝經血虛, 有怒火身熱, 眼赤寒熱, 多啼不乳不寐.
- 간경(肝經)에 혈이 허하여 불같이 화내고 몸통이 뜨거우며 눈이 빨강고 오한발열이 있으며 계속 울면서 젖을 먹지도 잠들지도 못하는 경우를 치료한다.
- 白芍藥 一錢半, 川芎、當歸 各一錢, 柴胡 八分, 山梔仁(炒研)、牡丹皮 各四分.
- 백작약 1.5돈, 천궁、당귀 각 1돈, 시호 8푼, 산치인(볶아서 간다)、목단피 각 4푼.
- 右剉, 水煎服.
- 이상을 썰고 물에 달여 먹인다.

心熱者, 額上先赤, 心煩心痛, 掌中熱, 口中氣溫, 合手咬牙, 發驚上竄, 壯熱飲水, 巳午時益甚, 宜錢氏安神丸〔方見驚風〕, 心血少, 則驚悸怔忡, 懊懣不樂, 宜醒心散, 或四物湯〔方見血〕, 加減.

심열(心熱)이 있으면 이마 윗부분이 먼저 붉어지며 가슴이 답답하면서 아프고 손바닥이 뜨거우며 입 속의 숨이 따듯하고 양손을 맞잡으면서 이를 악다물며 경기를 일으키면서 눈을 위로 치켜뜨고 고열이 나면서 자꾸 물을 찾는다. 사시에서 오시 무렵(점심 이전)에 가장 심하다. 전씨안신환(처방은 경풍에 나온 다)을 써야 한다. 심장의 혈이 적으면 경계(驚悸)나 정충(怔忡)이나 오뇌(懊惱)가 생겨 짜증을 낸다. 성심산을 쓰거나 사물탕(처방은 혈에 나온 다)을 가 감하여 써야 한다.

#### ○十味導赤散 ○십미도적산

- 治心臟實熱, 口舌生瘡, 驚悸煩渴.
- 심장의 실열로 입과 혀에 창이 생기고 경계와 번갈아 나타나는 경우를 치료한다.
- 黃連、黃芩、麥門冬、半夏、地骨皮、赤茯苓、赤芍藥、木通、生地黃(酒洗)、甘草 各五分.
- 황련、황금、맥문동、반하、지골피、적복신、적작약、목통、생지황(술로 씻는다)、감초 각 5푼.
- 右剉, 入薑五, 竹葉五片, 燈心一團, 水煎服.
- 이상을 썬 후 생강 5조각과 죽엽 5조각과 등심 1단을 넣고 물에 달여 먹인다.

#### ○瀉心湯 ○사심탕

- 治心熱, 煩燥多啼, 身熱口爛, 不乳不眠.
- 심열로 번조증이 생기고 계속 울며 몸통이 뜨겁고 입이 헐며 젖을 빨지 못하고 잠도 못자는 경우를 치료한다.
- 黃連(薑炒), 細末, 溫蜜水, 量宜調服.
- 황련(생강즙에 축여 볶는다)을 잘게 가루 낸 후 따듯한 꿀물에 타서 아이의 몸

집을 가늠하여 먹인다.

○醒心散 ○성심산

- 治心經虛熱.
- 심경(心經)의 허열을 치료한다.
- 人參、麥門冬、五味子、遠志(製)、茯神、生地黃、石菖蒲 各等分.
- 인삼、맥문동、오미자、원지(법제한다)、복신、생지황、석창포 각각 같은 양.
- 右剉, 水煎服. ○一方, 加黃連爲君, 官桂爲佐, 入蜜少許, 水煎空心服, 能使心腎交於頃刻之間, 虛熱自除. ○朱砂安神丸、小兒清心丸, 皆能除虛熱.
- 이상을 썰고 물에 달여 먹인다. ○어떤 방서에서는 황련을 군약으로, 관계를 좌약으로 더하고 꿀을 조금 넣은 후 물에 달여 빈속에 먹이면 심장과 신장이 잠깐 사이에 소통되어 허열이 저절로 없어진다고 하였다. ○주사안신환、소아청심환도 모두 허열을 없앤다.

脾熱者, 鼻上先赤, 面黃肌熱, 怠惰嗜臥, 四肢不收, 煩渴飲水, 遇夜益甚, 宜瀉黃散, 或甘露飲、清胃散(方見煩渴).

비열(脾熱)이 있으면 코 윗부분이 먼저 붉어지고 얼굴이 누레지면서 피부가 뜨거워지며 만사를 귀찮아하면서 계속 눕기만 하고 사지를 늘어뜨리고 번갈로 물을 마신다. 밤이 되면 더욱 심해진다. 사황산을 쓰거나 혹은 감로음이나 청위산(처방은 번갈에 나온다)을 써야 한다.

○瀉黃散 ○사황산

- 治心脾熱, 口舌生瘡.
- 심장이나 비장의 열로 입과 혀에 창이 생긴 것을 치료한다.

- 山梔(炒) 一錢半, 藿香、甘草 各一錢, 石膏(煨) 八分, 防風 六分.
- 산치인(볶는다) 1.5돈, 곽향·감초 각 1돈, 석고(불에 달군다) 8푼, 방풍 6푼.
- 右剉, 蜜酒拌微炒, 水煎服.
- 이상을 썰고 꿀과 술에 버무려 살짝 볶은 후 물에 달여 먹인다.

肺熱者, 右頰先赤, 咳嗽喘悶, 胸膈不利, 壯熱飲水, 日西時尤甚, 輕者, 瀉白散, 重者, 涼膈散<sup>1</sup>(方見咽喉), 或地骨皮散.

폐열(肺熱)이 있으면 오른뺨이 먼저 붉어지고 숨이 넘어갈 듯 기침하면서 가슴이 답답하며 고열로 물을 들이킨다. 해질녘에 더욱 심하다. 증상이 가벼운 경우에는 사백산을, 무거운 경우에는 양격산(처방은 인후에 나온다)이나 지골피산을 써야 한다.

#### ○瀉白散 ○사백산

- 治肺實, 喘促身熱, 煩渴燥<sup>2</sup>悶不安.
- 폐장의 실열로 숨을 헐떡거리면서 몸통이 뜨거우며 번갈과 번조로 답답한 경우를 치료한다.
- 桑白皮、地骨皮 各二錢, 甘草 一錢.
- 상백피·지골피 각 2돈, 감초 1돈.
- 右剉, 水煎服. ○一方, 加知母、貝母、桔梗、梔子、麥門冬、生地黃, 名清肺湯.
- 이상을 썰고 물에 달여 먹인다. ○다른 처방: 지모·패모·길경·치자·맥문동·생지황을 더한 처방은 청폐탕이라고 한다.

腎熱者, 頤下先赤, 身重足熱, 脛骨蘇蘇如蟲蝕狀, 懶於動作, 宜地黃丸(方見解頤), 熱者, 滋腎丸.

신열(腎熱)이 있으면 턱 아래 부분이 먼저 붉어진다. 몸이 무겁고 발이 뜨거우며 정강이가 푸석푸석하게 벌레 먹은 듯한 모양이 되고 움직이기 귀찮아한다. 지황환(처방은 해로에 나온다)을 써야 한다. 열이 있으면 자신했을 쓴다.

#### ○滋腎丸 ○자신했

- 治腎經有火, 不渴而小便癰閉.
- 신경(腎經)에 열이 있을 때 목이 마르지 않고 소변이 막힌 것을 치료한다.
- 黃栢、知母(并酒洗炒) 各一兩, 肉桂 五分.
- 황백、지모(모두 술에 씻어서 볶는다) 각 1냥, 육계 5푼.
- 右爲末, 水丸梧子大, 空心鹽湯下.
- 이상을 가루 낸 후 물에 개어 오자대로 환을 빚고 빈속에 염탕으로 먹인다.

壯熱者, 遍身發熱, 一向不已, 精神恍惚, 狂叫譫妄, 呼吸喘急, 大渴煩悶, 宜敗毒散, 或大柴胡湯、黃連解毒湯(三方見外感).

장열(壯熱)이 있으면 온몸의 열이 잠시도 그치지 않아 정신이 혼미해지고 미친 듯이 소리치며 헛소리나 욕을 하고 숨이 가빠지며 갈증이 심하면서 답답해한다. 패독산이나 대시호탕、황련해독탕(세 처방은 외감에 나온다)을 써야 한다.

#### ○地黃煎 ○지황전

- 治小兒壯熱心煩, 睡<sup>3</sup>臥不安.
- 아이가 장열과 심번으로 편안히 잠들지 못하는 경우를 치료한다.
- 生地黃(汁) 一升, 白蜜、生梨(汁)、麥門冬(汁) 各三合.
- 생지황(즙) 1되, 꿀、생배(즙)、맥문동(즙) 각 3홉.
- 右重湯煮<sup>4</sup>, 至成膏, 每服數匙, 竹葉煎湯調服.

- 이상을 중탕으로 달여 고약처럼 만든 후 몇 술씩 죽엽 달인 물에 타서 먹인다.

#### ○連翹湯 ○연교탕

- 治壯熱, 心神恍惚, 躁亂譫妄.
- 장열로 정신이 혼미하여 발버둥 치면서 헛소리나 욕을 하는 증상을 치료한다.
- 連翹、柴胡、山梔仁(炒) 各一錢, 黃連(薑炒)、黃芩 各七分, 防風、甘草 各五分.
- 연교、시호、산치인(볶는다) 각 1돈, 황련(생강즙에 축여 볶는다)、황금 각 7푼, 방풍、감초 각 5푼.
- 右麤末, 每二錢, 水一盞煎至六合服.
- 이상을 거칠게 가루 낸 후 2돈씩 물 1잔에 넣고 6홉이 되도록 달여서 먹인다.

#### ○梔子仁湯 ○치자인탕

- 治陽毒壯熱, 躁亂譫妄.
- 양독(陽毒)으로 열이 심하게 나고 발버둥 치며 헛소리나 욕하는 증상을 치료한다.
- 石膏(煨)、黃芩(酒炒)、升麻、杏仁(夫炒黃) 各二錢, 柴胡 一錢半, 山梔子(酒炒)、赤芍藥、知母、大青 各一錢, 甘草 五分.
- 석고(불에 달군다)、황금(술에 축여 볶는다)、승마、행인(밀기울과 함께 누렇게 볶는다) 각 2돈, 시호 1.5돈, 산치인(술에 축여 볶는다)、적작약、지모、대청 각 1돈, 감초 5푼.
- 右麤末, 每二錢, 入薑三, 水煎服.
- 이상을 거칠게 가루 낸 후 2돈씩 생강 3조각을 넣고 물에 달여 먹인다.



實熱者, 面赤氣麤, 燥渴引飲, 小便赤澀, 大便堅硬, 掀揭露衣, 煩啼暴叫, 唇舌焦黑, 宜四順清涼飲〔方見大便不通〕, 有表症, 合小柴胡湯, 或調胃承氣湯〔二方見外感〕, 下之.

실열이 있으면 얼굴이 붉고 숨이 거칠며 입이 말라 물을 찾고 소변이 붉으면서 잘 나오지 않으며 대변이 딱딱하고 옷을 걷으며 정신없이 울다가 맹렬히 소리 지르고 입술과 혀가 새까맣게 된다. 사순청량음〔처방은 대변불통에 나온다〕을 써야 하고, 표증이 있으면 소시호탕을 합하여 쓰거나 조위승기탕〔두 처방은 외감에 나온다〕으로 하법을 써야 한다.

### ○三解牛黃散 ○삼해우황산

- 治胎熱、風熱、裏熱, 煩燥不寐, 驚惕眼竄, 二便不利.
- 태열、풍열、이열(裏熱)로 답답하고 속이 타서 잠들지 못하고 경기를 일으키면서 눈동자가 돌아가며 대소변을 잘 보지 못하는 증상을 치료한다.
- 黃芩(酒炒)、桔梗、大黃(酒炒)、白茯苓 各一錢, 防風、白殭蠶(炒)、全蝎(炒)、白附子(煨)、甘草、牛黃、鬱金(皂角水煮) 各三分.
- 황금(술에 축여 볶는다)、길경、대황(술에 축여 볶는다)、백복령 각 1돈, 방풍、백강잠(볶는다)、전갈(볶는다)、백부자(젓불에 묻어 굽는다)、감초、우황、울금(조각물에 달인다) 각 3푼.
- 右末如粉, 每二三分或半錢, 薄荷湯調服.
- 이상을 향분같이 곱게 가루 낸 후 2-3푼 혹은 5푼씩 박하탕에 타서 먹인다.

積熱者, 臟腑之氣, 壅滯鬱久蓄熱, 表裏俱熱, 五心煩熱, 口燥舌乾, 二便不利, 睡臥不安, 驚風癇疳, 或發癍疹, 身面瘡疥, 咽喉腫痛, 項腋結核, 宜五福化毒丹〔方見疳疾〕、寬熱飲〔方見急驚〕.

적열(積熱)은 장부의 기운이 오랫동안 울체되어 열이 쌓인 것으로 표리가 모두 뜨겁고 오심번열이 있으며 입과 혀가 바짝 마르고 대소변이 잘 나오지 않으며 편안히 잠들지 못하고 경풍이나 간질이나 천조풍이 동반된다. 간혹 반진이 생기거나 몸이나 얼굴에 개창이 생기거나 목구멍이 붓고 아프거나 뒷목이나 겨드랑이에 멍울이 생기기도 한다. 오복화독단(처방은 감질에 나온다)이나 관열음(처방은 급경에 나온다)을 써야 한다.

#### ○大黃朴硝湯 ○대황박초탕

- 治小兒熱極生風, 發驚吊搐, 二便不通.
- 아이의 열이 극심하여 풍으로 변한 후 경풍·천조풍·축닉이 발병하고 대소변이 나오지 않는 경우를 치료한다.
- 大黃(酒蒸)、朴硝、甘草 各等分.
- 대황(술에 찌다)·박초·감초 각각 같은 양.
- 右剉, 每一二錢, 水一盞, 入蜜少許, 煎至六分, 溫服.
- 이상을 썬 후 1-2돈씩 물 1잔에 꿀을 약간 넣고 6할이 되도록 달여 따뜻하게 먹인다.

#### ○五和湯 ○오화탕

- 治臟腑積熱, 調和榮衛, 宣利二便.
- 장부의 적열을 치료한다. 영기와 위기를 조화롭게 하며 대소변을 잘 나가게 한다.
- 大黃(酒炒)、當歸(酒洗)、赤茯苓、枳殼、甘草 各等分.
- 대황(술에 축여 볶는다)·당귀(술로 씻는다)·적복령·지각·감초 각각 같은 양.

- 右麤末, 每一二錢, 水一盞煎至七分, 無時溫服.
- 이상을 거칠게 가루 낸다. 1-2돈씩 물 1잔에 넣고 7할이 되도록 달여 아무 때나 따뜻하게 먹인다.

### ○三黃丸 ○삼황환

- 治三焦積熱, 眼目赤腫, 口舌生瘡, 咽喉腫痛, 陽盛發癍, 二便秘澀.
- 삼초의 적열로 눈이 붉게 붓고 입과 혀에 창이 생기며 목구멍이 붓거나 헛고 양독이 왕성해져 반진이 생기며 대소변이 잘 나오지 않는 증상을 치료한다.
- 黃連、黃芩、大黃(酒炒) 各等分.
- 황련、황금、대황(술에 축여 볶는다) 각각 같은 양.
- 右細末, 煉蜜丸菉豆大, 每三四十丸, 白湯下.
- 이상을 잘게 가루 낸 후 연밀에 개어 녹두대로 환을 빚는다. 30-40환씩 끓인 물로 먹인다.

虛熱者, 因病平復後, 氣血尙弱, 一日之內, 數三次發熱, 身熱不歇, 自汗困倦, 乳食不進, 宜補中益氣湯, 加地骨皮、鼈甲, 四君子湯〔二方見吐瀉〕, 或錢氏白朮散〔方見慢驚〕, 並加減.

허열은 병이 나은 후에 기와 혈이 아직 허약하기 때문에 생긴다. 하루에 서너 차례 열이 나고 몸통의 열은 쉬지 않고 나며 자한이 나면서 피곤해하고 젖이나 음식을 넘기지 못한다. 보중익기탕에 지골피와 별갑을 더하여 쓰거나 사군자탕〔두 처방은 토사에 나온다〕이나 전씨백출산〔처방은 만경에 나온다〕을 가감하여 써야 한다.

### ○人參清肌散 ○인삼청기산

- 治久病氣血俱虛, 肌熱不息, 虛煩不寐, 又治無汗骨蒸潮熱.

- 오랜 병으로 기와 혈이 모두 허해져 피부의 열이 쉬지 않고 나고 허번(虛煩)으로 잠들지 못하는 경우를 치료한다. 또한 땀이 나지 않거나 골증열·조열을 치료한다.
- 人參、白朮、白茯苓、赤芍藥、當歸、半夏麴、柴胡、葛根 各等分, 甘草 半減.
- 인삼、백출、백복령、적작약、당귀、반하국、시호、갈근 각각 같은 양, 감초 절반 분량.
- 右剉, 入薑三棗二, 水煎服. ○一方, 加黃芩、地骨皮.
- 이상을 썬 후 생강 3조각과 대조 2개를 넣고 물에 달여 먹인다. ○어떤 방서에서는 황금과 지골피를 더하기도 한다.

## ○二調散 ○이조산

- 治小兒病後, 元氣未復, 虛熱往來, 身熱心煩, 多啼不能穩眠.
- 아이가 병을 앓은 후 원기가 회복되지 못했을 때 허열이 났다가 그쳤다가 하고 몸통이 뜨거우며 오심번열이 있고 계속 울면서 편안히 잠들지 못하는 경우를 치료한다.
- 麥門冬 一錢, 知母 七分, 半夏、人參、甘草 各五分.
- 맥문동 1돈, 지모 7푼, 반하、인삼、감초 각 5푼.
- 右剉, 入烏梅一箇, 竹葉三片, 水煎服.
- 이상을 썬 후 오매 1개와 죽엽 3조각을 넣고 물에 달여 먹인다.

## ○加減逍遙散 ○가감소요산

- 治血虛, 煩燥不寐, 潮熱盜汗, 寒熱往來.
- 혈이 허하여 번조로 잘 잠들지 못하고 조열과 도한과 한열왕래가 있는 경우를

치료한다.

- 白朮、白茯苓、白芍藥、當歸、麥門冬、黃芩、胡黃連、秦艽 各等分, 甘草、薄荷 各半減.
- 백출、백복령、백작약、당귀、맥문동、황금、호황련、진교 각각 같은 양, 감초、박하 각각 절반 분량.
- 右剉, 入薑三, 水煎服. ○一方, 加柴胡、地骨皮.
- 이상을 썬 후 생강 3조각을 넣고 물에 달여 먹인다. ○어떤 방서에는 시호와 지골피를 더하기도 한다.

#### ○逍遙散 ○소요산

- 治血虛, 五心煩熱, 寒熱如瘧.
- 혈이 허하여 오심번열이 나고 학질처럼 한열왕래가 있는 경우를 치료한다.
- 白朮、白芍藥、白茯苓、柴胡、當歸、麥門冬 各一錢, 甘草、薄荷 各五分.
- 백출、백작약、백복령、시호、당귀、맥문동 각 1돈, 감초、박하 각 5푼.
- 右剉, 入薑五, 水煎服.
- 이상을 썬 후 생강 5조각을 넣고 물에 달여 먹인다.

#### ○當歸補血湯 ○당귀보혈탕

- 治氣血兩虛, 身熱自汗, 虛煩不寐. ○<sup>5</sup>古方云, 用當歸補血湯症, 而誤服白虎湯, 必死.
- 기와 혈이 모두 허하여 몸통이 뜨겁고 자한이 나며 허번으로 잘 자지 못하는 경우를 치료한다. ○옛 방서에서 '당귀보혈탕을 써야하는 증상에 잘못하여 백호탕을 먹이면 반드시 죽게 된다.'고 하였다.
- 黃芪 三錢, 當歸 二錢.

- 황기 3돈, 당귀 2돈.
- 右剉, 水煎服.
- 이상을 썰고 물에 달여 먹인다.

○小兒清心丸 ○소아청심환

- 治小兒虛熱, 驚熱煩燥, 多啼不寐.
- 아이가 허열이나 경열(驚熱)이나 번조가 있어 계속 울면서 잠들지 못하는 경우를 치료한다.
- 人參、赤茯苓、防風、朱砂、柴胡 各二錢, 金箔 三十片.
- 인삼、적복신、방풍、주사、시호 각 2돈, 금박 30조각.
- 右細末, 蜜丸<sup>6</sup>桐子大, 金箔爲衣, 每一丸, 竹瀝調下.
- 이상을 잘게 가루 낸 후 꿀에 개어 오자대로 환을 빚고 금박을 입힌다. 1환씩 죽력에 타서 먹인다.

○地骨皮散 ○지골피산

- 治虛熱, 身熱不歇, 寒熱往來<sup>7</sup>, 咳嗽自汗.
- 허열로 몸통의 열이 멈추지 않으며 한열왕래가 있고 기침하면서 자한이 나는 경우를 치료한다.
- 知母、半夏、柴胡、人參、地骨皮、赤茯苓、甘草 各三分.
- 지모、반하、시호、인삼、지골피、적복령、감초 각 3푼.
- 右麤末, 入薑三, 水煎服.
- 이상을 거칠게 가루 낸 후 생강 3조각을 넣고 물에 달여 먹인다.

○天乙丸 ○천을환

- 凡小兒生理, 本天一生水之妙, 凡治病, 以水道通利爲捷徑. 此方, 清心利小便, 所以散火也. 凡小兒蘊熱丹毒, 驚風痰熱, 變蒸發熱之病用之, 最當, 而嘔吐瀉利, 無不治也.
- 무릇 소아의 생리는 '천일생수(天一生水)'라는 오묘한 이치가 근본이기 때문에 병을 치료할 때 수도(水道)를 소통시키는 것이 지름길이 된다. 이 처방은 심장의 열을 없애고 소변을 소통시켜 화기를 흩어버린다. 소아의 적열·단독·경풍·담열(痰熱)과 변증(變蒸)으로 열이 나는 증상에 쓰면 가장 적당하고, 구토와 설사도 치료한다.
- 燈心 (一兩六錢, 以米粉漿水洗, 曬乾爲末, 入水澄之, 浮者, 爲燈心, 取二錢半), 赤茯苓、白茯苓、赤茯神 各一錢七分, 滑石、猪苓 各二錢半, 澤瀉 三錢.
- 등심 2.5돈(등심 1.6냥을 쌀가루로 쏘 미음으로 씻어 벌에 말린 후 가루 낸다. 그 가루를 물에 넣어 가라앉혔을 때 위에 떠있는 것이 등심이다. 그 중에 2.5돈을 쓴다), 적복령·백복령·적복신 각 1.7돈, 활석·저령 각 2.5돈, 택사 3돈.
- 右爲末, 用人參一兩煎膏, 和丸櫻桃大, 朱砂爲衣, 金箔裹之, 每一丸, 以燈心麥門冬湯, 或薄荷湯化下.
- 이상을 가루 낸 후 인삼 1냥을 달여 만든 고약과 섞어 앵도대로 환을 빻은 후 주사를 곁에 입히고 금박으로 싼다. 1환씩 등심과 맥문동 달인 물이나 박하탕에 녹여 먹인다.

潮熱者, 熱有作止, 每日應時而發, 謂之潮熱, 如潮之有信, 不失其期也. 錢氏云, 雜病虛實, 有潮熱, 假如日中發潮熱, 是心經主之, 心實則瀉脾, 心虛則補肝, 此虛則補其母, 實則瀉其子之法, 餘臟倣此. 肌瘦口乾骨蒸, 盜汗潮熱者, 疳熱也, 背腹先熱, 夜發朝止, 食積熱也, 咳嗽頭汗, 大便溏泄, 小便白濁而潮熱者, 癖積熱也. 醫見潮熱, 妄謂其實熱, 乃以寒涼峻劑攻之, 利既多矣, 不能禁約, 而津液內竭, 縱取一時之差, 不成疳病而身瘦潮熱者, 鮮矣. 古方云, 諸病潮熱, 參蘇飲(方見外感)最妙.

조열은 열이 날 때와 그칠 때가 있는 것으로 매일 특정 시간에 나기 때문에 조열이라고 한다. 조수가 일정하게 정해진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과 비슷하다. 전씨는 '병의 허증이나 실증과 관계없이 조열이 존재한다. 가령 낮에 생기는 조열은 심경(心經)이 주관하는데 심장이 실하면 비장을 사해주고 심장이 허하면 간장을 보해주어야 한다. 이는 허하면 그 어머니를 보해주고 실하면 그 아들을 사해주어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며 나머지 오장도 이와 같다.'고 하였다. 살이 여위고 입이 마르며 골증열이 나고 도한과 조열이 있는 경우는 감열(瘧熱)이다. 등과 배에 먼저 열이 나고 밤에 시작되어 아침에 그치는 경우는 식적열(食積熱)이다. 기침을 하고 머리에 땀이 나며 대변을 쏟아내고 백탁(白濁)이 있으면서 조열이 있는 경우는 벽적열(癖積熱)이다. 의원이라는 자가 조열을 보고 엉터리로 실열이라고 말하면서 매우 차갑고 서늘한 약으로 치료한다면 이미 심한 설사를 멈추지 못한 채 진액이 안에서 고갈되게 된다. 비록 잠깐의 차도는 있겠지만 감병(瘧病)으로 악화되어 몸이 여위고 조열이 나지 않는 경우가 드물 것이다. 옛 방서에서 '여러 질병의 조열에는 삼소음(처방은 외감에 나온다)이 가장 좋다.'고 하였다.

#### ◦甘露飲 ◦감로음

- 治潮熱, 煩渴引飲.
- 조열로 번갈이 있으며 물을 찾는 경우를 치료한다.
- 寒水石(煨)、石膏(煨)、鬱金、薄荷、甘草 各等分.
- 한수석(불에 달군다)·석고(불에 달군다)·울금·박하·감초 각각 같은 양.
- 右細末, 每一錢, 薄荷湯調服.
- 이상을 잘게 가루 낸 후 1돈씩 박하탕에 타서 먹인다.

#### ◦梨漿飲 ◦이장음



- 治潮熱, 及寒熱如瘧.
- 조열 및 학질처럼 한열왕래가 있는 경우를 치료한다.
- 靑蒿(童便浸一宿, 曬乾)、柴胡、人參、黃芩、前胡、秦艽、甘草 各二分, 生梨 一片, 薄荷 二葉, 生芡 一寸.
- 청호(동변에 하루밤 담갔다가別に 말린다)、시호、인삼、황금、전호、진교、감초 각 2푼, 생배 1조각, 박하 2잎, 생지황 1촌.
- 右剉, 水煎服.
- 이상을 썰고 물에 달여 먹인다.

#### ○秦艽散 ○진교산

- 治潮熱蒸瘦.
- 조열이나 골증열로 여위는 경우를 치료한다.
- 秦艽(去蘆)、甘草(炙) 各一錢, 薄荷 五分.
- 진교(노두를 제거한다)、감초(살짝 볶는다) 各 1돈, 박하 5푼.
- 右麤末, 每一二錢, 水煎食後服.
- 이상을 거칠게 가루 낸 후 1-2돈씩 물에 달여 식후에 먹인다.

#### ○當歸散 ○당귀산

- 治血虛潮熱.
- 혈이 허하여 조열이 나는 경우를 치료한다.
- 當歸(酒洗)、赤芍藥 各二錢, 大黃(酒炒) 一錢二分, 甘草 一錢(半生半炙), 川芎、麻黃(去節) 各五分.
- 당귀(술로 씻는다)、적작약 各 2돈, 대황(술에 축여 볶는다) 1.2돈, 감초 1돈(반은 생것, 반은 굵는다), 천궁、마황(마디를 제거한다) 各 5푼.

- 右剉, 每一二錢, 入薑一片, 水煎服.
- 이상을 썬 후 1-2돈씩 생강 1조각을 넣고 물에 달여 먹인다.

○百解散 ○백해산

- 主和百病, 及善解潮熱.
- 모든 병을 완화시키며 조열을 잘 풀어준다.
- 葛根 二錢半, 升麻、赤芍藥 各二錢, 甘草 一錢半, 黃芩 一錢, 麻黃 七分半, 桂枝 二分半.
- 갈근 2.5돈, 승마·적작약 각 2돈, 감초 1.5돈, 황금 1돈, 마황 7.5푼, 계지 2.5푼.
- 右麤末, 每二錢, 入薑三葱白一, 水煎服.
- 이상을 거칠게 가루 낸 후 2돈씩 생강 3조각과 총백 1줄기를 넣고 물에 달여 먹인다.

骨蒸熱者, 大病後, 胃氣尙未完復, 早食過飽食, 熱復起, 或疴病羸瘦之餘, 復傷乳食而吐瀉, 內亡津液, 或腹內癖積, 能作寒熱, 毒傳骨髓, 并爲骨熱, 蒸蒸而成也. 外症, 有熱無寒, 咳嗽頰赤, 盜汗發渴, 五心煩熱, 宜滋陰清熱以潤氣血, 調和飲食以養脾胃.

골증열은 큰 병을 앓은 후 위기(胃氣)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찍 음식을 먹거나 너무 많이 먹어서 열이 다시 나는 것이다. 혹은 감병으로 바싹 마른 상태에서 다시 한 번 젖이나 음식에 상하여 구토와 설사를 하다가 속에 진액이 없어지거나, 혹은 배속에 벽적(癖積)으로 오한발열이 생겨 그 독기가 골수까지 전해지고 결국 골열(骨熱)이 되어 열이 뚝뚝 찢어서 생기기도 한다. 겉으로 보이는 증상으로는 발열은 있으나 오한은 없고 기침을 하며 뺨이 붉어지고 도한이 있으면서 갈증이 나고 오심번열이 생긴다. 음기를 길러주고 열을 없애서 기와 혈을 윤택하게 하며, 몸을 잘 조리시키고 잘 먹여서 비위의 기운을 길러주어야 한다.

○團魚散 ○단어산

- 治骨蒸潮熱, 黃羸, 盜汗咳嗽.
- 골증열이나 조열이 나면서 누렇게 뜨고 도한을 흘리며 기침하는 증상을 치료한다.
- 貝母(童便浸, 去心, 薑炒)、前胡、知母、杏仁、柴胡 各二兩, 團魚 二箇<sup>8</sup>.
- 패모(동변에 담갔다가 심을 뺀 후 생강즙에 축여 볶는다)、전호、지모、행인、시호 각 2냥, 자라 2마리.
- 右剉, 同團魚煮, 爛熟提起, 去頭取肉, 連汁食之, 却將前藥, 焙乾爲末, 取團魚裙甲及骨更, 煮汁一盞, 和藥末, 爲丸梧子大, 每四五十丸, 以當歸黃芪煎湯吞下, 或米飲下. ○小兒, 薄荷湯化服.
- 이상을 썬 후 자라와 함께 삶다가 푹 익으면 건져서 머리는 버리고 고기를 발라 국물과 함께 먹는다. 그 후에 다른 약재를 불에 쪄서 말려 가루 낸 후 자라의 아래 껍데기와 뼈 달인 물 1잔을 약 가루와 섞어 오자대로 환을 빚는다. 4-50환씩 당귀와 황기 달인 물이나 미음으로 먹는다. ○아이는 박하탕에 녹여 먹인다.

○生犀散 ○생서산

- 治骨蒸潮熱, 口燥舌乾, 身熱不寐, 飲食不進.
- 골증조열로 입과 혀가 마르고 몸통이 뜨거워 잘 자지 못하며 음식을 넘기지 못하는 경우를 치료한다.
- 犀角(水磨取汁)、地骨皮、赤芍藥、柴胡、葛根、甘草 各三分.
- 서각(물에 갈아 즙을 낸다)、지골피、적작약、시호、갈근、감초 각 3푼.
- 右麤末, 入薄荷五葉, 水煎服.
- 이상을 거칠게 가루 낸 후 박하 5잎을 넣고 물에 달여 먹인다.

○柴胡地骨皮散 ○시호지골피산

- 治小兒骨蒸潮熱, 頰赤口乾盜汗, 五心煩熱, 四肢困倦, 大病差後, 餘毒未解, 身熱, 不思飲食.
- 아이가 골증조열로 뺨이 붉어지고 입이 마르며 도한이 나고 오심번열이 있으며 사지에 힘이 없는 경우와, 큰 병을 앓은 후에 남은 독기가 덜 풀려 몸통이 뜨겁고 음식 생각이 없는 경우를 치료한다.
- 柴胡、地骨皮 各二錢, 知母、鼈甲(醋灸黃)、黃芩、赤茯苓 各五分, 人參、甘草 各二分半.
- 시호、지골피 각 2돈, 지모、별갑(식초를 축여 누렇게 굽는다)、황금、적복령 각 5푼, 인삼、감초 각 2.5푼.
- 右剉碎, 每二錢, 入薑一片, 梅一箇, 水二盞煎至半服.
- 이상을 썰거나 뺀 후 2돈씩 생강 1조각과 오매 1개를 넣고 물 2잔이 절반이 되도록 달여서 먹인다.

○柴胡鼈甲飲 ○시호별갑음

- 治小兒骨蒸潮熱, 盜汗咳嗽, 寒熱往來, 五心煩熱, 好臥冷地.
- 아이가 골증조열로 도한이 나고 기침을 하며 한열왕래와 오심번열이 있고 서늘한 곳에 눕기를 좋아하는 경우를 치료한다.
- 胡黃連、地骨皮 各一錢, 柴胡、鼈甲(醋灸)、知母(蜜炒)、犀角(磨取汁)、秦艽(酒洗) 各五分, 甘草(炙) 三分, 桃柳枝 各一寸.
- 호황련、지골피 각 1돈, 시호、별갑(식초를 축여 굽는다)、지모(꿀을 묻혀 볶는다)、서각(갈아서 즙을 낸다)、진교(술로 씻는다) 각 5푼, 감초(살짝 볶는다) 3푼, 복숭아가지와 버들가지 각 1촌.
- 右剉, 水煎服.

- 이상을 썰고 물에 달여 먹인다.

#### ◦甘露液 ◦감로액

- 治諸病後氣血未復, 虛煩, 睡臥不安, 口燥咽乾, 頻頻索水.
- 병이 나은 후 기와 혈이 회복되지 않았을 때 허번으로 잘 자지 못하고 입과 목구멍이 바짝 마르며 자주 물을 찾는 경우를 치료한다.
- 甘生梨(去皮核, 取汁) · 蓮根(洗淨, 搗汁) 各一盞, 柿霜 · 砂糖屑 各三錢, 烏梅五箇(槌去核, 蒸搗爛化膏), 生薑(自然汁) 少許, 蘆根(汁) 二盞.
- 생배(껍질과 씨를 제거하고 즙을 낸다) · 연근(깨끗이 씻은 후 찢어 즙을 낸다) 각 1잔, 시상 · 사탕가루 각 3돈, 오매 5개(몽둥이로 씨를 깨고 증기에 찢 후 짓찧어 고약처럼 만든다), 생강(자연즙) 약간, 노근(즙) 2잔.
- 右和勻, 微煎數沸, 盛磁缸內, 量兒大小加減, 微溫, 日數三次服.
- 이상을 골고루 섞은 후 물이 끓기 시작할 정도로만 살짝 달여 도자기에 담는다. 아이의 몸집에 따라 양을 가감하고 조금 따뜻하게 데워 하루에 서너 번 먹인다.

#### ◦造化膏 ◦조화고

- 治小兒疳勞, 骨蒸熱虛羸, 身熱晝夜不息, 心煩潮熱盜汗, 口乾舌焦, 頻索溫湯, 食飲不進, 大便溏泄, 小便短赤, 夜不穩寐.
- 아이가 감병(疳病)으로 골증열이 나고 힘없이 여위며, 몸통의 열이 밤낮으로 그치지 않고, 오심번열과 조열이 있으며 도한이 나고, 입과 혀가 바짝 마르고, 자주 따뜻한 물을 찾으며, 음식을 넘기지 못하고, 대변은 죽죽 쏟아내며, 소변은 빨갛고 자주 누고, 밤에 편히 잠들지 못하는 경우를 치료한다.
- 雄豬肚 一箇(洗淨) · 蓮肉(去心皮) · 山藥 各八兩, 糯米粉 一升.
- 수탉지의 위(깨끗이 씻는다) 1개 · 연육(심과 껍질을 제거한다) · 산약 각 8냥, 찹쌀가루 1되.

- 右細末, 和勻, 入猪肚<sup>9</sup>, 以線縫密<sup>10</sup>, 飯上蒸, 十分爛熟, 取出, 入胡椒末少許, 搗爛如泥, 作小餅子, 以醋漿入生薑、葱白, 和五味浸拌, 量宜食, 黃羸骨立兒, 頓作化生兒.
- 이상을 잘게 가루 내고 잘 섞어 수돼지의 위에 넣은 후 실로 꿰매어 밀봉한다. 밥 위에 놓고 찌서 완전히 푹 익으면 꺼내어 호초 가루를 약간 넣고 진흙처럼 짓찧은 후 경단처럼 만든다. 초장에 생강과 총백과 갖은 양념을 넣고 버무린 후 먹고 싶은 만큼 먹는다. 누렇게 여위고 뼈가 앙상한 아이가 금세 건강한 아이로 변한다.

驚熱者, 遍身發熱, 眼視恍惚, 左右顧盼, 脈絡跳動, 頭額多汗, 睡夢虛驚, 啼叫不止, 槩有因驚而發熱者, 或有因熱而發驚者, 治見諸驚.

경열(驚熱)이 있으면 온몸에 열이 나고, 눈이 어지러우며, 좌우를 돌아보고, 맥박이 요동치며, 머리와 이마에 땀이 많이 나고, 자면서 악몽으로 경기를 일으키고, 소리 지르며 우는 것을 그치지 않는다. 대개 어떤 일로 놀라서 열이 나는 것이며 간혹 열 때문에 경기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 치료법은 제경(諸驚) 부분에 나온다.

煩熱者, 凡病後餘熱未盡, 或津液未復, 手足時時露出, 睡臥不安, 衣被脫却, 口燥咽乾, 唇頰微紅, 無根之熱, 或升或降, 宜竹葉石膏湯〔方見外感〕, 虛者, 甘露液.

번열(煩熱)은 어떤 병을 앓은 후에 남은 열이 사라지지 않거나 혹은 몸의 진액이 회복되지 못하여 생기는데, 손이나 발을 자주 밖으로 내놓으며 편안히 잠들지 못하고 옷을 벗거나 걷으며 입과 목구멍이 마르고 입술과 뺨이 살짝 붉어지며 무근지화(無根之火)가 오르락내리락 하게 된다. 죽엽석고탕〔처방은 외감에 나온다〕을 써야 한다. 허한 경우에는 감로액을 쓴다.

- 一方, 冬瓜一大片, 黑豆、菉豆各一合, 甘草少許, 水煮取汁飲, 治小兒疳勞骨蒸, 身熱煩渴引飲. ○團魚一箇, 專甲骨爛烹, 取肉與汁并食, 或作粥作羹食之, 治瘧熱、疳熱、骨蒸熱、潮熱等羸瘦. ○青蒿, 不拘多少, 浸童便一宿, 曬乾, 每二三錢, 水煎服, 治瘧熱、骨蒸、潮熱. ○白色鵝鴨、黃鷄、金線蛙、老鼠之

類<sup>11</sup>, 如食治法食, 小兒諸熱, 最可. ○小兒諸熱, 煩渴引飲, 烏梅五六箇, 去核, 水煮取汁, 和白蜜快服.

- 다른 처방. 동과 큰 것 1조각, 흑두·녹두 각 1홉, 감초 약간을 물에 달여 그 즙을 마시면 아이가 감병에 걸려 골증열로 몸통이 뜨겁고 번갈아 있어 물을 찾는 증상을 치료한다. ○자라 1마리를 껍데기까지 푹 익도록 삶아 고기와 국물을 모두 먹거나 혹은 죽이나 국을 만들어 먹으면 학질의 열, 감병의 열, 골증열, 조열 등으로 바싹 마른 증상을 치료한다. ○청호를 양과 상관없이 동변에 하룻밤 담갔다가 벌레에 말리고 2-3돈씩 물에 달여 먹이면 학질의 열과 골증열과 조열을 치료한다. ○흰 거위·흰 오리·누런 닭·금선와(金線蛙, 참개구리)·늪은 쥐 같은 것을 식치법 대로 먹이면 아이의 여러 가지 열에 가장 좋다. ○아이가 열이 나서 번갈아 물을 찾는 경우에는 오매(씨를 뺀다) 5-6개 달인 물에 꿀을 타서 모두 먹인다.

鄭參判(錫三)子, 生四五歲, 得外感, 沈綿日久, 精神昏憤, 食飲專却, 身熱如火, 衄血潮熱, 發作無時. 余曰, 外似大熱, 而六脈浮大無力, 此上熱下寒, 胃氣虛弱之致也. 補中益氣湯(方見吐瀉), 加乾薑五分, 肉桂三分, 連用三劑, 乃愈.

[의안] 참판(參判) 정석삼(鄭錫三)의 4-5살 된 아이가 감기에 걸렸는데 앓은 지 오래되어 정신이 혼미하고 도무지 먹지 못하며 몸통이 불처럼 뜨겁고 코피가 나며 조열이 있고 수시로 발작하였다. 나는 "겉으로는 열이 심하지만 육맥은 부대(浮大)하면서 힘이 없습니다. 이는 상부가 뜨겁고 하부가 차가운 상태이니 위기가 허약하여 그리 된 것입니다."라고 말하였다. 보중익기탕(처방은 토사에 나온다)에 건강 5푼, 육계 3푼을 더하여 연달아 3첩을 썼더니 나았다.

朴主簿子年十三, 自夏至秋, 食飲厭苦, 身熱不息, 又或乍寒乍熱, 醫以爲暑熱所傷, 用寒涼之劑, 身熱煩渴咳嗽潮熱等證, 倍甚. 余曰, 胃虛津乾, 氣血俱虛, 當以補中生津爲務. 蓋此病, 外雖似熱, 皆虛熱所使, 肌膚烘熱者, 陽浮於外, 氣不歸元也, 口燥舌乾, 煩渴引飲者, 胃中津液燥渴也, 乍寒乍熱者, 陰陽俱虛, 不能相和也, 今若更以

峻寒攻之,後悔何及.乃於人參清肌散,加地骨皮、鼈甲,連用十劑,諸證減六七分,而胃氣未復,虛汗不止,繼服補中益氣湯〔方見吐瀉〕,加炒白芍藥、桂枝<sup>12</sup>,兼用六味丸,加當歸、天門冬而愈.

〔의안〕 박 주부(主簿)의 13살 된 아이가 여름부터 가을까지 음식을 통 먹지 못하고 몸통의 열이 그치지 않았다. 또한 가끔씩 한열왕래가 있었다. 의원이 더위에 상했다고 여기고는 차갑고 서늘한 약을 썼더니 몸통의 열이나 번갈, 기침, 조열 등의 증상이 배로 심해졌다. 나는 "위가 텅 비어 진액이 말랐기 때문에 기와 혈이 모두 허한 상태입니다. 마땅히 속을 보하여 진액을 생기게 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대체로 이 병은 겉으로는 열이 나는 것 같지만 그것은 모두 허열입니다. 피부가 불처럼 뜨거운 것은 양기가 겉으로 떠서 기운이 진원으로 돌아가지 못하기 때문이며, 입과 혀가 마르고 번갈로 물을 찾는 것은 위 속의 진액이 말랐기 때문이며, 한열왕래는 음기와 양기가 모두 허하여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만약 다시금 매우 차가운 약으로 치료한다면 후회가 막심할 것입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리고는 인삼청기산에 지골피와 별갑을 더하여 연달아 10첩을 썼더니 증상들이 6-7할 정도 줄어들긴 했으나 위기가 회복되지 못하여 식은땀이 그치지 않았다. 이어서 보중익기탕(처방은 토사에 나온다)에 백작약(볶는다)과 계지를 더하여 먹이면서 동시에 육미환에 당귀와 천문동을 더하여 썼더니 나았다.

李尙書〔宗城〕女兒,患外感,彌留日久,寒熱不止,每日晡潮熱,咳嗽頻渴,至夜尤重,煩熱不寐,肌肉瘦敗,轉成骨蒸發熱,以柴胡四物湯,加黃連、山梔,服數劑,身熱煩渴稍加<sup>13</sup>,而且似有嘔氣,又以錢氏白朮散〔方見吐瀉〕,半減藿香、木香,加鼈甲、牡丹皮各五分,連用五劑,身熱煩渴雖歇,而咳嗽潮熱未已,又以參蘇飲〔方見外感〕,加黃芩、杏仁服之,兼用竹瀝,調小兒清心丸而愈.

〔의안〕 상서(尙書) 이종성(李宗城)의 딸이 감기에 걸려 오랫동안 낫지 않았다. 오한발열이 그치지 않고 매일 해질녘에 조열이 나며 기침을 하고 자주 갈증이 생겼는데 밤이 되면 더욱 심해져 번열로 잠을 잘 자지 못하면서 살이 여위고



골증열로 변하였다. 시호사물탕에 황련과 산치인을 더하여 몇 첩을 먹이자 몸  
통의 열과 번갈아 조금 심해졌고 구역질이 나올 것 같다고 하였다. 다시 전씨  
백출산〔처방은 토사에 나온다〕에서 곽향과 목향은 절반으로 줄이고 황금과  
행인을 더하여 먹이는 한편 죽력에 소아청심환을 타서 함께 먹었더니 나았다.

1. 散：丸 ※규장각본 [↩](#)

2. 燥：躁 ※규장각본 [↩](#)

3. 睡：渴 ※규장각본 [↩](#)

4. 煮：煎 ※규장각본 [↩](#)

5. 〇：원본에는 공백이나 권점이 누락된 것으로 보고 번역하였다. [↩](#)

6. 桐：梧 ※규장각본 [↩](#)

7. 寒熱往來：往來寒熱 ※규장각본 [↩](#)

8. 글자없음：〔卽鼈也〕※규장각본 [↩](#)

9. 內：肉 ※규장각본 [↩](#)

10. 密：蜜 ※규장각본 [↩](#)

11. 類：屬 ※규장각본 [↩](#)

12. 枝：皮 ※규장각본 [↩](#)

13. 加：和 ※규장각본 [↩](#)

## 眼疾 안질

目者, 五臟六腑之精華, 皆上注於目, 故白睛屬肺, 黑睛屬肝, 瞳子屬腎, 上下胞屬脾胃, 兩眦屬心與膀胱, 各隨部位而治之. 黑睛小, 白睛大, 目視不明者, 肝腎虛憊也, 宜補肝腎, 目赤腫痛, 羞明怕日, 晝夜不開, 久則生翳昏暗者, 風熱盛也, 宜散風熱涼血爲主.

눈은 오장육부의 정수가 위로 모인 것이다. 흰자위는 폐장에 속하고, 검은자위는 간장에 속하고, 눈동자는 신장에 속하고, 상·하안검은 비위에 속하고, 내·외안각은 심장과 방광에 속하니 각 부위에 따라 치료해야 한다. 검은자위가 작고 흰자위가 크며 눈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경우는 간장과 신장이 허하기 때문이니 간장과 신장을 보해주어야 한다. 눈이 빨갛게 붓고 아프며 빛을 싫어하고 하루 종일 눈을 뜨지 못하며 오래되어 예막이 생겨 앞이 캄캄한 경우는 풍열이 왕성하기 때문이니 풍열을 흩고 혈을 서늘하게 하는 것을 위주로 치료해야 한다.

### ○九仙散 ○구선산

- 解諸目疾, 不計歲月遠近, 並宜先用發散.
- 여러 가지 눈병을 풀어준다. 병에 걸린 기간에 상관없이 우선 발산시키는 약재를 써야 한다.
- 柴胡、蒼朮 各二錢, 赤芍藥、荊芥 各六分半, 麻黃(去節, 湯泡)、川芎、薄荷、甘草 各五分, 旋覆花 三分.
- 시호、창출 각 2돈, 적작약、형개 각 6.5푼, 마황(마디를 제거하고 끓인 물에 담근다)、천궁、박하、감초 각 5푼, 선복화 3푼.
- 右剉細, 每二三錢, 水一盞半, 薑二蔥白一, 煎至一盞, 不拘時服.
- 이상을 잘게 썬 후 2-3돈씩 물 1.5잔에 생강 2조각과 총백 1줄기를 넣고 1잔이

되도록 달여 시간에 상관없이 먹인다.

○散熱飲子 ○산열음자

- 治風熱暴赤疼痛, 羞澀不能開視.
- 풍열로 갑자기 눈이 빨개지면서 아프고 빛을 싫어하며 눈이 뻑뻑하여 잘 뜨지 못하는 증상을 치료한다.
- 羌活、防風、黃連、黃芩 各等分.
- 강활、방풍、황련、황금 각각 같은 양.
- 右剉細, 每二三錢, 水煎服.
- 이상을 잘게 썬 후 2-3돈씩 물에 달여 먹인다.

○柴胡湯 ○시호탕

- 治肝熱, 目赤不開, 多淚腫痛.
- 간장의 열 때문에 눈이 빨개지고 잘 뜨지 못하며 눈물이 계속 흐르면서 붓고 아픈 증상을 치료한다.
- 柴胡、赤芍藥、當歸、川芎、青皮、梔子、連翹、草龍膽(酒洗) 各一錢, 甘草五分.
- 시호、적작약、당귀、천궁、청피、치자、연교、초롱담(술로 씻는다) 각 1돈, 감초 5푼.
- 右剉, 水煎, 食後服.
- 이상을 썬 후 물에 달여 식후에 먹인다.

○三解散 ○삼해산

- 治上焦蘊熱傷風, 面紅目赤, 狂躁煩悶, 丹毒口瘡痰嗽, 搐掣驚啼.

- 상초에 열이 쌓인 상태에서 상풍이 겹쳐 얼굴과 눈이 빨갛고 미친 듯이 발버둥 치면서 답답해하며 단독과 구창(口瘡)과 가래기침이 있고 손발이 당기면서 경기하며 우는 증상을 치료한다.
- 黃芩、赤芍藥、白僵蠶(炒) 各二錢半, 防風、天麻、茯神、鬱金、白附子、大黃(酒炒) 各一錢二分半, 山梔(炒)、枳殼、甘草 各一錢, 全蝎 八尾(去毒).
- 황금、적작약、백강잠(볶는다) 각 2.5돈, 방풍、천마、복신、울금、백부자、대황(술에 축여 볶는다) 각 1.25돈, 산치인(볶는다)、지각、감초 각 1돈, 전갈(독을 제거한다) 8마리.
- 右焙細末, 每半錢或一錢, 薄荷煎湯, 食後調服.
- 이상을 곁불에 말려 잘게 가루 낸 후 0.5-1돈씩 박하탕에 타서 식후에 먹인다.

#### ◦石決明散 ◦석결명산

- 治肝熱眼赤腫痛, 翳膜遮睛, 或脾熱臉內, 如鷄冠蜆肉, 或蟹睛疼痛, 或旋螺尖起.
- 간장의 열로 눈이 빨갛게 붓고 아프며 예막이 눈동자를 덮은 증상을 치료한다. 간혹 비장의 열로 상·하안검의 안쪽에 닭 벼슬이나 조갯살 같은 것이 생기기도 하고, 혹은 게 눈처럼 되면서 아프기도 하고, 혹은 소라 모양처럼 뽕족하게 돌기도 한다.
- 石決明、草決明 各一兩, 羌活、山梔、木賊、青箱子(炒)、赤芍藥 各五錢, 大黃(酒炒)、荊芥 各二錢半.
- 석결명、초결명 각 1냥, 강활、산치인、목적、청상자(볶는다)、적작약 각 5돈, 대황(술에 축여 볶는다)、형개 각 2.5돈.
- 右細末, 每一錢, 麥門冬煎湯, 食後調服.
- 이상을 잘게 가루 낸 후 1돈씩 맥문동 달인 물에 타서 식후에 먹인다.

○清涼散 ○청량산

- 治風眼赤痛, 羞明怕日.
- 풍안으로 눈이 빨개지며 아프고 빛을 싫어하는 증상을 치료한다.
- 蔓荊子(炒研)、荊芥穗、苦竹葉、甘草 各一錢半, 山梔(炒) 七分半.
- 만형자(볶아서 간다)、형개수、고죽엽、감초 각 1.5돈, 산치인(볶는다) 7.5푼.
- 右剉, 入薄荷葉七片, 水煎, 食後服.
- 이상을 썬 후 박하잎 7개를 넣고 물에 달여 식후에 먹인다.

○加味消毒飲 ○가미소독음

- 治風熱赤眼, 臉上生粟米, 臉如塗朱砂, 俱是脾臟風熱, 解散風熱, 莫先於此.
- 풍열로 눈이 빨개지고 상·하안검에 좁쌀 같은 것이 생기면서 주사를 바른 듯이 빨개지는 증상을 치료한다. 이는 모두 비장의 풍열 때문이니 풍열을 흩어주는 데는 이 약이 최우선이다.
- 大黃(酒炒)、荊芥穗 各二錢, 惡實(炊研)、甘草 各一錢.
- 대황(술에 축여 볶는다)、형개수 각 2돈, 악실(볶아서 간다)、감초 각 1돈.
- 右剉細, 水煎服. ○一名加味荊黃湯.
- 이상을 썰고 물에 달여 먹인다. ○일명 가미형황탕이다.

○四物龍膽湯 ○사물용담탕

- 治肝臟血虛有熱, 眼目赤腫疼痛, 羞明怕日, 暴作雲翳.
- 간장의 혈이 허하면서 열이 있어 눈이 빨갛게 붓고 아프며 빛을 싫어하고 갑자기 예막이 생긴 경우를 치료한다.
- 川芎、當歸、赤芍藥、生芎 各一錢, 羌活、防風 各六分半, 草龍膽、防己 各

五分.

- 천궁、당귀、적작약、생지황 각 1돈, 강활、방풍 각 6.5푼, 초롱담、방기 각 5푼.
- 右細切, 水煎, 食遠服.
- 이상을 잘게 자른 후 물에 달여 공복에 먹인다.

#### ○菊花散 ○국화산

- 治肝受風毒, 眼目赤腫, 多淚碇痛, 漸生翳膜.
- 간장이 풍사에 상하여 눈이 빨강게 붓고 눈물을 계속 흘리면서 까끌거리게 아프며 점점 예막이 생기는 증상을 치료한다.
- 甘菊 四兩, 蟬退、木賊、羌活、白蒺藜 各三兩, 荊芥穗、甘草 各二兩.
- 감국 4냥, 선퇴、목적、강활、백질려 각 3냥, 형개수、감초 각 2냥.
- 右細末, 每一二錢, 茶清調下.
- 이상을 잘게 가루 낸 후 1-2돈씩 찻물에 타서 먹인다.

#### ○撥雲散 ○발운산

- 治風毒上攻, 赤腫昏暗, 翳膜遮睛, 痒痛多淚.
- 풍사가 위로 치밀어 눈이 빨강게 붓고 앞이 캄캄하며 예막이 눈동자를 덮고 가렵고 아프면서 계속 눈물이 나는 증상을 치료한다.
- 柴胡 二兩, 羌活、防風、甘草 各一兩.
- 시호 2냥, 강활、방풍、감초 각 1냥.
- 右細末, 每一二錢, 薄荷湯或茶清調下, 或剉煎服.
- 이상을 잘게 가루 낸 후 1-2돈씩 박하탕이나 찻물에 타서 먹인다. 혹은 이상을 썰고 물에 달여 먹인다.

◦明目飲 ◦명목음

- 治心脾蘊熱, 肝受風邪, 以致兩眼赤痛羞明, 久不差.
- 심장과 비장에 열이 쌓이고 간장이 풍사를 받아서 두 눈이 빨개지며 아프고 빛을 싫어하는 증상이 오랫동안 낫지 않는 경우를 치료한다.
- 山梔仁(炒研) · 香附(製) 各一兩, 夏枯草(去梗) 五錢.
- 산치인(볶아서 간다) · 향부자(법제한다) 각 1냥, 하고초(딱딱한 부분을 제거한다) 5돈.
- 右剉, 每二錢, 水一盞半, 入蜜一匙, 煎至一盞, 無時服.
- 이상을 썬 후 2돈씩 물 1.5잔에 꿀 1숟가락을 넣고 1잔이 되도록 달여 아무 때나 먹인다.

◦草龍膽散 ◦초룡담산

- 治兩目暴赤, 晝夜澀痛.
- 두 눈이 갑자기 빨개지면서 하루 종일 까끌거리고 아픈 증상을 치료한다.
- 草龍膽(酒洗) · 木賊(去節) · 荊芥穗 · 甘菊 · 防風 · 草決明(半生半炒) · 甘草 各等分.
- 초룡담(술로 씻는다) · 목적(마디를 제거한다) · 형개수 · 감국 · 방풍 · 초결명(반은 생것, 반은 볶는다) · 감초 각각 같은 양.
- 右麤末, 每一二錢, 水一盞半, 煎至一盞, 食後服.
- 이상을 거칠게 가루 낸 후 1-2돈씩 물 1.5잔에 넣고 1잔이 되도록 달여 식후에 먹인다.

◦當歸湯 ◦당귀탕

- 補肝益腎, 治瞳子散大.
- 간장을 보하며 신장을 이롭게 한다. 눈동자가 흐려지면서 커지는 증상을 치료한다.
- 柴胡 二錢, 生芡 一錢半, 當歸、白芍藥 各一錢, 黃芩、黃連(並酒炒) 各七分半, 甘草 五分.
- 시호 2돈, 생지황 1.5돈, 당귀·백작약 각 1돈, 황금·황련(모두 술에 축여 볶는다) 각 7.5푼, 감초 5푼.
- 右剉細, 每一二錢, 水煎服.
- 이상을 잘게 썬 후 1-2돈씩 물에 달여 먹인다.

翳膜者, 眼生白點赤膜, 大小不一, 名目雖多, 皆歸於肝風心熱腎虛之致也. 或經痘, 或大病後, 脾胃未實, 氣血未復, 客風客熱乘之, 眼赤澀痛, 不開而生翳, 認<sup>1</sup>爲大熱, 以苦寒之劑, 退赤治翳, 反傷脾胃, 不吐則瀉, 益損氣血, 身困肢冷, 復以溫熱之劑峻補, 則錯亂氣血, 終至損明, 切宜分其虛實, 審慎而治之. ○小兒眼中翳膜, 疳積者最多, 此證, 外似熱症, 實是虛熱所致, 尤當加意治之, 若胎熱心熱盛者, 五福化毒丹〔方見疳疾〕.

예막(翳膜)은 눈에 흰 점이나 붉은 꺼풀이 생기는 것으로 크기는 제각각이다. 이름은 여러 가지나 모두 간장의 풍사나 심장의 열이나 신장의 허손으로 생긴다. 간혹 두창을 겪거나 큰 병을 앓은 후에 비위의 기운이 충실해지지 않고 기와 혈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풍사나 열사가 침범하면 눈이 빨개지면서 까끌거리며 아프고 눈을 뜨지 못하며 예막이 생기기도 한다. 그 후에 열이 심하게 나게 되는데 쓰고 찬 성질의 약으로 빨개진 눈과 예막을 치료하려고 하면 도리어 비위를 상하게 만들기 때문에 토하지 않으면 설사를 하면서 거듭 기와 혈이 손상된다. 그 결과 몸에 힘이 없고 사지가 서늘해지게 되는데 다시금 따뜻하고 뜨거운 성질의 약으로 강하게 보해주면 기와 혈을 착란시키는 꼴이 되어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니 반드시 허실을 분간하여 아주 조심히 치료해야 한다. ○아이의 눈 속에 예막이 생기는 경우는 감적(疳積)에 걸린 경우가 대부분



이다. 이 증상은 겉으로는 열증과 비슷하지만 실제로는 허열 때문에 생긴 것이니 더욱 주의하여 치료해야 한다. 태열이나 심장의 열이 왕성한 경우에는 오복화독단(처방은 감질에 나온다)을 쓴다.

#### ○決明退翳散 ○결명퇴예산

- 治風熱毒上攻, 兩目赤痛, 生翳膜, 或努肉赤筋澁痒, 漸至昏暗.
- 풍열의 독기가 위로 치받아 두 눈이 빨개지며 아프고 예막이 생기며, 간혹 노육(努肉)이 빨간 힘줄처럼 생겨 걸끄러우면서 가렵다가 점차 눈이 잘 보이지 않게 되는 증상을 치료한다.
- 石決明、草決明、黃芩(酒炒)、甘菊、木賊、石膏、川芎、赤芍藥、羌活、蔓荊子(炒研)、甘草 各五分.
- 석결명、초결명、황금(술에 축여 볶는다)、감국、목적、석고、천궁、적작약、강활、만형자(볶아서 간다)、감초 각 5푼.
- 右剉, 入薑三, 水煎, 食後服.
- 이상을 썬 후 생강 3조각을 넣고 물에 달여 식후에 먹인다.

#### ○蟬花散 ○선화산

- 治熱眼澁痛, 漸生翳膜.
- 열로 눈이 걸끄러우면서 아프고 점점 예막이 생기는 증상을 치료한다.
- 白蒺藜、草決明、密蒙花、青箱子(炒研)、川芎、木賊(去節, 童便浸, 曬乾)、山梔、荊芥穗、防風、蟬退、甘草、蔓荊子(炒) 各等分.
- 백질러、초결명、밀몽화、청상자(볶아서 간다)、천궁、목적(마디를 제거한 후 동변에 담갔다가 벌레에 말린다)、산치인、형개수、방풍、선훈、감초、만형자(볶는다) 각각 같은 양.

- 右末如麪, 每一二錢, 茶清調服. ○一方, 有甘菊、草龍膽.
- 이상을 밀가루처럼 곱게 가루 낸 후 1-2돈씩 찻물에 타서 먹인다. ○어떤 방서에는 감국과 초롱담이 있다.

#### ○二退散 ○이퇴산

- 治諸翳障.
- 예막이 눈을 덮은 것가지 증상을 치료한다.
- 蛇退(洗焙)、蟬退(去翅)、黃連 各五錢, 甘草 二錢, 菉豆皮 一兩.
- 사퇴(씻어서 곱게 말린다)、선퇴(날개를 제거한다)、황련 각 5돈, 감초 2돈, 녹두피 1냥.
- 右麤末, 每二錢, 水煎, 食後服.
- 이상을 거칠게 가루 낸 후 2돈씩 물에 달여 식후에 먹인다.

#### ○羚羊散 ○영양산

- 治白翳如花, 白鱗旋繞瞳子.
- 흰 꽃 같은 예막이나 하얀 비늘 같은 것이 눈동자를 빙 둘러 덮은 경우를 치료한다.
- 羚羊角(屑)、升麻、細辛 各一兩, 甘草 五錢.
- 영양각(가루 낸다)、승마、세신 각 1냥, 감초 5돈.
- 右極細末, 一半蜜丸梧子大, 一半爲散, 每一錢, 以米泔水煎, 以此吞下.
- 이상을 아주 곱게 가루 낸다. 절반은 꿀에 개어 오자대로 환을 빚고, 절반은 가루 그대로 사용한다. 1돈씩 쌀뜨물 달인 물에 먹인다.

#### ○涼血祛風湯 ○양혈거풍탕

- 治赤眼疼澁, 及白膜遮睛.
- 눈이 빨갛고 까끌거리며 아픈 증상과 흰 예막이 눈동자를 덮은 증상을 치료한다.
- 生乾地黃(酒洗)、當歸、白芍藥 各七分, 黃連、山梔(炒)、川芎、荊芥穗、防風、木賊(童便浸, 曬乾, 去節)、柴胡、甘草 各五分.
- 생건지황(술로 씻는다)、당귀、백작약 각 7푼, 황련、산치인(볶는다)、천궁、형개수、방풍、목적(동변에 담갔다가 벌레에 말리고 마디를 제거한다)、시호、감초 각 5푼.
- 右剉, 水煎, 食後服.
- 이상을 썬 후 물에 달여 식후에 먹인다.

#### ○車前子散 ○차전자산

- 治肝經熱毒, 逆上生翳, 血灌瞳子, 羞明多淚.
- 간경(肝經)의 열독이 위로 침범하여 예막이 생기고 피가 눈동자에 흘러 들어가 눈동자를 점차 가리며 빛을 싫어하고 계속 눈물이 나는 증상을 치료한다.
- 密蒙花、甘菊、白蒺藜、羌活、草決明、車前子(炒)、黃芩、草龍膽(酒洗)、甘草 各等分.
- 밀몽화、감국、백질려、강활、초결명、차전자(볶는다)、황금、초롱담(술로 씻는다)、감초 각각 같은 양.
- 右細末, 每二錢, 米飲調服, 或麤末, 每二錢, 煎服.
- 이상을 잘게 가루 낸 후 2돈씩 미음에 타서 먹인다. 혹은 거칠게 가루 낸 후 2돈씩 물에 달여 먹인다.

#### ○明目地黃丸 ○명목지황환

- 治肝腎俱虛, 昏暗多淚, 羞明, 白膜遮睛, 年久不差.
- 간장과 신장이 모두 허하여 앞이 캄캄하고 눈물을 계속 흘리며 빛을 싫어하고 흰 예막이 눈동자를 덮은 증상이 오랫동안 낫지 않는 경우를 치료한다.
- 乾芩、熟芩 各四兩, 白蒺藜(炒)、牛膝(酒洗) 各三兩, 黃柏(鹽炒)、兔絲子(製)、獨活、枸杞子、知母(鹽炒) 各二兩.
- 건지황、숙지황 각 4냥, 백질려(볶는다)、우슬(술로 씻는다) 각 3냥, 황백(소금물에 축여 볶는다)、토사자(법제한다)、독활、구기자、지모(소금물에 축여 볶는다) 각 2냥.
- 右末, 蜜丸小豆大, 空心, 米飲下五七十丸.
- 이상을 가루 낸 후 꿀에 개어 소두대로 환을 빚어 빈속에 미음으로 50-70환씩 먹인다.

#### ◦加味地黃丸 ◦가미지황환

- 治腎虛, 白睛多, 黑睛少, 視物昏暗, 或黑白雲翳遮睛, 或澀痛多淚, 羞明怕光, 滋補腎精, 以滅浮火之上衝.
- 신장이 허하여 흰자위가 넓어지고 검은자위가 좁아지며 사물이 잘 보이지 않고 간혹 검거나 흰 예막이 눈동자를 덮거나 까끌거리며 아프고 계속 눈물이 나며 빛을 싫어하는 경우를 치료한다. 신장의 정기를 복돋음으로써 잡아주지 못하고 위쪽으로 올라오는 화기를 없앤다.
- 熟芩 三兩, 山茱萸、天門冬 各二兩, 山藥、牡丹皮、牛膝(酒洗)、五味子、白茯苓 各一兩, 鹿茸(酥灸) 五錢.
- 숙지황 3냥, 산수유、천문동 각 2냥, 산약、목단피、우슬(술로 씻는다)、오미자、백복령 각 1냥, 녹용(연유를 발라 굽는다) 5돈.
- 右爲末, 煉蜜丸小豆大, 每四五十丸, 米飲下.
- 이상을 가루 낸 후 연밀에 개어 소두대로 환을 빚고 4-50환씩 미음에 먹인다.

○補腎元 ○보신원

- 治腎虛目暗, 漸成內障.
- 신장이 허하여 눈이 깜깜하다가 점점 내장(內障)으로 악화되는 경우를 치료한다.
- 肉蓯蓉(酒浸, 去甲)、枸杞子 各一兩, 巴戟、山藥、茴香、破故紙(炒, 去皮)、牡丹皮 各五錢, 青鹽 二錢半.
- 육종용(술에 담갔다가 껍질을 제거한다)、구기자 각 1냥, 파극、산약、회향、파고지(볶아서 껍질을 제거한다)、목단피 각 5돈, 청염 2.5돈.
- 右細末, 煉蜜丸小豆大, 空心, 鹽湯或米飲下五七十丸.
- 이상을 잘게 가루 낸 후 연밀에 개어 소두대로 환을 빚고 빈속에 엿탕이나 미음으로 50-70환씩 먹인다.

○補肝散 ○보간산

- 治圓翳在黑珠上昏暗, 時下澁淚, 年久不愈.
- 둥근 예막이 눈동자를 덮어 앞이 깜깜해지고 가끔 눈이 깔깔하면서 눈물이 나는 증상이 오랫동안 낫지 않는 경우를 치료한다.
- 柴胡 一錢半, 白芍藥 一錢, 熟苧、白茯苓、甘菊、甘草、細辛 各七分, 栝子仁、防風 各五分.
- 시호 1.5돈, 백작약 1돈, 숙지황、백복령、감국、감초、세신 각 7푼, 백자인、방풍 각 5푼.
- 右剉, 水煎, 食後服.
- 이상을 썬 후 물에 달여 식후에 먹인다.

○益本滋腎丸 ○익본자신환

- 治陰虛火盛, 黑睛生翳膜, 澀痛多淚.
- 음기가 허하고 화기가 왕성해져 검은자위에 예막이 생기고 까끌거리며 아프면서 계속 눈물이 나는 증상을 치료한다.
- 知母、黃柏(並鹽炒) 各等分.
- 지모、황백(모두 소금물에 축여 볶는다) 각각 같은 양.
- 右細末, 滴水和丸小豆大, 空心, 鹽湯下三四十丸.
- 이상을 잘게 가루 낸 후 물을 조금씩 넣으면서 소두대로 환을 빚는다. 빈속에 염탕으로 30-40환씩 먹인다.

#### ○羊肝元 ○양간원

- 治眼目諸疾, 及障翳青盲.
- 눈의 여러 가지 질병 및 예막이나 청맹(靑盲)을 치료한다.
- 黃連別爲末, 白羊肝一具去膜, 砂盆內同研細, 衆手作丸梧子大, 空心, 溫水下二三十丸, 連服五六劑, 乃可有效, 青羊肝, 尤好. ○眼疾多生於肝血不足、心熱有餘, 黃連, 瀉心熱, 羊肝, 補肝虛, 製法甚妙, 然而多服有效, 黃連無分兩, 量宜入用.
- 황련은 따로 가루 내어 놓는다. 흰 양의 간 1개의 피막을 걷어내고 사기그릇에 넣은 후 황련가루와 함께 곱게 갈아 여러 사람이 오자대로 환을 빚는다. 빈속에 따뜻한 물로 20-30환씩 먹인다. 5-6첩 연달아 먹여야 효과가 있다. 청양(靑羊, 산양)의 간이 더욱 좋다. ○눈의 질병은 대부분 간장의 혈이 부족하고 심장의 열이 남아돌기 때문에 생긴다. 황련은 심장의 열을 사해주고, 양의 간은 간장의 허손을 보충해주니 제법이 아주 오묘하다. 그러나 많이 먹여야 효과가 있다. 황련은 딱히 정해진 분량이 없고 아이의 몸집을 가늠하여 넣는다.

#### ○正傳羊肝丸 ○정전양간환

- 治內外障翳, 風熱赤腫隱澀, 多淚疼痛.
- 눈 안팎의 예막과 풍열로 빨갱게 붓고 속까지 까끌거리며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아픈 증상을 치료한다.
- 黃連 一兩, 甘菊、防風、薄荷、荊芥、羌活、當歸、川芎 各三錢.
- 황련 1냥, 감국·방풍·박하·형개·강활·당귀·천궁 각 3돈.
- 右細末, 白羊肝一具, 蒸熟同搗, 作丸小豆大, 每三四十丸, 米飲下.
- 이상을 잘게 가루 낸 후 흰 양의 간 1개를 푹 찌서 함께 찢어 소두대로 환을 빚는다. 30-40환씩 미음에 먹인다.

眼胞上下, 生粟米, 或似膠凝, 或腫如桃李狀, 時出熱淚, 焮熱痛不可忍者, 臉內血片凝結, 或如鷄冠蜆肉者, 並皆脾胃風熱, 俱宜加味消毒飲, 加芩、連酒炒, 煎服, 貼地黃膏, 洗湯泡散.

상·하안검에 좁쌀 같은 것이 생기거나, 혹은 끈적하게 뭉친 것 같기도 하거나, 혹은 복숭아나 자두처럼 붓고 가끔씩 뜨거운 눈물이 나오고 불처럼 뜨거우면서 아파 참을 수 없는 경우나, 꺼풀 안에 핏덩이가 뭉쳐있어 간혹 달 버슬이나 조갯살 같은 모양을 한 경우는 모두 비위의 풍열 때문이니 가미소독음에 황금과 황련(모두 술에 축여 볶는다)을 더하여 달여 먹이고, 지황고를 환부에 붙여주며, 탕포산으로 씻어 주어야 한다.

小兒生下, 穢汁不卽拭淨, 流入眼中, 使胞赤爛而腫, 名曰胎赤, 服五福化毒丹, 點爐甘石散, 洗湯泡散.

아이가 태어날 때 더러운 물을 즉시 닦아주지 않아 눈으로 들어가게 되면 눈꺼풀이 빨갱게 짓무르면서 붓는데 이를 태적(胎赤)이라고 한다. 오복화독단을 먹이고, 노감석산을 눈에 뿌려주며, 탕포산으로 씻어주어야 한다.

小兒初生視物, 轉睛不快, 至四五歲, 瞳人潔白, 昏矇不見, 無藥可治, 由胎中受傷也.

갓난아이가 사물을 볼 때 눈동자의 움직임이 원활하지 않다가 이 상태가 4-5살까지 계속되면서 동공이 약간 투명하고 앞이 캄캄하여 보지 못하면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없다. 뺨속에서부터 손상된 것이기 때문이다.

漏睛, 濃出內眥頭, 結聚生瘡, 濃汁常流, 涓涓不合. 此風熱客於臉眥之間, 成此疾, 或經痘後, 多有此證, 點豬膽膏, 服白薇元.

누정(漏睛)은 내자 끝에서 나온 고름이 뭉쳐서 창이 된 것으로 고름이 늘 흘러 끊이지 않고 줄줄 나온다. 이 증상은 풍열이 상·하안검이나 내·외자를 침범하여 생긴 것이다. 간혹 두창을 앓은 후에 생기기도 한다. 저담고를 환부에 찍어 발라주고, 백미원을 먹인다.

#### ○白薇元

##### ○백미원

- 白薇 五錢, 防風、羌活、白蒺藜(炒)、石榴根皮 各二錢半.
- 백미 5돈, 방풍、강활、백질려(볶는다)、석류근피 각 2.5돈.
- 右細末, 米粉糊丸菉豆大, 白湯下二三十丸.
- 이상을 잘게 가루 낸 후 쌀가루풀에 개어 녹두대로 환을 빚는다. 끓인 물에 20-30환씩 먹인다.

眼睛突起, 風毒流注, 五臟之熱, 上衝於目也, 刺痛不可忍, 宜瀉青丸〔方見急驚〕, 或涼血祛風湯.

눈동자가 튀어나온 증상은 풍독이 흘러 다니다가 오장의 열이 눈에 치밀어 오른 것으로 찌르듯이 아파 참을 수 없게 된다. 사청환(처방은 급경에 나온다)이나 양혈거풍탕을 써야 한다.

#### ○瀉肝散 ○사간산

- 治風熱上衝, 眼睛突出, 又治胃風便秘.



- 풍열이 위쪽으로 치밀어 올라 눈동자가 튀어나온 증상을 치료한다. 또한 위장에 풍사가 들어 변비가 있는 경우도 치료한다.
- 大黃(酒炒)·甘草 各五錢, 郁李仁·荊芥穗 各二錢半.
- 대황(술에 축여 볶는다)·감초 각 5돈, 옥리인·형개수 각 2.5돈.
- 右麤末, 每一二錢, 水煎服.
- 이상을 거칠게 가루 낸 후 1-2돈씩 물에 달여 먹인다.

目被撞打, 瘀血結聚, 痛楚難開, 宜貼地黃膏, 仍成白翳, 昏暗矇矓, 服涼血地黃湯, 點豬膽膏.

눈을 맞아서 멍이 들고 따갑고 아파서 뜨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황고를 붙여주어야 한다. 그 후에 흰 예막이 생겨서 앞이 캄캄하거나 흐릿하게 보이는 경우에는 양혈지황당을 먹이고, 저담고를 찌어 발라준다.

#### ○涼血地黃湯 ○양혈지황탕

- 治肝熱眼赤, 澁痛如刺.
- 간장의 열이 올라와 눈이 빨갛게 되고 까끌거리며 찌르듯이 아픈 증상을 치료한다.
- 生芩(酒洗)·白芍藥·當歸尾·黃芩·山梔(炒)·荊芥穗·川芎·防風·木賊 各七分.
- 생지황(술로 씻는다)·백작약·당귀미·황금·산치인(볶는다)·형개수·천궁·방풍·목적 각 7푼.
- 右剉, 水煎, 食後服.
- 이상을 썰고 물에 달여 식후에 먹인다.

塵埃飛絲入眼中, 澁痛難開, 以好墨濃磨, 新筆蘸入閉眼, 少時開見. 入眼物成塊, 着在睛中, 却以綿輕輕拭出, 入白蜜少許, 閉眼少時, 卽愈, 如未盡再點.

먼지나 까끄라기가 눈에 들어가 까끌거리며 아파서 눈을 뜨기 힘든 경우에는 좋은 먹을 진하게 갈고 새 붓에 찍어 감긴 눈에 발라주면 조금 후에 눈을 뜬다. 무언가 눈에 들어가 뭉쳐서 눈동자에 달라붙은 경우에는 솜으로 살짝살짝 닦아서 빼낸 후 꿀을 약간 넣어주고 잠시 눈을 감고 있으면 곧 좋아진다. 그래도 불편하면 꿀을 다시 넣어준다.

雀目者, 日落不見物, 至曉復明, 此肝虛血少之致, 考疳疾參治. ○雀頭血取點. ○牛豬肝煮熟, 燻眼, 食之. ○夜明砂炒爲末, 和猪膽搗作丸, 以牛豬肝湯下.

작목(雀目)은 해가 떨어지면 사물을 보지 못하다가 새벽이 되면 다시 보이는 증상이다. 이 증상은 간장이 허하고 혈이 적기 때문에 생긴다. 감질 부분을 참고하여 치료하라. ○참새 머리의 피를 눈에 떨어뜨려준다. ○소나 돼지의 간을 푹 삶아 그 증기에 눈에 씌어주고 간을 먹는다. ○야명사를 볶아서 가루 내고 짓찧은 돼지 쓸개와 섞어 환을 빻은 후 소나 돼지의 간을 삶은 물로 먹인다.

偷鍼者, 眼胞弦上, 生紅點如粟米, 痒痛, 初發時, 以細針刺紅點當中, 或拔當中睫毛, 以泄其氣, 卽消.

투침(偷鍼)은 눈꺼풀에 좁쌀 만한 붉은 점이 생기면서 가렵고 아픈 것이다. 초기에 가는 바늘로 붉은 점을 찌러주거나 붉은 점에 난 눈썹을 뽑아서 독기를 빼주면 곧 사그라진다.

迎風冷淚, 寒月尤甚, 風熱相搏而發, 宜服當歸湯, 外以大貝母一枚, 胡椒三粒, 極細末, 和勻, 每取少許, 臨臥點眼, 眼眶極痒難忍, 以唾調塗, 立止. ○有腎虛冷淚者, 宜服八味元.

바람을 맞으면 차가운 눈물을 흘리고 추울 때 더욱 심해지는 증상은 풍사와 열사가 서로 부딪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당귀탕을 먹어야 한다. 외치법으로는 큰 패모 1개와 호초 3알을 아주 잘게 가루 내어 잘 섞은 후 자기 전에 약간씩

눈에 뿌려준다. 눈 주위가 매우 간지러워 참기 힘든 경우에는 가루를 침에 개어 발라주면 곧 잠잠해진다. ◦신장이 허하여 차가운 눈물을 흘리는 경우에는 팔미원을 먹여야 한다.

胎風赤爛, 小兒生後, 眼眶弦上赤爛, 至長不愈, 時時痒痛, 以湯泡散洗之, 爐甘石散塗之, 服加味消毒飲、五福化毒丹(方見疳疾).

태풍적란(胎風赤爛)은 아이가 태어난 후에 눈꺼풀이 빨갛게 짓물러 커서도 낫지 않고 자주 가렵고 아픈 것이다. 탕포산으로 씻어주고, 노감석산을 발라주며, 가미소독음이나 오복화독단(처방은 감질에 나온다)을 먹인다.

#### ◦爐甘石散 ◦노감석산

- 治年久眼弦爛風.
- 눈의 오래된 난현풍(爛弦風)을 치료한다.
- 爐甘石, 不拘多少, 先用童便, 煅淬七次, 次以黃連煎湯, 煅淬七次, 以雀舌湯, 煅淬七次, 三汁合置一處, 再煅淬三次, 放冷, 極細研, 入龍腦、麝香各少許, 再研, 點眼弦上.
- 노감석을 양에 상관없이 우선 동변으로 7번 달궜다가 담금질한다. 그 다음 황련 달인 물로 7번 달궜다가 담금질한다. 그 다음 작설 달인 물로 7번 달궜다가 담금질한다. 이상의 3가지 물을 한 곳에 모아 놓고 다시 3번 달궜다가 담금질한다. 노감석이 식으면 아주 곱게 갈고 용뇌와 사향을 각각 조금씩 넣어 다시 간 후 눈 주변에 뿌려준다.

小兒通睛者, 嬰兒雙目, 欲見東則見西, 欲見西則見東, 振掉頭腦, 則眼睛方轉, 此肝受驚風也.

통정(通睛)은 갓난아이가 동쪽을 보려고 하면 서쪽을 보고 서쪽을 보려고 하면 동쪽을 보며 머리를 탁탁 두드리주면 그제야 눈동자가 움직이는 증상이다. 이 증상은 경풍이 간장을 침범하여 생긴다.

○牛黃丸 ○우황환

- 治通睛.
- 통정(通睛)을 치료한다.
- 犀角 二錢, 牛黃 一錢, 金銀箔 各五片, 甘草 二錢半.
- 서각 2돈, 우황 1돈, 금박·은박 각 5조각, 감초 2.5돈.
- 右細末, 蜜丸菉豆大, 每六七十丸, 薄荷湯下.
- 이상을 잘게 가루 낸 후 꿀에 개어 녹두대로 환을 빚는다. 6-7환씩 박하탕에 먹인다.

天行眼疾, 忽赤腫, 或硃痛羞明難開, 長幼相似, 宜瀉肝散, 或柴胡湯.

전염성 눈병은 갑자기 빨강게 되면서 붓는데 간혹 까끌거리며 아프고 빛을 싫어하며 눈을 잘 뜨지 못하기도 한다. 어른이나 아이나 증상은 비슷하다. 사간산이나 시호탕을 써야 한다.

小兒青盲, 胎中受風, 五臟不和, 兩眼一同視物不明, 瞳子黑白分明如常人, 無治法.

아이의 청맹(靑盲)은 뱃속에서 풍사를 받아 오장의 조화가 깨졌기 때문에 발생한다. 눈동자는 보통 사람처럼 흰자위와 검은자위가 분명하지만 치료할 방법이 없다.

小兒滿面胎瘡, 其毒流入眼中, 眼胞赤腫, 久不開視, 必生翳障, 批開眼皮, 吹入冷氣, 以泄鬱熱之氣, 又以湯胞散, 頻洗之, 外貼地黃膏, 或生翳膜, 以龍腦膏點眼, 服蒺藜湯.

아이의 얼굴에 가득 찬 태창의 독기가 눈까지 흘러들어 상·하안검이 빨강게 붓고 오랫동안 눈을 뜨지 못하는 경우는 분명 예장이 생긴 것이니 눈꺼풀을 들추고 시원한 숨을 불어넣어 맺혀있는 열기를 빼주어야 한다. 그리고 탕포산으

로 자주 씻어주고, 겉으로는 지황고를 붙여주어야 한다. 혹시 예막이 생겼다면  
응뇌고를 눈에 찍어 발라주고, 질려탕을 먹어야 한다.

○蒺藜湯 ○질려탕

- 治諸翳膜遮睛, 澁痛多淚.
- 예막이 눈동자를 덮고 까끌거리며 아프면서 계속 눈물을 흘리는 경우를 치료한다.
- 甘菊 一錢, 羌活 七分, 白蒺藜、防風 各五分.
- 감국 1돈, 강활 7푼, 백질려、방풍 각 5푼.
- 右剉, 入鹽少許, 水煎, 食後服. ○一方, 加青箱子、木賊.
- 이상을 썬 후 소금을 약간 넣고 물에 달여 식후에 먹인다. ○어떤 방서에는 청상자와 목적을 더하였다.

小兒痘發時, 痘出眼睛, 因成翳障, 昏暗澁痛者, 宜穀精草丸, 或煮肝丸〔方見疳疾〕.

아이가 두창에 걸렸을 때 두창이 눈동자에 난 후 예장이 생겨서 앞이 캄캄해지고  
겉끄러우면서 아픈 경우에는 곡정초환이나 자간환(처방은 감질에 나온다)  
를 써야 한다.

○穀精草丸 ○곡정초환

- 穀精草一斤, 細末, 雄豬肝一具, 以竹刀切去脂膜, 同搗爛, 丸小豆大, 每二三十丸, 乾柿湯下.
- 곡정초 1근을 잘게 가루 낸다. 수태지의 간 1개를 대칼로 썰고 기름막을 제거한다. 이상을 함께 짓찧어 소두대로 환을 빻은 후 20-30환씩 곱감 달인 물에 먹인다.

小兒胎中, 臉生贅子如麻子大, 日漸如豆懸垂, 此脾經風熱, 宜服五退散, 或以蛛絲  
札繫, 自落.

아이가 뱃속에서부터 안검에 삼씨만한 혹이 생겼다가 날이 갈수록 콩이 매달  
린 모양으로 되는 것은 비경(脾經)의 풍열 때문이다. 오퇴산을 먹어야 한다. 간  
혹 거미줄로 잘 묶어놓으면 저절로 떨어지기도 한다.

#### ○五退散 ○오퇴산

- 治脾受風毒, 倒睫拳毛, 上下<sup>2</sup>皆赤爛, 睛痛流淚.
- 비장이 풍사를 받아 속눈썹이 눈을 찌르고 상·하안검이 모두 빨갛고 짓무르며  
눈알이 아프면서 눈물이 흐르는 증상을 치료한다.
- 川山甲(炒)、川烏(炮)、甘草(炙) 各五錢, 蟬退、蠶退、蛇退(醋煮)、猪蹄退  
(炒)、荊芥穗 各二錢半.
- 천산갑(볶는다)、천오(습지에 싸서 굽는다)、감초(굽는다) 각 5돈, 설퇴、잠퇴  
、사퇴(식초에 달인다)、저제퇴(볶는다)、형개수 각 2.5돈.
- 右細末, 每一二錢, 鹽湯, 食後調服.
- 이상을 잘게 가루 낸 후 1-2돈씩 염탕에 타서 식후에 먹인다.

#### ○地黃粥 ○지황죽

- 治年久眼疾, 血虛有熱, 微赤羞澀, 或睡後酸疼.
- 오래 눈병을 앓아 혈이 허하며 열이 있어 눈이 약간 빨갛고 빛을 싫어하며 껌고  
럽고, 간혹 잠든 후에 눈이 시큰거리고 아리기도 한 경우를 치료한다.
- 生芩, 不拘多少, 洗去沙土, 搗取自然汁, 浸粳米碎末透曬乾, 再浸再曬, 如是三  
四次, 每量宜作粥, 和蜜啜之.
- 생지황을 양에 상관없이 흙을 깨끗이 씻은 후 찢어 자연즙을 얻는다. 그 즙에 멍

쌀가루를 담갔다가 볏에 말린 후 다시 담갔다가 볏에 말린다. 이와 같이 3-4번 반복하여 매번 아이의 몸집에 맞게 죽을 쑤 후 꿀을 타서 먹인다.

- ○蓮肉末一合, 粳米末三合, 和勻作粥食之, 治小兒眼赤澁痛, 久不愈.
- ○연육 가루 1홉과 멥쌀가루 3홉을 잘 섞은 후 죽을 쑤어 먹인다. 아이가 눈이 빨갛고 껌끄러우며 아픈 증상이 오랫동안 낫지 않는 경우를 치료한다.

#### ○地黃膏 ○지황고

- 治眼被物撞打, 腫痛昏暗.
- 물건으로 눈을 맞아 붓고 아프며 앞이 캄캄한 경우를 치료한다.
- 生芩 一合(取汁), 黃連 一兩, 黃栢、寒水石 各五錢.
- 생지황(즙을 낸다) 1홉, 황련 1냥, 황백、한수석 각 5돈.
- 右三味細末, 和地黃汁作餅, 以<sup>3</sup>紬攤貼眼上, 非但撞打, 凡風熱赤眼熱淚出, 皆可用.
- 이상의 3가지 약재를 잘게 가루 내고 지황즙과 섞어 떡처럼 뭉친 후 비단에 발라 눈에 붙인다. 눈을 맞은 경우 뿐만 아니라 풍열로 눈이 빨갛게 되면서 뜨겁고 눈물이 나는 모든 경우에 쓸 수 있다.

#### ○五黃膏 ○오황고

- 治目赤腫痛.
- 눈이 빨갛게 되면서 붓고 아픈 증상을 치료한다.
- 黃栢 一兩, 黃連、黃芩、大黃、黃丹 各五錢.
- 황백 1냥, 황련、황금、대황、황단 각 5돈.
- 右末, 蜜水調和成膏, 攤帛上, 貼兩太陽穴, 乾則以溫水潤之.
- 이상을 가루 내고 꿀물에 개어 고약으로 만든 후 천에 펼쳐서 양쪽 태양혈에 붙

여준다. 마르면 따뜻한 물로 적셔준다.

○春雪膏 ○춘설고

- 治眼目赤腫, 生翳障.
- 눈이 빨갛게 되면서 붓고 예장이 생긴 경우를 치료한다.
- 鵬研 三錢, 龍腦 一錢, 朴硝 五錢.
- 봉사 3돈, 용뇌 1돈, 박초 5돈.
- 右合研如飛糲, 每用少許, 以唾調, 點眼中, 閉霎時.
- 이상을 모두 가루가 날릴 정도로 곱게 간 후 약간씩 침에 개어 눈에 붙이고 잠시 눈을 감고 있게 한다.

○龍腦膏 ○용뇌고

- 治小兒胎風赤爛.
- 아이의 태풍적란(胎風赤爛)을 치료한다.
- 龍腦 一錢, 蕤仁(泥) 二錢半, 杏仁 七箇(爲泥).
- 용뇌 1돈, 유인(질게 간다) 2.5돈, 행인 7개(질게 간다).
- 右入人乳研爲膏, 點之. ○加鵬砂、白丁香各一錢, 治翳膜, 尤妙.
- 이상에 젖을 넣고 간 후 고약처럼 만들어 붙인다. ○봉사와 백정향 각 1돈을 더 하면 예막을 매우 잘 치료한다.

○還睛紫金丹 ○환정자금단

- 治爛弦風, 及翳膜遮睛.
- 난현풍 및 예막이 눈동자를 덮은 것을 치료한다.



- 爐甘石 一兩(火煨十次淬, 水中浸半日), 黃丹(水飛) 六錢, 烏賊骨 一錢, 硃砂(細研, 水飛, 入磁器中, 重湯煮, 令自乾)·麝香 各五分, 白丁香 二分半, 輕粉 一分, 白蜜 二兩.
- 노감석 1냥(불에 달궈다가 담금질하기를 10번 한 후 물에 반나절 담가 놓는다), 황단(수비한다) 6돈, 오적어골 1돈, 망사(곱게 갈아 수비한 후 도자기에 넣어 중탕하고 마를 때까지 기다린다)·사향 각 5푼, 백정향 2.5푼, 경분 1푼, 백밀 2냥.
- 右將蜜於砂石器內, 慢火熬去沫, 下甘石末, 次下黃丹, 以柳枝攪, 次下餘藥末, 以不粘手爲度, 作丸如芡實大, 每一丸, 溫水化開, 常點之, 勿論大人小兒, 諸翳膜爛弦風, 有奇效.
- 이상에서 꿀을 사기나 돌로 만든 그릇에 넣고 은근한 불로 졸이면서 거품을 걷어낸다. 노감석 가루를 넣고 그 다음에 황단을 넣고 버들가지로 잘 섞는다. 그 다음 나머지 약재 가루를 넣고 손에 들러붙지 않을 때까지 졸여 검실대로 환을 빚는다. 1환씩 따뜻한 물에 풀어서 계속 눈에 떨어뜨려 준다. 어른과 아이에 상관없이 여러 가지 예막이나 난현풍에 대단한 효과가 있다.

#### ○猪膽膏 ○저담고

- 治熱眼赤膜白翳, 澀痛多淚.
- 눈이 충혈되면서 빨간 막이나 흰 예막이 생기고 껌끄러우면서 아프며 계속 눈물이 나는 경우를 치료한다.
- 猪膽一枚取出汁, 入銀石器內, 慢火熬成膏, 入龍腦少許, 攪勻, 儲砂缸內, 勿泄氣, 每取少許, 點之.
- 돼지 쓸개 1개를 즈내어 은이나 돌로 만든 그릇에 넣고 은근한 불로 졸여서 고약처럼 만든 후 용뇌를 약간 넣고 잘 섞는다. 사기 단지에 넣고 김이 새지 않도록 한다. 조금씩 눈에 찍어 발라준다.

#### ○楓膏 ○풍고

- 治赤眼爛弦風.
- 눈이 충혈되거나 난현풍이 된 경우를 치료한다.
- 楓葉不拘多少, 水煎濃取汁去滓, 再熬成膏, 每取少許, 塗眼弦赤爛處, 入龍腦少許, 尤佳. ○一方, 楓葉細切, 浸燒酒, 一盞許飯上蒸, 絞取汁, 點之. ○一方, 楓葉、榛皮、黃栢各等分, 如上法熬膏塗之, 最效.
- 단풍잎을 양에 상관없이 물에 진하게 달이고 찌꺼기를 걸어낸 후 다시 졸이면서 고약처럼 만든다. 이것을 약간씩 눈 주변의 빨갛게 부은 곳에 발라준다. 용뇌를 조금 넣으면 더욱 효과가 좋다. ○다른 처방. 단풍잎을 잘게 썰어 소주에 담근다. 1잔 정도를 넣고 밥을 지은 후 천으로 꼭 짜서 그 즙을 환부에 바른다. ○다른 처방. 단풍잎、진피(榛皮)、황백 각각 같은 양을 앞의 방법처럼 고약으로 만들어서 환부에 바르면 가장 좋다.

#### ○湯泡散 ○탕포산

- 治風熱赤眼, 疼痛多淚, 羞明怕日.
- 풍열로 눈이 빨갛게 되고 아프면서 계속 눈물이 나고 빛을 싫어하는 증상을 치료한다.
- 黃連、赤芍藥、當歸 各等分.
- 황련、적작약、당귀 각각 같은 양.
- 右剉, 水煎去滓, 乘熱燻洗, 一日數三次. ○熱眼赤痛, 臘雪水, 溫洗. ○細辛、薄荷, 乃發散之藥, 水煎洗之, 鬱熱之氣自散.
- 이상을 썬 후 물에 달이고 찌꺼기를 걸어낸다. 뜨거울 때 그 김을 씹면서 눈을 닦아주기를 하루에 서너 번 한다. ○눈이 뜨겁고 빨개지며 아프면 납설수를 따 뜻하게 하여 눈을 씻어준다. ○세신과 박하는 발산시키는 약재이다. 물에 달여서 눈을 씻어주면 울체된 열기가 저절로 흩어진다.

○五行湯 ○오행탕

- 治暴赤眼痛.
- 눈이 갑자기 빨개지면서 아픈 경우를 치료한다.
- 黃栢一味, 爲末, 以黃土泥包裹, 炭火煨, 取出, 每用彈子大, 綿裹浸一盞水, 飯上蒸, 乘熱燻洗, 極妙. 此方, 有金木水火土, 故名五行湯.
- 황백 한 가지만 가루 낸 후 황토로 싸서 숯불에 굽는다. 구워진 후에 꺼내어 탄 자대만큼씩 천으로 싸서 물 1잔에 담가 놓고 밥 위에 두고 찐다. 뜨거울 때 눈을 씻어주고 씻어주면 아주 좋다. 이 처방은 금목수화토의 기운이 모두 있으므로 오행탕이라고 이름하였다.

---

1. 認 : \*因 ※문맥상 ↩

2. 臉 : 臉 ※문맥상 ↩

3. 紬 : 紙 ※《동의보감》 ↩

## 諸血<sup>1</sup> 제혈

夫人之所有者, 血與氣也, 心者血之主, 肺者氣之主, 氣主煦之, 血主濡之, 榮養百骸, 灌溉絲絡, 升降上下, 榮衛諧和, 自然順適, 一或不調, 疾由生矣. 故外爲風寒所侵, 內因飲食所阻, 氣乃留而不行, 血乃壅而不濡, 內外抑鬱, 不能流注以榮於身, 必有妄行之患也. 惟襁褓小兒, 皆因乳母多食酒麪炙燂等熱物, 流于乳絡, 飲而停滯, 不散鬱而爲熱, 經血妄動, 或處重幃煖室, 火氣薰逼, 不令常見風日, 積蘊成熱, 熱極則上爲吐衄, 下爲便溺血, 蓋血不苟動, 因氣使之, 風不自生, 因熱而起, 先審病源, 隨經施治, 大要, 肝藏血, 肝熱者, 小柴胡湯〔方見外感〕, 心生血, 心熱者, 導赤散〔方見急驚〕, 加黃連, 血虛者, 四物湯, 少加黃芪、白朮, 陽生陰長, 如夫唱婦隨之道也, 脾肺熱者, 犀角地黃湯, 虛者, 補榮湯. 醫見血出如湧, 以爲熱極之致, 過投寒涼之劑, 遂使血凝結成片而色黯, 宜用麻黃升麻湯之類, 溫而散之, 自然流暢.

무릇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은 혈과 기이다. 심장은 혈의 주인이며 폐장은 기의 주인이니 기는 숨쉬는 것은 주관하고 혈은 적시는 것을 주관한다. 혈과 기는 모든 뼈를 길러주고 핏줄에 물을 대며 위아래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영기와 위기가 조화되어 자연스럽게 흐르게 되는데 하나라도 조화가 깨지면 질병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겉으로는 풍한의 침범을 받고 안으로는 음식의 방해를 받아 기가 멈추어 돌지 못하게 되고 혈이 막혀서 적셔주지 못하게 되면 안팎으로 울체되어 온몸에 흐르면서 몸을 길러주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제멋대로 흘러 질병이 생기는 것이다. 갓난아이는 모두 유모가 술·밀가루·구운 고기·전 같은 뜨거운 음식을 많이 먹어 젖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고 그 젖을 먹어 체하게 되는데 그것을 흡여주지 못하면 열이 되어 경혈(經血)이 제멋대로 움직이게 되는 것이다. 혹은 겹겹이 둘러싸인 따뜻한 방에서 온기만 가까이 하고 평소에 바람이나 별을 뺏아주지 않으면 온기가 안에서 쌓이다가 열이 된다. 열이 심해지면 위로는 구토나 코피가 되고 아래로는 변혈이나 요혈이 된다. 아마도 혈은 혼자서 움직이지 못하는데 기가 움직이게 해주고, 풍사는

저절로 생기지 못하는데 열이 생기게 하는 것 같다. 우선 병의 근원을 잘 살피고 경맥에 따라 치료해야 한다. 치료의 큰 방향은 다음과 같다. 간장은 혈을 저장하는 기관이니 간열이 있으면 소시호탕(처방은 외감에 나온다)을 써야 한다. 심장을 혈을 만드는 기관이니 심열이 있으면 도적산(처방은 급경에 나온다)에 황련을 더하여 써야 한다. 혈이 허한 경우에는 사물탕에 황기와 백출을 조금 더해 써야하니 양은 만들고 음은 기르는 '부창부수(夫唱婦隨)'의 원리와 같다. 비열이나 폐열이 있으면 서각지황탕을 써야 한다. 허한 경우에는 보영탕을 써야 한다. 의원이 피가 솟구치는 것을 보고 극심한 열의 결과라고 생각하여 차갑고 서늘한 성질의 약을 때려 넣게 되면 결국 혈이 응고되어 덩어리져서 안색이 어둡게 된다. 이 경우에는 마황승마탕 같은 약으로 따뜻하게 해주면서 풀어주면 자연스레 흐름이 원활해진다.

#### ○四物湯 ○사물탕

- 治諸血病, 能生血補血.
- 여러 가지 혈병을 치료한다. 이 약은 혈을 만들고 보충한다.
- 熟芩、白芍藥、當歸、川芎 各一錢二分.
- 숙지황、백작약、당귀、천궁 각 1.2돈.
- 右剉, 水煎服. ○吐血, 加葛根、黃連. ○衄血, 加黃芩、麥門冬. ○便血, 加地榆、防風. ○溺血, 加山梔、滑石. ○劉宗厚曰, 欲求血藥, 其四物之謂乎. 當歸, 和血歸經, 芍藥, 涼血補腎, 生地黃, 生血寧心, 熟地黃, 補血滋腎, 川芎, 行血通肝.
- 이상을 썰고 물에 달여 먹인다. ○토혈에는 갈근과 황련을 더한다. ○코피에는 황금과 맥문동을 더한다. ○변혈에는 지유와 방풍을 더한다. ○요혈에는 산치인과 활석을 더한다. ○유종후는 "혈약을 찾는 말은 사물탕을 말한 것이리라. 당귀는 혈을 조화롭게 하며 약효가 경락에 들어가게 하고, 작약은 혈을 식히며 신장을 보하고, 생지황은 혈을 만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숙지황은 혈을 보하며 신장의 기운을 길러주고, 천궁은 혈을 운행시키고 간장의 기운을 소통시킨다."라

고 하였다.

○補榮湯 ○보영탕

- 治諸血.
- 여러 가지 혈병을 치료한다.
- 當歸、白芍藥、生芩、熟芩、赤茯苓、梔子(炒研)、麥門冬、陳皮 各一錢, 人參、甘草 各五分.
- 당귀、백작약、생지황、숙지황、적복령、치자(볶아서 간다)、맥문동、진피 각 1돈, 인삼、감초 각 5푼.
- 右剉, 入大棗二烏梅一, 水煎服.
- 이상을 썬 후 대조 2개와 오매 1개를 넣고 물에 달여 먹인다.

○犀角地黃湯 ○서각지황탕

- 治心肺熱, 吐衄不止, 及上焦瘀血, 面黃大便黑.
- 심장과 폐장의 열로 토혈과 코피가 멎지 않는 경우 및 상초의 어혈로 낯빛이 누레지면서 대변이 검게 되는 경우를 치료한다.
- 生芩(酒洗) 三錢, 赤芍藥 二錢, 犀角、牡丹皮 各一錢.
- 생지황(술로 씻는다) 3돈, 적작약 2돈, 서각、목단피 각 1돈.
- 右剉, 水煎服. ○一方, 加當歸、芩、連各一錢.
- 이상을 썰고 물에 달여 먹인다. ○어떤 방서에는 당귀、황금、황련 각 1돈을 더한다고 하였다.

○麻黃升麻湯 ○마황승마탕

- 治傷寒表未解, 熱鬱作衄, 俗謂紅汗.

- 상한의 표증이 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열이 울체되어 코피가 나는 증상을 치료한다. 흔히들 홍한(紅汗, 붉은 땀)이라고 한다.
- 麻黃、升麻、赤芍藥、黃芩、石膏(煨)、赤茯苓、甘草 各一錢.
- 마황、승마、적작약、황금、석고(불에 달군다)、적복령、감초 각 1돈.
- 右剉, 入薑三, 水煎熱服, 微汗.
- 이상을 썰고 생강 3조각을 넣어 물에 달인 후 뜨겁게 먹여 살짝 땀을 내준다.

### 止衄法 코피를 멎게 하는 법

- ○治鼻衄久不止, 諸藥無效, 以白紙一二張, 作十數摺, 冷水浸濕, 置項中, 以熱熨斗熨之, 至二三重紙乾, 則立止. ○治衄百藥無效者, 以色線緊札手中指中節, 如左鼻出血, 札右手中節, 右鼻出血, 札左手中節, 如兩鼻出血, 左右俱札之.
- ○코피가 오랫동안 멎지 않고 온갖 약이 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백지 1-2장을 열 번 정도 접고 냉수에 담가 적신 후 뒷목에 놓는다. 뜨거운 인두로 종이 2-3겹이 마를 때까지 지지면 코피가 즉시 멎는다. ○코피를 치료하는 온갖 약이 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색실로 중지 가운데 마디를 짝 묶는다. 왼쪽에서 코피가 나면 오른손가락을, 오른쪽에서 코피가 나면 왼손가락을, 양쪽에서 코피가 나면 양쪽을 묶는다.

吐血者, 胃中有積熱, 而過飽熱物, 因傷脾胃, 熱氣衝蹙, 吐出鮮血, 宜升麻葛根湯, 合黃連解毒湯〔二方見外感〕. 凡血見黑, 即止, 以百草霜末二錢, 米飲或溫水調服, 又吹入鼻中, 即止.

토혈은 위(胃)에 열이 쌓여있는 상태에서 뜨거운 음식을 너무 많이 먹었기 때문에 비위가 손상되었고 열기가 날뛰어 입으로 선혈을 토해내는 것이다. 승마갈근탕에 황련해독탕을 합하여 써야 한다.〔두 처방은 외감에 나온다〕 모든 출혈은 검은색을 만나게 하면 즉시 멈춘다. 백초상 가루 2돈을 미음이나 따뜻한 물에 타서 먹이거나 코 속에 붙어 넣으면 즉시 멈춘다.

○黃芩丸 ○황금환

- 治小兒吐衄血不止.
- 아이의 토혈이나 코피가 멎지 않는 증상을 치료한다.
- 黃芩細末, 煉蜜丸如彈子大, 三歲兒一丸, 濃鹽湯調下. ○側栢葉、石榴花爲末, 吹鼻中, 衄即止.
- 황금을 잘게 가루 낸 후 연밀에 개어 탄자대로 환을 빚는다. 3살 아이 기준으로 1환을 진한 염탕에 타서 먹인다. ○측백엽과 석류화를 가루 낸 후 코 속에 붙여 넣어주면 코피가 즉시 멈춘다.

○栢葉飲 ○백엽음

- 小兒吐衄血, 用此止澁.
- 아이가 코피를 흘릴 때 이 약을 쓰면 멎는다.
- 栢葉、藕節(並乾者) 各<sup>2</sup>等分.
- 백엽、우절(모두 말린다) 각각 같은 양.
- 右細末, 三歲兒半錢, 生藕汁入蜜調沸湯服.
- 이상을 잘게 가루 낸 후 3살 기준으로 0.5돈을 생연근즙에 꿀을 넣고 뭉근히 끓인 물에 먹인다.

○麥門冬飲子 ○맥문동음자

- 治吐衄血, 久不愈.
- 토혈이나 코피가 오랫동안 낫지 않는 경우를 치료한다.
- 五味子 十粒, 麥門冬、黃芪 各一錢.
- 오미자 10알, 맥문동·황기 각 1돈.



- 右剉, 水一盞半, 煎至一盞服.
- 이상을 썬 후 물 1.5잔에 넣고 1잔이 되도록 달여서 먹인다.

○龍膽丸 ○응담환

- 心肝熱上迫, 口鼻血出如涌, 一服立止.
- 간열이 위로 치솟아 입과 코에서 피가 솟구치는 경우에 이 약을 한 번 먹이면 곧 바로 멎는다.
- 黃連、草龍膽(酒洗) 各等分.
- 황련、초롱담(술로 씻는다) 각각 같은 양.
- 右末, 糊丸小豆大, 三歲兒三十丸, 鹽湯下.
- 이상을 가루 낸 후 꿀에 개어 소두대로 환을 빚는다. 3살 아이 기준으로 30환을 염탕에 먹인다.

○膠黃散 ○교황산

- 治小兒吐衄血, 及九竅出血不止.
- 아이의 토혈과 코피 및 구규(九竅)에서 피가 멎지 않는 증상을 치료한다.
- 阿膠珠一兩, 蒲黃五錢.
- 아교주 1냥, 포황 5돈.
- 右細末, 每一錢, 生芡汁, 微溫調服.
- 이상을 잘게 가루 낸 후 1돈씩 약간 따뜻한 생지황즙에 타서 먹인다.

小兒因他暴驚, 九竅出血, 先取猪心熱血服. ○蒲黃末, 米醋調服, 兼服朱砂安神丸〔方見癰疾〕, 如失血過多, 補榮湯, 加減用之.

아이가 무언가에 갑자기 놀라 구구(九竅)에서 피가 나는 경우에는 우선 돼지 심장의 뜨거운 피를 구하여 먹인다. ○포황 가루를 쌀식초에 타서 먹이고 주사 안신환(처방은 간질에 나온다)을 함께 먹인다. 피를 너무 많이 흘렀다면 보영탕을 가감하여 써야 한다.

口鈍兒, 過被嚴教, 勞心讀書, 吐血, 服茯苓補心湯、蓮心散.

말이 늦은 아이가 엄한 교육을 받으면서 마음고생하며 책을 읽다가 토혈하는 경우에는 복령보심탕이나 연심산을 먹인다.

#### ○茯苓補心湯 ○복령보심탕

- 治勞心吐血.
- 마음고생하여 토혈하는 증상을 치료한다.
- 白芍藥 二錢, 熟苳 一錢半, 當歸 一錢三分, 川芎、白茯苓、人參、前胡、半夏 各七分, 陳皮、枳殼、桔梗、乾葛、蘇葉、甘草 各五分.
- 백작약 2돈, 숙지황 1.5돈, 당귀 1.3돈, 천궁, 백복령, 인삼, 전호, 반하 각 7푼, 진피, 지각, 길경, 갈근, 소엽, 감초 각 5푼.
- 右剉, 入薑五棗二, 水煎服.
- 이상을 썬 후 생강 5조각과 대조 2개를 넣고 물에 달여 먹인다.

#### ○蓮心散 ○연심산

- 治心勞吐血, 驚悸怔忡.
- 마음고생하여 토혈하고 경계(驚悸)나 정충(怔忡)이 생긴 경우를 치료한다.
- 蓮子(留心) 二錢, 白茯神、乾苳、當歸身(酒洗) 各一錢, 甘草 七分.
- 연자(심째 쓴다) 2돈, 백복신, 건지황, 당귀신(술로 씻는다) 각 1돈, 감초 7푼.
- 右剉, 入薑三糯米一撮, 水煎服, 或辰砂五分調服, 亦可.

- 이상을 썬 후 생강 3조각과 찹쌀 1찰을 넣고 물에 달여 먹인다. 혹은 진사 5푼을 타서 먹여도 괜찮다.

○清心地黃飲 ○청심지황음

- 治小兒暴驚, 心血涌出口鼻, 終日不止.
- 아이가 갑자기 놀라 가슴 속의 피가 입과 코로 솟구치며 종일토록 멈추지 않는 경우를 치료한다.
- 生芩、當歸、赤芍藥、川芎、蓮肉、山梔(炒黑)、牡丹皮 各等分, 黃連(酒炒) 倍入.
- 생지황、당귀、적작약、천궁、연육、산치인(검게 볶는다)、목단피 각각 같은 양, 황련(술에 축여 볶는다) 2배 분량.
- 右剉, 水煎, 調朱砂末少許服.
- 이상을 썬 후 물에 달여 주사 가루를 약간 타서 먹인다.

便血者, 大便下血, 是胃與大腸積熱也. 蓋小兒三夏暴熱之時, 形與氣, 俱傷於熱, 或吸入暑毒, 伏於腸胃間, 鬱而爲瀉血, 或成血痢, 宜桂苓甘露飲、酒蒸黃連丸〔二方見暑〕, 考血痢參治. 或風邪絆於腸胃間, 大便下血, 名腸風下血, 宜四物湯, 加桂枝、防風, 或胃風湯〔方見吐瀉〕.

변혈은 대변에 피가 나오는 것으로 위와 대장에 쌓인 열 때문이다. 매우 뜨거운 여름 날씨에 소아의 몸과 기운이 모두 열기에 손상되거나 혹은 여름에 먹은 더위가 장이나 위 부근에 잠복해 있다가 뭉쳐지면 피를 싸거나 혈리(血痢)가 되기도 한다. 계령감로음이나 주증황련환(두 처방은 서(暑)에 나온다)을 써야 하며, 혈리(血痢) 부분을 참고하여 치료하라. 간혹 풍사가 장위를 휘감아 대변으로 피가 나오기도 하는데 이 증상을 장풍하혈(腸風下血)이라고 한다. 사물탕에 계지와 방풍을 더하여 쓰거나 위풍탕(처방은 토사에 나온다)을 써야 한다.

尿<sup>3</sup>血者, 心小腸熱也. 熱聚膀胱, 則血滲入於胞, 故小便中血出也. 若莖中痛而血出者, 血淋也, 宜導赤散, 不痛而血出者, 尿血也, 四物湯, 加山梔(炒)、車前子、麥門冬, 甚者, 四物湯, 合黃連解毒湯, 虛熱者, 清心蓮子飲.

요혈은 심장과 소장의 열 때문이다. 열이 방광에 모이면 혈이 방광으로 스며들게 되므로 소변으로 피가 나오는 것이다. 만약 음경이 아프면서 피가 나오는 경우는 혈림(血淋)이니 도적산을 써야 한다. 음경이 아프지 않으면서 피가 나는 경우는 요혈이니 사물탕에 산치인(볶는다)、차전자、맥문동을 더하여 써야 하며, 심한 경우에는 사물탕에 황련해독탕을 합하여 써야 한다. 허열이 있으면 청심연자음을 써야 한다.

#### ◦立效散 ◦입효산

- 治小兒尿血.
- 아이의 요혈을 치료한다.
- 蒲黃(炒)、生芩(酒洗)、赤茯苓、甘草 各一錢.
- 포황(볶는다)、생지황(술로 씻는다)、적복령、감초 각 1돈.
- 右剉, 水煎, 空心服. ◦一方, 加麥門冬、升麻.
- 이상을 썬 후 물에 달여 빈속에 먹인다. ◦어떤 방서에는 맥문동과 승마를 더하였다.

#### ◦薑蜜湯 ◦강밀탕

- 治小便血出.
- 소변으로 피가 나오는 증상을 치료한다.
- 生薑 七片, 蜜 半盞, 白茅根 一握.
- 생강 7조각, 꿀 0.5잔, 백모근 1줌.

- 右剉, 水煎, 空心服.
- 이상을 썬 후 물에 달여 빈속에 먹인다.

○清心蓮子飲 ○청심연자음

- 治心經虛火上炎, 口乾煩渴, 小便赤澀, 或尿血吐血, 不至甚而作止無時, 面色瘦黃.
- 심경(心經)에 허열이 위로 타올라 입이 마르고 번갈이 있으며 소변이 붉고 잘 나오지 않으며 간혹 요혈과 토혈이 있는데 심하지는 않으나 일정하지 않고 낮 빛이 누렇게 뜬 경우를 치료한다.
- 蓮子 二錢, 赤茯苓、黃芪、人參 各一錢, 黃芩、麥門冬、車前子(炒研)、地骨皮、甘草 各七分.
- 연자 2돈, 적복령·황기·인삼 각 1돈, 황금·맥문동·차전자(볶아서 간다)·지골피·감초 각 7푼.
- 右剉, 水煎服.
- 이상을 썰고 물에 달여 먹인다.

齒衄者, 血從齒齦中出也. 牙床屬胃, 牙齒屬腎, 腎胃俱熱, 血出牙縫, 如吐血者然, 人多不覺其爲牙血, 以涼水嗽口則血止, 少頃又來, 犀角地黃湯, 加知母、黃栢(並鹽水炒)煎服, 或小柴胡湯〔方見外感〕, 加黃連、牡丹皮, 外用綠袍散, 又以蓮房, 水煎, 入鹽少許, 嗽口.

치늑(齒衄)은 피가 잇몸에서 나오는 것이다. 잇몸은 위(胃)에 속하고 치아는 신장에 속하는데 신장과 위에 모두 열이 있으면 피가 잇몸 사이에서 나와 결과적으로는 토혈하는 것과 비슷하다. 사람들은 흔히 잇몸에서 피가 나는 줄 알아차리지 못한다. 시원한 물로 입을 행구면 피가 멈추지만 조금 후에 다시 난다. 서각지황탕에 지모와 황백(모두 소금물에 축여 볶는다)을 더하여 달여 먹이거

나, 혹은 소시호탕〔처방은 외감에 나온다〕에 황련과 목단피를 더하여 먹이고 잇몸에 녹포산을 뿌려준다. 또는 연밥을 물에 달여 소금을 약간 넣고 입을 행구게 한다.

#### ○綠袍散 ○녹포산

- 治齒縫出血不止.
- 잇몸 사이에서 나는 피가 멈추지 않는 경우를 치료한다.
- 黃栢、薄荷、芒硝、青黛 各等分.
- 황백、박하、망초、청대 각각 같은 양.
- 右細末, 入龍腦少許, 每以涼水洗之, 擦牙縫上.
- 이상을 잘게 가루 내고 응뇌를 약간 섞는다. 시원한 물로 씻어준 후에 가루를 잇몸 사이에 문질러준다.

舌衄者, 血從舌中出, 心經積熱也. 蒲黃醋調作餅, 貼付舌上, 導赤散, 加黃連, 水煎, 小小呷服, 或九味清竹葉麥門冬湯調服, 又以冷水洗之, 槐花炒爲末, 糝付舌上, 服犀角地黃湯, 加黃連.

설녹(舌衄)은 혀에서 피가 나는 증상으로 심경(心經)에 쌓인 열 때문이다. 포황을 식초에 개고 떡처럼 뭉쳐 혀에 붙인 후 도적산에 황련을 더하여 달인 물에 조금씩 먹인다. 혹은 떡처럼 뭉친 포황을 구미청죽엽맥문동탕에 타서 먹인다. 또는 냉수로 혀를 씻어주고 괴화(볶는다)를 가루 내서 혀에 뿌린 후 서각지황탕에 황련을 더하여 먹인다.

- 一方, 吐衄血不止, 生芩搗取汁一盞, 入薄荷汁、生蜜、生薑汁各少許, 和勻, 微溫服. ○大薊、小薊取汁, 入薑、蜜少許, 微溫服. ○一切血疾, 白茅根, 煎服. ○生艾葉, 取汁飲, 乾者, 煮服, 治吐衄便尿血. ○槐花炒細末, 白湯或溫酒, 一二錢調服, 法<sup>4</sup>吐衄便尿血, 齒衄舌衄. ○童便一鍾子, 入薑汁二三點, 溫服, 治一切血疾. 調鬱金末, 或白芨末, 或韭汁, 調服. ○側栢葉細末, 米飲, 一二錢調服, 治便

尿血, 煎服, 亦可. ○當歸、川芎等分, 煎服, 治諸血病.

- 다른 처방. 토혈과 코피가 멎지 않으면 생지황 찜은 즙 1잔에 박하즙·꿀·생강즙을 조금씩 넣고 잘 섞은 후 살짝 따뜻하게 먹인다. ○대계와 소계의 즙을 내어 생강과 꿀을 조금씩 넣고 살짝 따뜻하게 먹인다. ○모든 혈병에는 백모근을 달여 먹인다. ○생애엽의 즙을 마시게 하거나 마른 애엽을 물에 달여 먹이면 토혈·코피·변혈·요혈을 치료한다. ○괴화(뽕는다)를 잘게 가루 낸 후 끓인 물이나 따뜻한 술에 1-2돈을 타서 먹이면 토혈·코피·변혈·요혈·치늑(齒衄)·설늑(舌衄)을 치료한다. ○동변 1종지에 생강즙 2-3방울을 넣고 따뜻하게 먹이면 모든 혈병을 치료한다. 울금 가루나 백급 가루를 타서 먹이기도 하고, 부추즙을 타서 먹이기도 한다. ○측백엽을 잘게 가루 낸 후 미음에 1-2돈을 타서 먹이면 변혈이나 요혈을 치료한다. 달여 먹어도 괜찮다. ○당귀와 천궁 각각 같은 양을 물에 달여 먹이면 여러 가지 혈병을 치료한다.

金都事子, 生纔十朔, 血涎流出口吻, 以涼水洗之, 舌頭鮮血滲漏, 取黃連一錢, 濃煎灌服, 又以牛黃涼膈丸, 井花水調, 塗舌上, 日五六次而愈.

(의안) 김 도사(都事)의 아이가 태어난 지 겨우 열 달인데 입과 입술에서 피가 섞인 침이 흘렀다. 시원한 물로 씻어주었더니 허끝에서 선혈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황련 1돈을 진하게 달여 입에 흘려 넣어준 후 우황양격환을 정화수에 풀어서 혀에 발라주었다. 이렇게 하루 5-6번 하니 나았다.

一士人子年十餘, 忽吐出鮮血半鍾許, 連日不止, 時或心膈跳動, 累月不已, 諸藥無效, 面色焦黃, 身體困倦, 五心煩熱, 小便短澀, 以清心蓮子飲, 加當歸、乾芩, 連服十劑, 諸症減而吐血猶未快止, 服茯苓補心湯, 乃愈.

(의안) 어떤 선비의 열 살쯤 된 아이가 갑자기 선혈을 반 그릇 정도 토하고 연일 그치지 않았으며 가끔 가슴이 벌렁벌렁 뛰는 증상이 몇 달 동안 멎지 않은 채 온갖 약이 효과가 없었다. 낮빛이 까맣게 되면서 노란기가 돌았으며 몸에 힘이 없고 오심번열이 있으며 소변을 자주 보지만 잘 나오지 않는 상태였다.

청심연자음에 당귀와 건지황을 더하여 써서 연달아 10첩을 먹었더니 여러 증상은 줄어들었으나 토혈은 딱 그치지 않았다. 복령보심탕을 먹이니 그제야 나았다.

金監察九歲兒, 每當巳午時, 熱氣上衝, 頭痛眩暈, 面目紅熱, 惡心嘔吐, 兩眼內眥, 鮮血滲漏, 至未申而漸減, 夜則氣如常, 至明日復然, 如是者, 十餘日, 諸藥罔效. 余曰, 此心肝實熱也. 清肝湯〔方見諸熱〕, 兼服龍膽丸, 乃愈.

〔의안〕 김 감찰(監察)의 아홉 살 된 아이가 매일 사시에서 오시(오전 11시 무렵) 정도 되면 열이 위로 올라와 머리가 아프고 어지러우며 얼굴과 눈이 붉어지면서 열이 나고 오심과 구토가 생겼으며 두 눈의 내자에 선혈이 새어나왔다. 미시에서 신시(오후 2시 무렵)가 되면 증상이 점점 줄어들고 밤이 되면 상태가 정상으로 돌아왔다가 해가 밝으면 다시 반복되었다. 이렇게 지낸 지 10여일이 되었으나 온갖 약이 효과가 없었다. 나는 "이 병은 심장과 간장의 실열 때문입니다."라고 말하고 청간탕(처방은 제열에 나온다)을 쓰면서 용담환을 같이 먹었더니 나았다.

一小兒日數三次, 純下血尿, 而不痛不澀, 用導赤散而愈. 過月餘復發, 用前藥乃止, 然亦每月一發, 自夏至秋, 面黃肌瘦, 身熱困倦, 此伏暑也. 服酒蒸黃連丸, 至半劑, 良已.

〔의안〕 어떤 아이가 하루에 서너 번 피오줌을 누었는데 아프지도 않고 찝끔거리지도 않았다. 도적산을 썼더니 나았다.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재발하여 다시 도적산을 쓰니 멎었다. 그러나 다시 매달 한 번씩 재발하여 여름부터 가을까지 계속되었다. 얼굴이 누렇게 뜨고 몸이 야위었으며 몸통이 뜨거우면서 힘이 없었다. 이 병은 복서(伏暑) 때문이었다. 주증황련환을 반 제 정도 먹이니 좋아졌다.

崔奉事子年十三, 腹痛下血, 一下數升, 諸藥無效, 日益萎黃, 食飲厭苦, 四物湯, 加升麻、防風, 煎水, 諸<sup>5</sup>百草霜末一錢, 連服五劑而愈.



〔의안〕 최 봉사(奉事)의 13살 된 아이가 배가 아프다고 하며 피를 한 번에 몇 되만큼 쏟으나 여러 약이 효과가 없어 날이 갈수록 힘이 없고 누렇게 떼으며 음식도 넘기지 못하였다. 사물탕에 승마와 방풍을 더하여 물에 달인 후 백초상 가루 1돈을 타서 5첩을 연달아 먹이니 나았다.

---

1. 원고본에는 '付之下卷'이라는 첨지가 붙어있다. ↩

2. 습 : \*各 ※문맥상 ↩

3. 尿 : 溺 ※규장각본 ↩

4. 法 : \*治 ※규장각본 ↩

5. 諸 : \*調 ※규장각본 ↩

## 口舌瘡 구설창

小兒口中諸疾，乃心脾經熱也，皆母熱遺兒之致也，俱宜瀉黃散〔方見諸熱〕，或有吐瀉後，虛熱上炎，口舌糜爛者，古方用理中湯。〔下寒未除，上熱復起，故有口瘡〕

아이 입 속에 생기는 병들은 심경(心經)이나 비경(脾經)의 열 때문으로 모두 어머니의 열이 아이에게 전해진 것이다. 모든 증상에 사황산〔처방은 제열에 나온다〕을 써야 한다. 간혹 구토와 설사 후에 허열이 위로 타올라 입이나 혀가 짓무른 경우에 옛 의서에서는 이증탕을 썼다.〔하초의 한기가 없어지지 않아 상초의 열이 반복해 생기기 때문에 구창이 되는 것이다〕

鵝口瘡者，白屑滿口舌，如鵝之狀，以母油髮纏指頭，蘸薄荷煎湯或米泔水，拭淨後，付保命散，服瀉心湯〔方見諸熱〕。

아구창(鵝口瘡)은 흰 가루 같은 것이 입속과 혀에 가득하여 거위의 형상과 비슷하다. 어머니의 기름진 머리카락을 손가락 끝에 돌돌 감고 박하 달인 물이나 쌀뜨물을 찍어 환부를 깨끗이 씻어준 후 보명산을 바르고, 사심탕〔처방은 제열에 나온다〕을 먹인다.

### ○保命散 ○보명산

- 治鵝口白屑滿口.
- 아구창으로 흰 가루 같은 것이 입 속에 가득찬 증상을 치료한다.
- 枯白礬、朱砂 各一錢，馬牙硝 五錢.
- 고백반、주사 각 1돈, 마아초 5돈.
- 右細末，每少許，以白鵝糞搗水調，塗舌上及頤頰內.
- 이상을 잘게 가루 낸 후 약간씩 흰 거위의 똥과 함께 물에 개어 혀와 입속에 발라준다.

○朱礬散 ○주반산

- 治上同.
- 위와 같이 아구창으로 흰 가루 같은 것이 입 속에 가득 찬 증상을 치료한다.
- 朱砂、枯白礬.
- 주사、고백반.
- 右等分細末, 付口舌上. ○加鵬砂末少許, 白屑即消.
- 이상 각각 같은 양을 잘게 가루 낸 후 입 속과 혀에 발라준다. ○붕사 가루를 조금 더하면 흰 가루 같은 것이 즉시 사라진다.
- 一方, 粟米煮汁洗口, 黃丹煨末糝付. ○取桑白皮自然汁, 塗口舌上, 日四五次. ○鼠婦蟲搗汁, 塗舌上, 亦效. ○雄黃三錢, 鵬砂一錢, 龍腦少許, 爲末, 乾糝, 或蜜調塗之.
- 다른 처방. 좁쌀 달인 물로 입을 씻고, 황단을 불에 달구고 가루내어 환부에 뿌려준다. ○상백피 짠 즙을 하루 4-5번 입 속과 혀에 발라준다. ○쥐머느리 짓찢은 즙을 혀에 발라도 효과가 있다. ○웅황 3돈과 붕사 1돈과 용뇌 약간을 가루 낸 후 뿌리거나 꿀에 개어 발라준다.

重舌者, 心脾熱盛, 附舌根而重生一物, 如舌短小, 名曰重舌, 着頰裏及上齦, 名曰重齦, 着齒齦, 名曰重齒, 當刺出血, 再生再刺, 不已則脹滿塞口, 有妨飲乳, 宜瀉黃散〔方見諸熱〕.

중설(重舌)은 심장과 비장의 열이 왕성해져 혀 아래에 설소대 같은 것이 중복으로 생기기 때문에 중설이라고 한다. 볼이나 입천장 쪽에 생기는 것은 중악(重齶)이라고 하고, 잇몸에 생기는 것은 중치(重齒)라고 한다. 환부를 찢러 피를 빼야 하며 다시 생기면 다시 피를 빼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팽팽하게 부풀면서 입을 막게 되어 젖을 빠는 데 방해가 된다. 사황산(처방은 제열에 나 온다)을 써야 한다.

木舌者, 心脾熱壅, 腫硬不和, 漸漸塞滿口中, 亦能害人, 用黃栢爲末, 以竹瀝調, 點舌上, 甚者, 加朴硝、白鹽. 二症通用, 百草霜、滑石爲末, 酒調敷之, 或升麻煎水, 調牛黃少許, 塗舌上, 服瀉心湯〔方見諸熱〕、牛黃涼膈丸, 井水和蜜調, 塗舌上.

목설(木舌)은 심장과 비장에 열이 뭉쳐 생기는데 혀가 붓고 딱딱해지며 부드럽게 움직이지 않으면서 점점 입 속을 막기 때문에 사람에게 해가 된다. 황백을 가루 내어 죽력에 탄 후 혀에 찍어 바른다. 심한 경우에는 박초와 백염을 더한다. 중설과 목설에 통용하는 방법으로는 백초상과 활석을 가루 낸 후 술에 개어 발라준다. 혹 승마 달인 물에 우황을 조금 타서 혀에 발라주기도 한다. 사심탕(처방은 제열에 나온다)이나 우황양격환을 먹이고, 우물물에 꿀을 타서 혀에 발라준다.

弄舌者, 舌絡微緊, 時時舒出, 亦脾熱也. 不可用冷藥, 當與瀉黃散, 漸服之, 面黃肌瘦, 五心煩熱者, 胡連丸〔方見疳疾〕, 大病後弄舌者, 凶.

농설(弄舌)은 혀가 살짝 뺏뺏해져 가끔 밖으로 나오는 증상으로, 역시 비장의 열 때문에 생긴다. 서늘한 성질의 약을 쓰지 말아야 하며 사황산을 조금씩 먹여야 한다. 얼굴이 누레지며 몸이 야위고 오심번열이 있는 경우에는 호련환〔처방은 감질에 나온다〕을 쓴다. 큰 병을 앓은 후에 농설이 생기는 경우는 흉조이다.

馬牙者〔俗齒龕〕, 口內并牙齦, 生白點如粟米狀, 大小不一, 急以針桃<sup>1</sup>出, 用京墨磨薄荷汁塗之, 或白蜜塗之, 稍久與乳.

마아(馬牙, 흔히 이똥이라고 한다)는 입 속과 잇몸에 좁쌀 모양으로 하얀 점이 생기는 증상으로 크기는 제각각이다. 급히 바늘로 터뜨린 후 경묵을 박하즙에 간 먹물을 발라주거나 꿀을 발라주고 조금 후에 젖을 물린다.

舌生芒刺, 不能吮乳, 生薑切片, 蘸蜜, 擦兒舌上, 服導赤散〔方見急驚〕. ○小兒口舌諸瘡, 黃連細末, 蜜水調, 小小灌呷.

혀에 가시가 돋아 젖을 빨지 못하는 경우에는 생강을 얇게 썬 후 꿀을 찍어 아이의 혀를 문질러주고, 도적산(처방은 급경에 나온다)을 먹인다. ○아이의 입이나 혀에 난 여러 가지 창에는 황련을 잘게 가루 낸 후 꿀물에 타서 조금씩 입에 흘려 넣어준다.

口瘡者, 心膽積熱也. 用淡醋調南星末, 貼兩脚心, 乳母服導赤散〔方見急驚〕, 加黃連一錢, 口中糜爛, 不能飲乳者, 白蜜頻塗口中, 日久不愈, 用巴豆二粒, 入朱砂或黃丹、土朱少許, 同搗爛, 剃開小兒顙門, 貼之, 如四邊起粟米泡, 急用菖蒲煎湯, 或溫水洗去, 恐成瘡腫. ○牛黃少許, 蜜水調, 頻滴口中.

입에 창이 생기는 이유는 심장과 담에 열이 쌓였기 때문이다. 묽은 식초에 남성 가루를 개어 양쪽 발바닥 중앙에 붙여주고, 유모에게는 도적산(처방은 급경에 나온다)에 황련 1돈을 더하여 먹인다. 입 속이 문드러져 젖을 빨지 못하는 경우에는 꿀을 자주 입 속에 발라준다. 오랫동안 낫지 않으면 파두 2알에 주사 혹은 황단(黃丹)이나 토주(土朱, 대자석)를 조금 넣고 함께 찧은 후 머리카락을 깎고 아이의 솟구멍에 붙여준다. 만약 솟구멍 주위에 좁쌀만한 수포가 생기면 급히 창포 달인 물이나 따뜻한 물로 씻어준다. 창종(瘡腫)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이다. ○우황 약간을 꿀물에 섞어서 자주 입 속에 떨어뜨려준다.

#### ○牛黃散 ○우황산

- 治口中諸疾, 及咽瘡.
- 입 속의 여러 가지 병과 목구멍의 창을 치료한다.
- 黃連、黃栢 各八分, 雄黃、朱砂、青黛 各二分, 馬牙硝 一錢<sup>2</sup>半, 牛黃、片腦、鵬砂 各一分.
- 황련、황백 각 8푼, 웅황、주사、청대 각 2푼, 마아초 1.5푼, 우황、편뇌、붕사 각 1푼.
- 右末如粉, 每少許, 先以薄荷湯洗, 後擦之.

- 이상을 향분처럼 곱게 가루 낸다. 먼저 박하탕으로 씻어준 후 가루를 환부에 문질러준다.

◦龍石散 ◦용석산

- 治口瘡.
- 구창을 치료한다.
- 寒水石(煨) 三兩, 朱砂 二錢半, 片腦 一字.
- 한수석(불에 달군다) 3냥, 주사 2.5돈, 용뇌 1자.
- 右細末, 以薄荷湯或米泔水洗, 後擦之. ◦一方, 加枯礬、牙硝、鵬砂、綠礬、烏梅肉(燒存性)、人中白(煨), 細末, 量宜糝付.
- 이상을 잘게 가루 내고 박하탕이나 쌀뜨물로 씻어준 후 가루를 환부에 문질러준다. ◦어떤 방서에는 고반、마아초、붕사、녹반、오매육(약성이 남을 정도로 검게 태운다)、인증백(불에 달군다)을 더하고 잘게 가루 낸 후 적당량을 뿌려준다고 하였다.

小兒經痘後, 或紅疹後, 因裏熱未淨, 發爲口瘡, 齒齦糜爛者, 治之當如救焚<sup>3</sup>溺, 不然則仍成走馬牙疳, 治見腎疳.

아이가 두창이나 마진을 앓은 후 속에 남은 열이 싹 없어지지 않아 구창이 생기고 잇몸이 문드러진 경우에는 반드시 불에서 구하고 물에서 건지는 것처럼 치료를 서둘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주마아감(走馬牙疳)이 되어버린다. 치료법은 신감(腎疳)에 나온다.

- 一方, 口舌生瘡, 砂糖作片, 含口嚥汁, 久不息卽差. ◦西瓜中漿, 徐徐飲之, 甜瓜汁, 亦好. ◦白礬末一撮, 湯泡, 頻頻漱口. ◦黃栢、細辛等分, 濃煎, 嗽口, 後白礬末, 糝付. ◦升麻煎湯或米泔, 水漱口, 後牛黃涼膈丸, 井水化開, 塗口舌上, 日三四次.
- 다른 처방. 입이나 혀에 창이 생기면 사탕을 조각내어 입에 물고 있으면서 침을

삼키게 하고 오랫동안 멈추지 않으면 낫는다. ○수박즙을 천천히 마시게 한다.  
참외즙도 좋다. ○백반 가루 1찰을 뜨거운 물에 타서 자주 입을 헹구게 한다. ○황  
백과 세신 각각 같은 양을 진하게 달여 입을 헹구게 한 후 백반 가루를 환부에  
뿌려준다. ○승마 달인 물이나 쌀뜨물로 입을 헹군 후 우황양격환을 우물물에  
녹여 입과 혀에 발라준다. 하루에 3-4번 해준다.

---

1. 桃 : \*挑 ※규장각본 [↩](#)

2. 錢 : \*分 ※규장각본 [↩](#)

3. 極 : \*拯 ※규장각본 [↩](#)

## 煩躁不寐 번조불매

煩者氣也, 屬陽, 心中煩擾, 而內熱不安也. 燥<sup>1</sup>者血也, 屬陰, 腎熱津乾, 而外熱燥<sup>2</sup>悶也. 是故心熱則煩, 腎熱則燥<sup>3</sup>. 治法, 心熱, 精神恍惚, 驚悸不安, 導赤散〔方見急驚〕, 加黃連, 腎熱津乾, 晝夜躁動者, 豆豉枳實湯〔方見外感〕, 陰盛發躁, 裸體欲入井中者, 理中湯〔方見吐瀉〕, 虛煩身不熱不渴者, 四君子湯〔方見吐瀉〕, 加歸・芍, 虛煩不得眠者, 酸棗仁湯, 浮熱上衝, 面紅目赤, 脈大無力, 自汗不眠者, 當歸補血湯, 加人參以補氣血, 虛煩自止.

번(煩)은 기병이며 양증에 속한다. 가슴이 답답하고 두근거리면서 속에서 열이 올라 편안히 있지 못하는 것이다. 조(躁)는 혈병이며 음증에 속한다. 신장의 열이 진액을 말리면서 겉에서 열이 올라 바짝 마르고 답답한 것이다. 그러므로 심장에 열이 있으면 번이 되고 신장에 열이 있으면 조가 된다. 치료법은 다음과 같다. 심장에 열이 있어 정신이 혼미해지고 깜짝깜짝 놀라며 불안해하는 경우에는 도적산(처방은 급경에 나온다)에 황련을 더하여 쓴다. 신장의 열로 진액이 말라 밤낮으로 발버둥치는 경우에는 두시지실탕(처방은 외감에 나온다)을 쓴다. 음기가 왕성하여 조가 생기고 나체로 우물에 뛰어드려는 경우에는 이중탕(처방은 토사에 나온다)을 쓴다. 허번이 있으면서 몸통이 뜨겁지 않고 갈증도 없는 경우에는 사군자탕(처방은 토사에 나온다)에 당귀와 작약을 더하여 쓴다. 허번으로 잠들지 못하는 경우에는 산조인탕을 쓴다. 열이 위로 솟아 얼굴이 붉어지고 눈이 빨개지며 맥은 크면서 무력하고 자한을 흘리면서 잠들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귀보혈탕에 인삼을 더하여 써서 기와 혈을 보해주면 허번은 저절로 멎는다.

### ○酸棗仁湯 ○산조인탕

- 治心熱心躁煩, 不得寐.
- 심장의 열로 번조가 생겨 잠들지 못하는 경우를 치료한다.



- 酸棗仁(去皮取仁)、生地黃(酒洗)、山梔仁(炒)、當歸身(酒洗)、麥門冬、人參、甘草 各等分,五味子 少許.
- 산조인(껍질을 제거하고 씨를 취한다)、생지황(술로 씻는다)、산치인(볶는다)、당귀신(술로 씻는다)、맥문동、인삼、감초 각각 같은 양, 오미자 조금.
- 右剉細,入燈心一團,竹葉五片,水一盞半,煎至一盞服.
- 이상을 잘게 썬 후 등심 1단과 죽엽 5장을 물 1.5잔에 넣고 1잔이 되도록 달여 먹인다.

○升麻鼈甲湯 ○승마별갑탕

- 治陰極發躁.
- 음기가 매우 왕성하여 조증이 생긴 경우를 치료한다.
- 鼈甲(醋灸) 一錢半, 當歸(酒洗) 一錢, 桂枝、升麻 各五分, 川椒(去目) 三分, 甘草(炙) 七分.
- 별갑(식초를 축여 굽는다) 1.5돈, 당귀(술로 씻는다) 1돈, 계피、승마 각 5푼, 천초(눈을 떼다) 3푼, 감초(살짝 볶는다) 7푼.
- 右剉,水煎,調雄黃末五分,溫服,汗出,未汗再服.
- 이상을 썰어 물에 달인 후 옹황 가루 5푼을 타서 따뜻하게 먹이고 땀을 낸다. 땀이 나지 않으면 다시 먹인다.
- 一方,陰盛發躁,四肢厥冷,脈無欲死者,川椒一錢,葱白三莖,水煎,調石硫<sup>4</sup>黃末一錢服.
- 어떤 방서에는 음기가 왕성하여 조증이 생기고 사지 끝이 차가우며 맥에 죽을 기색이 없는 경우에 천초 1돈과 총백 3줄기를 물에 달여 석유황 가루 1돈을 타서 먹인다고 하였다.

1. 燥 : \*躁 ※문맥상 ↩

2. 燥 : \*躁 ※문맥상 ↩

3. 燥 : \*躁 ※문맥상 ↩

4. 硫 : 雄 ※규장각본 ↩

## 煩渴飲水 번갈음수

小兒諸病發渴者, 治其本病, 則其渴自止, 不因病而渴者, 漿食甘則中滿, 食肥則內熱, 故喜飲冷水, 或過飽飲食, 則胃中鬱熱, 手足肚腹俱熱, 煩渴不止, 或能食而肌膚如常而渴者, 或不能食而羸瘦渴者有之, 審其所因而治之.

아이가 여러 질병으로 갈증이 생길 때 근본 질병을 치료하면 갈증이 저절로 멎는다. 병이 없는데 갈증이 나는 경우에는 대개 단 음식을 먹고 배가 그득하거나 기름진 음식을 먹고 속에서 열이 나기 때문에 시원한 물을 찾게 되는 것이다. 혹은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 위 속에 열이 울체되고 손발과 배가 모두 뜨거워지며 번갈이 멎지 않는 경우도 있고, 혹은 먹기는 하고 살집도 정상인데 갈증이 나는 경우도 있고, 먹지 못하고 비쩍 마르면서 갈증이 나는 경우도 있으니 원인을 잘 살펴서 치료해야 한다.

### ○清胃散 ○청위산

- 治胃火炎上咽乾, 飲水不止.
- 위장의 열이 타올라 목구멍이 마르기 때문에 쉬지 않고 물을 마시는 증상을 치료한다.
- 葛根 二錢, 生地黃、牡丹皮、升麻 各一錢, 黃連 五分.
- 갈근 2돈, 생지황、목단피、승마 각 1돈, 황련 5푼.
- 右剉, 水煎服. ○加柴胡、麥門冬, 名加味清胃散.
- 이상을 썰고 물에 달여 먹인다. ○시호와 맥문동을 더하면 가미청위산이라고 한다.

### ○麥門冬飲子 ○맥문동음자

- 治心肺熱壅, 口渴不止.
- 심장과 폐장에 열이 뭉쳐 쉬지 않고 입이 마르는 경우를 치료한다.
- 麥門冬 二錢, 生苧、葛根、升麻、知母 各一錢, 天花粉、甘草 各七分, 烏梅 一箇.
- 맥문동 2돈, 생지황、갈근、승마、지모 각 1돈, 천화분、감초 각 7푼, 오매 1개.
- 右作一貼, 入竹葉五片, 水煎服.
- 이상을 1첩으로 하여 죽엽 5조각을 넣고 물에 달여 먹인다.

#### ○蘆根飲 ○노근음

- 治心脾熱盛, 津燥煩渴.
- 심장과 비장에 열이 왕성하여 진액이 마르고 번갈이 생기는 경우를 치료한다.
- 蘆根 二兩, 蓮肉 二錢, 知母、桔梗、青竹茹 各一錢, 粟米 三合.
- 노근 2냥, 연육 2돈, 지모、길경、청죽여 각 1돈, 좁쌀 3홉.
- 右剉, 水五升, 煎至一升半, 量宜服.
- 이상을 썰어 물 5되에 넣고 1.5되가 되도록 달인 후 적당량을 먹인다.

#### ○加味錢氏白朮散 ○가미전씨백출산

- 治吐瀉後, 身熱煩渴, 不能食.
- 구토와 설사 후에 몸통이 뜨겁고 번갈이 있으며 먹지 못하는 경우를 치료한다.
- 本方, 加柴胡、枳殼、五味子, 水煎服.
- 전씨백출산 본방에 시호、지각、오미자를 더하고 물에 달여 먹인다.

#### ○人參石膏湯, ○인삼석고탕

- 卽人參白虎湯〔方見外感〕, 治煩渴引飲不止.
- 곧 인삼백호탕(처방은 외감에 나온다)이니 번갈로 쉬지 않고 물을 찾는 증상을 치료한다.

◦加味玉露散 ◦가미옥로산

- 治胃熱煩渴.
- 위에 열이 있어 번갈이 생긴 경우를 치료한다.
- 石膏 五兩, 寒水石(並煨)·滑石(並水飛) 各三兩, 麥門冬·天花粉 各二兩, 甘草 一兩, 烏梅肉 三錢.
- 석고 5냥, 한수석(모두 불에 달군다)·활석(모두 수비한다) 각 3냥, 맥문동·천화분 각 2냥, 감초 1냥, 오매육 3돈.
- 右細末, 每一二錢, 井水和蜜服, 或蜜丸梧子大, 白湯或米飲化服.
- 이상을 잘게 가루 낸 후 1-2돈씩 우물물에 꿀을 타서 먹인다. 혹은 꿀에 개어 오자대로 환을 빻은 후 끓인 물이나 미음에 녹여서 먹인다.
- 一方, 常常喜飲冷水, 生蘆根搗取汁, 和白蜜, 煎數沸, 快服, 或葛根汁, 如上法服. ◦小兒咳嗽, 口燥咽乾, 煩渴不止, 桑白皮一兩, 糯米炒黃五合, 同煎服. ◦菉豆·青粱相半, 煮取汁, 常常服之. ◦石膏·滑石各三兩, 濃煎湯, 入蜜少許, 烏梅末和服. ◦三夏暑渴, 終日不止, 臘雪水和蜜, 微溫快服.
- 다른 처방. 늘 냉수를 즐겨 마시는 경우에는 생노근 찢은 즙에 꿀을 섞어 살짝 달인 후 한 번에 먹인다. 혹은 갈근즙을 같은 방법으로 먹인다. ◦아이가 기침을 하며 입과 목구멍이 바짝 마르고 번갈이 멎지 않는 경우에는 상백피 1냥과 찹쌀(누렇게 볶는다) 5홉을 물에 넣고 달여 먹인다. ◦녹두와 청량미 같은 양을 달여 그 국물을 늘 먹게 한다. ◦석고와 활석 각 3냥을 진하게 달인 후 꿀을 약간 넣고 오매 가루를 타서 먹인다. ◦여름철에 갈증이 종일토록 멈추지 않는 경우에는 납설수에 꿀을 섞고 약간 따뜻하게 하여 한 번에 먹인다.

李光州〔益命〕孫兒, 喜飲冷水, 至七歲, 重傷暴暑, 僅以蘇完, 然煩渴比前特甚, 大便或泄或痢, 而未有鮮血點滴, 已逾周年, 肌瘦骨立, 食飲全癯<sup>1</sup>, 試以止渴治痢之方, 終不見效. 余曰, 此兒自初多食肥甘膏粱之味, 積熱損傷脾胃, 兼有暑毒藏伏腸胃間. 乃用黃連豬肚丸, 兼服加味錢氏白朮散〔方見上〕, 諸症漸愈.

〔의안〕 광주 이익명(李益命)의 손자가 냉수를 즐겨 먹었는데 7살 때 폭염에 심하게 상했다가 겨우 되살아났다. 그러나 번갈이 전에 비해 유난히 심해졌고 가끔 설사를 하다가 마지막에는 선혈이 똑똑 떨어졌다. 그 상태로 1년이 넘어 비쩍 마르고 뼈가 튀어나왔으며 식음을 전폐하고 있었다. 시험 삼아 갈증을 멈추고 설사를 치료하는 처방을 써보았으나 결국 효과를 보지 못했다. 나는 "이 아이는 애초에 기름지거나 단 음식을 많이 먹어서 쌓인 열에 비위가 손상된 것이며, 게다가 더위까지 위와 장에 잠복한 상태입니다."라고 말하고는 황련저두환을 쓰고 동시에 가미전씨백출산(처방은 위에 나온다)을 먹게 하였더니 여러 증상이 점점 나아졌다.

1. 癯 : \*廢 ※규장각본 ↗

## 滯頤 체이

滯頤者, 口涎流出, 而漬於頤間也, 熱涎稠粘, 胃火炎上也, 宜通心飲〔方見臍風〕, 或瀉黃散〔方見諸熱〕, 冷涎清而自流者, 胃虛不能收約也, 宜木香半夏丸.

체이(滯頤)는 입에서 침이 흘러나와 턱 주변을 적시는 것이다. 침이 뜨겁고 끈적끈적한 것은 위의 열기가 올라오기 때문이다. 통심음(처방은 제풍에 나온다)이나 사향산(처방은 제열에 나온다)을 써야 한다. 서늘하고 묽은 침이 저절로 흘러나오는 것은 위기가 허하여 제대로 잡아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목향반하환을 써야 한다.

### ○木香半夏丸 ○목향반하환

- 治冷涎.
- 서늘한 침을 흘리는 증상을 치료한다.
- 木香、半夏麴、丁香 各五錢, 乾薑(炒<sup>1</sup>)、白朮、青皮、陳皮 各二錢半.
- 목향、반하국、정향 각 5돈, 건강(볶는다)、백출、청피、진피 각 2.5돈.
- 右末, 蒸餅丸麻子大, 一歲兒十丸, 二歲兒倍服, 米飲下.
- 이상을 가루 낸 후 증병과 섞어 마자대로 환을 빚는다. 1살 아이는 10환, 2살 아이는 그 2배를 미음으로 먹인다.
- 一方, 皂角仁五錢煎水, 泡半夏(炒), 細末, 每一錢, 米飲調服. ○鹿角細末, 米飲調服, 治熱涎.
- 다른 처방. 조각인 5돈을 넣고 달인 물에 반하(볶는다)를 담근다. 이상을 잘게 가루 낸 후 1돈씩 미음에 타서 먹인다. ○녹각을 잘게 가루 낸 후 미음에 타서 먹이면 뜨거운 침을 흘리는 증상을 치료한다.

1. 炒 : 炮 ※규장각본 ←



## 해제

### 개요

《급유방及幼方》은 1749년(영조 25) 조정준(趙廷俊)이 편찬한 소아과 의서이며, 미키 사카에의 《조선의학사》에서 조선 제일의 소아과 전문 의서로 그 가치를 인정 받고 있다. 특히 조선 의서에 흔하지 않은 의안(醫案)이 병증 끝부분에 붙어있어 더욱 가치가 높으며, 권말에 별도로 본초서를 축약한 〈본초발명本草發明〉과 〈식치발명食治發明〉을 붙인 구성 또한 특징적이다.

### 서지사항 및 판본

《급유방》은 13권 4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필사본이다. 서울특별시 종로도서관(이하 종로본)에 원고본이 소장되어 있다. 이밖에 한독제석재단 한독의학박물관(이하 한독본), 서울대학교 규장각(이하 규장본), 성균관대학교 존경각, 산청군청 산청한의학박물관(이하 존경-산청본) 등과 일본 행우서옥(이하 행우본)에 완질 필사본이 소장되어 있다. 존경각과 산청한의학박물관 소장본은 한 질이지만 현재는 나누어 소장되어 있다.

판본은 조현명의 서문이 있는 종로본·한독본·행우본과 그렇지 않은 규장본·존경-산청본으로 나뉜다. 지금까지 《한국의학대계》에 수록된 규장본을 통행본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나, 원고본인 종로본이 발견되었으므로 이제부터는 이 판본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 저자사항

조정준(趙廷俊, 1674-미상)은 경종 연간부터 영조 연간 사이에 활동한 의학자 및 관료로 본관은 횡성(橫城), 자는 중경(重卿)이다. 관직을 시작하기 전인 50세 이전의 기록은 찾을 수 없고, 다만 《급유방》의 서문으로 미루어 보아 30세 무렵부터 의원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고 짐작할 뿐이다.

50세인 1723년(경종 3)에 침의로 종6품 부사과에 임명된 것을 시작으로 1726년(영조 2)에는 조지별제, 1727년(영조 3)에는 서빙고별제를 지냈다. 1728년(영조 4)에는 양무원종공신(총8,773명) 2등(2,541명)을 녹훈받았다. 1730년(영조 6)에는 사근찰방을 지냈으며, 1732년(영조 8)에는 평구로 이임하여 1734년까지 평구찰방을 지냈다. 1735년(영조 11)에는 소아의(小兒醫)로 명성이 나있어 원자(元子)의 담당 의원으로 윤순(尹淳)의 추천을 받은 일이 있다. 1737년(영조 13)부터 남양감목관을 지내다가 1739년에 내의원으로 돌아왔으며, 1741년(영조 17)에 진주감목관을 지내다가 1744년에 다시 내의원으로 돌아와 아의(兒醫)로 활동하였다. 1749년에는 《급유방》을 저술하였고, 이듬해인 1750년(영조 26)에 연로하여 의약동참으로 감하되었다. 이 때 나이가 77세였고 물년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1750년 이후로 비정할 수 있다.

《급유방》의 서문을 쓴 조현명(趙顯命, 1690-1752)은 본관은 풍양(豐壤), 자는 치회(稚晦), 호는 귀록(歸鹿)·녹옹(鹿翁)이다. 조정준이 활동하던 시기에 좌의정을 지냈다.

## 구성 및 내용

《급유방》은 크게 총론 - 각론 - 부록의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총론은 권1에 해당하며 〈동방육기론〉, 〈소아론〉, 〈관형찰색〉 등 소아 치료에 필요한 19개의 의론을 담고 있다. 〈관형찰색〉이 운문인 부(賦)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의학입문》을 계승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권1 : 東方六氣論, 小兒論, 解毒法, 延生第一方, 洗浴法, 乳哺法, 保護法, 養子十法, 調護歌, 相兒壽夭歌, 觀形察色, 聽聲音法, 額脈, 虎口三關脈, 小兒脈法, 五臟主病, 子母補瀉法, 五臟相乘, 小兒病機

각론은 권2부터 권12에 해당하며 아래와 같이 총 66개 병증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병증마다 대개 증론 - 병인 - 방제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끝에 의안(醫案)이나 안어(按語)가 종종 붙어있다. 각론의 방제 중에는 범례에서 제시한 《의학입문》이나 《소아약증직결》에서 찾아볼 수 없는 방제가 상당 부분 등장하는데 이는 명대의 《증치준승證治準繩》 유과(幼科) 부분에서 찾을 수 있다.

권2 : 初生雜症, 撮口, 噤口, 臍風, 胎驚癇風, 胎驚夜啼 권3 : 變蒸, 丹毒, 胎瘡, 膿耳, 痘科說 권4 : 諸驚, 急驚, 慢驚, 慢脾風, 癇疾, 剛柔瘰, 天弔, 客忤, 內釣, 龜胸, 龜背, 解顱, 五軟五硬, 鶴膝 권5 : 麻疹, 痧疹(附癰疹) 권6 : 諸熱, 眼疾, 諸血, 口舌瘡, 煩躁不寐, 煩渴飲水, 滯頤 권7 : 疳疾, 魘病, 諸積, 癖積 권8 : 腹痛, 盤腸痛, 霍亂, 蛔蟲痛, 嘔吐(附泄瀉), 吐瀉, 痢疾, 腹脹 권9 : 浮腫, 黃疸, 瘡疾 권10 : 外感, 暑症 권11 : 咳嗽, 喘, 馬脾風 권12 : 大便不通, 小便不通, 大小便不通, 疝症, 陰腫, 諸淋, 尿白濁, 遺尿, 汗, 咽喉痛, 諸瘡, 雜病經驗

부록은 권13에 해당하며 본초서의 내용을 축약한 〈본초발명本草發明〉과 음식으로 치료하는 〈식치발명食治發明〉으로 이루어져 있다. 〈식치발명〉에는 식치로 사용하는 본초 중 곡식류, 과실류 등 총 105종을 골라 성미·효능·주치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놓았다.

권13 : 本草發明, 食治發明

## 의의 및 특징

《급유방》은 《소아약증직결》, 《의학입문》, 《증치준승》의 내용을 모아 요약하고 정리한 후 평생의 경험을 붙여 지은 소아과 의학 서적이다. 소아 치료에 대한 의론, 증론, 병인, 방제부터 의안과 본초 및 식치에 이르기까지 두창을 제외한 모든 내용이 수록

되어 있어 조정준 평생의 역작이라 할 만하다. 급유방의 가치는 다음과 같이 몇가지를 꼽을 수 있다.

1. 소아과 분야의 핵심 의론과 처방을 정리하고 요약하였다. 《급유방》에서는 큰 병증 아래에 세부 병증을 놓고 있고, 각 세부 병증마다 증상과 원인을 기술한 후 처방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서술방식은 《동의보감》 이후 조선 후기 의서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서문에서 말하는 '번다하지 않은 의서'를 만드려는 의도였을 것이다. 저자는 두창을 제외한 대부분의 소아과 질병에 대하여 이와 같은 형태로 요약하고 정리함으로써 비교적 적은 분량으로 소아 치료의 지식을 글로 압축해 놓았다.
2. 〈동방육기론〉과 범례에서 자신의 의학론을 피력하였다. 저자의 소아 치료에 대한 견해는 〈동방육기론〉과 범례에 어느 정도 드러나 있다. 《황제내경소문》의 〈이법방의론異法方宜論〉을 시작으로 지역이나 기후에 따라 자주 발생하는 병증이 있기 때문에 각기 다른 방법으로 치료해야한다는 이론이다. 또한 범례에서 강조하듯이 약보다는 잘 보호하는 것이 우선해야 하며, 문진이나 맥진보다는 형색과 음성을 우선해야 하고, 나이에 따라 약재의 수와 분량을 조절해야 하며, 약성이 강한 처방은 아주 조심히 써야한다고 시종일관 주장하고 있다.
3. 마진에 대한 풍부한 임상 경험을 간명하게 정리하여 후대 의서에 영향을 미쳤다. 저자는 두창에 대해서는 직접 경험하지 못했고 《의학입문》이나 《의학정전》에 자세하다고 하면서 내용을 비워놓았다. 이에 비해 마진에 대해서는 별도의 권을 두어 짧지만 비중있게 다루었으며, 기존 의서의 내용 이외에도 자신의 경험을 결부하여 임상에서 곧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서술하였다. 이로 인하여 《급유방》의 마진 관련 내용은 《마과회통》·《의종손익》·《마진》 등 19세기 마진 관련 서적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4. 각 병증 끝부분에 자신의 경험인 의안이나 안어를 붙여 실제 임상 현장의 치료 과정을 제시하였다. 《급유방》의 의안은 임상의 길잡이나 스토리텔링 소재로서의 가능성도 가지고 있다. 전통의서에는 치료에 관한 방대한 정보에 비해 부작

용이나 실패 사례에 대한 내용이 극히 적은데 의안 속에는 이러한 내용이 종종 등장한다. 또한 의안에 등장하는 홍헌보, 이의현 등 실존 인물에 대한 정보와 연결한다면 보다 풍성한 스토리텔링이 가능하기도 하다.

5. 조선 후기 의약생활의 일면을 엿볼 수 있다. 의안이나 범례를 통해 조선후기의 의료형태의 분위기를 짐작할 수도 있다. 의안에는 병이 있을 때 여러 의원을 집으로 초빙한 후 한 의원을 지목하여 치료받는 형태가 자주 등장하는데, 이는 조선 후기의 다른 의안들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형태이다. 또한 범례 마지막 조항에서 밝히고 있듯이 강한 약은 아주 조심스럽게 쓰는 것과 사약(瀉藥)보다는 보약 위주로 쓰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6. 본초와 식치에 대해 별도로 정리하였다. 마지막 권의 〈본초발명〉과 〈식치발명〉은 《급유방》의 부록격이다. 총론이나 각론에 나오는 약재와 음식으로 치료할 수 있는 약재만을 별도로 모아놓은 것이다. 특히 저자는 〈식치발명〉에서 《의학입문》 식치문 총론의 내용을 인용하여 '모든 사람은 음식으로 조리하고 고칠 수 있다'는 자신의 생각을 밝혀놓았다. 이와 같은 구성은 범례에서 밝힌 것처럼 치료보다 예방이 더 중요하다는 저자의 의학론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 참고자료

- 승정원일기
- 조선왕조실록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미키 사카에. 朝鮮醫書誌
- 박훈평. 조선시대 의관 총목록
- 조미숙. 조정준의 급유방에 대한 연구

· 박훈평. 조선, 홍역을 앓다 -조선후기 홍역치료의 역사

· 이정현. 급유방 판본 연구

\* 작성자 이정현

## 일러두기

### 판본 및 구성

- 판본은 원고본인 종로본을 저본으로 삼고 한독본과 규장본으로 교감하였다.
- 책의 구성은 내용에 따라 총론-각론-부록으로 재구성하고, 권차는 시작부분에 별도로 표시하였다. 총론은 권1, 각론은 권2-12, 부록은 권13에 해당한다.
- 처방의 내용은 가독성을 위하여 형태를 변형하였으며 글자의 차이는 없다. 포제법은 괄호로 묶었고, 나열은 '、'으로 구분했으며, 용량은 공백으로 구분하였다.
- 의안은 번역문 앞에〔의안〕으로 표시하였다.
- 저자의 의견을 적은 부분은 번역문 앞에〔안어〕로 표시하였다.

### 표기법

- 포제법은 괄호로 묶어 표시하였다.
- 대제목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번역하거나 한자 병기를 하지 않고 독음으로 달아놓았다. 처방명에 붙은 바로가기(처방은 ~~에 나온다)를 활용하기 위함이다.
- 단위를 나타내는 글자는 兩(냥), 錢(돈), 分(푼), 釐(리), 條(조), 字(자) 등으로 통일하여 표기하였다.
- 생강을 뜻하는 薑, 姜, 干은 薑으로 통일하였다.
- 龜의 독음은 인명이 아닌 경우에 '구'로 통일하였다. 두음법칙에 따라 尿, 衄, 泥가 첫음절인 경우에는 '요', '육', '이'로 처리하였다.
- 목단(모란), 목과(모과), 앵도(앵두) 등 현대 한글과 발음이 다른 경우는 한자의 독음을 그대로 표기하였다.

- 길경이나 지각 등 표기법이 다양한 본초는 桔梗이나 只殼처럼 하나로 통일하였다.
- 환의 크기를 나타내는 말은 오자대 · 속미대와 같이 독음으로 풀었다.

## 기타

- 글자의 오류가 있는 경우 교감기로 제시하였고, 교감 결과를 번역에 반영한 경우는 \* 로 표시하였다.
- 열람의 편의를 위해 속자, 이체자가 확실한 경우에는 표시 없이 정자로 입력하였다.
  - 예시) 湿 => 濕, 宜 => 宜
- 본문에는 다음과 같은 약속기호가 사용되었다.
  - ㊦ : 판독 안되는 글자
  - {} : 소주(小註)
  - { } : 양각
  - 【】: 음각
  - \_ : 격자(隔字)
  - 제목 설명 : 제목에 대한 설명문



## 출판사항

<참고> 글꼴 설정을 "원본"으로 지정해야 글자가 제대로 보입니다.

글꼴 적용 로딩시간이 있으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서 명 : 국역 급유방 상(及幼方 上)

원저자 : 조정준(趙廷俊)

국 역 : 이정현

발행인 : 김종열

발행처 : 한국한의학연구원

발행일 : 2018년 12월 13일

Renewal : 2019년 7월 31일

주 소 : 대전시 유성구 유성대로 1672

대표전화 : 042)868-9482

글꼴 출처 : 함초롬체(한글과컴퓨터)

### 기여한 사람들

이 책의 번역을 기획한 이는 오준호이고, 판본을 조사·수집하여 정본화 된 원문 텍스트를 만든 이는 이정현이고, 원서에 가까운 모습으로 eBook을 편집하여 온라인에 공개한 이는 구현희입니다.

copyright © 2018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이 책에 실린 모든 내용, 디자인, 이미지, 편집 구성의 저작권은 한국한의학연구원에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전한의번역서 e-book @ 한국한의학연구원

지원과제 : 《K18201》한의 고문헌 데이터 구축 및 분석 도구 개발

---



978-89-5970-395-1 (EPUB)

978-89-5970-404-0 (PDF)